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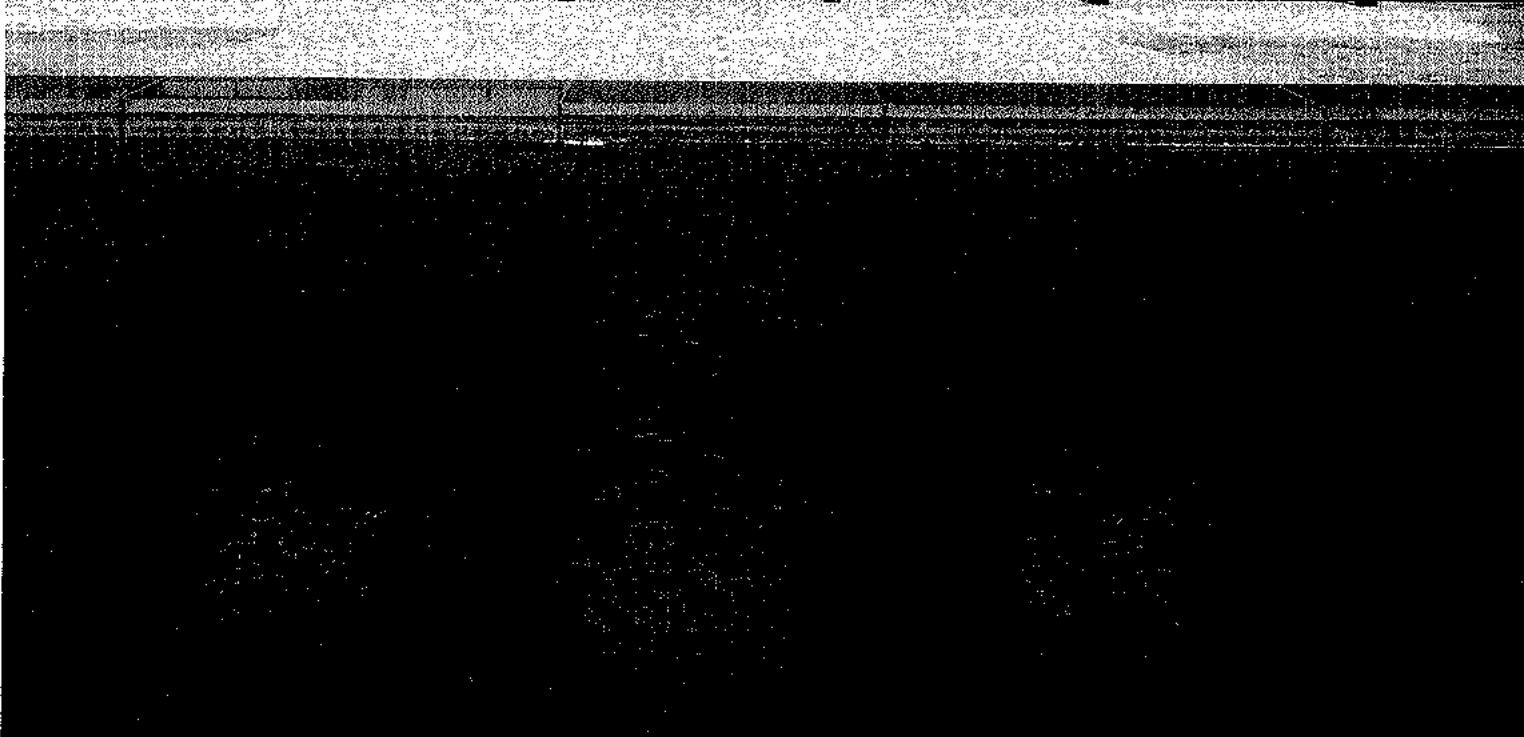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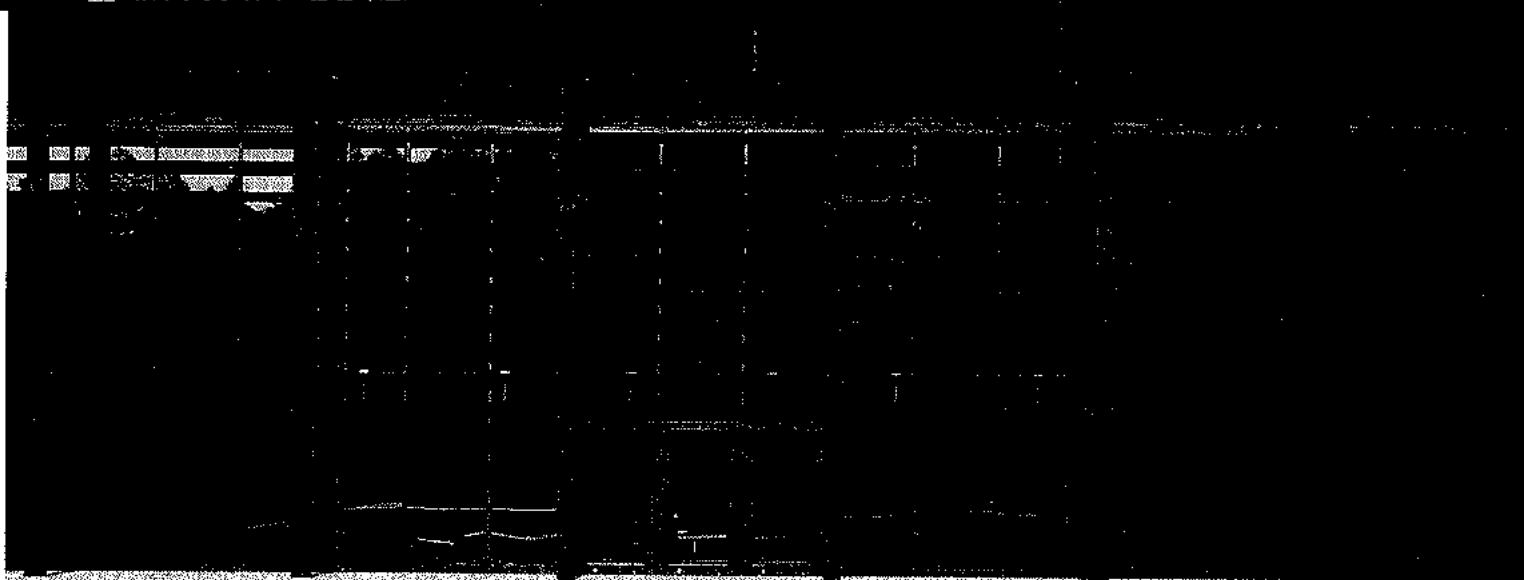
1997 **09** vol. 341

칼럼 _____ 정치를 위한 건축

시론 _____ 건축법,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작품리뷰 _____ 하남시청사

해외건축 _____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완)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피복두께 (mm)		지정
		건축물용	공장용	
로 기층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염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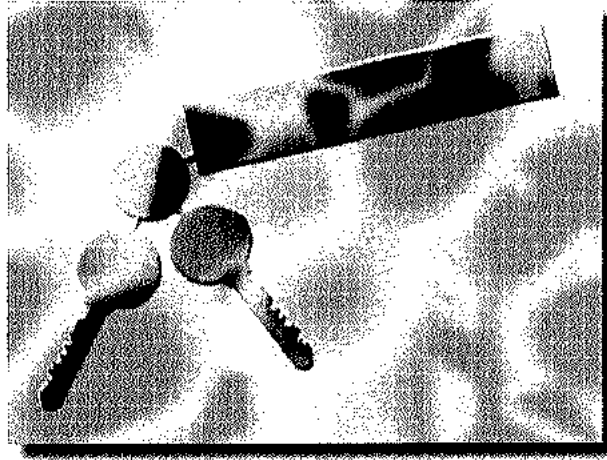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 (02)559-8181 FAX (02)552-6224
부산지점 : TEL (051)512-8181 FAX (051)516-9343
광주지점 : TEL (062)268-8181 FAX (062)268-8186

호텔, 모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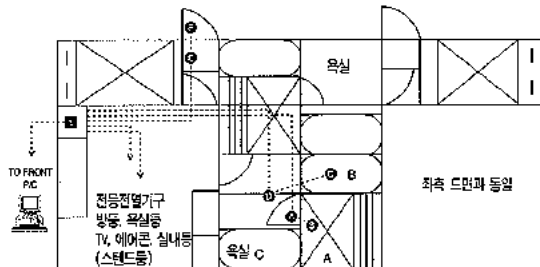
건축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드립니다.

숙박건축의 신개념

ROOM CHECKER GMS-2100 ISO 9001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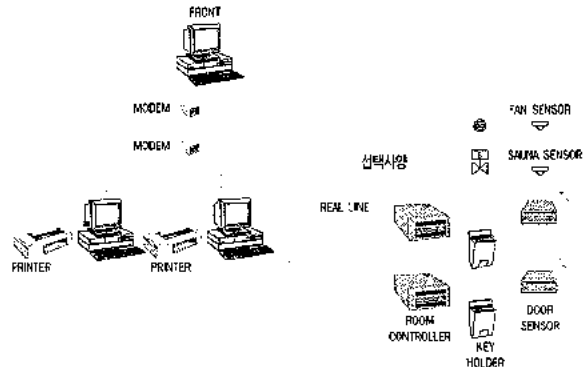


객실 사우나 도면



- ① ROOM CONTROLLER (NIGHT TABLE) A ROOM SALINA
 ② SALINA SENSOR B SALINA ELECTRIC VALVE B 온탕
 ③ FAN (환풍기) ④ FAN SENSOR C 냉방
 ⑤ KEY TAG HOLDER ⑥ DOOR SENSOR

객실 사우나 관리 시스템 구성



시스템 특징

- 간단한 설치**
기존 건물의 일부 개, 보수로 영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수일 내에 설치 가능합니다.
- 용이한 조작**
화면 메뉴방식과 마우스를 이용 컴퓨터의 지식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조작 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가격**
투자비를 6개월내 회수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드립니다.
- 신속한 객실 현황 파악**
전 객실의 투숙, 청소상태 등이 PC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 되어 있어 종업원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줍니다.

- 에너지 절감**
KEY - TAG HOLDER에 고객이 키를 삽입하는 순간에 객실의 전원이 공급되고 키를 빼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됨으로 전력 낭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에어콘 및 사우나 자동관리**
고객이 입실하기전에 프론트 PC를 이용하여 객실의 에어컨 또는 사우나를 가동하여, 고객의 시설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우나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지정된 시간내에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됩니다.)

지방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판매
·
시공



한국파워산업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6-15 성산 B/D503호

대리점문의 - TEL : (02)424-0320 · FAX : (02)424-0310

정보화 시대를 위한 올바른 건축 방법

건축물의 케이블 TV 수신 설비는 의무입니다.

전화나 전기처럼 케이블TV 수신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케이블TV 수신설비의 설치에 현행 건축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98조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케이블 TV 수신시설을 TV공동시청 안테나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건축 방법입니다.

TV 공동시청 안테나 결합방법은 화질이 불량하거나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청자와 방송국간의 양방향 통신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케이블TV 수신설비를 TV공동시청안테나와 별도로 분리하여 국산 3중 차폐 케이
블로 시설하면 보다 깨끗한 TV화질은 물론 앞으로 제공될 고속 인터넷, 주문형 비
디오(Video On Demand), 원격 교육·방법·방재, 홈뱅킹, 화상전화 등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중앙창호

본 사 · 공 청 인 천 시 서 구 석 남 2 동 223-40
목 재 사 업 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 기 구 사 업 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 설 관 령 사 업 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 울 전 시 장 서 울 강 남 구 논 현 동 130-9
기 름 건 축 자 재 백 화 절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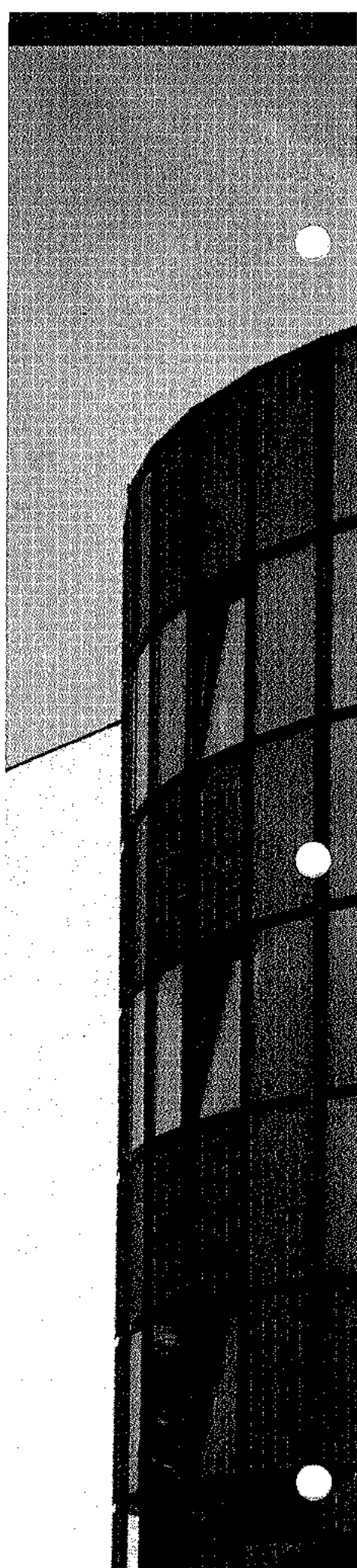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기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이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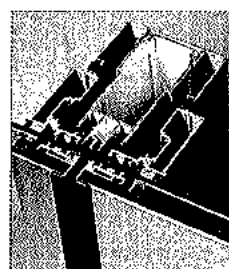
신감각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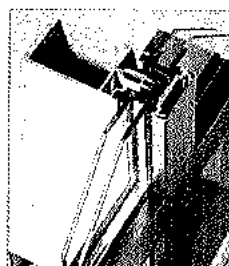
신미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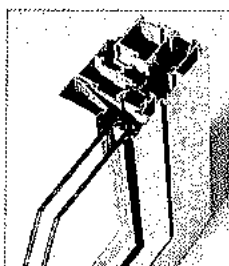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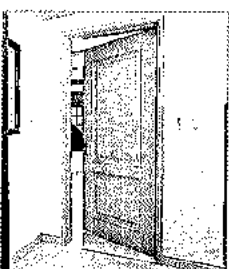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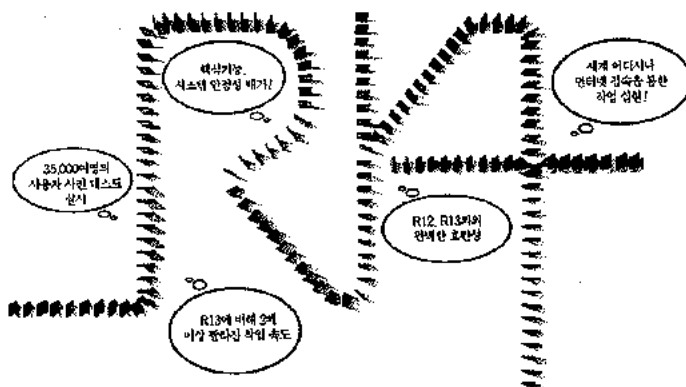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AutoCAD®

R14으로 버전업!!

CIMCAD

AutoCAD® R14로 버전업되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Object ARX 2.0을 이용해 Run Time Extension을 지원한다.
2. AutoCAD의 DCL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의 Resource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및 기능이 개선 되었다.
3. 보다 빠른 속도로 CIMCAD를 사용 할 수 있다.
4. Windows 95와 Windows NT4.0을 지원하며 NT에서 최고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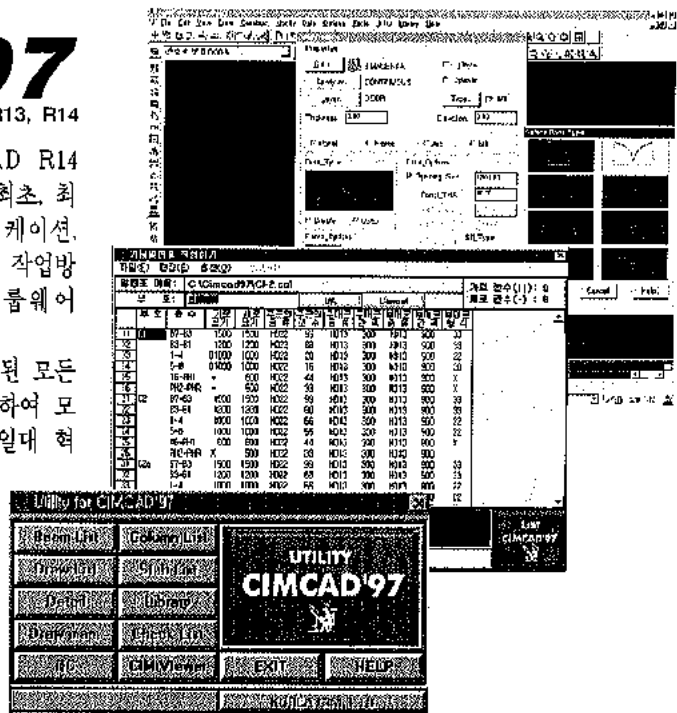
국내 최초, 윈도우용 건축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CIMCAD' 97

For AutoCAD R13, R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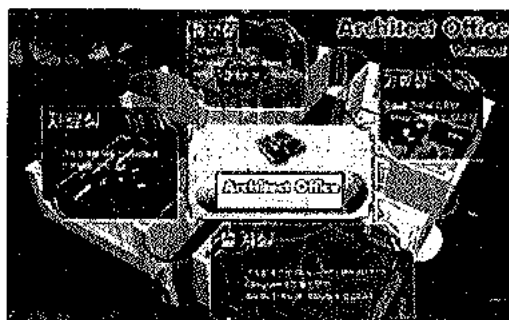
윈도우95용, 윈도우즈NT용 AutoCAD R14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국내최초, 최적의 윈도우용 AutoCAD 애플리케이션. CIMCAD' 97은 빠른 속도, 간편한 작업방식의 국내최초 건축설계용 그룹웨어 Architect Office와 함께 제공됩니다. Architect Office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장의 CD-ROM으로 통합하여 모든 사용자들의 설계업무 효율성에 일대 혁신을 몰고올 것입니다.

- LIST자동작성기능
- 명령의 단순화
- OBJECT COMMAND 기능
- Dialogue BOX에서의 모든 도면 제어기능
- 설치 및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 편리한 Viewer 제공



국내최초 건축설계용 그룹웨어-

Architect Office vol.1



한국씨·아이·엠의 Architect Office는 건축설계 작업에 필요한 유틸리티와 정보가 설계실, 자료실, 기획실, 홍보실 등 4개의 방에 집약되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건축설계용 그룹웨어입니다.

■ 특징

- Window95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 사용자에게 유용한 Utility 다수 포함
- 자동전화 걸기, 명함판, 전화번호부, 일정표 등 필요한 개인 Data의 보관 및 관리 기능.
- 건축업무에 관련되는 설계비 산정, 인허가 양식, 도면 검색 관리기능 등이 포함.

건축용 캐드시스템 전문회사
한국씨·아이·엠(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515-3167 (대표) FAX: 515-3169
고객지원부: 512-2682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원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상4년 371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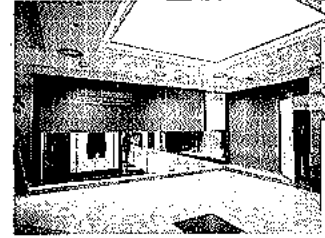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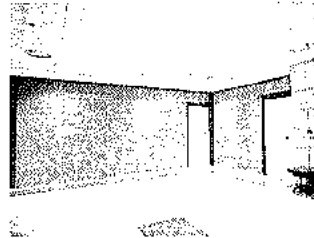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동시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시스템을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방빌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히호텔 • 숙조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이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스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사 :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3동 154-7

TEL : 838-4545(代)

FAX : 838-0474

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제조원 : **아주셔터공사**

한국통신·조달청·한일은행·대법원·도시개발공사·신한은행·한국마
사·세종시교육청·한국방송공사(KBS)·인천지하철공사·농수산물도
매서관리공사·문화부제책부설화재관리국·엘지건설(주)·임광도건
(주)·경향건설(주)·(주)금호엔지니어링·(주)대우·(주)미도파 건설
·현대건설(주)·(주)삼성건설·(주)인풍·삼한기업(주)·대륙토건
(주)·동국산업(주)·만안종합건설(주)·미래종합건설(주)·신태진 건
설(주)·명신건설(주)·임광도건(주)·한국이농통신·한국수박은행·중
소기업은행·법무부·수원대학교·경남대학교·중앙경리단·한국전
력공사·농부교요청·체신청·한남대학교·한국교원대학·(주)현대ENG
·삼성엔지니어링(주)·신동아종합건설(주)·(주)삼익건설·현대산업개
발(주)·LG화학연구소·(주)삼한까뮤·(주)프린스건설·쌍용건설(주)
·대국종합건설(주)·두산건설(주)·금호건설(주)·삼공건설(주)·선경
건설(주)·조달청·국토교통부·한국물가정보

·공무원연수원·국립중앙도서관·국립현대미술관·한국은행·농림수
산부농업공사·국립경관리공단·거양개발(주)·삼한건설(주)·대
한성명·삼한건설(주)·(주)대우·(주)신우실계·(주)자드환경건축·다솔건
설(주)·(주)세미건축·이동호건축사사무소·(주)POS-AC·
한국중공업(주)·중앙건설(주)·(주)금성종합건축·(주)동명기술공단·
(주)연희종합건축·(주)영원종합건축·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미래건축사사무소·서울환경건축사사무소·(주)예종합
건축사사무소·한보철강(주)·(주)해강·풍림토건(주)·(주)도화종합
기술공사·(주)건우종합건축사·(주)나라기술단·(주)범아종합건
축·(주)유양전기설계사무소·(주)제일전기설계·거화종합건축사
사무소·공간종합건축(주)·(주)영이건축·국왕건축사사무소

지속적인 UPGRADER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한 교육

건설/적산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건설 건설/적산업무의 모든
KSB
EMS-1,2,3,4
R C
K-FIN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 세종문화회관 | ● 유관순기념관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 국립극장 | ● 충현교회본당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 새라톤위커힐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계동 센터 예술 극장 |
| ● 롯데호텔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육군박물관 |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대전시민회관 |
| ● 이화여대강당 |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강원대학교 |
| ● 과천시민회관 | ● 원주자악문화예술회관 | ● 충북문화 예술회관 |

주요 생산품목

- | | |
|---------------------------|------------------------|
| ● STAGE & STUDIO | — CONFERENCE ROOM |
| — BASIC EQUIPMENT SYSTEMS | — SCHOOL STAGE |
| — THEATRE STAGE | ● DESIGN & ENGINEERING |
| — TELEVISION STUDIO | ● MANUFACTURE |
| — OPERA HOUSE | ● TURN-KEY PROJECTS |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해외에서도 호평받는 대림 미라톤

새로운 개념의 항균미라톤 탄생!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 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mira-ton

첨단 건축용 신소재 미라톤은
이태리Breton사의 세계 특허
공정으로 대림이 생산 합니다.

● 제품의 특징점

천연석이 표출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충격이나 기모, 화학 물질에
강합니다.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 x 1.2m 범위 내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싱크대, 세면대, 탁자 등)
에도 좋습니다.



ACCESS FLOOR 시공방법

● 항균미라톤이란?

Bioceramic으로 알려져 있는 Aluminosilicate계 담체에
항균성 금속이온을 담지시킨 무기 항균제를 투입하여 진동
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항균 지속성이 기존 표면처리 제품에
비해 탁월 합니다.
또한 항균 미라톤은 내구성 시험(대장균, 녹농균, 폐렴균) 후
사멸률 98% 이상이 입증되었습니다.

● 항균미라톤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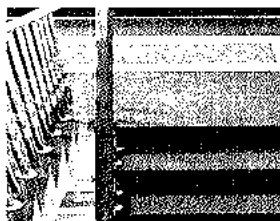
건축 마감재로서 일반 사무실, 병원, 식당 등 위생이 필요한
장소에 폭넓게 쓰입니다.

● SF(Sanitary Finished: 위생가공) 마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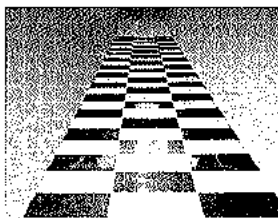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 KTL소비과학센터에서 우수 항균
제품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정성을 보증해 주는 신뢰 마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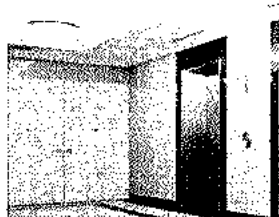
■ KTL 공인 위생가공 마크
KTL A-JKT-SC-0791
SH ISO 9001-15



제주 세원 빌딩-계단



일본 르네상스 호텔
-바닥 벽면 디자인



신당동 한성 빌딩 -ELEV.
바닥 및 벽체 디자인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



대림그룹
대림크리틱공업주식회사

본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림산업빌딩
Tel: (02)725-3501~9
Fax: (02)736-2903

조치원: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148
Tel: (0415)62-8101~4
Fax: (0415)62-8105

동경사무소:
Tel: 81-3-3580-4415
Fax: 81-3-3595-3225

인터넷 주소:
HTTP://www.
dcp.co.kr

R14 한글AutoCAD

Feel it!



R14는 유혹

당신이 AutoCAD R14와 처음 만나는 순간 빠르고, 스마트하고, 달라진 그 모습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 「한글 AutoCAD R14」 새로운 모습, 그 끝없는 유혹 - 직접 느껴 보십시오. 「한글 AutoCAD R14」

Faster You save time. You try more ideas
우선 속도면에서 DOS 버전 R12는 물론 R13보다
물리보게 빨라져 작업시간이 대폭 감소됩니다. 또한 새로운 AutoSnap™ 툴과
탁월한 편집 기능이 작업단계를 단축, 드로잉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Wizards에 위한 자동 설치하는 물론 새로운 Toolbar Shortcuts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까지 최적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단축된 시간으로 보다 많은 디자인을
전개하십시오.



Autodesk.

서울서 강남구 역삼동 676삼부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DESIGN
YOUR
WORLD

3D STUDIO VIZ

AutoCAD 기반 건축·기계설계 분야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

Take me!

초정밀세계의 1,000% 표현자유!

기계설계용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 3D Studio VIZ™



Windows NT의 성능과 속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 구조,
완벽한 멀티스레딩 방식의
3D StudioVIZ는 진정한 32-bit
객체지향형 응용 프로그램이라
Windows 95는 물론 단일 프로

세서 시스템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초정밀
기계부품 분야의 성공적인 3차원 개념 설계와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3D Studio VIZ로 해결하십시오.
Drag & Drop System

사용하기 쉬운 Drag & Drop 방식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설계 프로젝트
에서의 공동작업을 촉진시켜 드립니다.



고유의 AutoCAD 파일 지원

새로운 R14 포맷을 이용, AutoCAD와의 완벽한 호환을 통한 공동작업이 가능합니다.

STL 파일지원

프로토타입 모델링을 위한 STL파일로의 출력 및 확인기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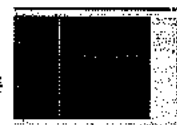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기계부품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재질과 특수한 조명 효과 기능은 물론
빠르고 정밀한 조명효과 제어를 위한 풍부한 조명개체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3D Object Snap기능

빠르고 정확한 3D 모델링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속도나 사용자
의 편리함에 있어 어떠한 설계 시각화 프로그램도 따라오지 못할
강력한 기능입니다.

기타 Map Scaler와 2차원 CAD드로잉 기능인 Fillet, chamfer, trim
offset 등과 같은 기계설계에 필수적인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KINETIX™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상부빌딩 17층 TEL: 02-527-0790 FAX: 02-527-0799

시민건축대학 강좌

1997년 강좌 (제6기)

기 간

1997년 10월 6일(월) ▶ 11월 17일(매주월요일)

장 소

대한건축사 협회강당

대 상

일반시민 · 학생 · 주부

수강료

무 료

강좌내용

일 시	강 령	시 간	강 령 내 용
10월 6일 (월요일)	개 강	13:30-13:50	Opening Ceremony
10월 13일 (월요일)	1강좌	13:30-13:50	건축제도(일반건축)
10월 20일 (월요일)	2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0월 27일 (월요일)	3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1월 3일 (월요일)	4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1월 10일 (월요일)	5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1월 17일 (월요일)	6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1월 24일 (월요일)	7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1월 31일 (월요일)	8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2월 7일 (월요일)	9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2월 14일 (월요일)	10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2월 21일 (월요일)	11강좌	13:30-13:50	건축제도
12월 28일 (월요일)	12강좌	13:30-13:50	건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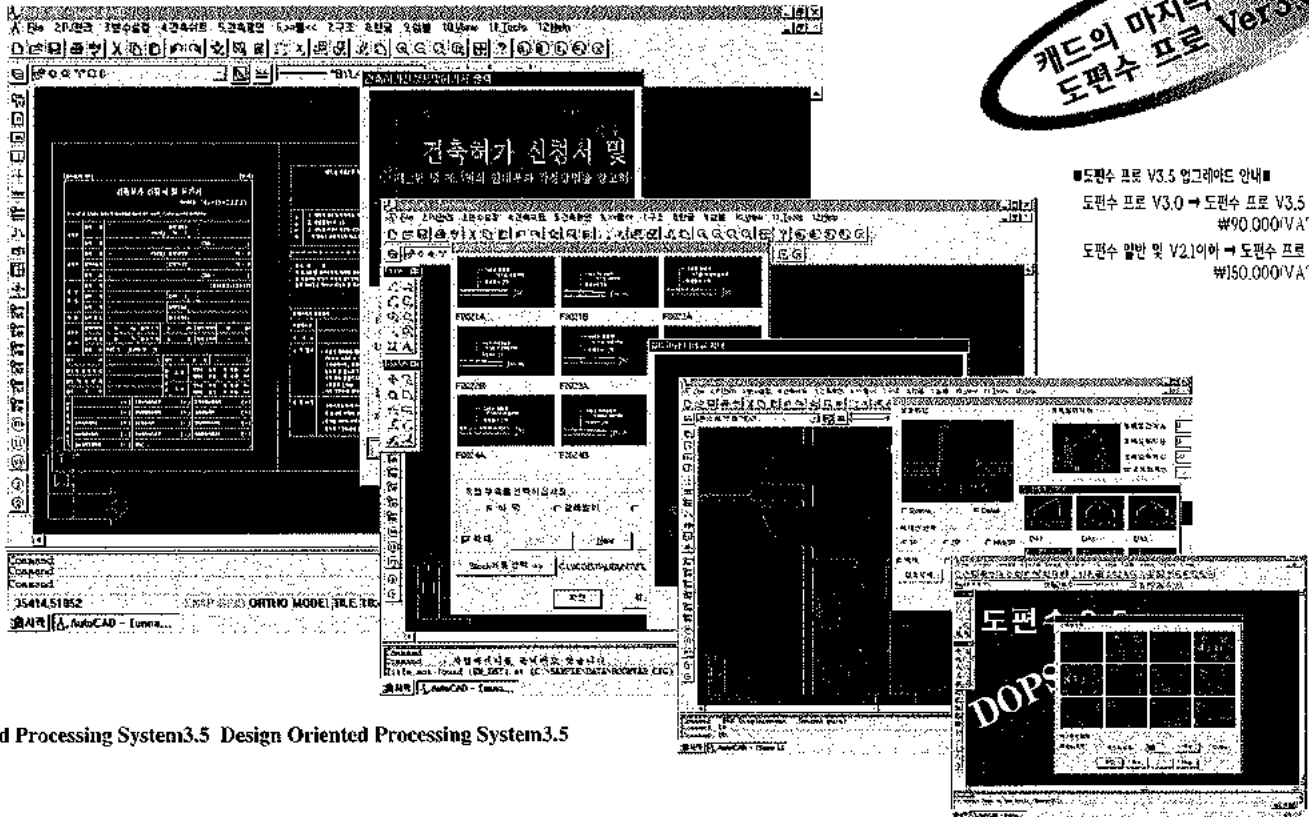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서울특별시 건축사회

Very Easy

도편수는 쉽습니다.
도편수가 설계사무소의
표준화를 이룩했습니다.

캐드의 마지막 자존심
도편수 프로 Ver3.5



Design Oriented Processing System3.5 Design Oriented Processing System3.5

한글(멋진글)내장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설정/도면정보관리/프로젝트개요/설계개요/건축허가서/동별개요/현장조사서
건축물 현황도면/설계진행방법/건축법규

건축도면 작성

- * 도면표지 및 도면목록/설계개요, 지적도, 구역도, 공동주택 규모산정/면적표작성/입면도
계단단면/창문단면/스케줄표 작성
- * 중심선편집/벽체자동드로우/벽체편집 등록/창호22타입/창호타입변경/창호심플, 디테일
- * 계단평면5가지/화장실 유니트/도면부호/건축유틸리티/라이브러리
- * 실명, 실번호 자동정리/마감상세입력/실부호갱신.조회,수정/실내마감표 자동작성/창호
일반사항/창호일람표 자동작성/창호상세도작성/창호라이브러리 등록

구조도면 작성

- * 철근, 철골 일반사항
- * 구조리스트 : 스톱,보,기둥,기초,옹벽,드라이에어리어,계단
- * 구조평면 : 스톱,보,기둥,기초,옹벽,드라이에어리어,계단,집수정,매트기초,레벨표시
철골리스트,단표시,부재부호,형강그리기

도편수 표준화

도편수는 각각의 건축사무실에 맞게 환경을 구축하는 강력한 표준화 도구입니다.
설계사무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AutoCAD와 데이터베이스를 접목 시
켰습니다. 도면양식, 각종타입, 부호,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으며,
공동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도편수3.5

DOS, Window95, NT용
상호(상행), 주소, 전화번호를 찾아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주)소라 정보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0 금원빌딩5층
TEL 546-1613(대표) FAX 512-9375

【협력업체】

서울: 캐드라인 02-564-8500 인포월드 02-406-0440 솔바테크놀지 02-585-7595
안양: 안정시스템 0343-87-6457 춘천: (주)한국지형정보시스템 0361-244-6600
대구: 캐드공시스템 053-652-1897 캐드랜드 053-743-6788 청주: 캐드미디어 0431-272-1024
대전: 캐드토박 042-255-1158 캐드미디어 042-545-2641 부산: 캄아트 051-863-4717
전주: (주)명진정보 0652-232-9901 진주: C.G.M 0591-747-8295 창원: 이림미디어 0551-68-6364
광주: 기공시스템 062-523-7100 장흥: 제일캐드콤 0391-651-717

전축사협회 CUG 이용안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콜 서비스에 CUG(Closed Use Group : 폐쇄 사용자 그룹)을 개설하였습니다.
- CUG란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 문서교류 및 정보제공, 전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입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CUG를 이용하여 협회현황 알림, 각종 현상공모 알림, 관련법률 제공, 각종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 CU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CUG담당자(사업부 정보자료과)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신규 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천리안 매직콜 가입 신청서를 본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 하면, (주)데이콤의 천리안 매직콜 이용 권한과 우리 협회의 CUG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
나. 천리안 매직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천리안 ID,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우리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 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
다. CUG 연결방법 : 천리안 매직콜에 접속한 후 "GO KIRA" 입력(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함)
-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우리 협회 CUG를 모든 회원이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회원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CUG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의 CUG에 가입하면 (주)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G 사용방법

1. 먼저 PC에 모뎀을 설치하고 PC통신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여기에서는 한글과 컴퓨터의 한네트를 활용 했음. 설치되어 있으면 생략)
(그림 1, 2)

2. PC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리안에 접속을 시도한다. (01421 등) (그림 3)

3. 천리안에 ID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면 "go KIRA"라고 입력하거나 초기메뉴에서 기업포럼/CUG를 선택하여 들어간다. 여기서 C.U.G란 폐쇄이용자 그룹이라는 뜻으로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대한건축사협회 C.U.G는 대한건축사협회 C.U.G.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C.U.G의 가입은 천리안 가입자이고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천리안에서 KIRAHEAD(본 협회 CUG관리자 ID)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본협회로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천리안 ID, 신청자 성명을 기록하여 FAX 583-6108로 보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4, 5)

4. 기업 포럼/C.U.G에서 CUG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3. 건축/건설/부동산"을 선택한다. (그림 6, 7)

5. CUG중 건축·건설 관련 업체를 모아둔 공간이다. 여기에서 대한건축사협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건축사협회의 로고와 함께 건축사협회의 초기화면이 펼쳐진다.
(그림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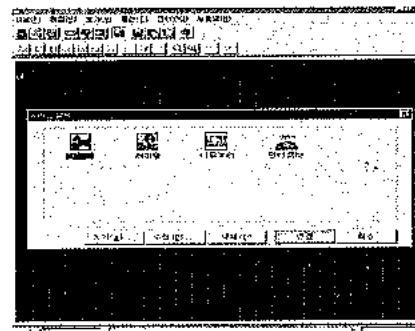


그림1. 통신프로그램에서 전화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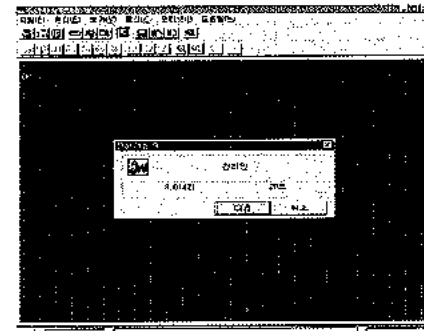


그림2. 전화걸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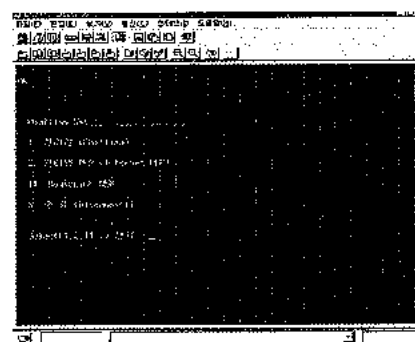


그림3. 천리안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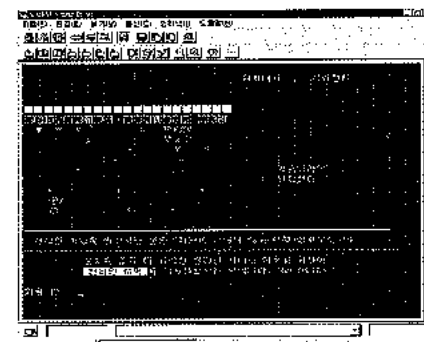


그림4. ID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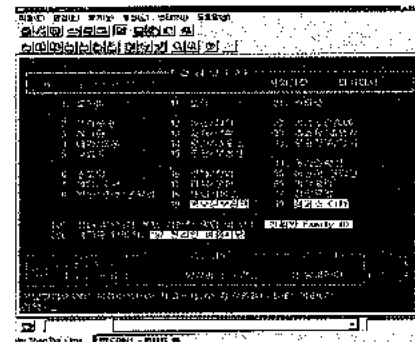


그림5. 천리안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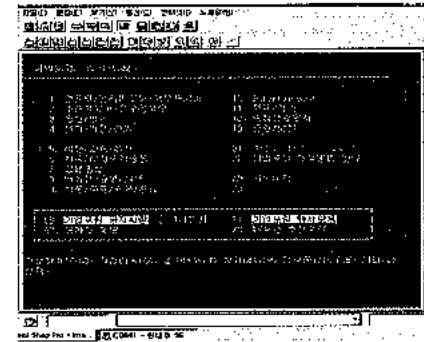


그림6. 기업포럼/CUG화면

폐쇄이용자그룹 (CUG) (여러분만의 작은 천리안!!)

- | | |
|---------------------|-------------------------|
| 1. 기업/무역 | 7. 정보 |
| 2. 컴퓨터/통신 | 8. 기관/협회/단체 |
| 3. 건축/건설/부동산 | 9. 데이콤/가타 |
| 4. 금융/증권 | 21. 동문+동문회/동창회/모임(SCUG) |
| 5. 교육/교육청 | |
| 6. 의료/중요 | |
| 77. cug 소개 및 문의처 안내 | 88. Cug문의 {0/42} |

CUG의 공개를 원하는 업체만이 위와 같이 OPEN되어 있습니다

정보찾기(FIND)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접속종료(X,BYE) 기타(Z)
선택) 3

그림7

건축/건설/부동산 (CUG03)

1. 동부건설
2. 쌍용건설
3. 고려개발
4. 주택사업공제조합
5. 대한건축사협회
6. 렌드니앤씨

 [CUG에 가입된 회원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보찾기(FIND)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접속종료(X,BYE) 기타(Z)
선택) 5

그림8

대한건축사협회

GO KIRA

[게시판]

- | | |
|-----------------|-----------------|
| 1. 협회현황 [0/ 2] | 3. 게시판 [0/ 14] |
| 2. 공지사향 [0/ 36] | 4. 회원소식란 [0/ 2] |
| [자료실] | [대화방] |
| 10. 자료실 | 40. 대화방 |
| [토론실] | [강의실] |
| 20. 토론실 | 50. 강의실 |
| [전자우편/FAX] | [설문조사] |
| 30. 전자 우편 | 60. 설문조사 |

- | | | |
|----------|------------|-----------|
| 91. 회원관리 | 92. 공지사향관리 | 93. 전체 메일 |
|----------|------------|-----------|

그림10

대한건축사협회

GO KIRA

[자료실]

00. CUG 자료실
[공개 자료실]

- | | | |
|-----------|----------------|------------|
| 1. 게임 | 2. 통신/Internet | 3. 유틸리티 |
| 4. 프로그래밍 | 5. 교육/업무/가정 | 6. 그래픽/사진 |
| 7. 뮤직/사운드 | 8. 워드/문서 | 9. 드라이버/기타 |

99. 천리안 공개자료실 검색 및 직접 DOWN 받기
100. 천리안 전체 자료실 검색

그림11

CUG 메뉴

(자료실) : 00. CUG 자료실 -

- | | |
|------------------------------|--------------|
| 1. CAD 관련 자료(도면 자료, 응용 프로그램) | |
| 2. OA 관련 자료(응용 프로그램, DATA) | |
| 3. 자재 관련 자료실 | 4. 시공 관련 자료실 |
| 5. 설계 관련 자료실 | 6. 법규 관련 자료실 |

(전자우편/FAX)

- | | | |
|------------|--------------|-------------|
| 31. 편지 쓰기 | 32. 편지 읽기 | 33. 보낸편지 확인 |
| 35. FAX 쓰기 | 36. FAX 배달확인 | |

(강의실)

- | | |
|--------------|--------------|
| 41. 묻고 답하기 | 42. 건축 이야기 |
| 43. 잡지 수록 기사 | 44. 해외 건축 동향 |

- 메뉴 개선의 특징

가) 초기화 화면 중 깨진 부분 수정(건축사협회 LOGO와 배너 및 공지사향 활용 가능하게)

나) 기존의 메뉴를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찾기 쉽게 개선

다) 기존의 정보의 일방적 제공 위주에서 정보의 공유를 유도

라) 차후 HOME PAGE를 위한 정보수집 창구 역할 수행

마) 지식강의를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 활용

바) 향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한 회원 인지도 확립 차원

사) 자료실 부문의 강화

그림9

신청접수처:대한건축사협회 CUG담당자(사업부 정보자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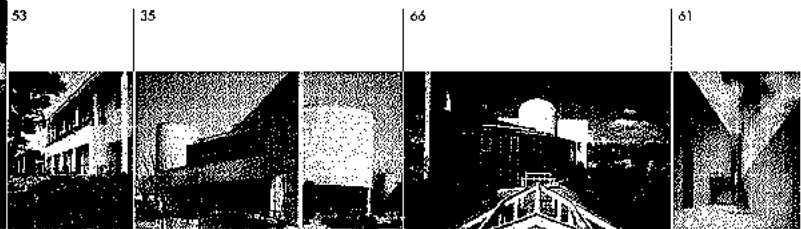
FAX 02)583-6108 · TEL 02)581-5711~4

상세한 내용 문의:(데이콤) TEL 02)581-3340(대) · FAX 02)581-3467

차례 1997 09 341호



LG화학대덕연구소(김태수+황두진작,
'97한국건축문화대상 大賞수상작)



칼럼	정치를 위한 건축	박길룡	22
시론	건축법, 어디로 가야 하는가	윤혁경	24

작품리뷰 / 하남시청사

작품-하남시청사	임장렬	30
대담-관형건물과 건축의 다양성	김정신	38
비평-건축가의 합리적 개별화	이공희	42

기고	해외의 대규모 목조건축 사례	김지덕	46
	인간에게 있어서의 건축	윤여욱	50

회원작품	산우관	최관영+정동명	52
	니콘프레시전 코리아(주) 사옥	이영희+정영균	56
	독도박물관	유 건+김혜정	60
	부천농협	김영석	64
	분당전람회 주택	강석원	66
	파정의 집	서보광	70
	서초동 K주택	이영성	74
	거여지구 임대아파트	김상경	78

건축기행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완)	장순용	80
------	------------------	-----	----

해외건축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건축(완)	박효순	88
------	-------------------	-----	----

건축마당	협회소식	96
	건축계소식	101
	전시리뷰	104
	인터넷 건축여행	108
	해외잡지동향	110
	현상설계	116
	계획작품	12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30
	신임회원	132
	게시판	133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 양원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h-Sang, Dong Jung-Ga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k(Cheong Moon Printing Co.)

Column

Architecture and Politics	Park Kil-Yong	22
---------------------------	---------------	----

Focus

Protest-On the Future of Building Codes	Yoon Hyuck-Kyung	24
---	------------------	----

Review / Hanam City Hall

Works	Hanam City Hall	Lim Jyang-Lyal	30
-------	-----------------	----------------	----

Interview	Public Offices and the Variety of Architecture	Kim Jong-Shin	38
-----------	--	---------------	----

Critique	Architect's Rational, Individual Solution	Lee Gong-Hee	42
----------	---	--------------	----

Feature

Large Scale Timber Architecture	Kim Chi-Tok	46
---------------------------------	-------------	----

What is Architecture to Human Beings?	Yoon Yeo-Wook	50
---------------------------------------	---------------	----

Works

Korean Industrial Bank Welfare Facilities	Choi Kwan-Young	52
---	-----------------	----

Nikon Precision Korea	Lee Young-Hee	56
-----------------------	---------------	----

	& Chung Young-Kyun	60
--	--------------------	----

Tokdo Museum	Yu Kun & Kim Hye-Jung	64
--------------	-----------------------	----

Pucheon Nonghyop	Kim Young-Suk	66
------------------	---------------	----

Pundang Residence	Kang Suk-Won	70
-------------------	--------------	----

Saint Paul's Retreat House	Suh Bo-Kwang	74
----------------------------	--------------	----

Seocho-dong K's Residence	Lee Young-Sung	78
---------------------------	----------------	----

Keoyo 6th Superblock Housing, Seoul	Kim Sang Kyung	
-------------------------------------	----------------	--

Architectural Tour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E)	Chang Soon-Yong	80
----------------------------------	-----------------	----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E)	Park Hyo-Soon	88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6
-----------	--	----

Archi-net		101
-----------	--	-----

Exhibition		104
------------	--	-----

Internet		108
----------	--	-----

Overseas Journal		110
------------------	--	-----

Competition		116
-------------	--	-----

Blueprint		127
-----------	--	-----

Statistics		130
------------	--	-----

New Members		132
-------------	--	-----

Bulletin Board		133
----------------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월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상남구건축사회/(517-3071) · 상동구건축사회/(484-6840) · 상북구건축사회/(3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미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8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88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8)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66-5651, 7930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6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233)857-6149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223-3088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553)52-3796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9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5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32)32-586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3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82)44-6029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635-3432 · 기창지역건축사회/(056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6662 · 마산지역건축사회/(0527)355-4846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63)33-9778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정치를 위한 건축

Architecture and Politics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Park Kil-Yong

한국의 정치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는 요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익히 듣고 있다.

얼마전 TV에 한국의 정치문화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려니 하였지만 그만한지는 몰랐다. 회기내 내 당파, 계파 간 정치이해의 압력으로 개회를 못하고, 간신히 회장이 열리면서 정족수가 되는지 모를 참석의원들이 그저 하품을 하거나 조는 모습, 전날의 숙취(宿醉)가 아직 덜 깬 모습, 아니면 전혀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회기 중에 골프치러 갔다가 T.V. 카메라에 들킨 의원은 그후 헛다를 얼마나 내렸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정문은 나리들 전용이니 방문 국민은 뒷문으로 돌아가라는 수위의 제지는 우리나라 정치 양태를 보여주는 압권이었다.

한 시대의 건축문화는 그 시대 사회의 아주 구체적인 반영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설계 경기에서 당선작을 못내고 중구(衆口)가 모여 설계되는 과정을 보면서 당시 한국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고식적(姑息的)이고 고류(固陋)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배치는 궁궐처럼 하고, 건축은 19세기 양식을 흉모하는 국회의사당의 조형만큼이나, 한국의 정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양태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주랑과 지붕이 나타내려는 과잉된 정치적 제스처, 돔의 형식과 공간적 내용의 괴리(乖離)가 쓸데없이 넓은 대지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디자인은 또 어떠한가. 건조하기 마련인 대청적 배치에 콘크리트 주심포 집에 최고 통치자의 국가주의 문화관이 배어 있다.

나는 이 청와대가 설계되는 과정을 보고 한국 최고 통치자의 문화적 퇴행성(退縮性)을 잘 알아보았다.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문화가 체육에 병합되어 문화체육부가 된다. 아닌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이 느닷없이 헐려 나간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건축은 자주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어왔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문화주도력이 국가주의 문화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정치를 위한 건축의 디자인들이 하나 같이 그들 내용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광화문의 종합정부청사(P, A & E, 미국 / 1967-70) 건립 때에도 그러하였고, 파천의 정부청사(1974년 설계경기)들도 그러했다. 그것은 최근의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 / 1989 / 공간건축)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서울 / 1993 / 현신건축) 등의 사법부 건축에서도 그러하다.

나는 독일 본의 의사당(Plenarkereich des Deutschen) 신축 현장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 의사당은 동·서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국회의 구조가 바뀌고,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가야 하느니 하여서 개회도 못하고 용도 변경하여야 할 운명이었다. 머하른 거기에서 한국 정치행태에 젖어 있는 나에게는 화한하게 들리는 건축가 Gnter Benisch의 개념을 들었다.

의사당은 전도 뿐만이 아니라 회의장의 사방벽이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 회의장 실내에서 사방은 녹음과 하늘과 바람이 풍경을 이룬다. 이 적극적인 투명성을 보고 나는 의원들이 회의에 집중력을 잃을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그러나 설명은 이러한 개방감 가운데에서 회의를 하면 의원들이 좀더 타협적으로 되고 부드러운 심성으로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주정부 청사는 가운데가 로툰다로 비어 있고, 그 지반층에 의회장이 배치되어 있다. 관광객이나 주민이건 이 가로에 개방되어 있는 로툰다에 나있는 회의장의 참문을 통해 의회 내부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성이 곧 민주주의의 정산일 것이다. 여기에는 골프치러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나 회의중 내리 졸고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건축이 정치를 만들지는 못하여도 건축이 정치를 열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로부터 프로젝트를 의회받는 경우에는 해달라는 대로 따라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공공건축은 국민이 만들어서 정치에게 임기동안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건축의 사용자와 소유주와 주체가 어디인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몇 개의 지방자치 청사와 동회(洞會)건축이 설계경기를 거치면서 그의 조형성이 크게 진보하는 것을 보았다. 미테랑의 빠리 그랑프로제 중의 경제·재정부(Le Minist 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Borja Huidobro, Paul Chemetov /1982-88)와 같은 혁명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관료주의 문화의 일탈을 기대하게 한다. 일본 東京都 新廳舎(新宿 /겐조단케丹下建三 /1986-91)처럼 돈(錢)의 미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국민·시민 문화와 열린 정치를 위한 건축의 개념을 기대하게 한다.

우리가 현재로써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작은 청사부터인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문화로부터의 일탈로 보이는 변화의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건축이 정치를 순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공공건축은 국가문화에 있어 보다 앞선 가치관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청사의 건립을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과 대지를 만드는 의사결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걱정이지만 한국의 행정·정치를 위한 건축을 열게 할 모처럼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설계경기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일차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개념이 우승하리라 생각한다.

건축법 - 어디로 가야 하는가?

Protest - On the Future of Building Codes

윤혁경 / 서울시 도시경관과 경관지도계장
by Yoon Hyuck-Kyung

간편한 법이 필요하다

법은 간단할수록 좋다. 최근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728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건축법이 '매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9.6%,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53.8%로서 전체 공무원 2/3 이상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실무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건축법을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유방(劉邦)이 전국을 제패하고 법3장(法三章)만을 가지고 통치했다. 법이 복잡하면 복잡한 만큼 국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이었다. 법(水+去)은 글자 그대로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이라 했다. 물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걸림이 없어야 한다. 오늘날의 건축법은 과연 걸림이 없는 법인가? 질의(質疑) 양(量)이 많을수록 걸림돌도 그만큼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 동안 한 두 번씩의 질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것은 이를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는 경우가 적다는 데 있다. 마치 암호 해독문을 받은 기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만든 당사자도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없는 회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법은 만들 때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론(異論)이 있도록 해서 안된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단해야 한다. 물론 기술법인 건축법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 과연 건축법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나 일선 행정기관들이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령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을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부족한 인력에서 시간마저 쫓기며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과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혀 용(龍)을 그리려다 이무기로 그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잦은 실무자의 교체는 전문가로 양성할 수가 없을 뿐더러 행정의 일관성마저도 유지할 수가 없다. 더구나 법 개정 추진 중 장관이 바뀐다고 개정 방향이 전면 수정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 하나하나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몇 사람만이 책상 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입안(立案)을 담당할 공무원과 건축학회와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등 건축 관련 3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일선 행정 실무자와 시공자 등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조언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 법규 입안 실무자들을 구성하여 적어도 2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입안된 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참여와 공청회와 토론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 정도로 운영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반가운 것은 작금에 건축사협회 내부에 건축연구소가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건축법 분야에 대한 연구 검토가 진행되리라 기대를 해 본다.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무릇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각기의 조문(條文)은 목적에 부합된 내용들이어야 한다. 목적은 현실

의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은 과연 어떠한가?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목적은 변함없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그 나라와 그 시대 정신을 표출하는 중요한 바로미터(Barometer)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건축법 목적이 너무 단세포적이고 표피적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1934년도에 제정된 조선 시가지 개혁령의 목적이 1962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건축법 목적에 그 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 실령 1962년 당시의 시대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강산이 3번이 넘게 변했고 경제여건과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우리의 사고가 달라진 지금에 와서는 이를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법의 존재 목적을 건축문화의 창달에 있다고 감히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과 기능, 미관의 향상은 건축문화 창달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건축법이 규제 일변도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세포적인 목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적어도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이룩할 목적으로 건축법이 제정되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축설계자의 창작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 가능한 규정이어야 한다.

법은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규정일 때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 책임과 의무 규정은 특히 명확히하여 행정담당자의 재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건축법 제77조의 2 규정은 부실 설계·시공·감리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장 무거운 벌칙 규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데 '중대한 손괴'란 어느 정도의 손괴를 말하는가? 건물의 전부가 붕괴됨을 말하는가 아니면 구조체(構造體) 일부가 파손된 경우까지를 말하는가를 구분할 수가 없다. 또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다' 함은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의 여부로 결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처만을 입힌 경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건축법 제26조는 건축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인데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지는 아니면 어디까지 변경 사용해도 좋

은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발표 9는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건축조례가 정할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당해 전용공업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규정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인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겠는지가 문제다. 이런 모호한 규정일수록 행정 담당자의 재량 범위가 넓고 부조리의 개연성도 그만큼 클 것이다.

경사 지붕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경우 하나의 목적은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 규정은 당초 동 기준이 도입될 1976년도에는 대지의 남·북 양측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대지 규모가 협소한 현실을 감안하여 1978년부터는 북쪽으로만 떨어지게 개정하였다. 남쪽도 별도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주 스스로 일조 거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책상물림의 단견(短見)이 왜곡된 주거환경을 만들고 말았다. 남쪽은 법정 최소 공간만 확보하고 남쪽으로 2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불상사나온 건축물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전통 남향방이 주거형태를 무식한 건축법(?)이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의 공간 하부를 이용한 다락을 허용하였더니 위반사항이 빈발하였다. 아예 1개 층으로 건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빈자 높이 1.8m인 기준을 다락의 고가 1.5m를 넘지 못하도록 강화 개정하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주나 사업자들은 이에 평 슬라브로 시공하고 말았다. 그 결과 누르고 파란색의 물탱크들과 불품없는 성냥갑 건축물만이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말았다. 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사지붕의 건축물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음을 공감할 것이다. 물론 해당 국가의 풍토나 기후,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 의해 건축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사지붕이나 모임지붕만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우리나라 건축양식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품없는 평지붕밖에는 찾아볼 수 없지 않았던가?

주택 200만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도입하였다.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는지도 몰라도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건축문화도 30년 이상을 후퇴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시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공간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 전체의 대강을 나누고 건축법에서 개별건축을 하게 함으로 이룩된다. 도시계획은 거시적

인(Macro) 평면계획인 반면 개별건축은 미시적인(Micro) 공간계획이다. 현재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도시계획부서는 건축부서에 책임을 미루고 건축부서는 도시계획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여 생긴 문제를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50m 대로변이나 상업화된 지역까지 지정된 경우가 많다. 동 지구에는 2층에서 4층만 건축하게 하고 잘못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통하여 그 층수를 완화하게 하므로써 건축법이 일관성을 잃게 하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일반상업지역을 지정하여 고층 고밀 건축이 가능하게 하여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데 예를 들어 도곡동에 들어설 102층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건축법만으로 도시기능을 적절히 유지토록 하기가 어렵다. 건립을 반대하는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을 나무라기 보다는 일반주거지역 옆에다 상업지역을 지정한 한심한 행정을 탓해야 할 것이다. 일반주거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건축의 중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도시설계(都市設計)나 상세설계(詳細設計)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범위가 도시 전체로 볼 때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편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1993년도 건축법 개정 작업시 집단 규정 일부를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추진되는가 싶더니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다.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일조, 기준, 지역지구의 용도제한 등 도시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규정은 도시계획에서 공간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을 위하여 제정된 기준인가?

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밀도 상한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의 지정 목적에의 부합 여부와 도시 기반시설에의 부담 여부를 용적률로써 관리하는데 현행 용적률 기준으로는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 지하 굴토 기술의 발전으로 지하부분의 바닥면적이 지상층 바닥 면적에 버금가는 실정이다. 지상층 용적률만으로 밀도기준으로 삼기에는 효용성이 없다.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건폐율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건축계획 단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대지 안의 통로와 조경면적을 고려하며,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공개공지 규정 등을 지키

다 보면 건축물의 배치가 자연히 결정되는데 굳이 건폐율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형 건축물의 경우 대개 건폐율은 40%에서 50% 범위 내에서 계획되는 편이다.

한계기준에서 적정 기준의 도입이 가능한가?

건축법의 최소기준과 최대기준만 있을 뿐이며 적정기준이 없다. 건축주가 선의적으로 적정기준을 선택하리라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규모를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건축사가 유능한 건축사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적정기준을 선택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기준 등 집단규정은 상한치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의 설치기준, 대지 안의 통로와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하한치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 이하라 할 때는 주변 입지여건과 관계없이 일반주거지역에 모든 건축물을 40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건축물을 400%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장래 확장 등을 고려한 적지 용적률이 250% 정도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만으로 건축하게 하고,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통하여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주와의 협상을 통해서 강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도시설계지구에서는 이러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부족한 기반시설을 감안하여 공개공지규모를 추가 확보케 하고, 설치 위치를 지정한다. 대규모 건축에 따른 필요 주차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는 완화차선을 신설케 하는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적정규모의 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모든 도시를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건축법에서 이를 다룰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과 건축기준이 적절히 조합된 기법(Zoning Control)을 도입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용적률 뿐만 아니라 기타 규정된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적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준의 운용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 가회동은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다. 한옥촌의 특장에서 추녀와 굴목길을 빼놓을 수 없다. 이 한옥촌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게 이격되게 건축되어야 한다면 과연 한옥으로 재건축할 수 있겠는가? 문화재적인 건축물의 개축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이처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이나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일부 기준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보는 게 어떨까? 서울과 시골의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

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강변을 따라 들어선 러브호텔, 읍·면 지역에서 산 등성이를 훼손하면서까지 들어선 고층아파트 등을 보면서 과연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인가를 재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건축법에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법도 있다.

상업지역 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 완화구역(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말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높이제한을 완화할 경우 특히 시비에 말릴 것을 염려하여 상업지역 전체를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는 현실이다. 법 운영상 융통성을 부여함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행위를 단순 경제논리로만 볼 것인가?

건축행정이 경제논리만의 지배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에서도 공장의 건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소형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인데 바로 인접한 곳의 대형 관광호텔은 건폐율 70%, 용적률 700%로 완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서 건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법을 만든 것이다. 학교시설이나 공장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건축법을 정면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언젠가는 특별한(?)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그 다음엔 종교시설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고, 연립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고, 백화점이나 시장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지 말란 법 없다. 특수목적(특수목적)을 위하여 인접지 같은 여건의 건축물들과 차별 규정을 만든다면 이미 건축법이 존재해야 할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다.

건축법은 왜 존재하는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인가? 부조리를 일삼기 위해서 만든 법인가? 오직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제 땅에 제 건물 짓는데 무슨 규제가 그리 많으냐는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봉산 중턱을 사유지라 하여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소유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좋고, 입주자는 모든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기존 저층 주택단지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도 좋다는 것인가? 인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사유권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조업, 수리점의 면적이 200㎡인데 이를 500㎡로 확대하려 한다.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환경관련법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자연환경은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자산이므로 잘 가꾸고 다듬어나갈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 한번 잘못 들어선 건축물로 망쳐진 환경이 다시 회복되리라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를 주문한다.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정말 필

요없는 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 지역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더구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뭔가 한건 개혁(?)을 했다는 실적 위주의 개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그들의 열정에 공장을 세우고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자. 그래도 환경을 망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런지 모르겠다.

건축심의가 과연 폐지 대상인가?

건축심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심의에 들어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건축주가 원하는 바와 상치된 결과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축심의(공동주택의 사전결정, 미관지구와 도시설계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 교통영향평가, 예술장식품에 대한 심의 등을 망라한 모든 심의를 말함)의 문제점이라 일컫는 요인은 대충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의를 위한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건축 및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 굴토, 에너지, 색채, 미술품장식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설계변경이라도 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둘째,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다. 건축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다. 자금 조달 계획과 분양시기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경우 입는 손해가 적지 않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매주 심의를 개최하므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변두리 지방도시의 경우 심의건수가 부족하다하여 한 달에 한두번만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나 재심 판정을 받을 경우 2~3달 이상이 소요된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타지역 설계자에 대한 텃세를 부린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셋째,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이다. 현실 여건도 모르는 몇 사람의 위원들이 심의를 좌지우지하며 권위(?)를 내세우면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심의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되짚어 볼만한 일이다.

넷째, 심의대상과 심의종류가 필요 이상 많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 본다. 그 중엔 심의의 종류와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지역 평가에 그쳐야 하며, 굴토와 에너지 심의는 전문가의 설계로 대체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의 공간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부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한치로만 규정된 현행 규정 안에서 설계자가 소유자의 개발욕구에 반하는 설계를 할 수가 없다. 인접지

의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자연환경 등 제반여건에 부합되게 계획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가담당자에게 이의 조정을 일임할 경우 부조리의 개연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그래도 심의를 통해서 적절히 조정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건축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도시관라는 야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건축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 후에 심의를 폐지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건축설계 기준의 Code화

모든 기준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공통규정과 절차제도 규정, 집단규정을 제외한 개체규정은 건축법에서 분리하여 설계기준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이 다루어야 할 부분은 법령으로 분류하고 설계 등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별도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자. 현재 운영되는 기준들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부족한 규정을 보완하여 미국의 건축기준(Uniform Building Code)정도로 만들 수는 없을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은 없는가?

건축과 부조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가? 그 동안은 부조리 해소 차원에서 건축법의 개정을 다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가전 타 법에 의한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개별 협의하던 것을 건축허가부에서 일괄협의토록 하였으며, 중간검사제도를 감리중간보고제도로 변경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입을 막았다. 더구나 사용검사도 감리건축사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거 사용인만 하도록 바뀐 것도 부조리 개연성을 없앨 목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더 간소화할 것은 없는가?

감리중간보고서제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용승인제도로 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감리자의 사용 통보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법 건축물의 점검도 건축사협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러나 이경우 민간단체의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들의 설문 결과 36.2%만 긍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한 반면 45.1%가 민원과 위법 건축물이 증가되었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건축허가 절차도 과감히 생략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건축허가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건축허가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형식적인 검토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3일만에 건축허가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이나 프랑스에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6개월 정도의 협의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허가는 엄격히 하되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는 민간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위법의 유형은 과거나 현재가 다르다.

소규모 건축물의 위법 유형을 보면 지하층을 노출하거나 옥탑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발코니를 거실이나 주방으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위법 유형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몇 가지 규정만 고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노출된 지하층을 1층으로 인정하면서 일조 기준을 종전 2층, 8m로 바꾸면 된다.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높이에 산입되지 않음을 기화로 사후 위법이 자행될도 모든 부분을 높이에 산입되되 일조나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조정해주면 된다. 발코니도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용적률, 시공자와 감리자 선정기준 등을 조정하고 과세기준 또한 조정해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건축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위법 건축물을 어찌할 것인가?

한 때 법을 지키면 손해로 여겼수룩 이익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선거철만 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건축물은 특성상 위반된 부분을 두부 자르듯이 시정할 수가 없다. 위법과 시정 여부의 확인에서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열리고 설킬 때는 또 다른 부조리 개연성을 안게 된다. 건축직 공무원들은 위의 설문에서 처벌이 경미하여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33.5%)과 벌과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4.1%)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고 사용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54.3%나 되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임을 표시하고 영업허가 등 타 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재산세 등을 종파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게 어떨까?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위법 상태를 지속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위법을 시정한다면 표시된 위법 건축물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사족(蛇足)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한건 해결했다는 실적주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를 해 보자.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주도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남시청사

Hanam City Hall

임장렬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Jyang Lyal

수도권의 동남에 위치한 하남시는 일찌기 백제초기에 백제의 도읍으로 선정되어 근 400년간 이어온 역사적 古都로서 수려한 산수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던 하남시는 인접한 서울, 광주, 성남, 구리시 등의 교통 중심지로서 80년대 이후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왔고 수려한 자연속의 전원 도시로서 2000년대의 무궁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하남 시청사 계획은 성장 일로에 있는 하남시 도시 기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공간을 창출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계획부지는 하남시 덕풍동 일대의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신장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평지로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하며 대지 서남측에 근린 공원이 접해 있고, 15m 도로 건너편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다.

이 청사 계획안은 시민들의 세움으로 세워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워지는 건물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자인 시민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우선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상징성 역시 인지도와 친화력을 우선 고려한 디자인을 하였고, 이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기능과 시스템을 고려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업무 능력의 최적화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계획하였다.

공공건물로서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수탄으로서 건물의 전면에 녹지공간과 광장을 조성하였고 건물은 기능상의 요구에 의해 본관동, 의회동, 보건소동, 민원동을 별동으로 계획하여 사용주체에 대한 건축상의 배려를 하였다. 본관동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민원동과 의회동을 본관동 우측 후면에 보건소동을 배치하였고,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위해 각동을 회랑으로 연결하여 매개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옥상정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며 우천시와 하절기에 Shelter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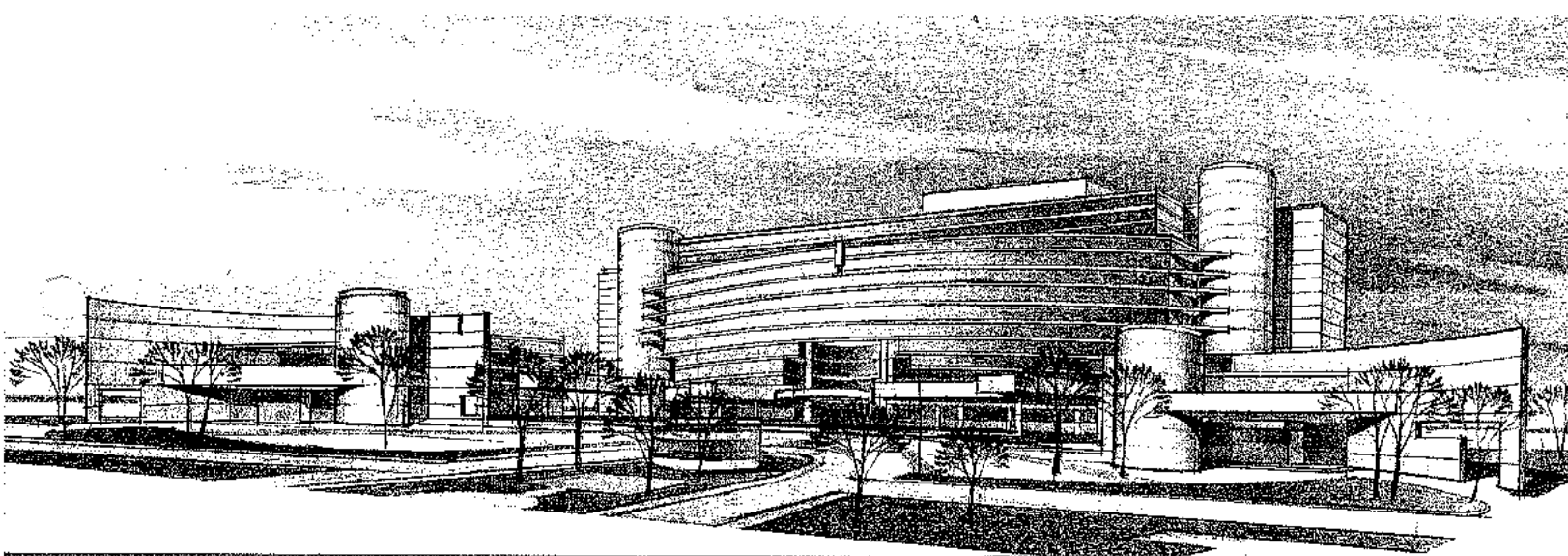
주진입로 전면의 곡선에 의한 접근대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배치계획에서 제시되어진 쌍곡선의 결점부에 중앙광장을 설치하고, 주위에 회랑 개념의 캐노피를 설치함으로써 표층성을 강조하였다.

Mass 계획은 한강의 줄기에 위치한 하남시의 지리적인 요인과 古都로서의 전통성을 고려한 강하의 흐름 전통 처마곡선을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조형성을 강조한 역동적인 표현으로 기존청사가 가지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 있는 Mass 구성을 하였다. 외벽은 석재와 곡면으로 처리된 Glass의 재료 대비와 부분적인 디테일 처리로 적당한 긴장감을 주었고, 수평선의 반복 라들에 의한 생동감, 상승감, 안정성, 질서를 추구하였다.

끝으로 많은 노력과 고심 끝에 맺어진 결과물로서의 청사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명실공히 시민의 터가 되었다면 한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신장지구 15-1, 15-2	3회, 천정 ~ 9THK 집성보드위 12THK압면	
대지면적	26,770㎡	흙음덱스	
건축면적	5,430.09㎡	주차대수	173대
연 면 적	20,077.31㎡	조경면적	4,974.79㎡
건 폐 율	20.28%	설계담당	이명호
용 적 륜	48.20%	설계기간	92. 5~92. 10
규 모	지하1층, 지상 4층	공사기간	92. 10~94. 10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구조설계	강봉현 구조사무소
설비방식	공기(CAV)+FCU	기계설비	심기엔지니어링
외부마감	30THK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	전기설비	확신엔지니어링
내부마감	바닥 - 2.5THK 디럭스타일 벽 - 수성페인트	조 경	도화종합공사



The city of Hanam, located in the southeast of the capital region, was the capital of BaekJae Dynasty and has natural splendors and remains along from its 400 years of history. In the eighties, Hanam has developed into the center of transportation among the neighboring Seoul, Kwangju, Sungnam and Kuri, and now a proposed site for idyllic housings for the 21st century. The new City Hall project seeks to balance the rising city's development and provide an ideal space of service administration and cultural heritage. The site is a plane area at the border of existing urban fabric of Dukpoong-dong and now-developing Shinjang-dong. A park is at the south-west of the site, and across the abutted 15m road is a parking lot. The project, built by the citizen's taxes and whose main purpose is to serve the people, started out primarily in concerns for the accessibility and openness to its users. It was to adapt the symbols based on public intimacy, and to arrange the effective layout of various functions and facilities. As a public service building, it placed a concourse and green area on the front, providing resting areas for the public. The functional needs called for an individual establishment of the main hall, civil affairs office, city congress center and public health center. The main hall formed the center, while civil affairs office and city congress center were placed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main hall respectively, and the health center located itself at the rear right side. These divisions are connected via galleries that mediate spaces and function as a roof garden, providing shelter for the users. The curved form on the main entrance presents a clear orientation to the approaching people, while the center plaza, placed at the junction of two hyperbolic curves, and its canopies suggest open capacity.

The volume implies the flow of the river, as Hanam is located along the Han River, and the roof form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modern adjustment of these characters results in a dynamic expression, overcoming the static image of previous government offices, replacing it with a friendly one to the citizens. Exterior finishing with stone and glass raises contradictions in materials and details, and the horizontal band that runs in repetition provides vigor, uplift, stableness and order. A product of effort and labour, the City Hall will hopefully become a place for the people, injecting new energy into this old city.

Site Hanam Shinjang District 15-1, 15-2

Site Area 26,770m²

Building Area 5,430m²

Total Floor Area 20,077m²

Building Coverage Ratio 20.28% (Official Limit 70%)

Gross Floor Ratio 48.20% (Official Limit 1,100%)

Total Floors 4 Stories, 1 Basement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Partial Steel Structure)

Floor Height 1st Floor 4.8-5.1m, Other Floors 3.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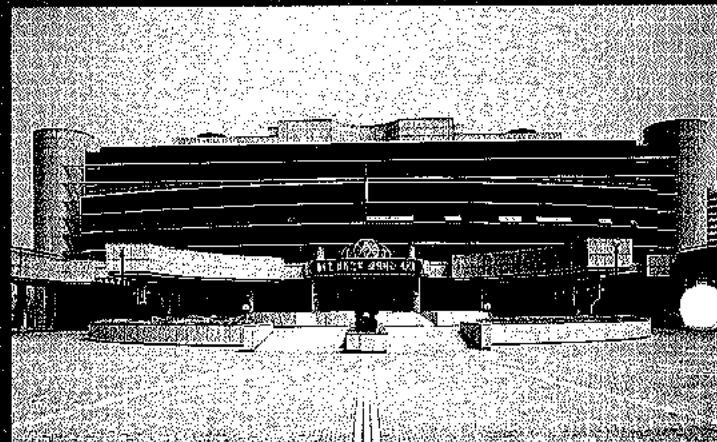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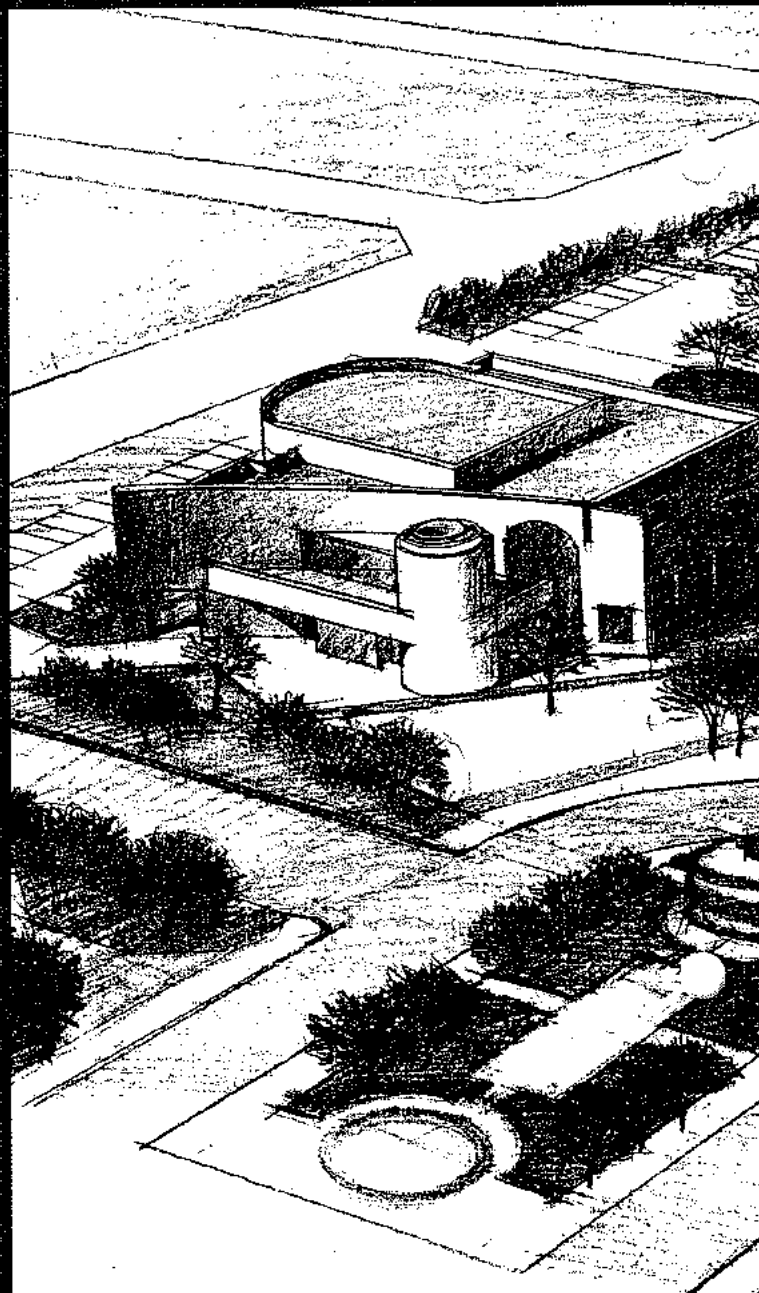
Installation CAV + F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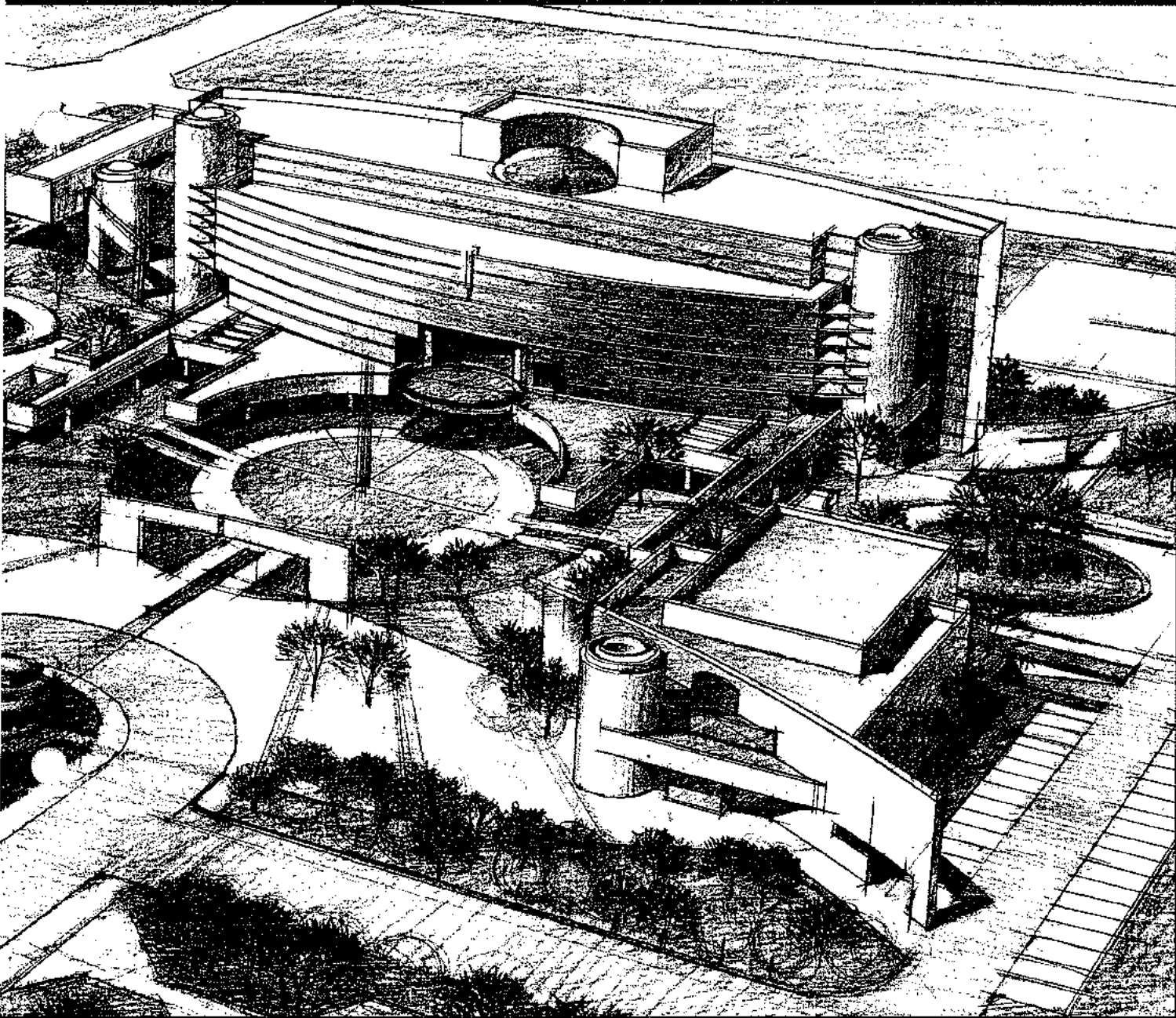
Function Public Service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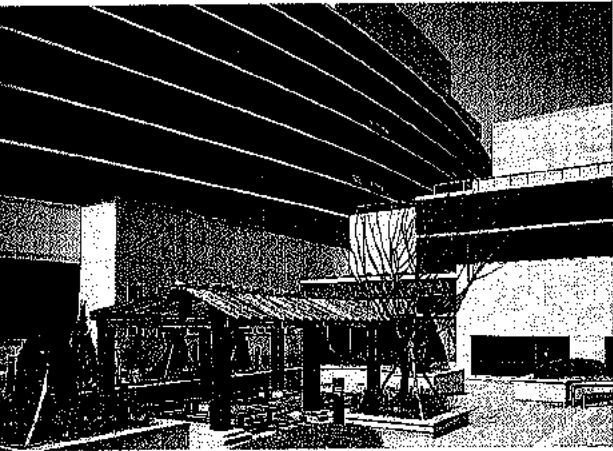
Parking Spaces 173

Architect in Charge Lee MyungHo

Construction Period Oct 1992 - Oct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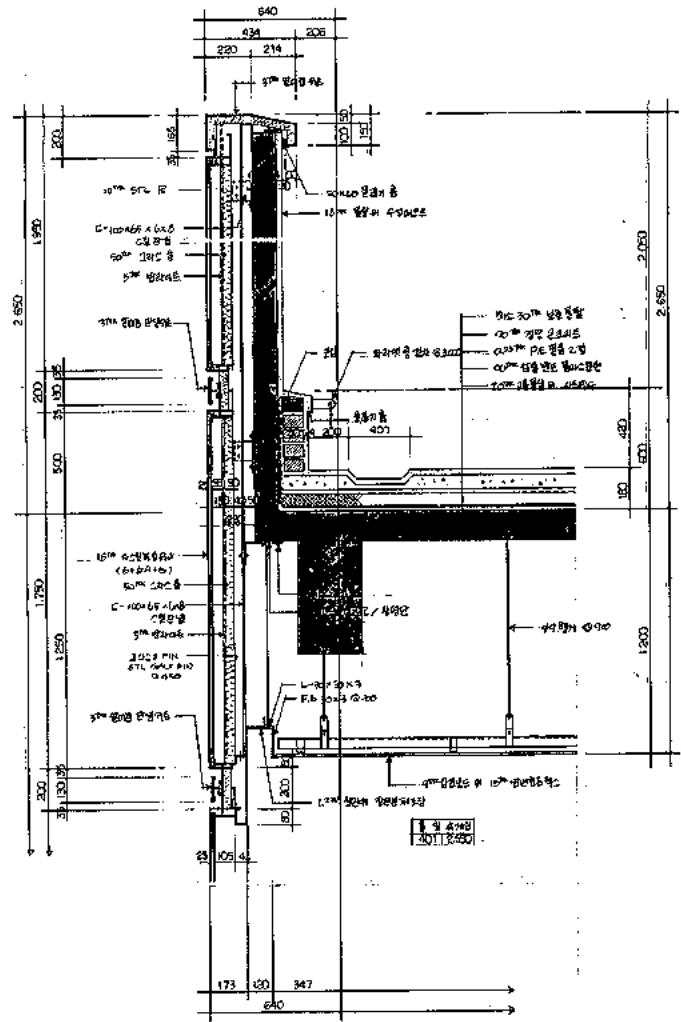
논관동 배면(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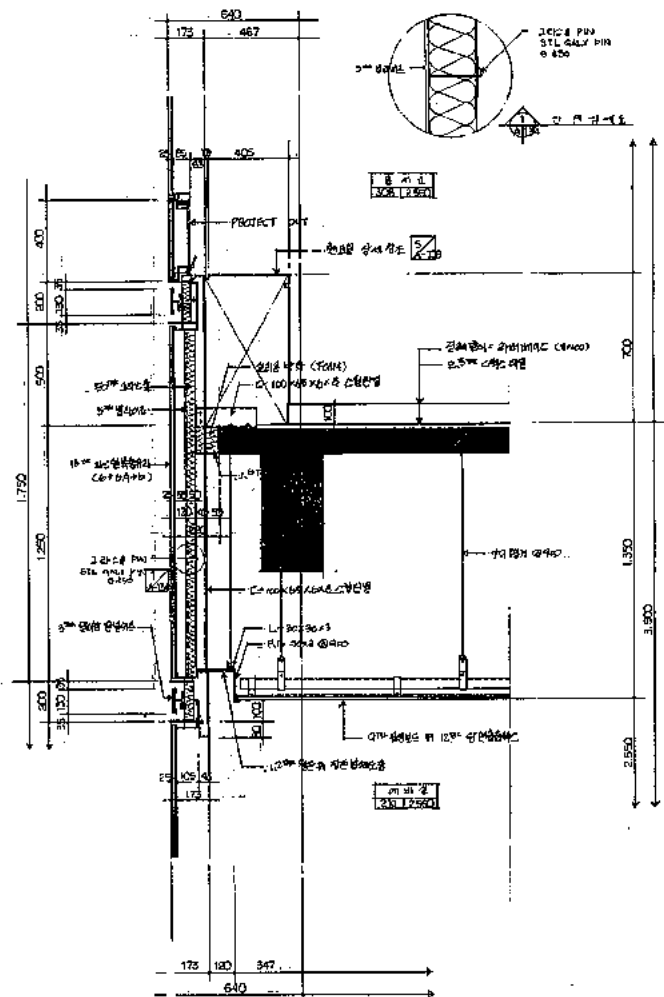
주출입구 선관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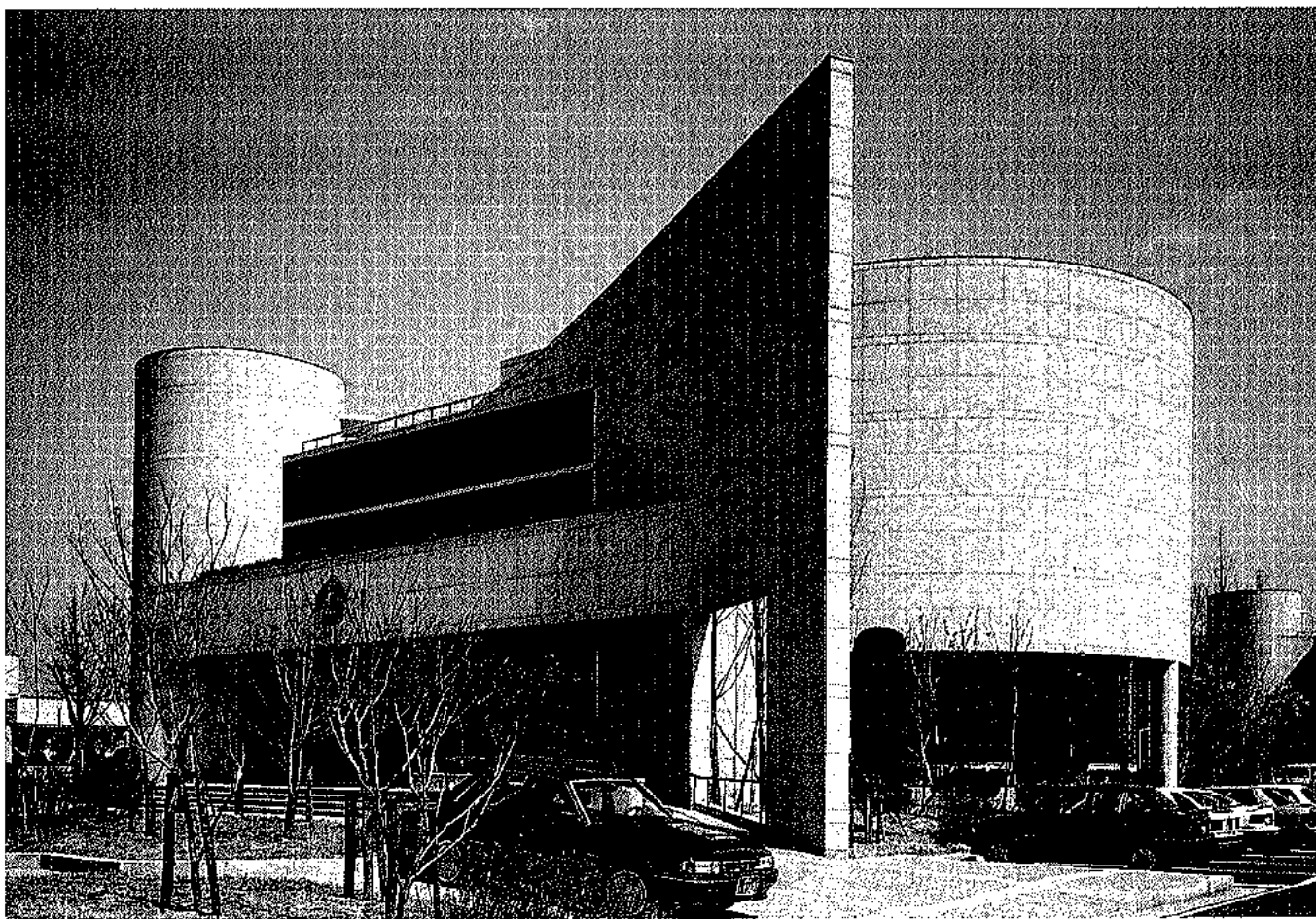
테크에서 본 민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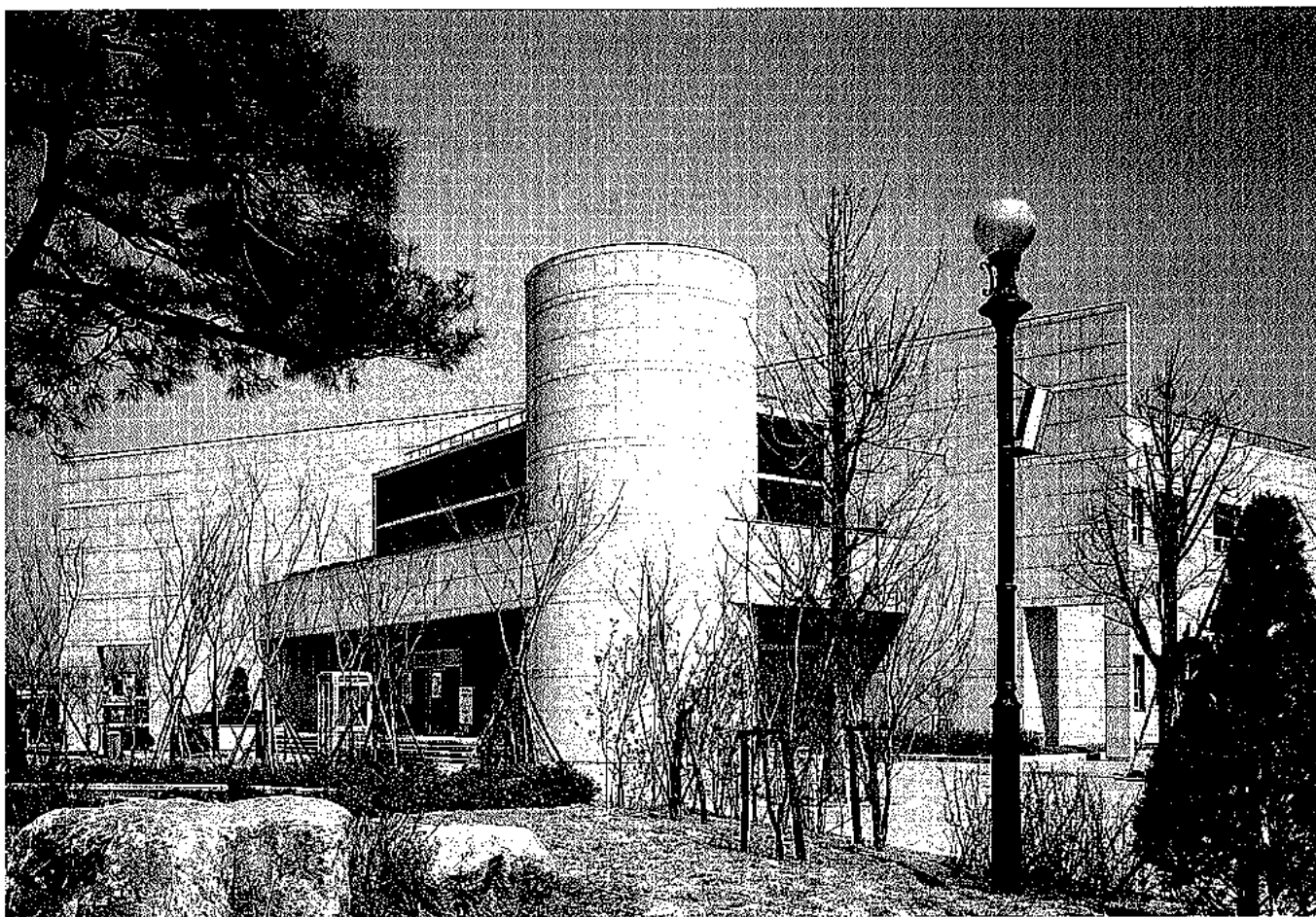
부분 단면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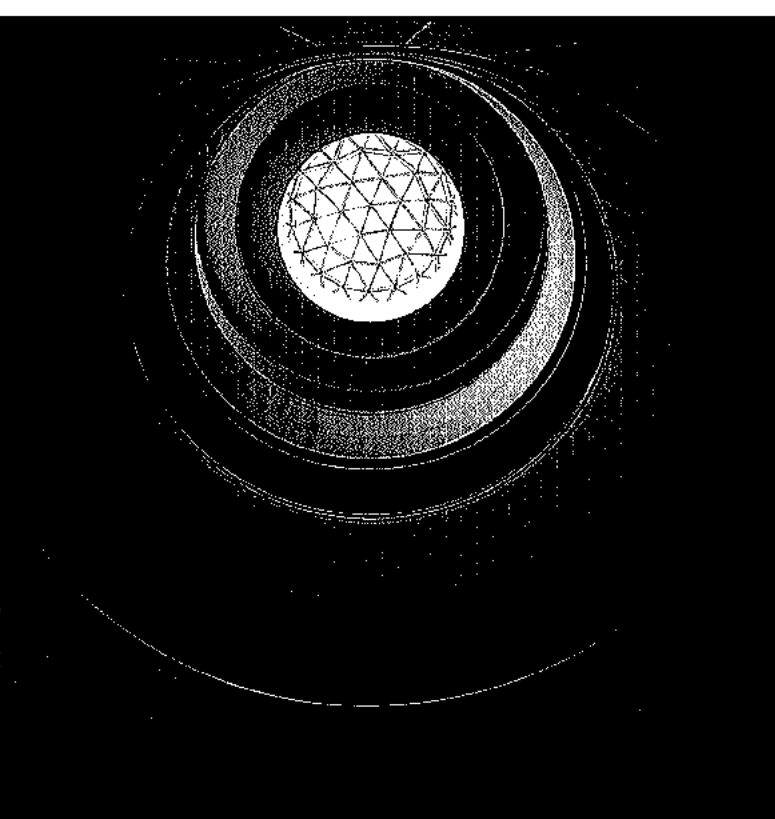
부분 단면 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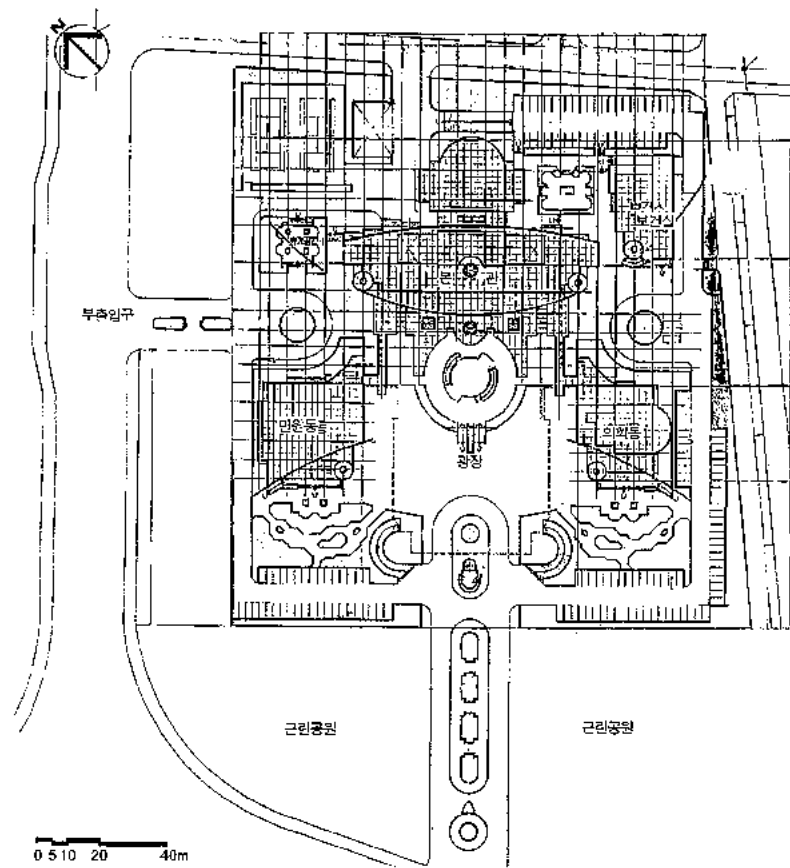
의회동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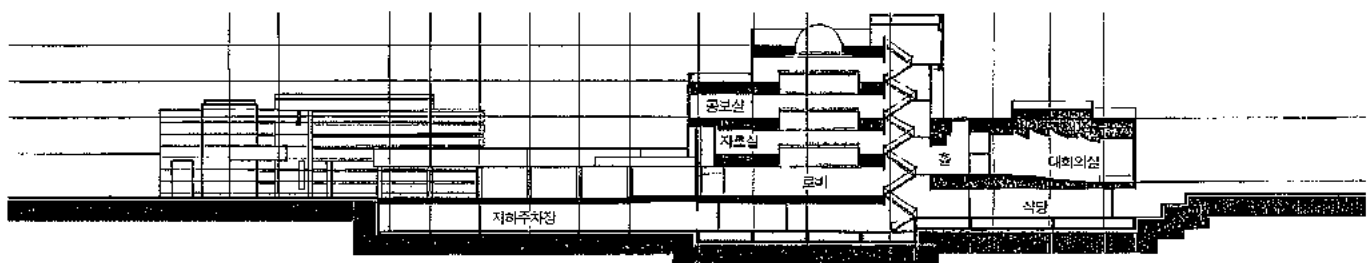
만원동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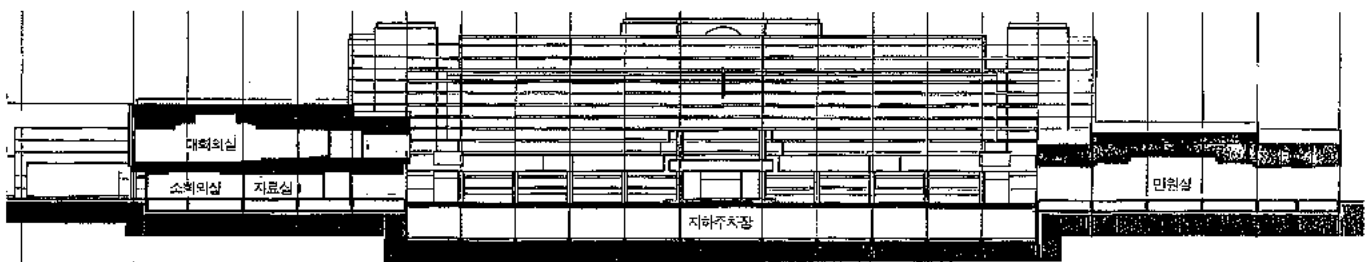
로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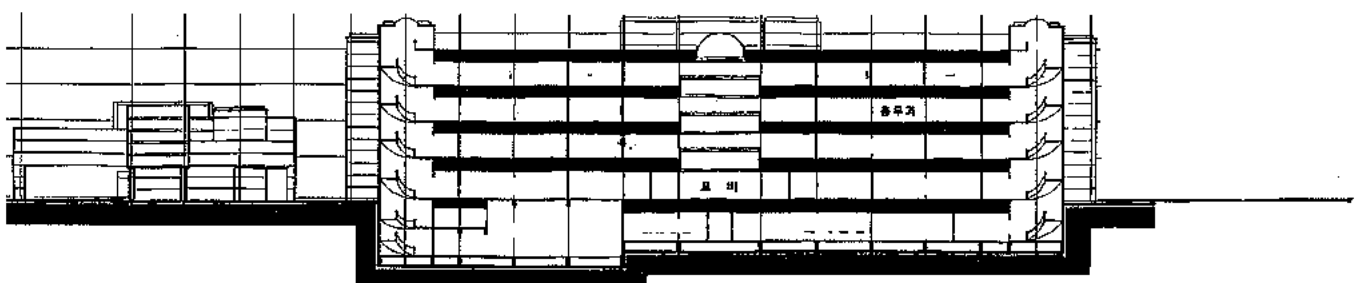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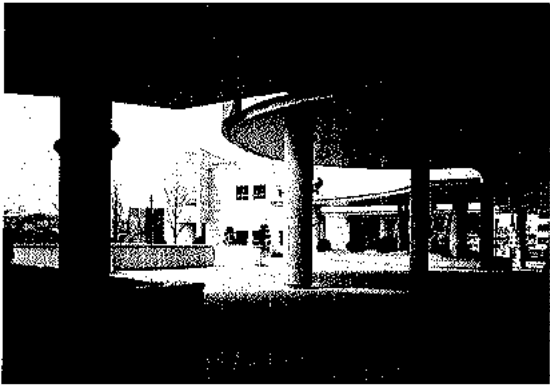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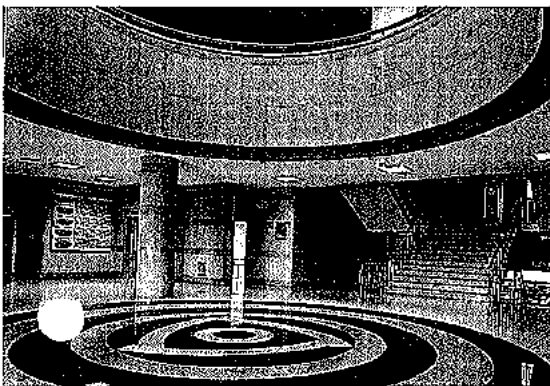
횡단면도(의회동, 민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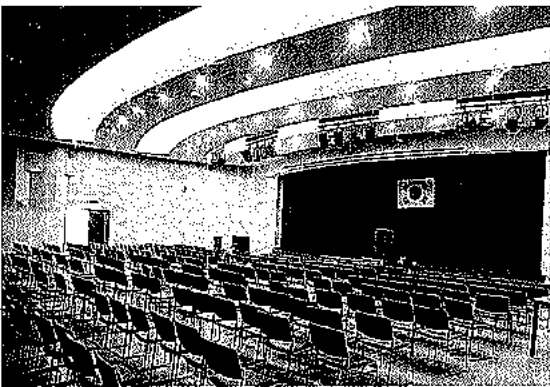
횡단면도



주출입구에서 로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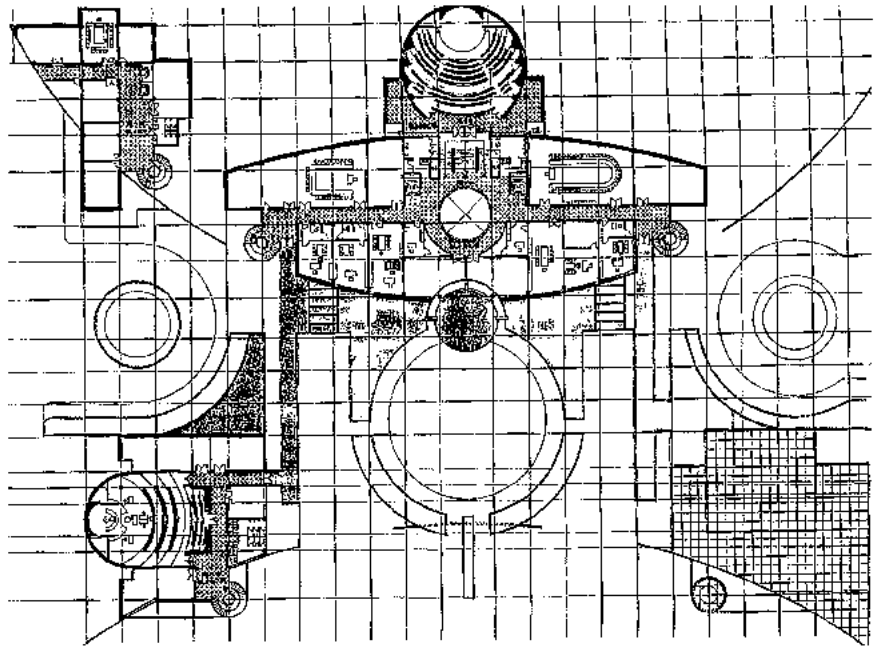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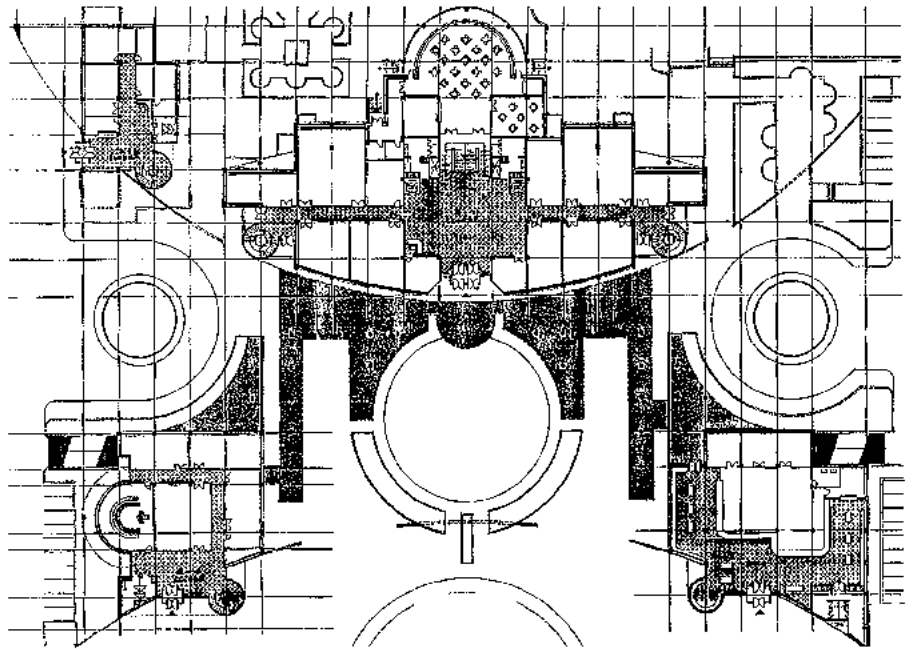
본관동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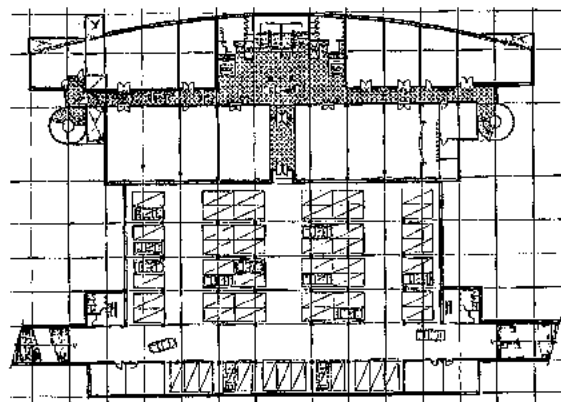
의회동 대회의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 5 10 20m

지하1층 평면도

관청건물과 건축의 다양성

Public Offices and
the Variety of Architecture

대담자/김정신(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설계자/임장렬(성림건축)

Kim Jong-Shin & Lim Jyang-Lyal

일 시 / 1997. 8. 28

장 소 / 성림건축 회의실



대담장경(좌:김정신, 우:임장렬)

김정신 _____ 임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건축전문지를 통해 성림건축의 작품이 여러 번 소개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만 임소장님과 직접 대담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림건축의 설립과정과 임소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장렬 _____ 1981년말 뜻이 있는 몇몇이 모여 국전 준비를 하던 중 국전이 대전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해는 국전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부산문화회관 공모가 있어 응모한 것이 다행히 당선되면서 그 다음해 82년에 성림건축을 만들게 된거죠. 지금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겁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신 _____ 그 후 계속하여 많은 현상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작품이며 계획안대로 지어졌는지요?

임장렬 _____ 70년대에는 거의 없던 현상공모가 80년 초 부산문화회관 현상공모 이후로 아시안 게임 및 올

림픽 관련 시설로 인해 현상공모가 부쩍 많아졌고 그로 인해 참여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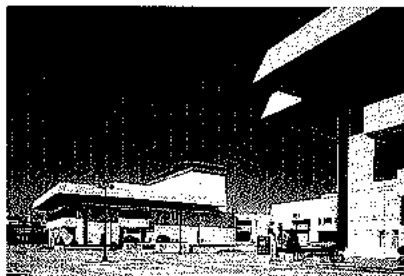
아시아 선수촌 공모에서 우수작에 선정되었을 때 까지만 해도 "현상공모"를 그저 국전 출품한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뒤 경기도문화회관, 국립수산업연구단지, 수원시청사 등이 당선되면서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 뒤 남양주시청사, 하남시청사, 양주군청사와 양주문화회관, 의정부문화회관, 중랑 및 서대문문화회관, 안산문화회관 등이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안과는 큰 변경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신 _____ 그런데 그러한 작품들은 지면을 통해 여러 번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작가인 임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건축관이나 소개는 거의 없었던걸로 아는데 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임장렬 _____ 사실 그동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디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양해 왔습니다.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건축에 대하여 아직 한창 배우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니었고, 그저 열심히 작품을



인천시립박물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의정부시중앙문화회관

만들다보면 언젠가 작품을 통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어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정신_____그 얘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동안 하였던 작품이 내세울만큼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 자신이 추구코져하는 이상 실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지요?

임장렬_____두 가지 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정신_____지자제와 더불어 시청사, 문화회관 등 건축 붐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임소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들 통틀어 관청건축으로 본다면 관청건축에 대한 임소장님의 기본 생각부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는 부딪힌 벽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임장렬_____시작이 그래서인지 문화회관과 시청사 설계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을 거듭 설계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청건물이라 해서 여타 다른 건물과 달리 특별한 생각으로 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몇년사이 관청건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많이 있었고 더욱이 지자제 실시 이후부터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상징적으로, 막연한 전통이라는 요구에서 지역적 맥락 요구를 그 한 예로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건축의 진일보를 위한 자리 매김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70, 80년도의 이러한 문제들로서 Client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타협의 묘안(?)을 작가 본의 아니게 만들 필요도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신_____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은 배치와 조형이 고전적이고 한국적 모티브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작품인데 반해, 90년대 초의 작품인 인천시립박물관, 남양주시청사, 하남시청사 등 유연한 곡선과 날카로운 사선 등 다소 낭만적이고 다이내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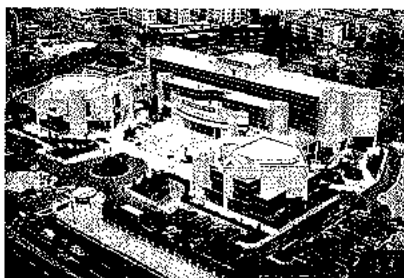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임장렬_____부산문화회관을 설계할 당시 80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전통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때였습니다. 부여박물관이나 불란서 대사관, 경북궁국립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이 그러했고 부산문화회관 역시 지침상 한국전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말 90년초에 들어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작품 역시 그러한 외적 요소에 큰 구애없이 작가의 소신에 의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의 90년대의 작품들을 예로 곡선과 직선을 강하게 대비하여 관청사에 시도한 것은 곡선과 직선이 갖는 조형적인 요소 이외에 기존 관청사의 틀을 깨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였고 그것이 차츰 받아들여지면서 오늘과 같은 관청건물의 변화에 일조하였다 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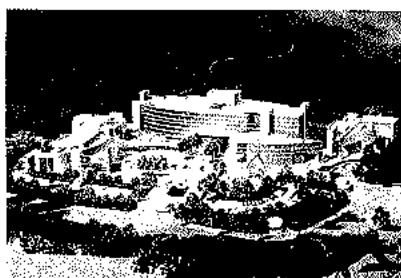
김정신_____소장님의 작품을 살펴보면 주어진 여건을 간단하고 아주 쉽게 풀이한 것 같습니다. 손만 대면 그럴 듯하게 쉽게 형상화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시키는지 설계과정이나 방법론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아시아선수촌 현상설계 우수작



남양주시청사



양주군청사

임장렬_____ 쉽게 풀이한 것으로 봤더니 좀 섬섬하게 생각됩니다만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심들이 숨어 있습니다.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의 작품대부분이 현상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들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건물로써 사용자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작가의 소신과 작품관을 전제로 모든 여건을 판단하고 포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지만 그러한 것이 전적으로 작가 주관에 의해 결정되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작가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다소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건축가 자기본의로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다른 오류를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청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서부터 시작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결론 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신_____ 그럼 하남시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청사는 남양주시청사와 같은 시기와 비슷한 규모, 현상설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치와 매스, 형태구성 요소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도 외관의 이미지가 보다 부드럽고 디테일 등이 세련된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청사와 비교하여 이 건물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한다면?

임장렬_____ 한 사람의 작품이 비슷한 것은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자생하여 작가의 정신안에 굳어져 조금씩 변모해가는 자신의 색깔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관청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맥락에 대한 해석과 수용이며 또한 시민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프로젝트다 설계당시는 기존 도시의 물리적 맥락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허허벌판이었고, 도시계획도 명확하지 않았습다. 그래서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남시의 지리적 요인과 고도로 서의 전통성에서 맥락을 찾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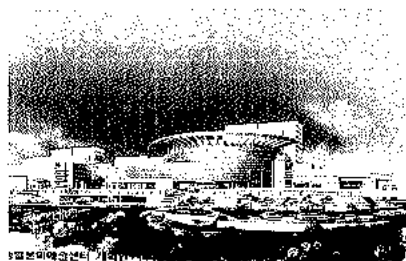
김정신_____ 그래서 유연한 쌍곡선이 전체 조형을 지배하는 모티브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임장렬_____ 강의 흐름, 전통처마 곡선을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역동적인 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 청사가 가지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매스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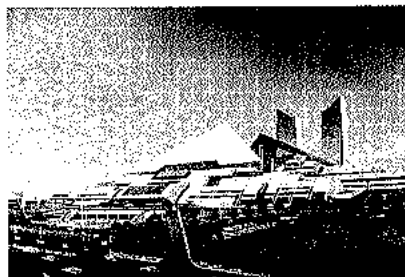
김정신_____ 하남시청사는 실제 지어질때 항과 진입축이 90도로 바뀌었고, 그리하여 의회동과, 보건소, 민원동의 배치가 좌우대칭적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그대로 인데 진입 동 문제가 없었습니까?

임장렬_____ 실시설계에서 배치의 형태가 달라진 것은 부지 서남측에 있는 근린공원의 연계성과 향에 대한 고려, 그리고 유기적 흐름이 중요시 되어서 입니다. 즉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관공서가 아니라 '시민센터'로서의 역할이 이 안의 배치형태를 변경시키게 한 것입니다. 진입의 문제는 부지의 서북측과 동측의 부출입구로서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측면에서의 차량출입은 오히려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근대적인 경직성을 탈피하려는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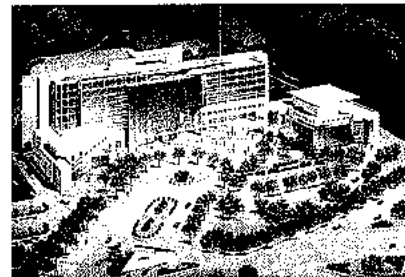
김정신_____ 그러나 전면의 근린공원과 그 공원을 통한 보행자의 접근은 동선도 길고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그 주변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



성남종합문화회관 계획안



고속철도 천안역사 계획안



강릉시청사 계획안

만... 현상설계를 통해 지어진 최근의 청사건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지만 가운데 본관, 좌우에 별동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광장을 두는 형식인데, 이 광장의 성격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설계자는 이를 시민광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지극히 권위적인 모뉴멘탈한 성격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장렬... 우리의 전통 마당은 정해진 기능이 없습니다.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계당시 고심한 것은 관공서의 광장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에워싸인 적절한 크기의 마당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연결회랑(2층 옥외통로)을 두었습니다.

김정신... 그런 의도는 읽혀집니다만 회랑구조의 스케일이나 별동의 진입과 연결 등이 전통적인 마당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화동이나 민원동이 중앙광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도로 전면을 보고 있습니다. 동선과 시각적인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 중앙광장은 삭막한 그저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장렬... 별동들도 각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특히 의화동의 경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스케일의 문제나 요소요소의 시각적인 문제는 다소 미흡하다고 인정합니다.

김정신... 거칠은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의 문제는 현상설계의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즉 뚜렷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심사위원 눈에는 띄지 않지만 작고 중요한 것이 무시되는) 도식적인 어프로치가 실시설계에서 보완 발전되지 못하고 미는 경우가 많은데 임소장님의 작품에서도 간혹 보입니다.

임장렬...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신... 임소장님이 즐겨쓰는 형태어휘는 원통, 주로 계단실, 원호, 사선 넓은 유리창, 수평띠, 가보(假梁) 등인 것 같은데 조형적으로 비례나 구성, 스케일 감각 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임소장님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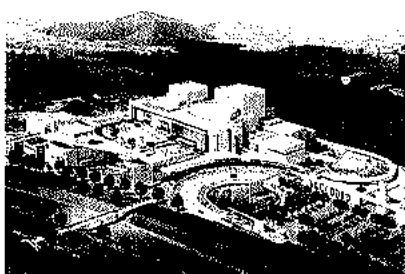
임장렬... 과찬이십니다.

김정신... 정보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건축이나 도시의 개념이 바뀌고 이를 디자인하는 건축가의 작업이나 디자인 경향도 변화되리라 추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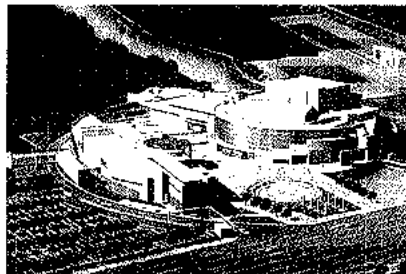
성립건축의 경우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를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래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임장렬...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저의 사무실 조직이나 운영체계는 이제까지 저를 정점으로 아뜨리에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에서 아뜨리에식 운영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화, 정보화 등의 요구사회에 생존키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십수년동안 해온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이에 역점을 두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신... 앞으로 새로운 변신을 기대합니다.



안산문화예술회관



제주문화예술회관 계획안



한발종합문화예술회관 계획안

건축가의 합리적 개별해

Architect's Rational, Individual Solutions

이공희 / 원도시건축, 국민대학교 강사

by Lee Gong-Hee

건축이 갖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작가가 갖게 되는 가치 위계를 통해 선택되어 진다. 프로그램이라는 물리적 가치와 건축적 제안이라는 조형적 의사의 쌍성(Duality)은 그 시대적 의사 안에서 그 폭만을 달라할 뿐 그 이원적 가치 자유성은 여전히 건축가의 업보인 셈이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임장열건축은 이 업보를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독자적 배경을 갖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건축업선과정이 독자적임으로 해서 어떤 대가의 영향 밑에서 거두어지는 선험적 틀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없고, 그럼으로 해서 건축의 이원적 가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임장열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그가 그간 보여준 건축적 성과가 조형적 탐색이나 독창성과 신기성을 넘나드는 건축에 관심갖고자 함으로 한정한다면 그의 설계경기중 투시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읽어보고자 하는 정도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가 이루고 있는 설계경기와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적 성과보다 일관된 건축적 해결과정의 가치기준까지를 관심갖는 것이 그의 건축적 의사를 이해하는 데 가치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

실제로 임장열건축의 데뷔는 82년 부산문화회관현상 당선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이력에는 매년 거름이 없는 크고 작은 현상에 건축적 제안을 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거름이 없는 선안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안다.

더욱 관심있게 되는 것은 그 현상의 성과의 대부분이 문화건축과 관청건축이라는 동질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법의 본질에 일관된 해결과정을 가질 뿐 각각의 매 프로젝트마다 가치기준을 조절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건축가로서 합리성에 가치를 두는 모더니즘에 익어 있음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합리적 조절 능력을 발휘함에 있다. 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하남시청사 외에도 서대문구민회관에서 보여주는 대지콘터를 이용한 동선분리구법이라든지 이제 곧 완성을 보게 되는 양주문화회관의 전면콩코스를 통해 각각의 목적공간으로



하남시청사

의 동선분할이 건축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읽게 해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합리적 해석을 가치롭게 해주는 것은 프로그램의 조형화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그의 건축에서 자주 보게 되는 확연히 읽혀지는 축의 설정과 외부공간의 콩코스화의 조형기법이 그것의 일부가 되며 때로는 그 콩코스의 설정이 외부적 내부로 설정되기도 하여 아트리움이 되고 때론 내부적 외부가 되도록 하여 폐쇄적 광장이 되기도 하여 건축해결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개별해가 되어준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임장열의 건축은 프로그램의 합리적 해석과 조형적 조절 능력으로서 개별해법은 그의 건축적 구법의 일편이 되고 있다고 본다.

하남시청사, 그 건축어휘

물론 이 청사 역시 설계경기를 통해 기회를 갖게 된 프로젝트이다. 8,470평의 대지에 4,162평의 연면적을 시청사, 분리된 민원기능, 자치의회기능과 보건소기능으로 용적을 가지면서 전면에는 도시가로공원을, 배면에는 문화회관의 건립가능대지로 가능성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졌다.

어휘 - 축의 구축

임장열건축을 통해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어휘중에 하나는 확연히 드러나는 중심축의 설정이다 그 축이 동선을 담은 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도시적 콘텍스트를 소화해내는 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형의 대칭연출을 위한 의도된 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선의 축으로 나타난 경우는 서대문문화회관이 그러하고 도시적 콘텍스트를 담은 축으로는 기장군청사설계경기안과 김해문화회관현상안 등이 그러하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하남시청사의 경우 건축에 구축되어진 축의 성격은 도상으로의 판단은 관료적 선입관이 만들어진 축이라는 개연적 추측이 가능하리라는 예견은 그 광장에서 본 경험을 한 후라면 그것이 선험적 편견임에 동의할

것이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전체조형을 지배하고 있는 건축적 의사가 축의 구축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광장을 자칫 산만해질 가능성을 갖는 분동들을 묶어내는 중심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전면진입레벨보다 몇 단 내려가 선근된 원형의 중앙광장은 진입 동선을 우회시킴으로 축의 구축보다 광장의 설정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장렬건축의 축의 구축은 전체배치계획의 기준이 되는 수단이 될 뿐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으로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이는 곧 대지 전체를 평면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만의 건축적 개별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 전체를 지배하는 기하학적 프레임

한 건축가가 자기만의 개념과 그 어휘를 만들

어가는 데는 대체로 그 건축적 풍요로움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후근대건축의 융성을 볼 시기에 더욱 그러했었고 그 미학적 기준만이 자유로울 뿐 건축에 있어 풍요로움이란 고전피도 같아서 어느 건축가이든 그 수단을 달리할 뿐 회구하는 바 중에 하나가 되어 왔다. 임장렬건축에서 이 풍요로움을 연출해 내는 수단을 전체를 묶어내도록 하는 기하학적 프레임과 부분에 배어있는 그것을 위한 절제를 근간으로 만들어 내는 조형을 그 방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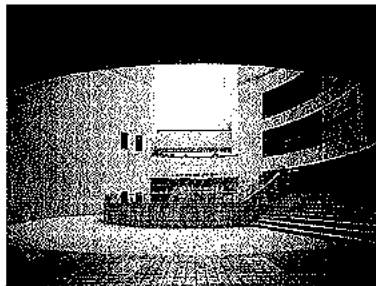
청사건축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프로그램적 상황의 상징적 이미지의 요구를 소화해 나가는 해결 과정에서 전술한 프레임은 설득력을 갖는다. 본관과 좌우측 보건소와 휴게 공간을 엮어내는 거대한 곡면 프레임은 상징적 이미지 성취와 함께 정제되어 군림하는 건축을 속도감있는 웅시(Fancy)한 건축으로 이미지의 보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내에 들어서도 그 평면적 운동은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합리적 배분에 근거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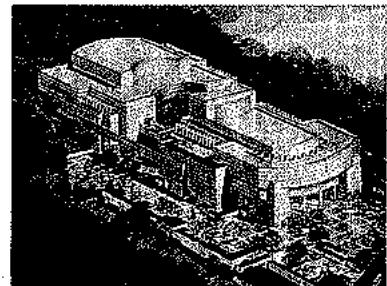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따라 있어야 할 곳과 그 움직의 과



부산문화회관



서대문문화회관



서대문문화회관

The diverse choices made through the process of architectural designing have their bases on the value system of the architect. The dichotomous conflict between program, a given physical value, and form, a value suggested by the designer, is ever present in the mind of an architect. We can find a different approach to this duality in the works of architect Lim JyangLyal. His unusual establishment in the profession through self-education arguably has freed him from rigid frames of view that hovers over this field.

But we are not merely talking about his design forms that reaches the boundaries of originality or freshness. Such discussion would be as limited as trying to select a first-prize winner in an architecture competition with a look through single perspective drawings. The value system that's behind the continuous architectural solutions in Lim's process of design should also be included in our survey.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his works, consisting mostly of projects submitted to competitions on culture centers and government offices that are constant in basic architectural solutions, show the adjustment of value systems in each cases. His way of arranging and controlling

his programs has roots in the rational methods of the Modernist movement. This is evident in the Hanam City Hall,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as well as in Seodaemun Civic Center and the soon-to-be completed Yangju-gun Culture Center, where circulations of programs are arranged by natural geography and concourse, respectively.

These rational comprehension of program can be further evaluated in searching through the process of their formation. Two aspects are often found in use among his works: the axis and the concourse. It is these characters that define the individual solutions of Lim's architecture, his rational analysis of programs and regulating the form.

The Architectural Language of Hanam City Hall

This work started out as an architecture competition. Site area of 26,770m², total floor area of 20,077m² was to be broken down into the main hall, individual civil affairs office, city congress center and public health center. The front was to place a street park and on the rear area was reserved for future construction of culture center.

소를 정해진 틀에 맞추어 조절하기보다는 기능과 용적대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후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구체적인 기하학적 원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해결방법을 갖는다.

본관1층에 들어서서 만나게 되는 각각의 기능들은 각각에 합리적 용적에 따른 형태로 주어지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홀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감지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의 중심에 원형 오픈닝으로 마련되는 광장이 전제되어져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 역동적 양감의 표현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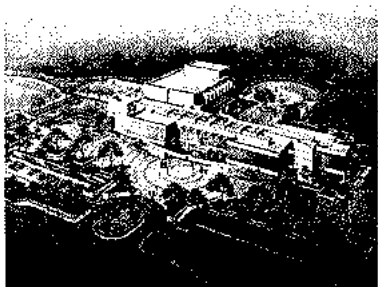
임장렬건축의 조형적 특징은 그의 사옥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사옥계획안 등 근간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 운동감의 표현의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의도되어진 의사인지 우연의 결과인지 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남시청사의 경우에도 수평선이 지배하는 입면 처리는 속도감의 근거가 되며 용적 자체가 볼드한 양감을 가지므로 해서 그 역동적

표현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여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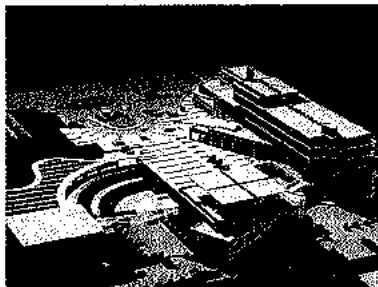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접근하는 지면층레벨에서 본관의 평면처리하는 그 축을 흡입하면서도 그 상층부의 처리는 진입축에 대응하는 양감을 갖는다는 점이다. 청사건축에서 흔히 보여지게 되는 수직적 분절 대신 수평적 분절을 택함으로 해서 정적조형에서 동적조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격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되어져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역동적 용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는 본관을 잡고 있는 양측의 수직 동선을 해결하는 계단 원형샤프트는 횡적운동감의 종점의 역할을 하면서 역동적 매스의 조절 능력을 갖는다.

역동적 양감의 성취를 위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건축의 4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면부의 셋백(Set Back)장치이다. 진입부의 중정의 형태를 구체적 형상이 되도록 하는 캐노피가 그러하고 배면부의 식당과 대회의실의 수직관계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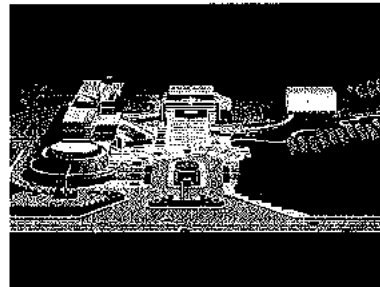
상층보다 지면층을 작게 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전체 움직임이 역동적 양감이 되도록 하는 해법이다. 하남



양주문화회관



기장군청사



기장군청사

The Establishment of Axis

Whether it places the circulation, adjusts the urban fabric, or forms a symmetrical layout, the establishment of the axis is clear in most of Lim's works. The first use of the axis can be seen in Seodaemun Civic Center, and the second in the competition entry projects of Gijang Civic Center and Kimhae Culture Center. In the case of Hanam City Hall, the established axis can be misunderstood as a result of an official stereotype - only before a walk through the concourse. This experience clearly reveals that the axis connects the divisions of the hall and forms a central space in the overall plan. The sunken, circular concourse detours the approach circulation, which is apparently the result of valuing the use of concourse over forming an axis. This exemplifie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xis is not a dominating concept but a tool of arranging the layout. It also demonstrates that Lim approaches his site in full three dimensional scale, not as a plane.

The Geometrical Frame That Controls The Overall Layout

The development of an architect's own concept and language usually lays value on richness. Whichever aesthetic it may adapt, richness has been the aim of architecture through all ages. This is realized in Lim's works by the application of overall regulation - the geometrical frame. This frame is especially effective in the government office, where symbolization of the program is necessary. The grand curved frame formed by the main hall, health center and rest area not only fulfills the requirement for symbolic images but also breaks that rigidity by contemporary speediness.

The process does not start from arranging location and area of the program but from logically dividing the function and volume and then uniting them via the application of frame. For easy recognition of the users, the frame in Hanam was mostly geometrical circles. The diverse programs i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hall are given shapes according to their rational volumes. Nevertheless, the whole can be recognized as a single space, due to the dominant atrium with a circular opening placed in the center.

시청사의 건축적 해결개념이 역동적 양감의 조형의사의 그 적 절성을 간단히 이야기함은 어렵겠지만 전술한 바와 관료건축의 일반적해법과는 또 다른 접근이 되어지고 있다는 상대적 회소 성에 의미의 비중을 둘 때 논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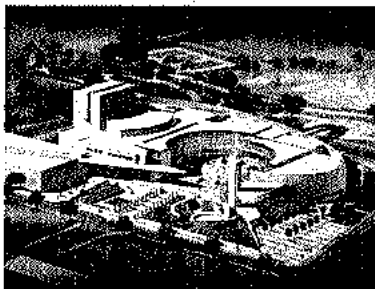
임장렬건축의 기대

전술된 임장렬건축의 어휘들은 하남시청사에 한정하기보다는 그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그의 지속적 의사에 의해 일관된 건축해결과정에서 항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치로울 것이다.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이 실제적 역사안에서 계속 그 질은 변화하지만 그것이 곧 진보를 보장하 지는 않는다는 점과 한 건축가가 대단히 특별한 초시대적 의사 를 갖추었다든가 아무리 덧없는 현실을 초월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표현한 조형 역시 그가 갖는 사공의 공감대 속에 형성된 의미체계와 사유변경의 한정에 귀결된다고 한다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된 임장렬건축이 보여주고 있는 건축적 의사와 건축적

어휘들은 분명 장구한 시간성의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일관된 조형의사로서 의미를 갖추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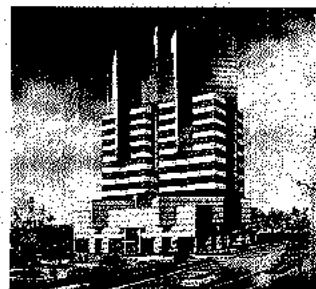
사실 건축이란 어떤 필연성의 결과물이라기보 다는 객체의 실험일 수도 있다는 구속력을 들지는 않더라도 건 축가 자신이 택하고 경험케 되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할 수 있다 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대는 임장렬 의 건축의 성립 과정이 자생적 과정을 가졌고 건축의 기획의 대 부분을 건축가가 먼저 그 생각을 제안하는 설계경기에 두고 있 는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은 외풍으로 얼룩지고 있 는 국내설계경기의 현실에서 이 시대의 합리적 개별해를 갖추 어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향로가 계속 순항 되어 지길 기대한다.



김해문화예술회관



성림건축사옥



도시개발공사사옥

The Expression of Dynamic Volumes

From his own house to the recent Urban Development Agency Office project, the will to express dynamic movement is clearly present. Though it could be a matter of coincidence, the elevation of his works emphasizes horizontality and consists of bold volumes.

A point further developed in Hanam City Hall is that the ground level follows the axis of approach, but the higher levels contradict them. The usual vertical divisions of government offices is here replaced by a horizontal one, presenting dynamism while insuring a refined style. A circular staircase shaft and setback volume layout on all sides enhances the dynamic design. The canopy that reveals the shape of the atrium and the vertical relation between the cafeteria and convention room can also be viewed from this respect. The placement of heavy volumes on the upper level, reacting against gravity, could single-handedly exemplify the individual solution of Lim's work, thoroughly distinguishable from the usual official buildings.

Conclusion

The above mentioned architectural languages of Lim are not confined to the Hanam City Hall. They should rather be comprehended as a sign of consistency in his designing solutions. The change of quality through time does not necessarily mean advance. An architect, even the most radical avant-garde, creates forms bound within the formal languages of its era. In this respect, it could be understood that Lim's consistent architectural style is based on the cognition of time's permanence.

Architecture is not a result of inevitability. It is rather an experiment of subjectivity, beyond restraint. An architect should stick to and be true to his own developed concept. Lim can be rightly judged so by the self-taught background and his persistence in architectural competitions, where the architect can put forward his own ideas. Through today's competitions, disordered with overblown foreign involvements, may the vigorous freshness of his individual solutions cruise on.

해외의 대규모 목조건축 사례

Large Scale Timber Architecture

김지택 / (주)유신건축사사무소
by Kim Chi-Tok

Canada, Vancouver의 South Surrey 대형 목조시설에 관한 방문참관기

우리나라에서 체육관련시설을 설계할 때 건물의 규모가 어느 종목의 경기든 최소 건축물의 내부공간 활용면에서 Span의 길이를 50m 이상으로 요구될 공간이 상당히 많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설계 전문가들은 Steel Truss나 Steel Structure로 50m 공간을 건너질러 필요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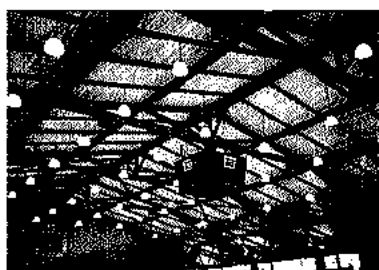
건축사 입장에서 수영장이나 빙상경기장의 경우 Steel Structure Member를 쓰지 않고 수영장이나 빙상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한 5~6개월 전이었다.

어느날 우연히 독일에서 발행한 구조관련책을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북미지역의 건축구조제 중에서 대형 경기장 長 Span 구조에 많이 쓰는 목구조에 관련된 사진을 보고 필자는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됐고 팩스와 Internet 등을 통해서 큰스판에서 많이 사용되는 Pallaram이라는 특수 건축자재를 알게 됐고 이 나무 재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자 캐나다를 방문하여 이 구조제의 특성과 재질, 인장강도, 압축강도 등의 재료성질을 알게 되고 제작과정까지 직접 참관해 보게 됐던 것이다.

큰 Span이 필요한 수영장이나 빙상장, 핸드볼 경기장 등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특히 염소를 많이 사용하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염소사용으로 인해 Steel 표면의 부식에서는 대단한 특징이 있는 바 이런 장소에는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뜻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는 바이다.

우선 사용자제가 미려하고 구조재료로서 강도상 문제점이 없는 점으로 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해서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성남제2종합운동장 건립설계시 수영장과 빙상장에 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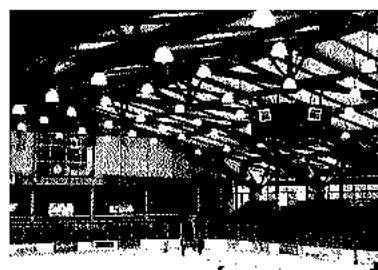
재료의 특성과 이 재료를 창안한 Macmillan Bloedel 회사의 Research and Technology에서 연구한 Mr. Mark T. Churchland(PHD)박사, 연구원 Radul. Marcea, British Columbia 대학교의 Frank Lam(PHD)박사 등등은 Wood Science Department의 수석 연구위원들로 Trus Joist Macmillan 회사에서 제작하는 모든 자재의 실험 등을 산학연구를 중시 축으로 꾸준히 개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특히 설계사무소 Lubor Trubka Associates의 창설자 Mr. Trubka는 Mr. John H. Peddle 구조기술자와 함께 좋은 대형목재 설계 개발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곳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Parallam Truss는 나무로써 43m를 넘는 Span을 지탱하고 있으며 두부재의 배치, 접합식별이 등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중이 주어



목재 Parallam Truss 전천나무 Deck Board 사공



나무로 출입구 Canopy를 설계한 사례



Aboftort Recreation Ice Rink의 목재 Truss Parallam의 구조, 조화 잘 어울리는 건축적 장면(Span 43m)

집과 동시에 미관상으로도 탁월한 구조로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들어 부재에 가해지는 힘은 인장과 압축에 탁월한 Parallam의 특성을 살려 굴곡에 대한 힘을 적게 하고 있었으며, Steel(철재)제품의 접합 연결부위는 Parallam의 Truss내에 매입되어 아름다운 목재 외관을 갖도록 연결철재를 Parallam속에 끼워넣는 등 철재가 외부의 화재로부터 보호되도록 배려했던 것 등은 좋은 참고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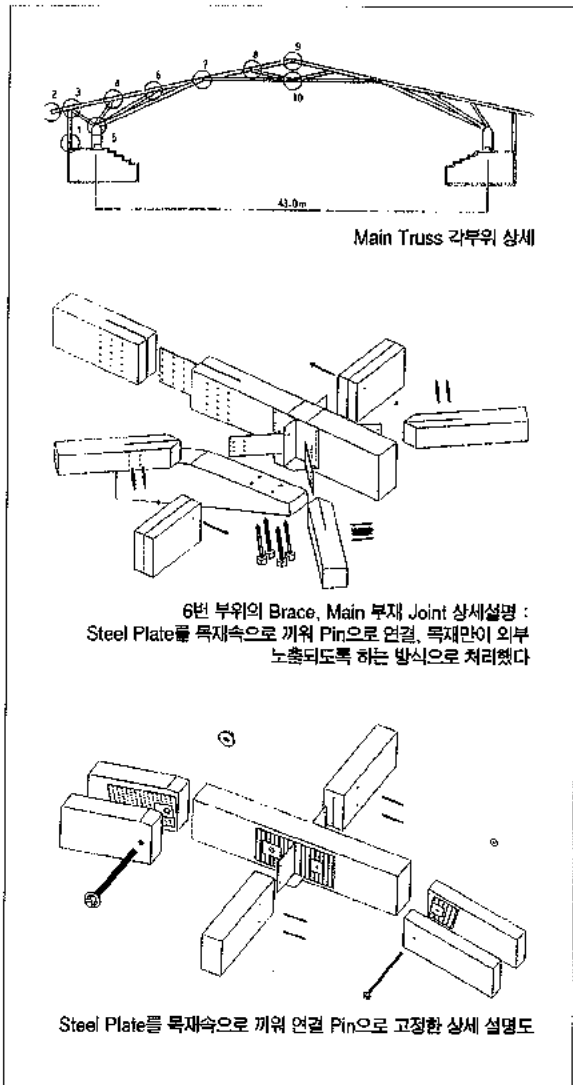
시공과 설계에서 철골구조, 집성목재(Glulam), Parallam 목재 등 3가지 자재를 비교 검토했다는 설계자의 설명에서 경제적으로 Parallam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며, 구조제로써의 특성이 상당함을 UBC에서의 실험 Data를 보고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사진들은 실제 Mr. Trubka가 설계했던 운동시설, 체육회관, 방상장 등의 현장사진인데 대형구조재를 건축미와 조화있도록 설계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주택이나 소형구조 건물보다 대형규모 건물에 목재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입증은 한 셈이 된 것이다. 이고를 캐나다에서는 목조교량까지도 Parallam목재를 사용하여 시공설계가 추진중인 것을 보았는데 대형 구조재일수록 철재 대신 목재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 요소를 갖춘 건물을 짓고자 노력하는 건축가들의 정열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곳에서 상세 연결부위의 주부재와 부재연결 상세도를 도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상세번호 6번을 예로들어 설명을 하면 상현재와 스트럿 부재의 Joint 부분의 부속품과 재료의 연결상태를 목재가 철재를 감싸고 외부에 철재 Jointer가 표출이 적도록 특수고안하고 못 판을 특수재료로 관해서 그것을 이용 목재속으로 날카롭게 끼워넣는 Steel Plate판 속에 주철판을 넣어 Joint를 연결하는 방식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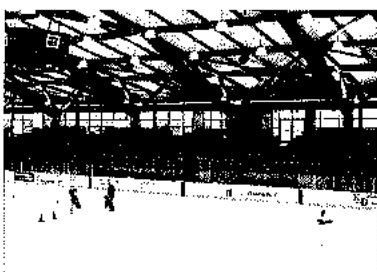
이 판을 Draft Pin 및 Bolt라 칭하고 모현재를 이런 연결방식으로 인장력이 강한 목재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어 소개한다.

Truss Joist Macmillans 회사에서 생산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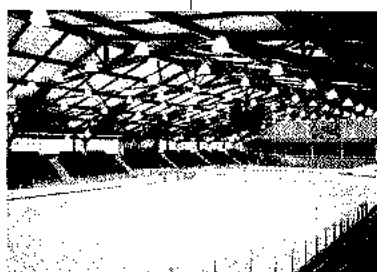


목구조재는 회사의 엄밀한 구조실험을 거쳐서 생산되는 품목들로 Microllam, Parallam, Timber Strand, Silent floor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각기 그 특성별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구조제로써 필요한 힘과 전단력이 매우 강하도록 생산된 목조구조재들인데 Mi-crollam이나 Parallam의 이용환경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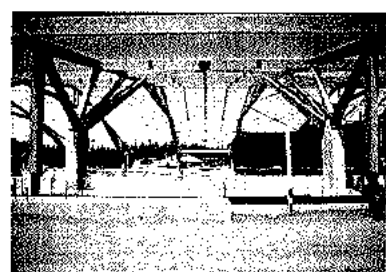
Parallam의 재료 제품은 2피트(60cm)나 8피



Span 43m 이상을 목조로 시공하여 대형공간을 나무 Truss로 잘 지은 Vancouver의 체육관. 공사비가 Steel Truss와 동일하다.



Ice Rink와 목재 Truss로 시공한 Canada의 South Surrey 체육회관내 전경 (정말로 잘 어울리는 경제적인 구조물이다)



Parallam 나무 Truss의 시공장면

트(240cm)정도의 Veneer처럼 된 가닥들을 Douglas Fir, Southern Pine, Western Hemlock, 그리고 Yellow Poplar Tree 등으로 잘게 썬 자재로 생산하는 구조 부재이다.

Macmillan Bloedel 연구소는 나무구조부재에 관한 한 가지 세계적 연구중심센터라고 칭할만하다. 필자가 직접 만나본 Derek Barnes와 Mark Churchland 박사는 Parallam 구조재발견 및 생산연구의 주역이었는데 이 연구소에서 결국은 이런 부재의 생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많은 이곳 콜럼비아주의 적극적 지원과 환경문제에서 정책 제일우선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서 가장 훌륭한 이런 제품을 연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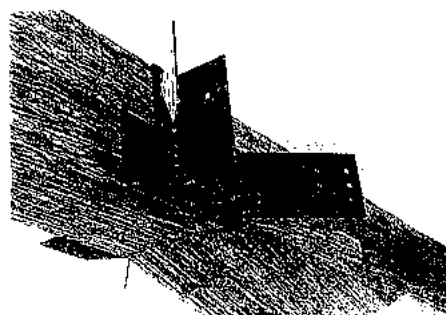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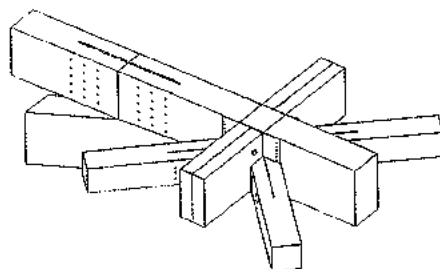
Roof Design

이곳의 Truss는 이중 부재를 썼는데 부재연결 부위는 전부 철재로 연결했고, 여기엔 Steel Connection Plate를 이용했다. 이 SCP는 나무속으로 구성재 시공시 넣었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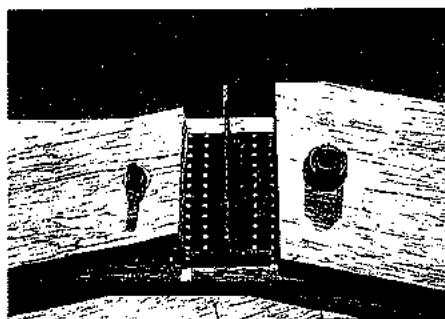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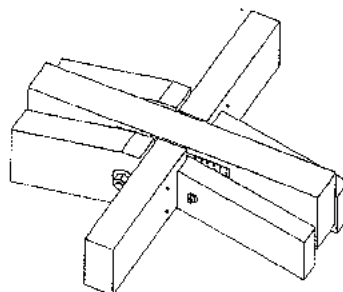
여기 쓰여진 Connection Steel Plate는 Griplam Nail 또는 Glulam Rivets라는 철못을 쓰고 있는데, 이것 역시 Truss Joist Macmillan 회사에서 Forintek 회사의 지원아래 개발된 특수 못이다. 이 연결 못(Glulam Rivet)의 생산으로 이 부재의 구조재료로서의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Abbotsford Recreation Centre는 지진 Zone에서 요구하는 구조 부재 정도를 견디도록 설계하였고 또한 그 엄청난 무게를 Concrete 기둥과 기초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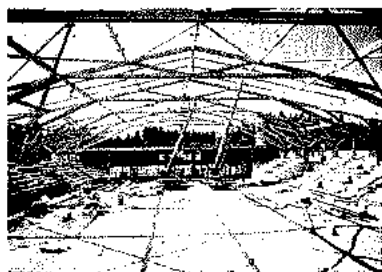
V자형과 X자형으로 배치된 Steel Straps를 이 Wood Decking과 Rigid Insulation 사이에 설치되어 무거운 목재 무게 등을 기둥에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이것은 Timber 구조에서 최신타의 이용을 극대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는 예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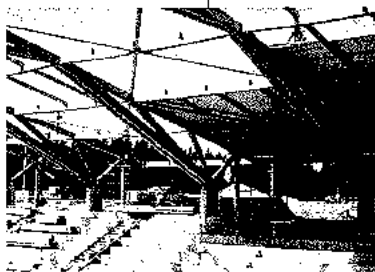
Main 부재와 Supporting부재와 Brace부재의 연결방식 Joint



9번 부위의 상세도



대형목조 Truss 공간 시공장면



Concrete 기둥과 목재 Truss의 지지 부위의 연결 상세 시공장면



South Surrey Ice Arena 관람석 복도 (설비 박문규 소장, 구조 박성수 소장)

Fire Safety

Abbotsford Recreation Centre의 경우는 Sprinkler를 설치하지 않았다. Steel Truss의 경우는 Sprinkler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Sprinkler는 규정에 의해 45분간 화재 방지 시간을 요하는데 목재 표면이 그대로 표출되는 이 시설물은 45분 내화구조 규정에 합당하므로 추가 Sprinkler를 설치하지 않았다.

화재, 내화구조규정에 합격한 이 구조재는 모든 실험에서 Steel보다 더 좋은 실험결과치를 갖고 있다 한다.

Heating, Cooling and Condensation Control

이 Abbotsford Recreation Center는 1년 내내 운영되는 체육시설인데 설계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시설을 만드는데 최대의 역점을 뒀다고 한다. 필자가 방문해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넓은 전체시설 외벽을 전부 단창으로 설치했었고 Ice Rink에는 얼음이 얼어 스케이팅 선수들이 한 판 승부를 겨룰 찰라였는데 Condensation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관찰할 바 있다.

첫째는 브라인파이프를 통해 얼음을 얼리는 기계실에서 Waste Heat는 모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런 계획은 Compressor Energy를 10%정도 사용, 결과적으로 1년에 약 3만달러의 에너지 저축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곳에서 Waste Heat는 선수들 샤워실에 더운 물 공급, 선수 락커룸의 Ventilation과 관람석의 난방, 빙상장의 외부공기, Pool Ventilation, 깎아낸 얼음조각 녹이기 등에 사용하여 열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장비는 전부 Computerized Control System으로 히팅, 쿨링, 라이팅 등을 운용하고 있었다.

Dry-O-Tron 이라는 열회복기기는 Dehu-

midification에 지대한 효과적 기지재이며 이것으로 인해 기기의 Dehumidification 기능을 충분히 하는 특징을 공부할 수 있었다.

즉, 단창으로 인해서 염려됐던 결로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특이한 Know How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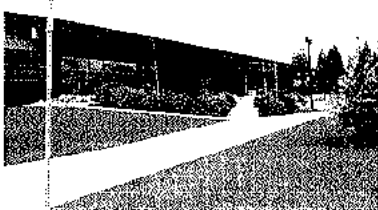
Acoustics

방음, 흡음 등에 대한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 이는 목재가 철재보다 이러한 효과 면에서 더 좋은 상황임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다. 더욱이 Tectum Panel이 전체 소음을 40%이상 잡아줘서 흡음효과가 대단히 좋았다.

이런 것은 목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으로 판단되어진다.

이글에 소개된 사진들은 캐나다 Vancouver South Surrey에 위치한 South Surrey Ice Arena 빙상경기장으로 대형 목재를 아주 적절히 사용해 멋있고 좋은 건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 빙상경기장의 설계자는 Lubor Trubka(Architect)이며 설계자문은 Consoultant, Julius Natterer(Switzerlan)가 맡았다. <사진자료 : Macmillan Bloedel Ltd.>

- 필자 주 -



목조체육시설로 지어진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South Surrey Ice Aren 체육관(지역 체육시설로 국민체육진흥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기둥과 목재 연결부위에서 철재 연결 상세



Counter를 나무로 시공해서 친근감이 더한 Reception Counter

인간에게 있어서의 건축

What is Architecture to Human Beings?

윤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건축이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질문이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답할 수도 있겠으나 건축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함부로 답하기 곤란한 어떤 큰 무게를 느끼게 된다. [건축 : 집, 성, 다리 따위를 세움, Building] 현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新築, 増築, 改築, 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굳이 어학적 해석과 법적 해석의 이질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두 해석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명확, 명쾌한 설명으로서만 절대적 권위를 지켜가는 사전과 법전의 정의가 상이하다는 것은 역시 '건축'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누군가 '건축'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 이 한마디가 가장 편리한 대답일 것이다. 실상 '건축' 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삼차원 물질을 제외한 추상적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다.

혹자는 지극히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단 '건축' 이외에도 단순한 것일수록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예를들어 "인간"이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흔쾌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혹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로 시작하여 물 몇 퍼센트, 지방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하며 장황하게 인간의 기호와 공식을 늘어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듣는 사람은 그의 생물학적 방식은 인정할지 모르나 질문의 핵심을 너무도 빗나간 답변으로 인하여 뒷말을 잇지 못할 것이다. "그럼 좋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해석은 그렇디 치고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당신 곧 당신이라는 존재, 'You'의 정의는 무엇이나는 말입니다." 당돌하긴 하나 이렇게까지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든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를 명쾌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동서고금의 현인들이 '자기자신을 알리'고 외쳐 온 것만 보아도 어려운 질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의 가치기준이 前後無賴로 해석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끔이나마 대할 수 있는 물질' 중 같은 질량의 단위로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일까? 아마도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볼때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류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다이아몬드에는 왜 그토록 높은 가치가 매겨어져 있을까?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 안 될 절대 필요의 광물이어서일까?

물론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고강도 광물의 커팅이나 세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비싼 것인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무생산적인 장식용 다이아몬드가 그나마 광물 커팅 예리도 사용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비하여 오히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보석의 가치는 그 稀少性과 아름다움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귀하고, 강도가 높고 또 한 빛의 굴절률도 가장 커 아름다운 빛을 발함으로 해서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다. 역시 다이아몬드는 높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맹점은 없는가? 그토록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 우리가 마시며 사는 물 등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거의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 안되는 것들은 모두 거저 주어진 것들인 것이다.

그 흔한 것 중 하나만 없어도 하나만 잘못 되어도 인류는 소리없이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가치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선 건축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다. '건축'의 가치가 소용되는 곳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인간의 주거 내지는 활동공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둘째, 인공구조물로서 인간의 시각과 접촉, 느낌 등으로 감지되어지는 특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가치라 함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계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 무의미할지라도 은연중에 좋다 나쁘다, 자연이나 주위와의 조화가 잘된다 아니냐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느낌을 주는 건물은 예술성을 논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도시의 미관이라는 것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셋째, 건축에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의 발굴에 힘쓰는 것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역사의 증빙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은 과연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모든 예술품은 그 작품의 이름과 특히 작가를 매우 중시한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밀레의 만종,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베토벤의 운명, 스피버그의 E.T. 주라기 공원이 라고 이야기 하지만 건축에 이르러서는 아무개의 무슨 빌딩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으로 볼 때 건축은 우선적으로는 순수 예술과는 분명히 그 길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건축작업 과정의 공동, 협동성
2. 예적보다는 상적 가치의 우선 추구
3. 설계자 자신의 개성 부재

그렇다면 건축은 예술이 아니라는 결론인가?

하나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다. 예술의 작품이란 대중들에게 평가되기 마련이고 건축 또한 여기서 예외가 될 순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평가란 인간이 건축을 대하며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어떤 건물이나 도시를 접하여 언제나 안락하고 평화스러운 즐거움과 감동을 맛 볼 수 있다면 그 건물과 거리는 이미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이 불특정 건물이나 거리를 대할 때 은연중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건축의 예술적 속성을 망각한 사고에 의해 저질러진 인간감성에 대한 만행인 것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

물론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기본계획을 주도한 쪽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이 설계의 잘못에 의한 몫이나 시공의 몫이나 행정상의 문제나를 따지기 앞서 일반적으로 상적 가치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온 우리네 지난날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을 해야 할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 건축에 있어서 안전도와 상적가치는 그 가치의 전부라고 할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건물의 예술적 가치가 바로 상적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날 '거실은 여기, 안방은 이쪽' 하는 식의 1더하기 1은 오직 2뿐이라는 페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갈등하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모두 다같이 구태를 벗고 창조적 사고를 위해 달린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누구라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 이야기, 전혀 새롭지도 않으며 조석으로 듣기 싫을 만큼 들어온 따분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알고 느끼고 있는 이야기이다. 또 실행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앞에 부닥치면 결국 실행치 못함에 자탄하며 애써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에는 그 시작이 분명히 존재한다.

창조는 실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시대의 첨단을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두가지 중 하나로, 천재로 추앙받든가 아니면 정신병자로 취급되어질 것이다.

정신병자 취급이 두려워 정체 속에 안주할 것인가? 한 번 도전해 볼만한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이제 세상도 많이 변하여 광적 발상도 조심스럽게 인정받는 세월이 도래했지 않은가?

건축은 예술성 이외에도 편의성, 안전성 등 많은 인자를 내포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예술과는 소원하게 인식되거나 그 예술적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이야말로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감성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예술은 건축'이라고 감히 정의내려 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돌맹이 하나라도 건축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사 돌맹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돌맹이 하나에도 생명의 소망이 숨쉬고 있음을 본받아 인간생명과 건축생명의 동질을 찾아 끝없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산우관(産友館)

Korean Industrial Bank Welfare Facilities

최관영+정동명/(주)일간씨앤씨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Cheong Dong-Myeong

‘산우관’은 산업은행 총재 공관으로 쓰이던 2,770여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 지은 사원복지시설이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실내 라켓볼장 2면, 옥외 테니스코트 2면(1면은 기존), 다목적 잔디광장, 실내 헬스센터 등의 체육기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Club House 성격으로서의 식당, 락커룸, 샤워실의 기능이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다목적 홀이 있어 직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임의로 설정된 계획축(Design Axis)들을 활용하여 구성되어지는데 대지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주축(Main Axis)은 두개의 테니스와 평균각을 이루게 하였고 보조축(Sub Axis)은 주축과 직교하는 하나의 축과 테니스장과 평행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축 두 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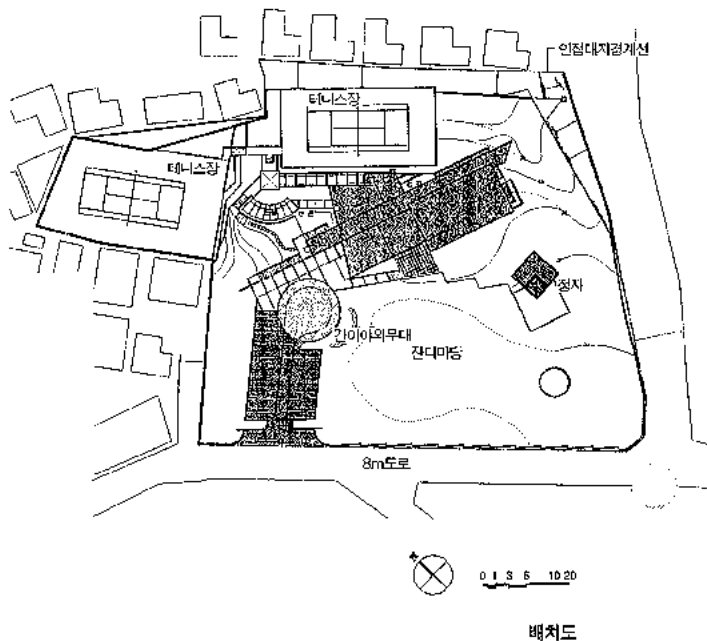
주축을 대지의 가로방향에 엮비스듬히 설정한 것은 보다 넓은 옥외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진입공간으로부터 접근시 원근감을 주며 보다 많은 건물이 느껴지게 함이고 보조축들을 활용한 것은 보다 역동적인 평면구성 Mass 구성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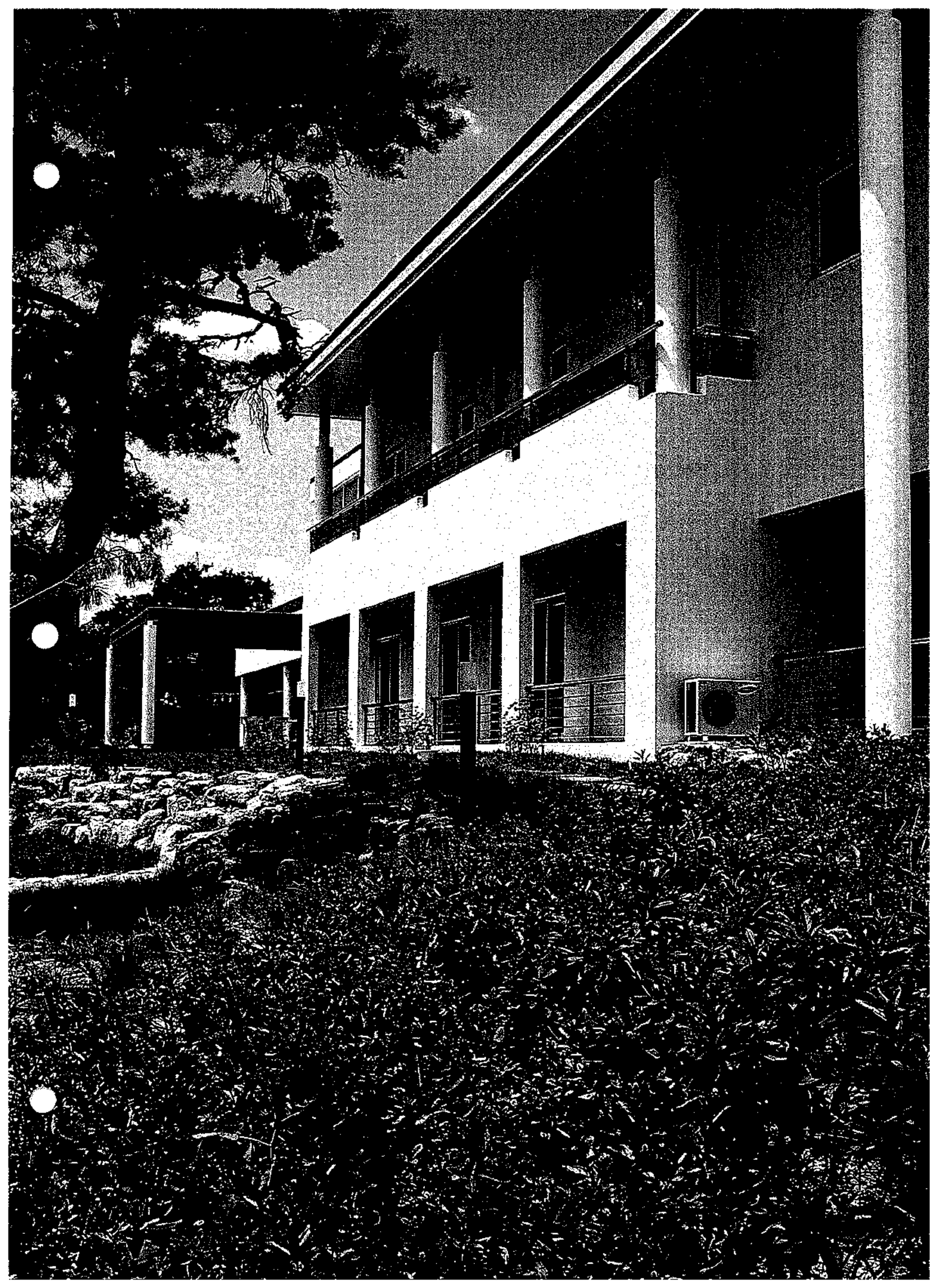
북쪽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사대지를 계획에 흡수하기 위해 Entrance Lobby는 1층과 지하층의 중간 Lebel에 위치시켰으며 1층에는 라운지, 식당, 관리인 숙소, 가족 이용자숙소를 두고 주축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계단실과 복도를 통해 2층의 다목적홀에 이른다. Entrance Lobby에서 반층 쯤 내려가는 지하실에는 라켓볼장, 헬스센터 락커룸, 샤워실 등의 체육시설이 배치되며 주 계단쪽의 선큰 공간에 면해있는 온실은 산업은행 본점에 들 화분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건물 이용시, 또 테니스장 이용시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헬스센터 바깥에 다른 선큰공간을 두어 자연 채광을 이용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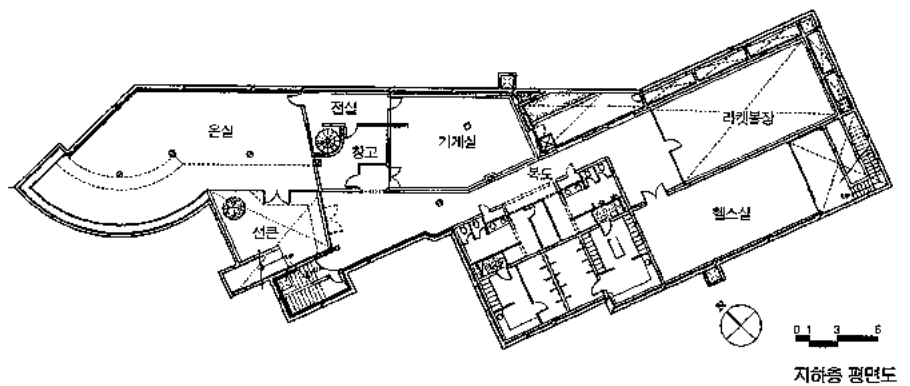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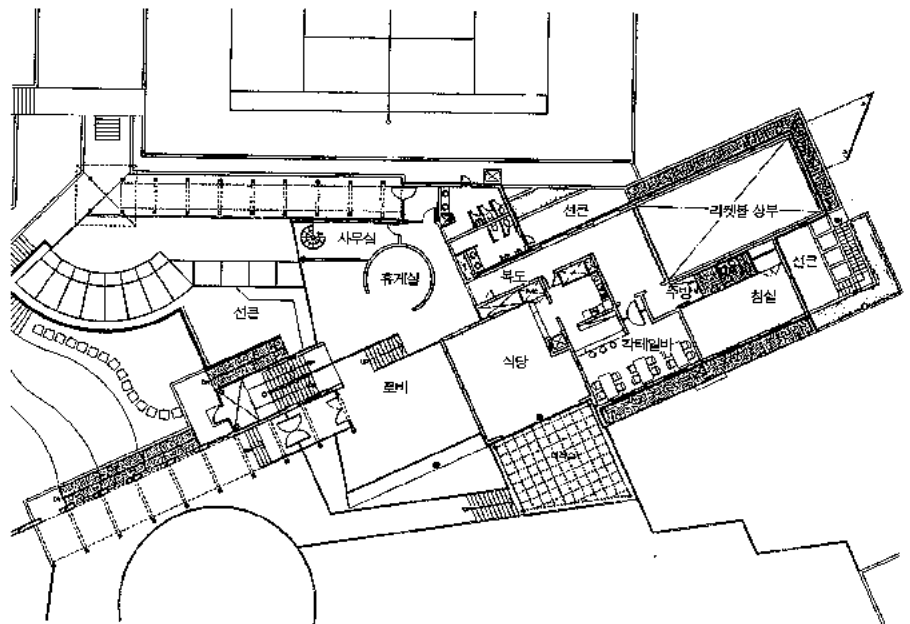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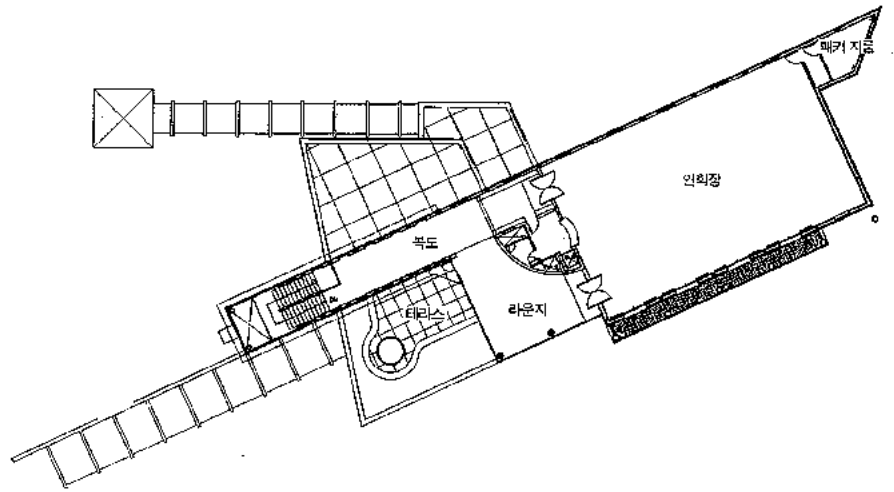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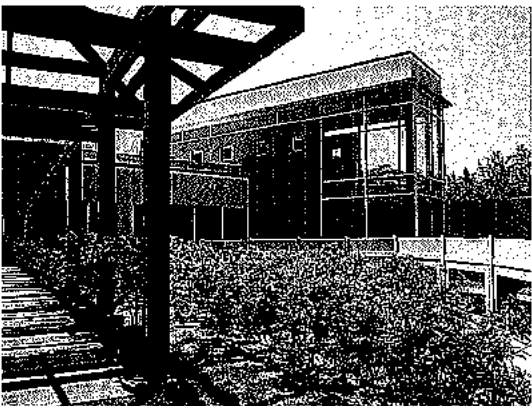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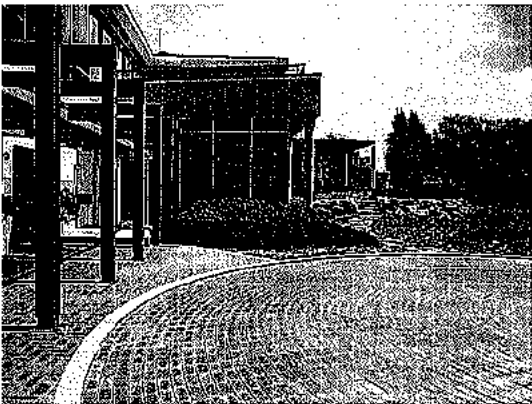
기존의 Green을 최대한 살려 멀리하는 도봉산, 수락산의 Green을 배경으로 하는 하얀집을 주색(Main Color)으로 떠올리고 여기에 목재 프레임의 자연색과 약간의 강조색(Accent Color)이 어우러 지도록하였다. 철거될 운명에 있었던 한옥 정자를 건축주를 설득시켜 상당한 돈을 투자케하여 보수하여 남겨 된 것은 큰 다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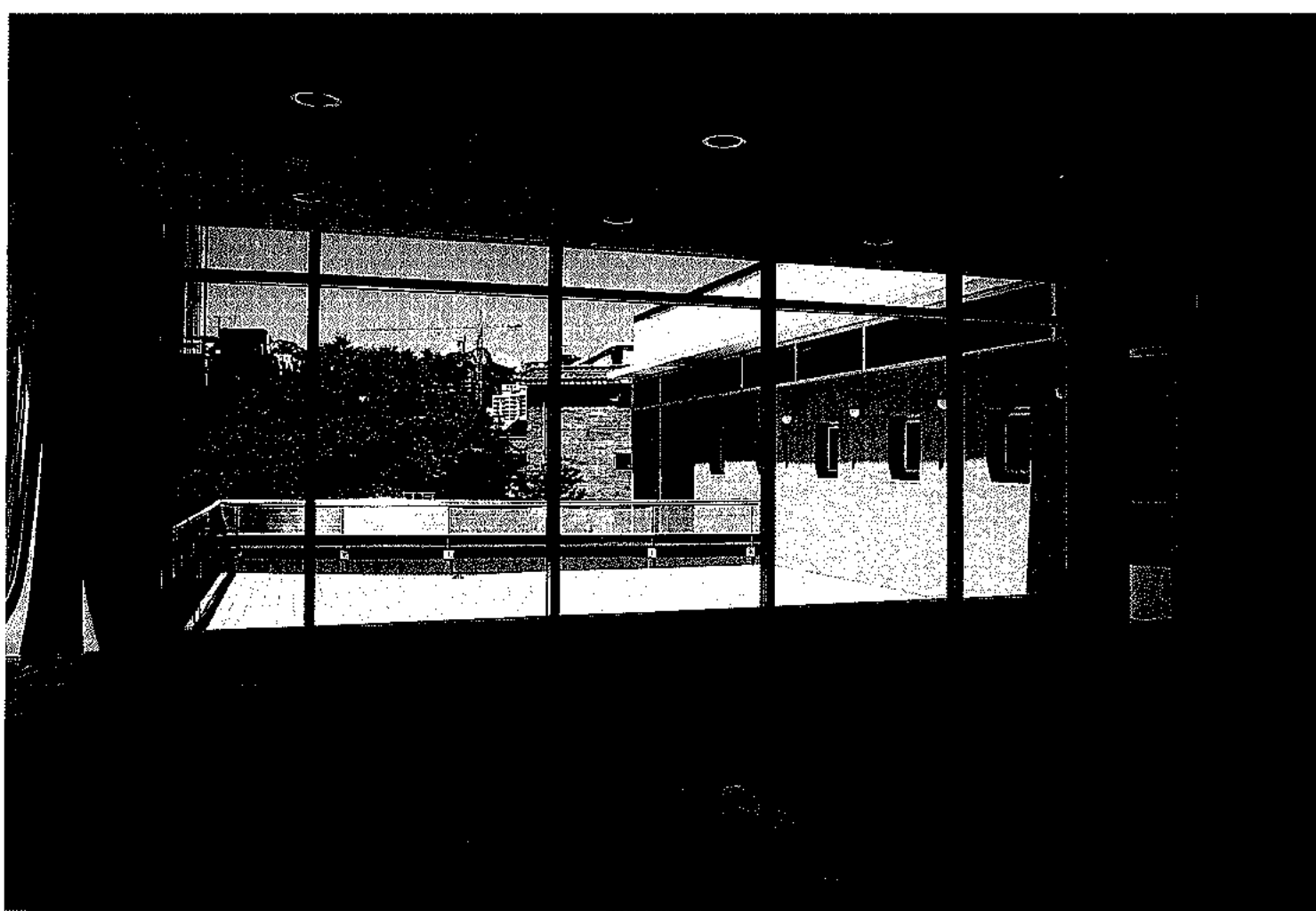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31-32, 3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607.19㎡
건축면적	824.62㎡
건 폐 율	9.0%
연 면 적	1,770.86㎡
용 적 륜	12.0%
층 수	지하1층, 지상2층
용 도	사원 복지시설
의 장	드라이버트, 목재
건 축 주	한국산업은행
시 공 자	(주)대아건설 대표이사 김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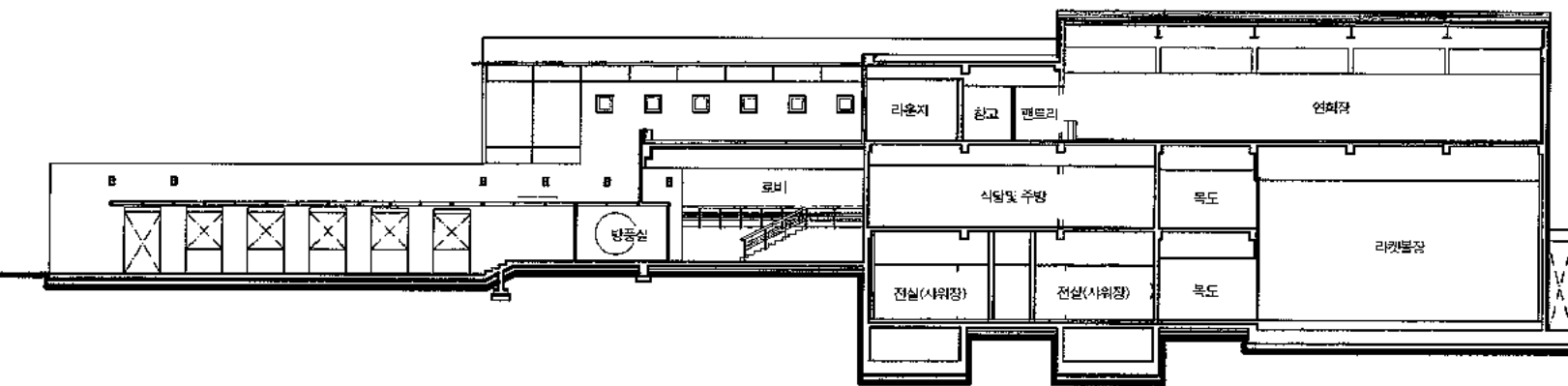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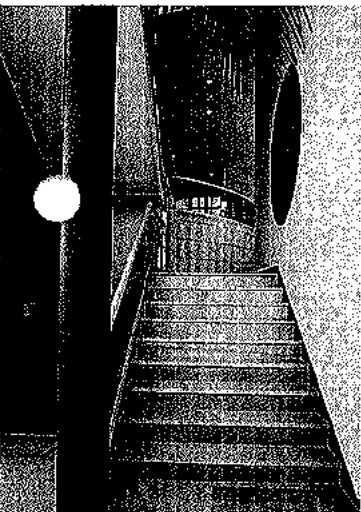




2층 라운지



2층 복도



1층 로비



2층 복도

니콘프레시전 코리아(주) 사옥

Nikon Precision Korea

이영희 · 정영균/(주)희림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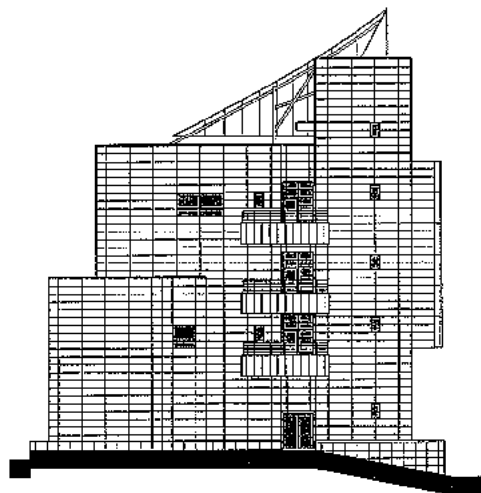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Young-Hee & Chung Young-Kyun

니콘 프레시전 코리아(주)는 카메라로 유명한 니콘의 계열사로 반도체 기계인 스테파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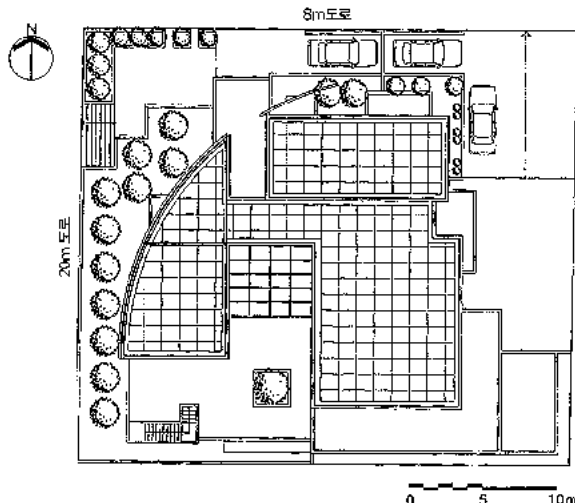
이 건물은 국내에서 일하는 자사원들을 위한 기능과 함께 스테파가 공급되는 대기업 직원들의 실습장으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이 건물은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대지임을 감안하여 이 건물을 움직이는 고속도로 상의 시선을 중심으로 전체 매스를 계획함으로써 이 건물 자체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정면성이 분명하지 않은 이 건물도 이러한 시점으로 보면 곡면 커튼월이 정면으로 반응하며 곡면이 끝나는 지점에 기둥이 위치하여 주출입구를 나타내고 있다. 옥탑부의 광고탑은 달리는 자동차에서의 시선으로 마무리 된 삼각형의 형태이며 니콘사의 로고와 이미지 색상인 파랑, 노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광고탑에 연결된 철골구조물은 광고탑과 건물을 일체화 시키며 곡면 커튼월의 이미지를 연장시킨다.

곡면 커튼월에서 튀어나온 형태는 위쪽 발코니와 함께 평면을 정리하며 이 건물의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평면 배치에 있어 1층, 2층은 주로 대기업 직원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스테파 참고, 휴게실 등을 배치했고 로비에는 2층으로 오픈된 아트리움이 있다. 나머지 층은 니콘 프레시전 코리아(주) 사원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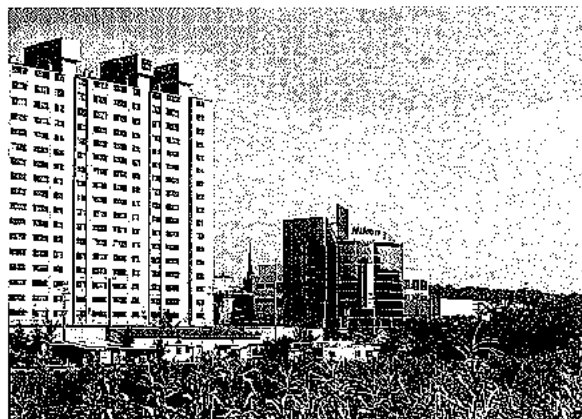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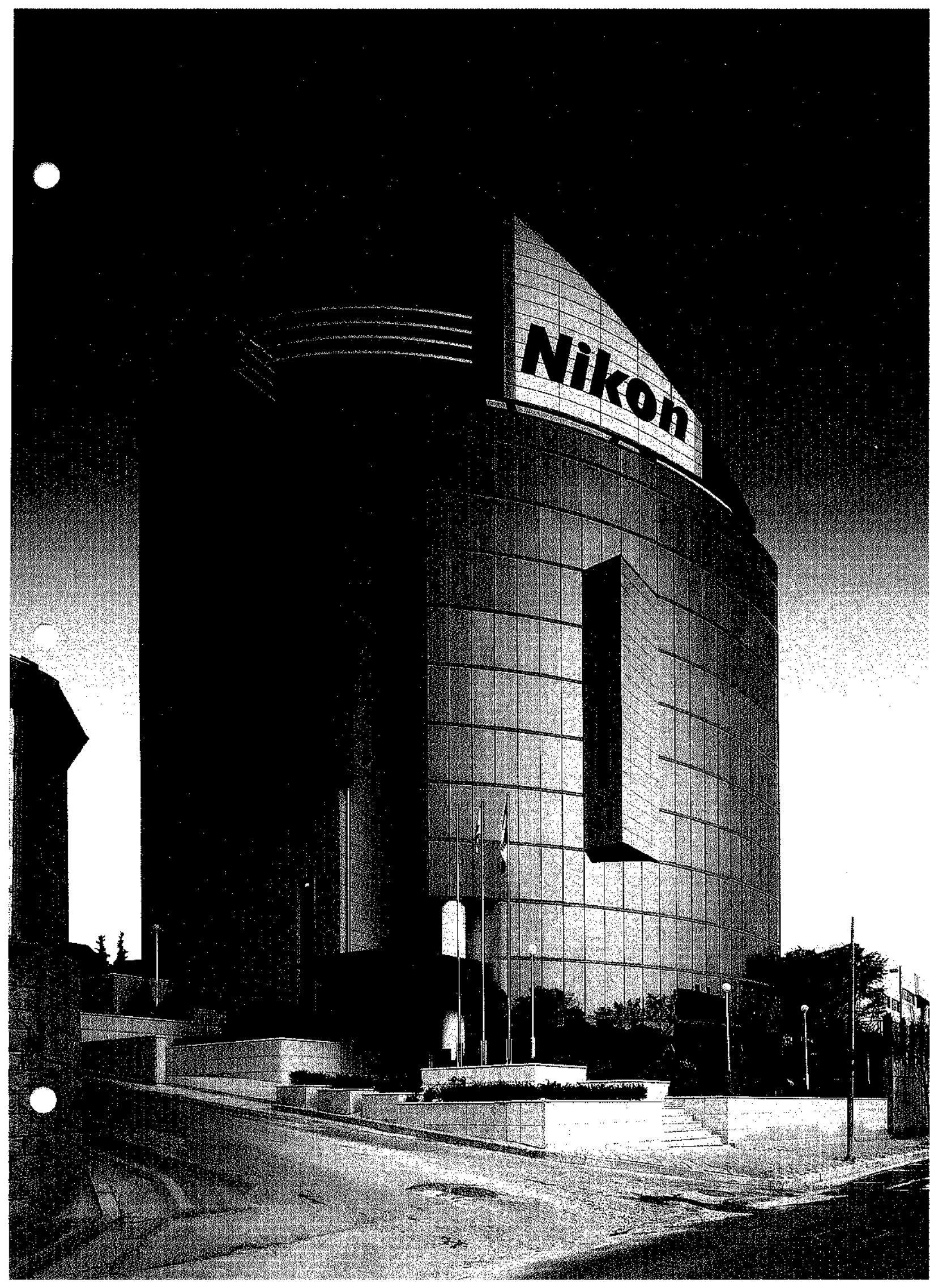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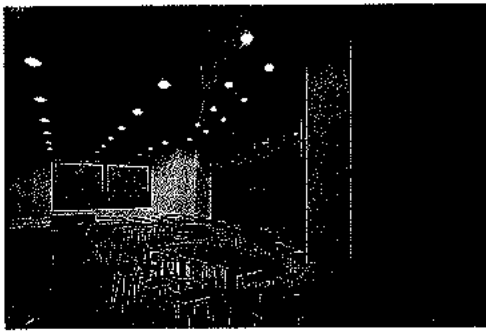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17-24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991.8㎡
건축면적	441.39㎡
연면적	2,402.62㎡
건폐율	44.50%
용적률	182.21%
용도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4 복합페널+THK24 파스텔 북충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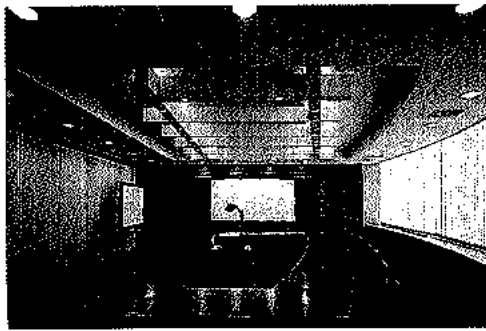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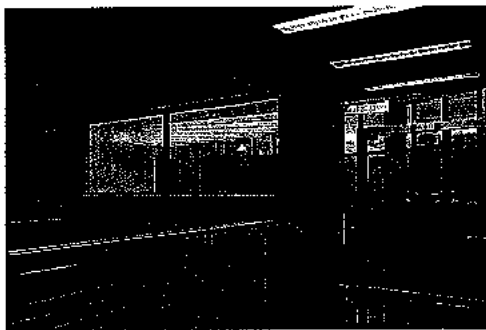




5층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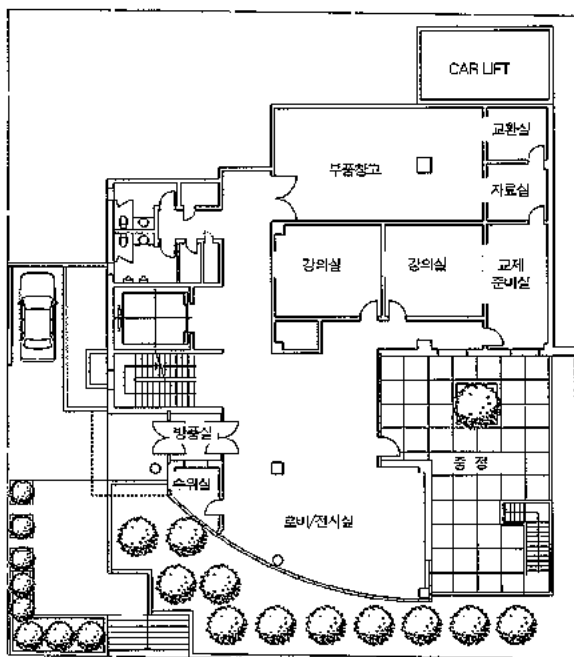
3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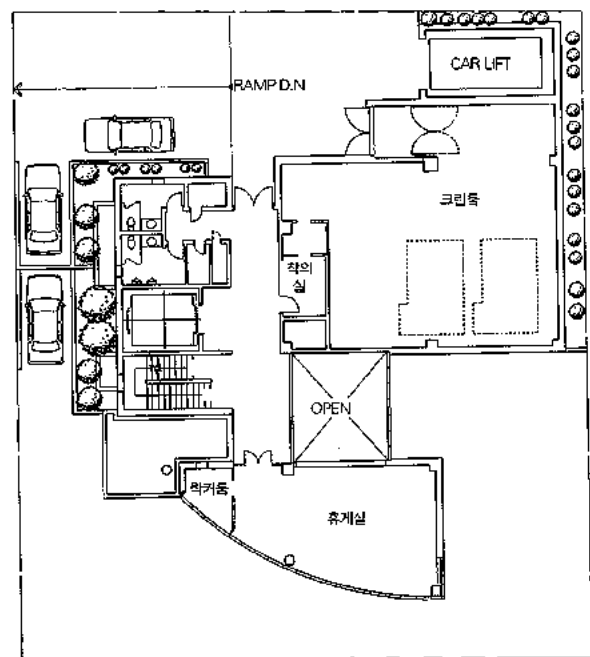
2층에서 본 아트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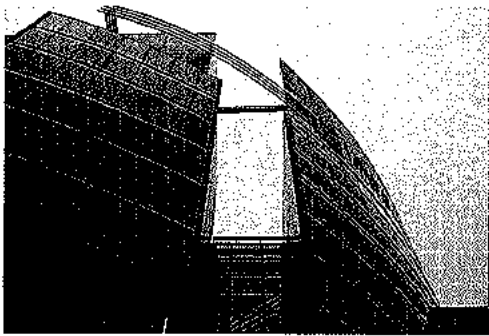
아트라운 내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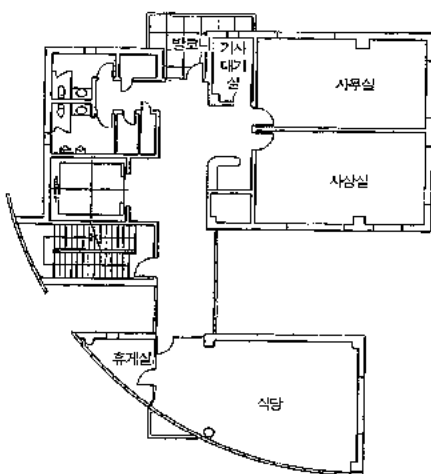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올라다 본 상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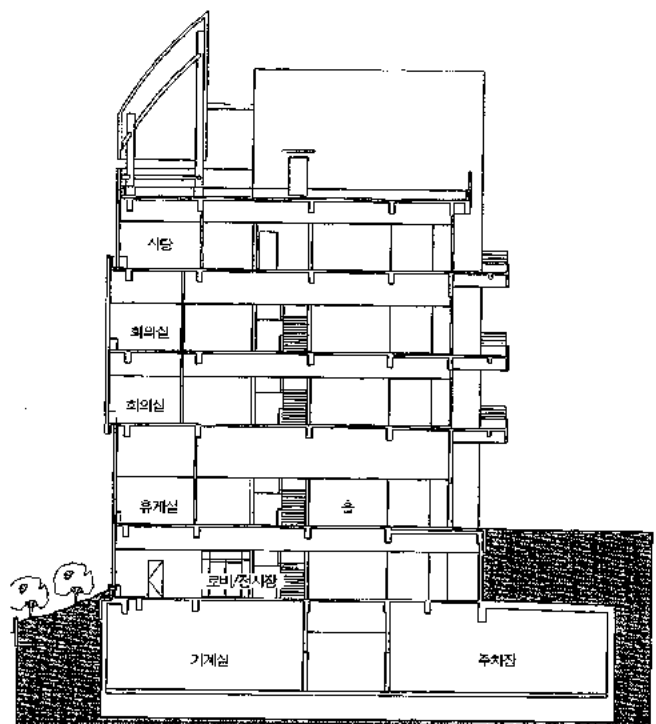
복합 공간



2층 휴게실



5층 평면도



종단면도

독도박물관

Tokdo Museum

유 권/(주)사·상건축+김혜정

Designed by Yu Kun & Kim Hye-Jung

오각형 섬(울릉도)에 세워진 삼봉도(독도)박물관.
도동 약수 공원내 대지에 인접한 기존 향토 사료관과 신축중인
삭도(索道) 시설.

자연 속의 대지와 산세와 능선과 마을과 바다.
성인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자연의 중첩되는 선들.
선으로 형성되는 면들의 반복.
그 모두를 포용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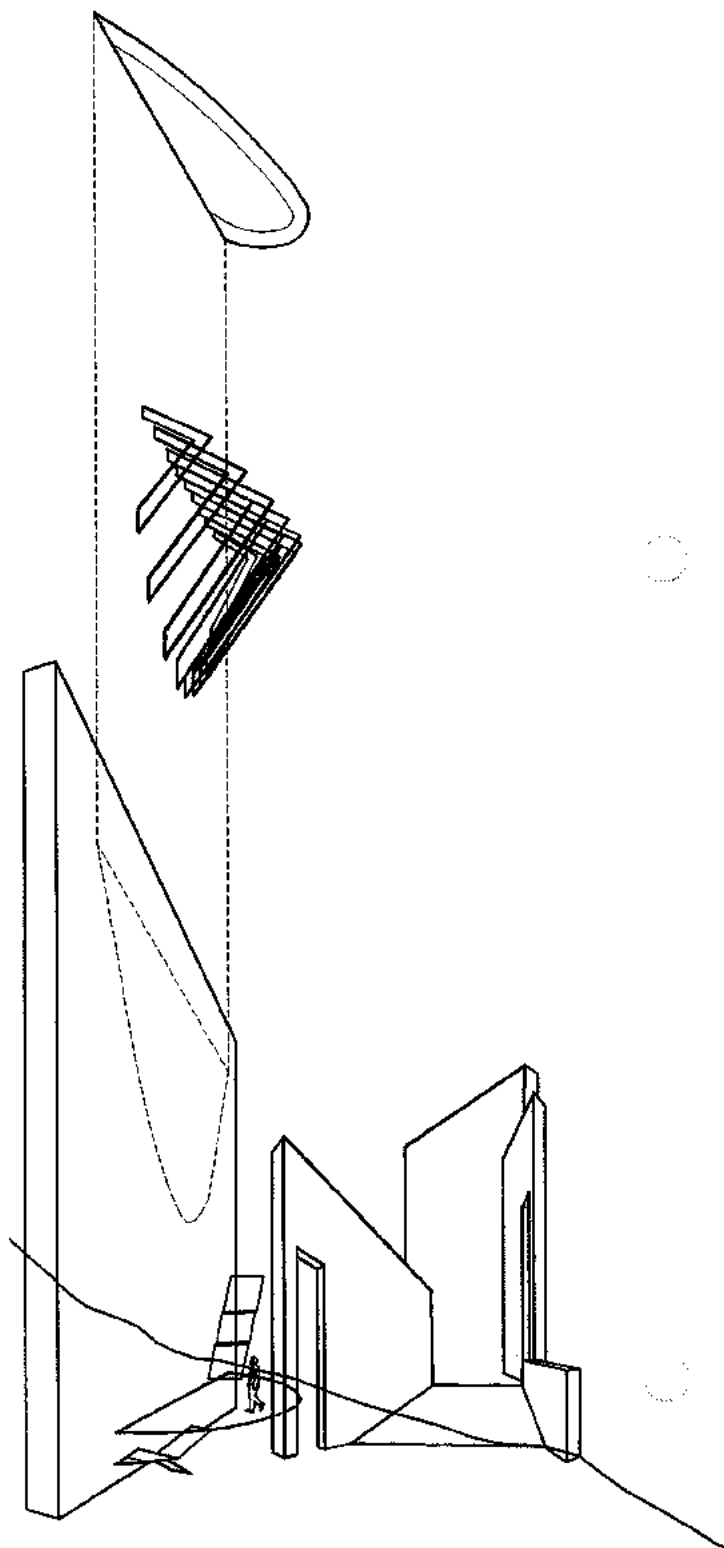
영토의 경계를 의미하여 앞으로 우리 세대의 기록으로 남을 넓
은 면 독(獨).

삼봉을 상징하는 무채색의 3개의 면.
동해의 일출을 연상시키는 중앙홀의 형태
바다를 의미하는 빛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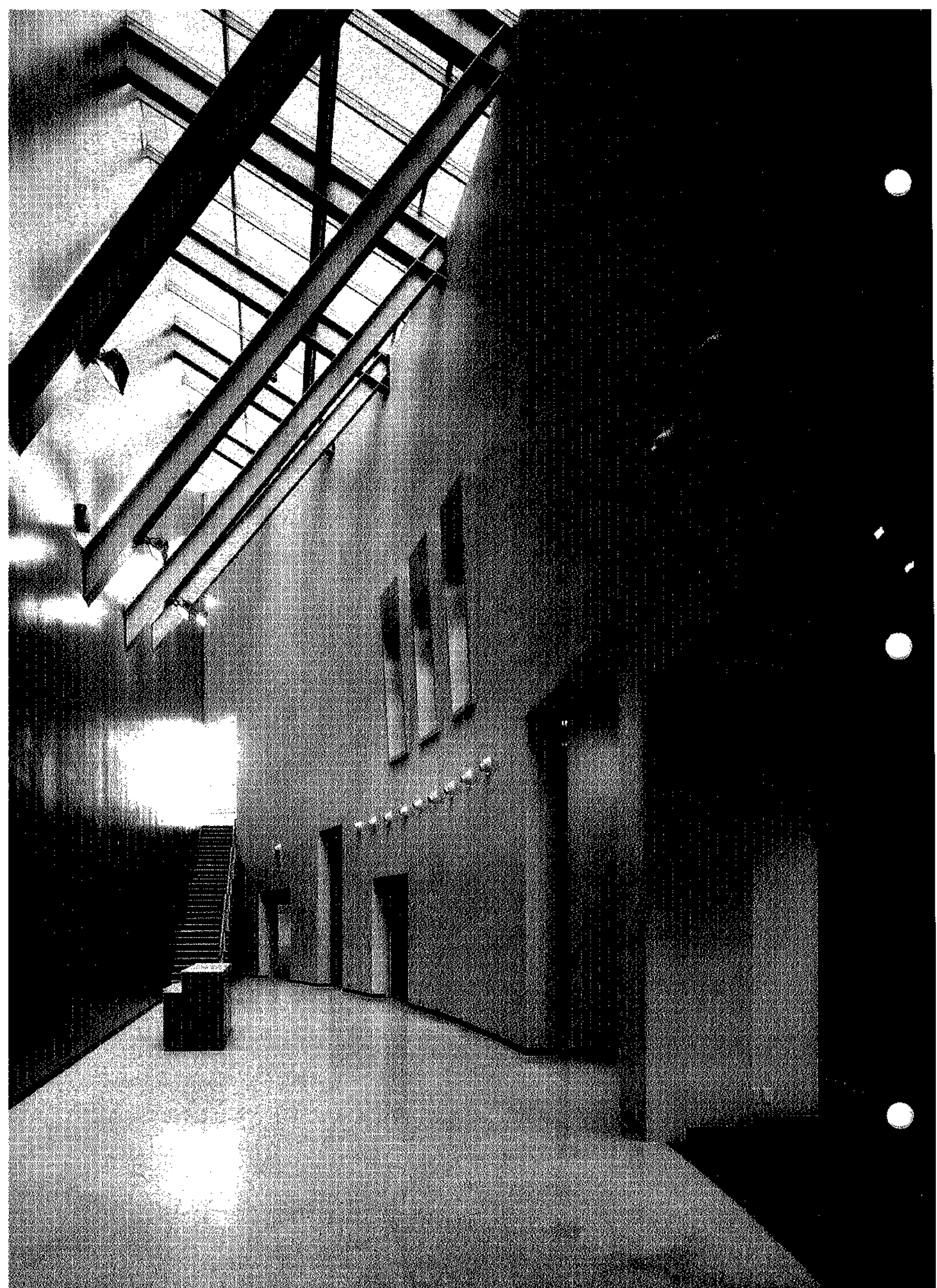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의 형태와 공간을 한데모아 독도 박물관을 구성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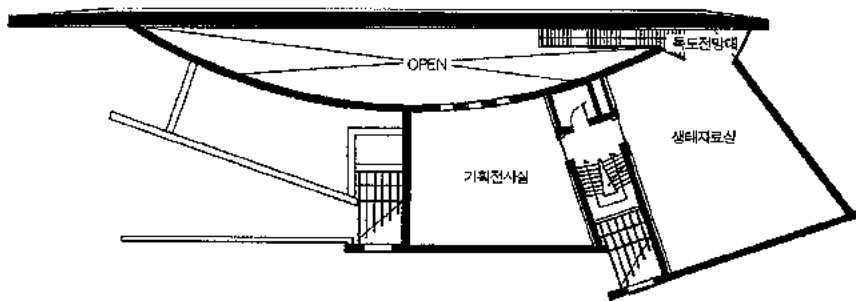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약수 공원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자연독지지역
대지면적	8,068.00㎡
건축면적	677.36㎡
연 면 적	1,599.87㎡
건 폐 율	8.40%
용 적 륜	13.10%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주 용 도	전시시설
구 조	환경그룹
기계설비	고도기술
전기설비	대화 기술단
전시계획	한집 디자인
토 목	(주)덕천 엔지니어링
건 축 주	삼성문화재단
시 공 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설계담당	백수훈, 주정영, 이상신, 유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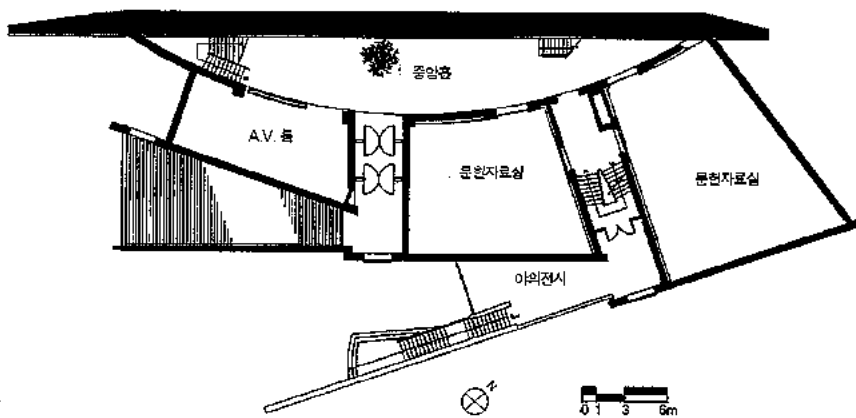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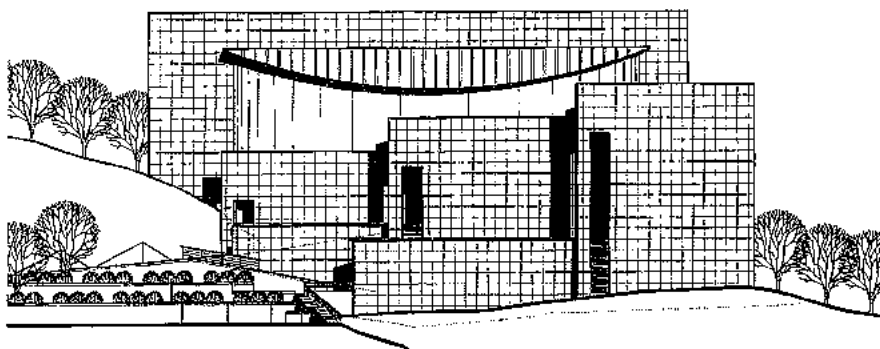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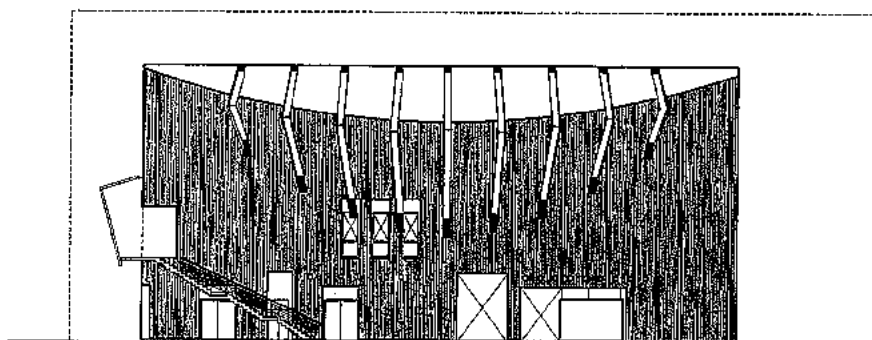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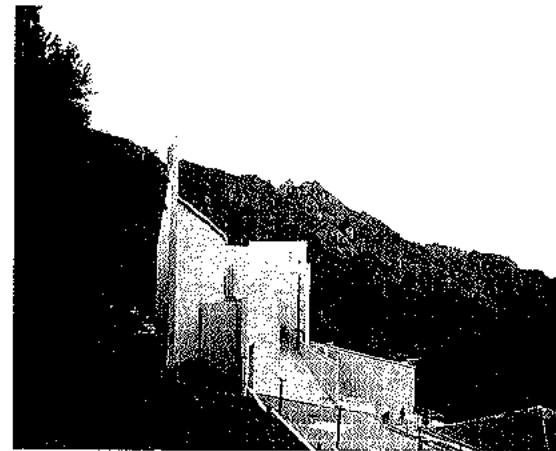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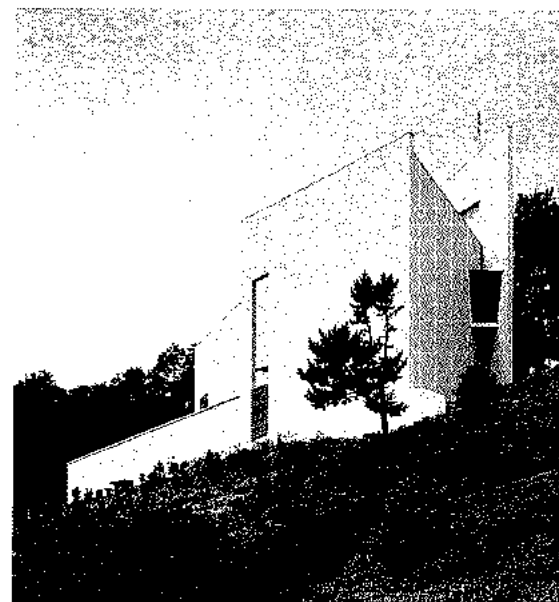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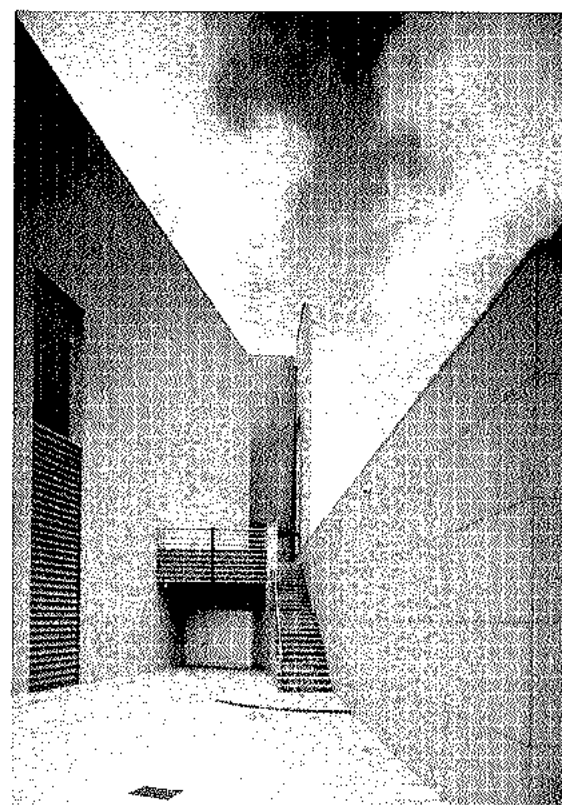
내부 출전개도



서측 전경



동측 전경



주출입구 전경

부천농협

Puccheon Nonghy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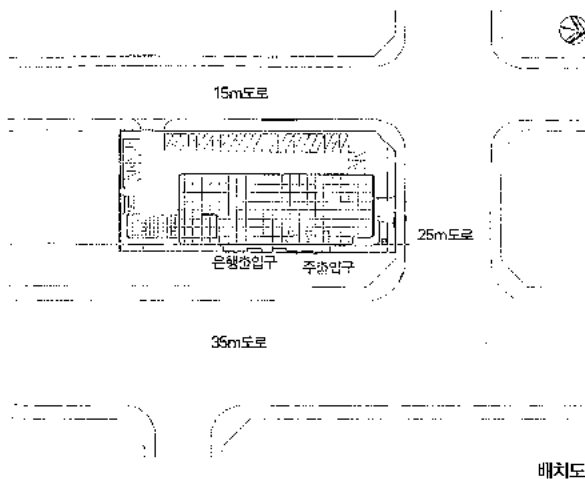
김영석/극동영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Young-Suk

배치개념

- 도시설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면도로에 면하게 건축지정선을 지정선에 따라 배치하고 전면도로의 보도공간을 이용 1층 일부에 피로티공간을 두어 보행자의 주출입구를 설정하였다.

평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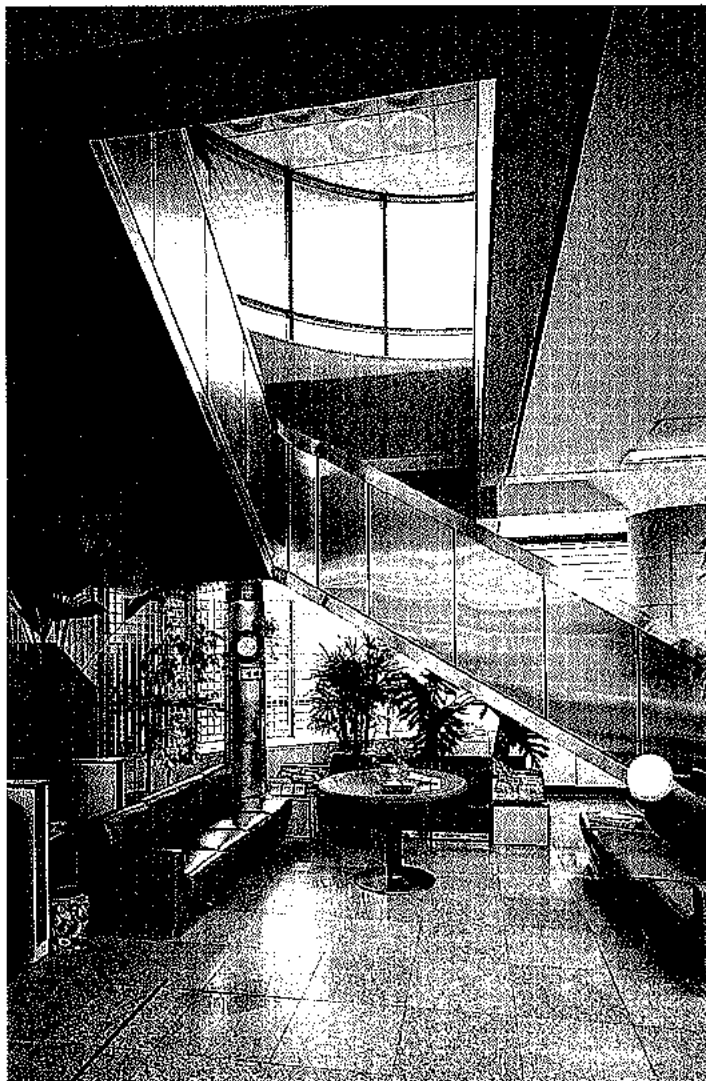
- 코아 계획 : 농협업무의 기본업무인 금융업소와 농산물 판매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축코아로 집약시켰다.
- 수직동선 계획 : 지하층의 농산물 수퍼마켓 이용객의 주된 동선은 에스컬레이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2~5층 용도인 사무실의 주된 수직동선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분리 이용객과의 동선 분리유도하였다
- 피난계단 : 코아부위에 있는 특별피난계단과 화물용 부출입구 부분에 있는 피난계단의 분리배치로 피난시 이용객 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주차동선계획 : 기계실 주차타워로 현대문명의 편의와 시간절약을 도모하였다.
- 지체부자유자전용 현관램프, 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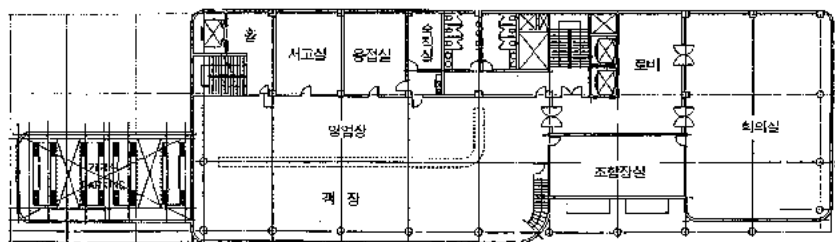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중동사업지구 K블록 15, 16, 17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구
대지면적	2,739㎡
건축면적	1,267.83㎡
연 면 적	9,884.11㎡
건 폐 율	46.28%
용 적 륜	210.58%
규 모	지하2층, 지하5층 RC구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판, 파스텔 18mm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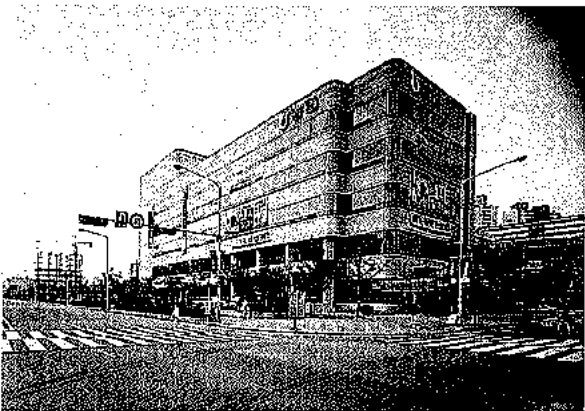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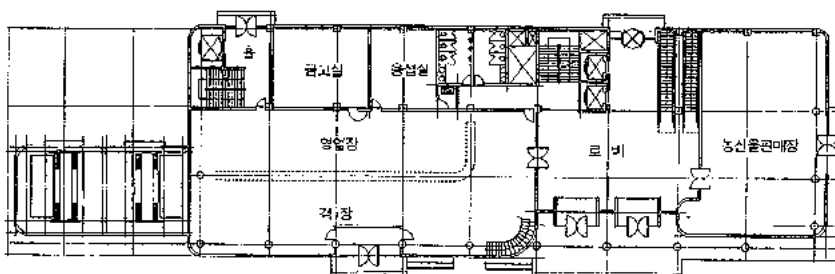
1층객장



2층 평면도



전경



1층 평면도



분당전람회 주택

Pundang Residence

강석원/그룹가 건축도시연구소
Designed by Kang Suk-Won

집이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가족의 공통성을 끌어내고 조화시켜 나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주거공간은 가족의 단란, 유희, 사색 등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휴식, 취침, 배설 등 생리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분당 전람회단지주택은 우선 생활의 쾌적함을 추구했다. 내부의 여러 장치를 통해 주생활에 적당한 온 습도, 조명, 환기 등의 환경적 기능과 생리적 쾌적함, 공간의 깊이, 색, 마감재, 빛의 상태가 생활에 적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고려한 것이 가족 분위의 주거공간이다. 노인과 자녀, 부부 등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울려 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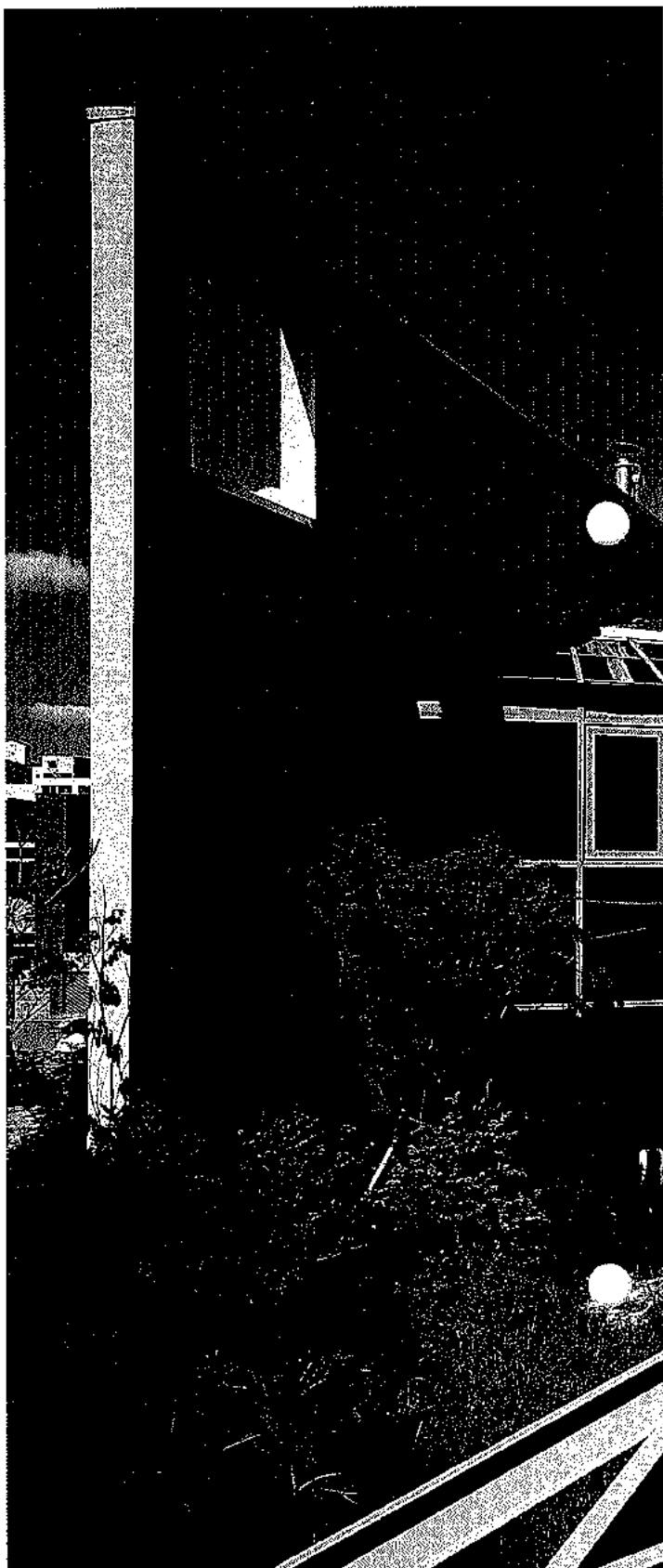
전람회단지 주택은 3세대 동거형 주거로 가정하고 계획된 것으로 통신과 공간의 효율적 구성과 그 연계성을 중요시하였다. 지하층에는 보일러실, 설비용 피토를, 1, 2층에는 주생활 공간을 배치하였다. 1층은 2세대(주인부부)의 주공간과 서재, 거실, 식당, 주방,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했고 2층에는 1세대(노부모)와 3세대(자녀)의 주공간과 가족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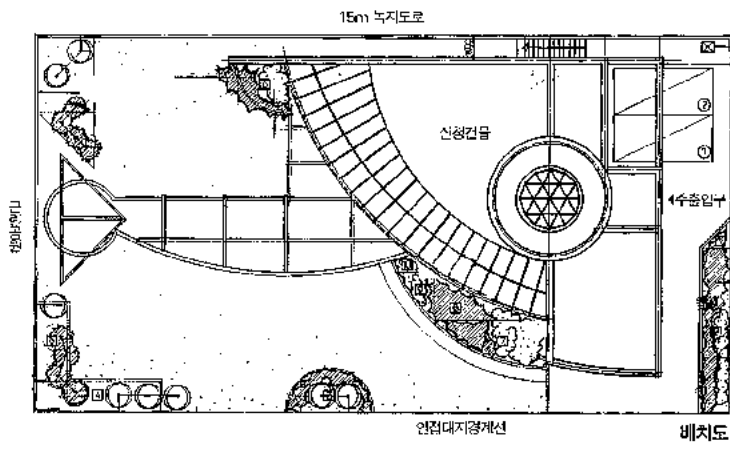
1층은 휴을 중심으로 휴식과 사색을 취하는 정적인 공간과 가벼운 운동, 대화, 놀이가 가능한 동적인 공간으로 분리하여 성격을 구분하였다. 식당과 주방사이에는 문을 두어 각각의 공간에 독립성을 주었다. 특히 삼세대주거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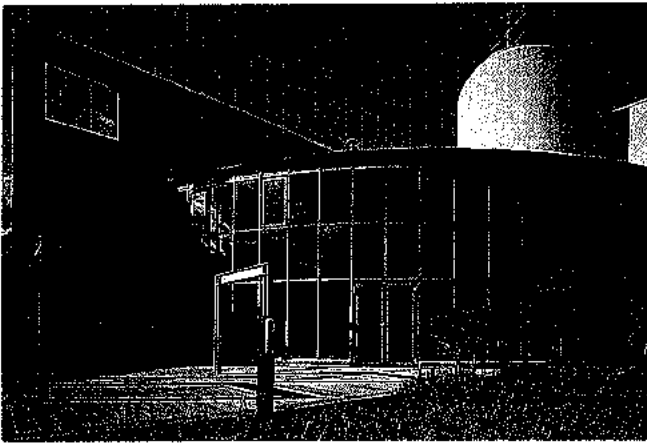
식당과 거실, 서재와 거실 사이에는 약간의 레벨 차이를 두어 거실이 독립된 느낌을 주었다. 거실은 커튼월로 전망을 확보하여 정원과 연결시켰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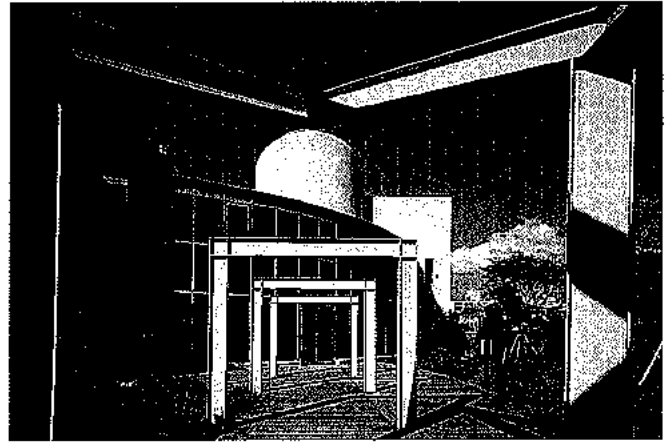
대지위치	성남시 분당구 특별 설계구역C-11-68B/L		
지역지구	주거지역 특별설계구역		
대지면적	643.04㎡	건축면적	185.49㎡
건 폐 율	28.84%	연 면 적	326.82㎡
용 적 률	47.73%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드라이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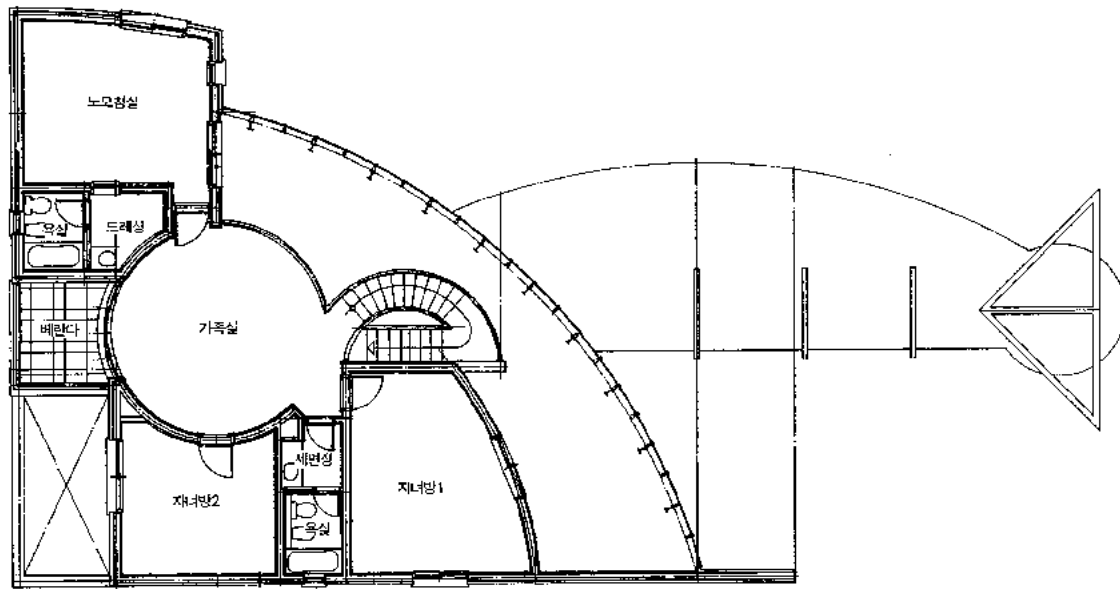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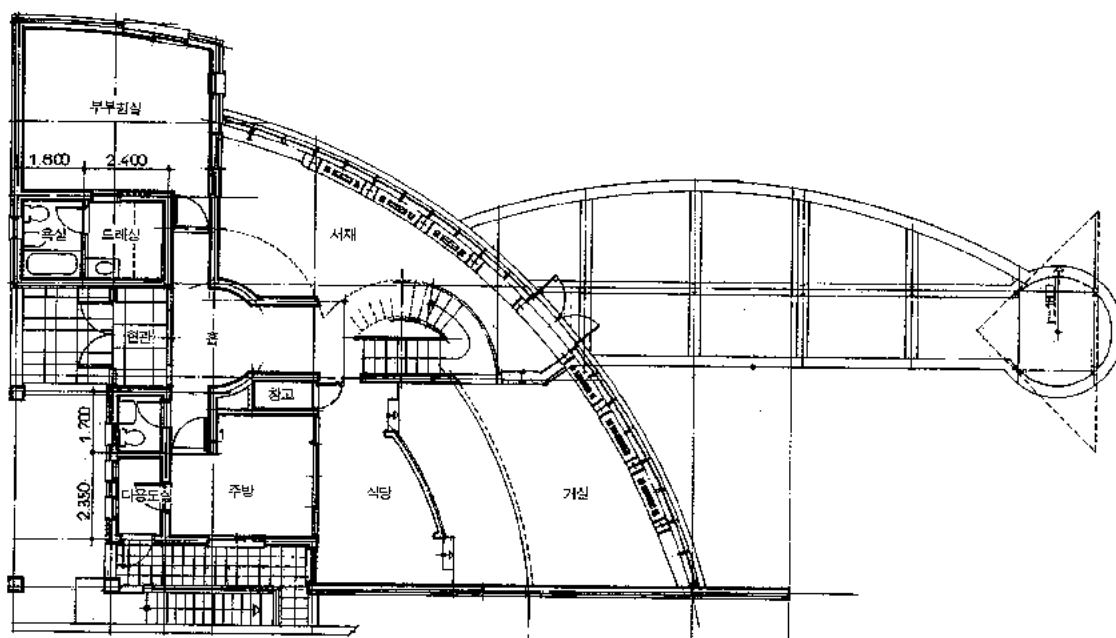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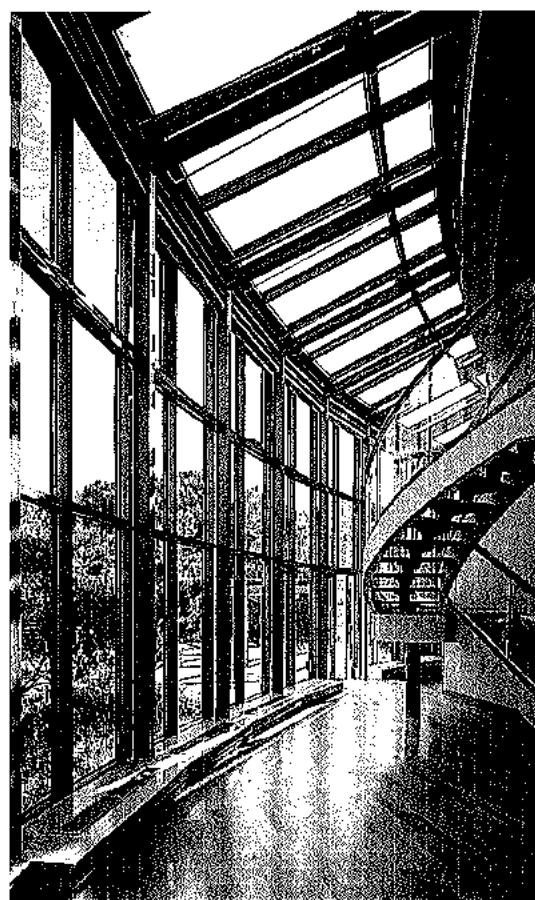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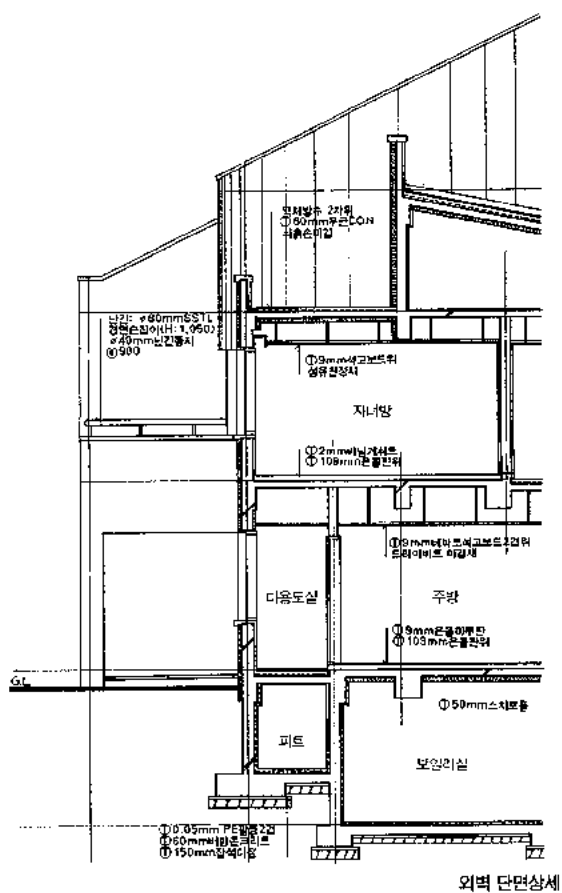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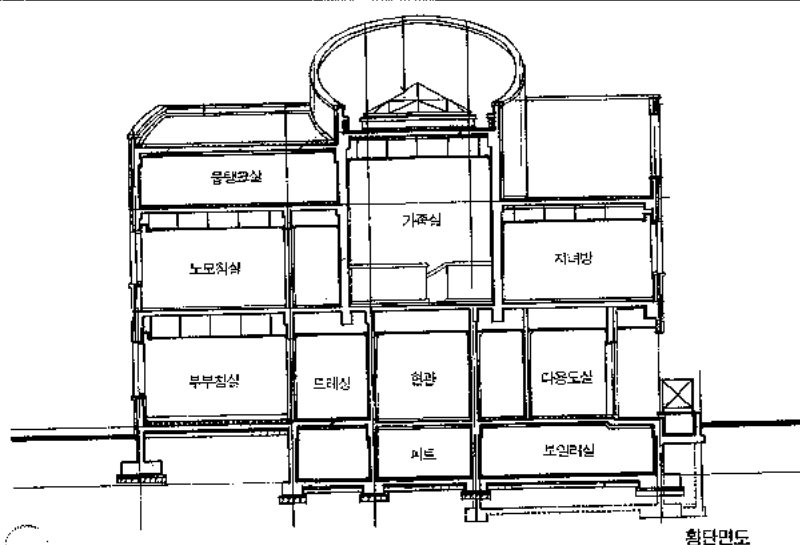
남서측전경(철골구조물)



2층평면도



1층평면도



피정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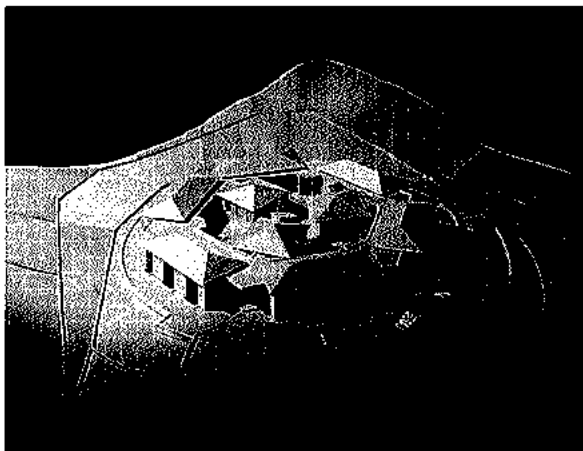
Saint Paul's Retreat House

서보광/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지형적으로 기존의 건축물(안나의 집:양로원, 수녀원, 청소년의 집 등)들 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를 조망하기에 좋으며, 주위 산에 둘러 싸여 있어 주위의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1층 규모로 높이를 제한하였고, 외부에 면한 건물군의 모임지붕을 전통건축의 한식기와잇기로, 내부 3개의 건물군의 방형지붕은 동판집기로 처리하였고, 외벽면의 하단부와 상단부를 서로 다른 느낌의 적벽돌 치장쌓기를 하였다.

특히, 피정(避靜)의 집은 어울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화 하기위해 원형안에 각각의 요소들이 유기종기 어우러져 있는 형상을 나타내려고 원형안에 정육각형배치를 하였으며, 각각의 실들은 욕실과 반침이 딸린 방으로서 5개방이 하나로 구성된 직육면체로 이루어지며, 직육면체 6개가 홀 또는 현관을 꼭 지점으로부터 서로 연결되며, 각각의 동실2개가 정육각형꼭지점에 하나건너 하나씩 배치되어 정육각형안에 작은 삼각형배치를 이루며 모여있다. 나머지 3곳의 꼭지점마다 창문을 통하여 본 건물의 중앙부에 있는 성모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문을 통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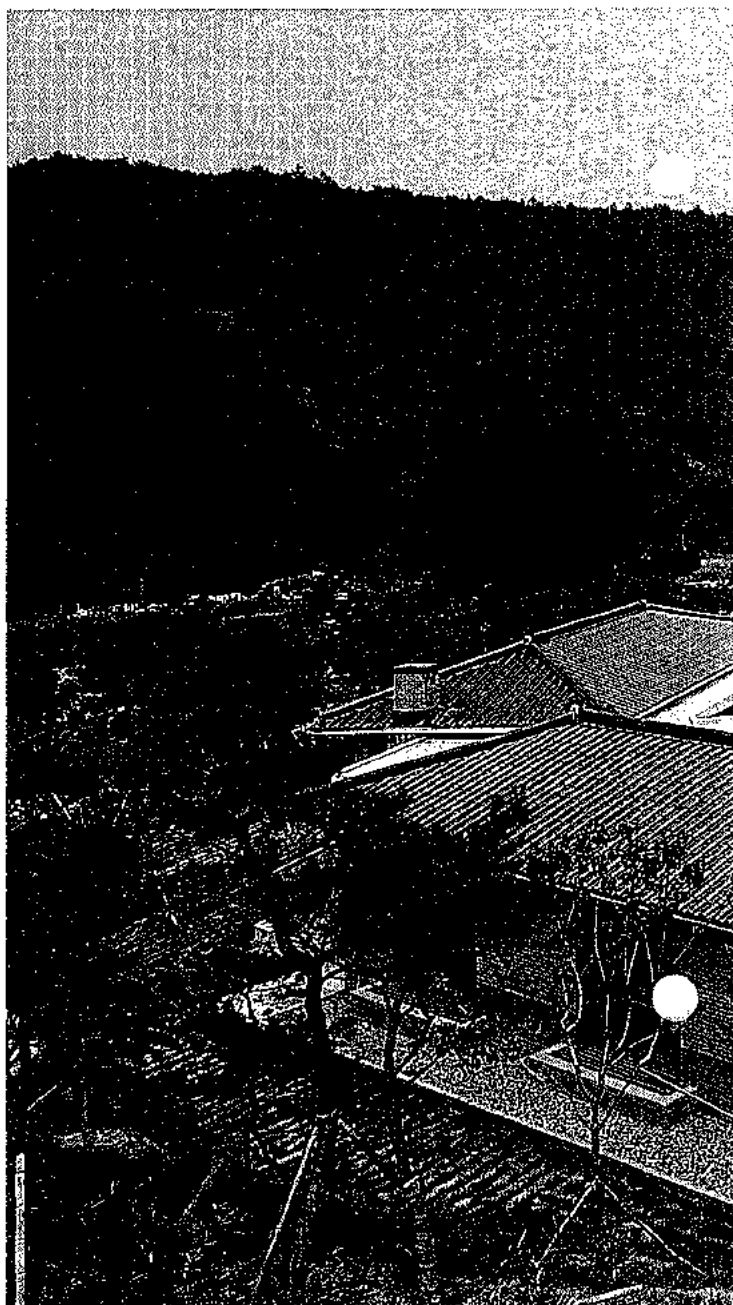
피정의 집은 5명의 수녀님이 한 단위로 피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 \times 1 = 5$ 명, $5 \times 2 = 10$ 명... $5 \times 6 = 30$ 명까지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피정장소이다. 각 5명수용 단위메스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모임이 큰모임으로 만들어져 공동체를 형성시켜준다. 각 단위메스 사이에는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두었는데 창들에 정방형 격자 창살을 넣어 옛날 고향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를 느끼게 했다.



모형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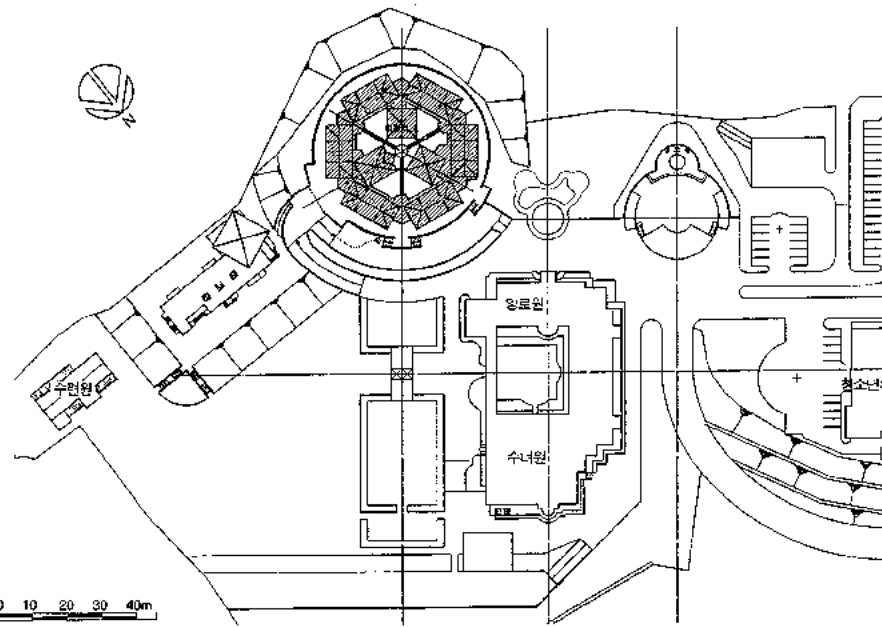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가호동 544	용 도	종교시설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건축면적	960.61㎡
대지면적	11,099㎡	건 폐 율	14.44%
연 면 적	1,128.21㎡	구 조	조적조
용 적 륜	13.06%		
규 모	지하1층, 지상1층		
내부마감	천장-고급천정지, 조리페트, 벽-내부용 본타일, 고급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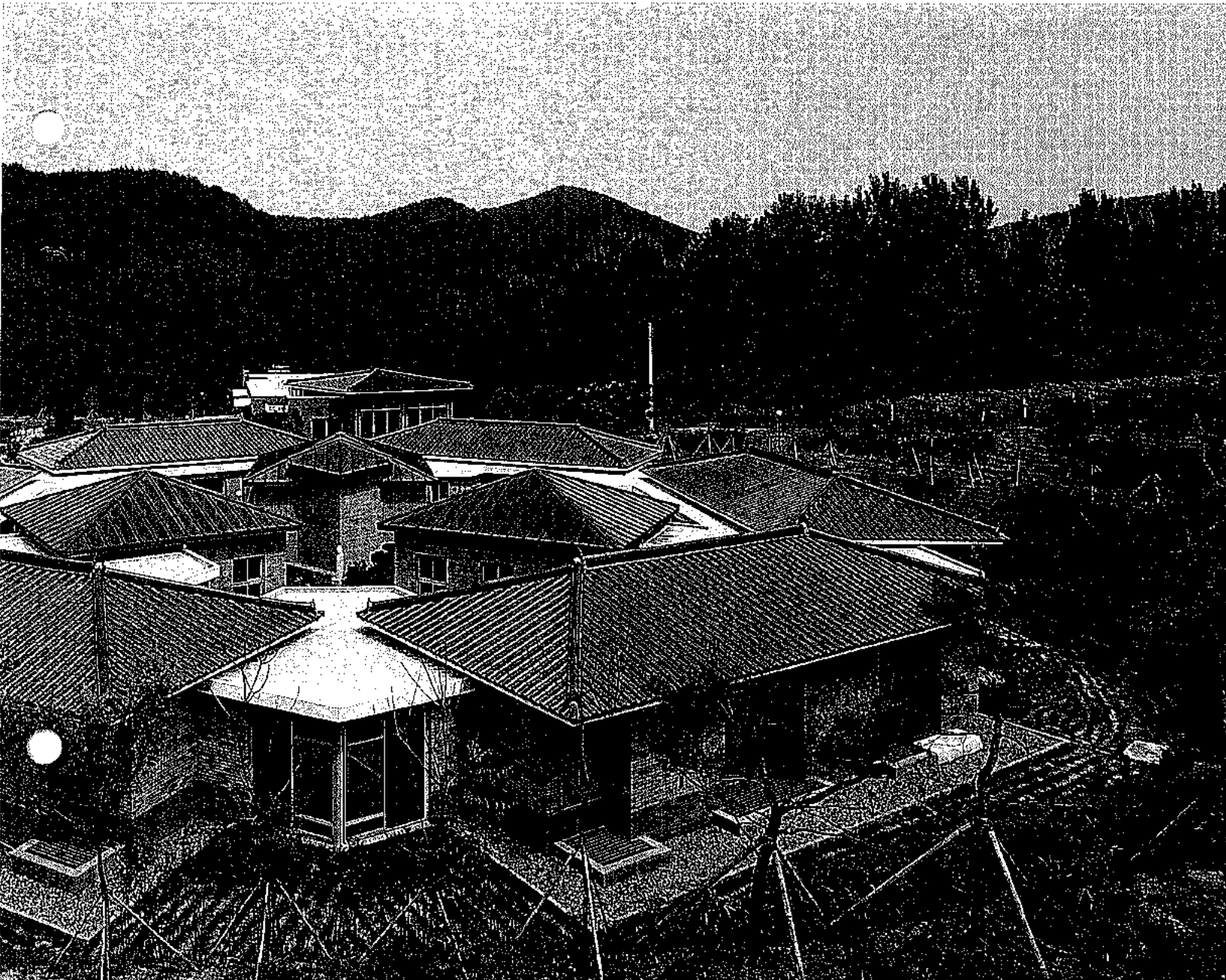


중점

외부마감 지붕 - 기와잇기
 벽 - 붉은벽돌 치장쌓기
 시 공 자 삼양건설산업(주)
 건 축 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관구
 전기설계 동남전기(주) 설비설계 신아살비 연구소
 성 모 상 최봉자(레지나)수녀
 경당인테리어 김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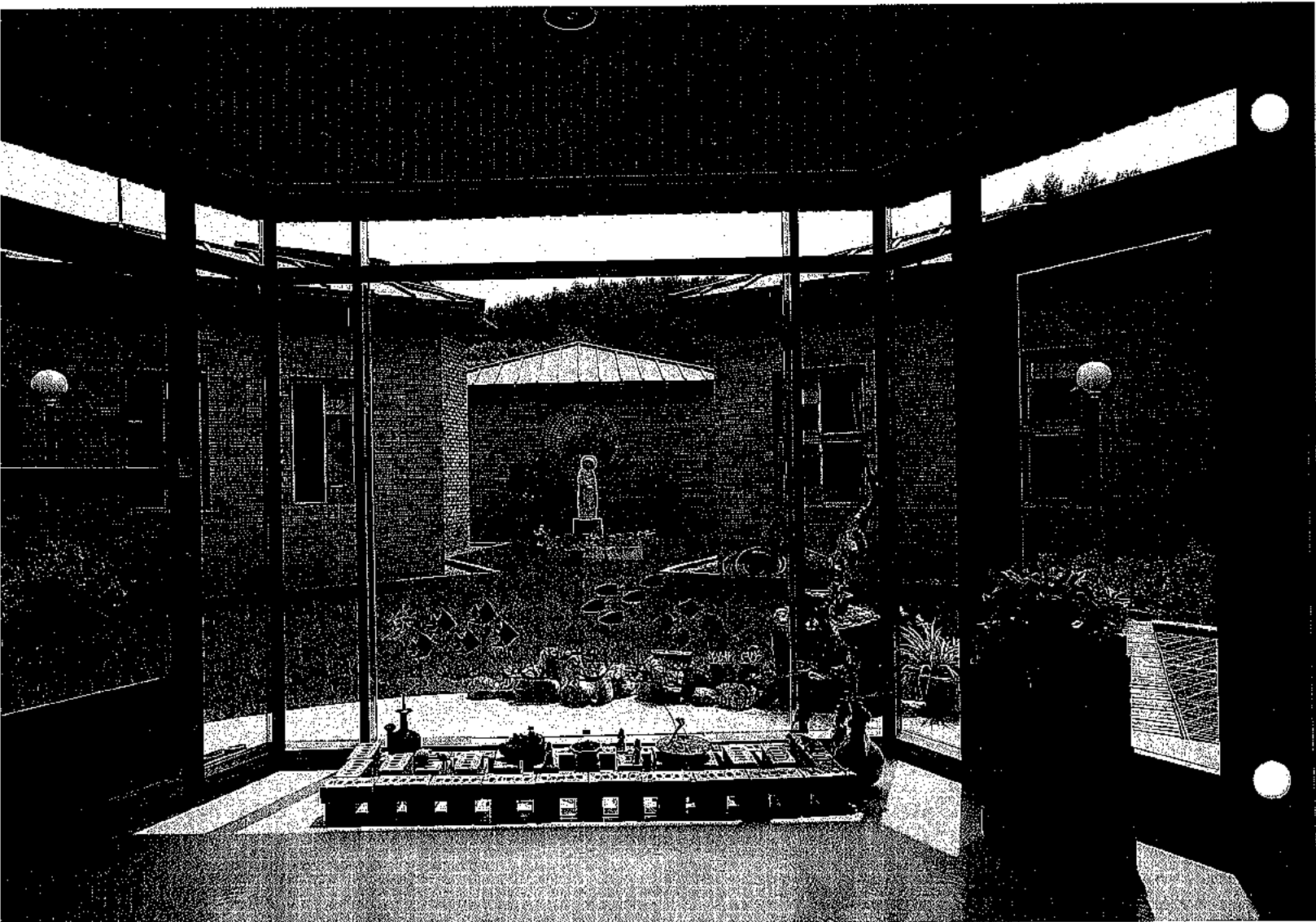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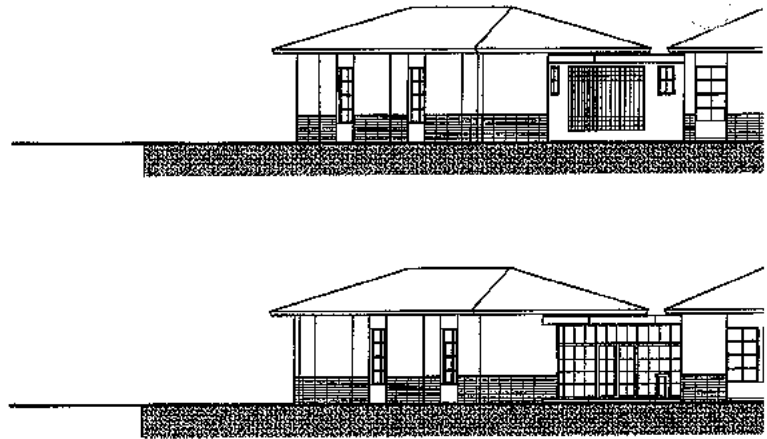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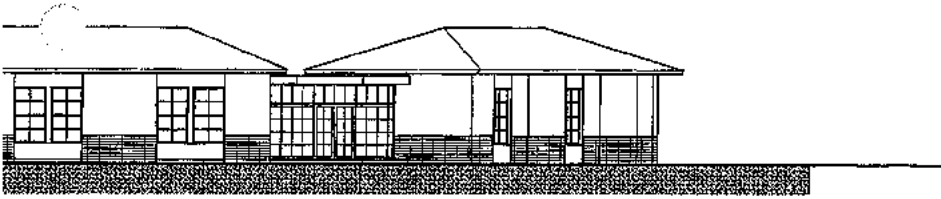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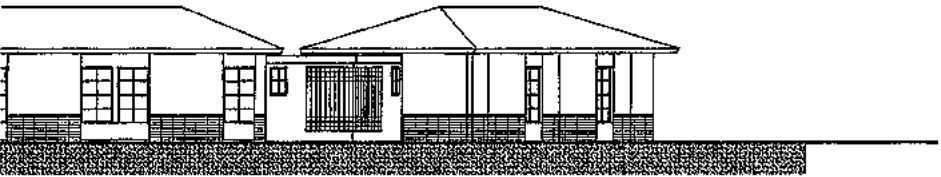
각 코너에 생기는 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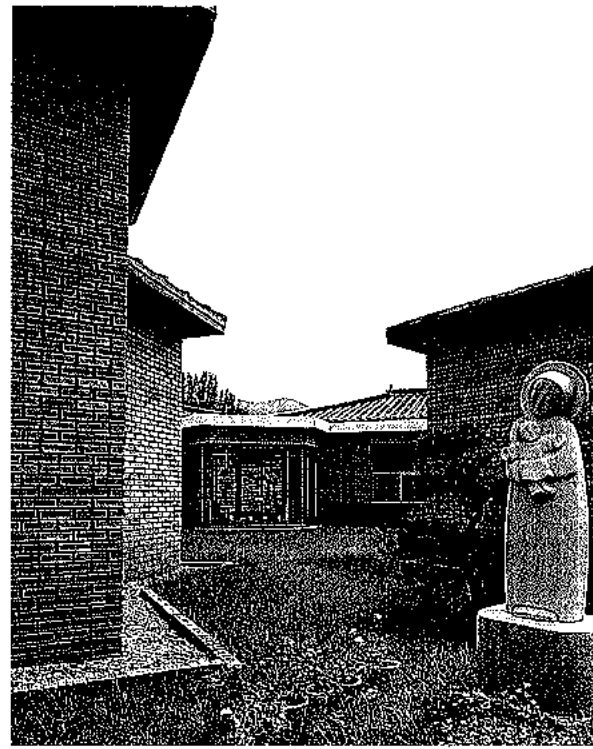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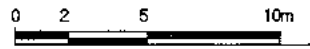
주진입홀에서 본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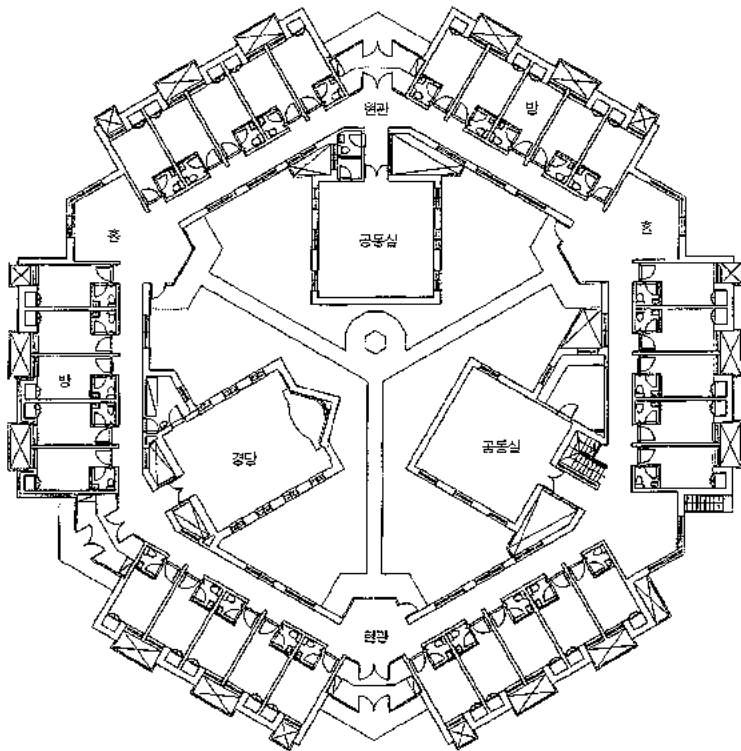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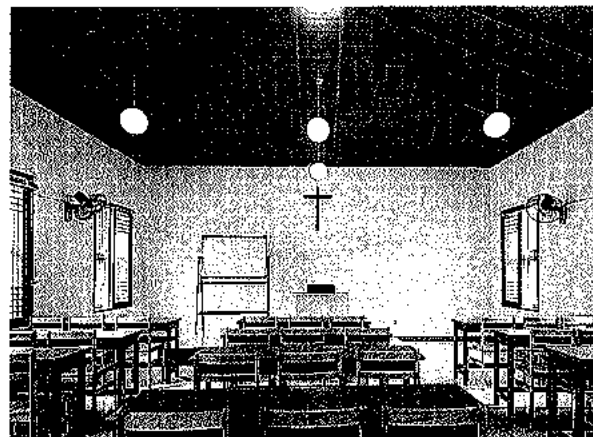
심도상과 중정



1층 평면도



경당내부



공동체실 내부

서초동 K주택

Seocho-dong K's Residence

이영성/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

Designed by Lee Young-Sung

이 대지는 전면이 곡선으로 형성되어 가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인근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조금 높은곳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건물배치는 가능하면 여러 방에서 좋은 전망을 확보시켜 시야가 트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 했고, 인근 주택의 벽면과의 거리를 많이 이격시켜 도심주택의 시야가 막혀 답답함을 가급적 완화시키려 하였다.

또한 대지 외곽이 곡면 형태지만 직삼각형 형태에 가까운 대지에서 가급적이면 마당을 많이 확보하려는 등의 이유에서 건물 축을 인근주택들과 45° 틀어지게 배치하여 정남향을 향하게 하면서 각 면에서 시야를 어느 정도 확보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건물 외관도 Box형태에서 탈피하여 모퉁이에 원형기둥과 코너 유리창을 이용하여 디자인 Point로 처리하였고 외장은 황토색상의 「모노쿠쉬」라는 소재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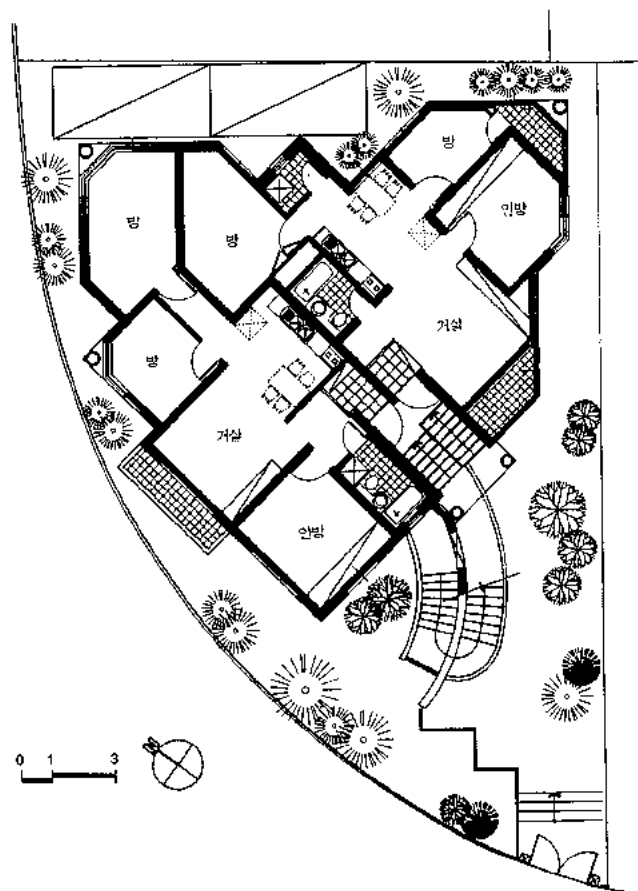
평면 구성은 상기와 같은 배치 결과로 일부 사선형태의 실내가 형성되었고 이는 규격화에서 탈피된 공간구성의 자유스러움과 함께 재미있는 방의 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시 좁은 공간에서의 사선도입은 평면계획시 일부 난해한점도 있었다.

이 건물의 또하나의 특징은 2층 주인 출입 계단을 전면 에 별도로 배치시켜 임대세대와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이 계단 초입부에 출입문을 다시 설치하여 대문속의 소대문으로 처리하였고 이 계단벽을 곡면처리하여 임대세대에 대한 시선 차단과 동시에 또하나의 건물 외장 요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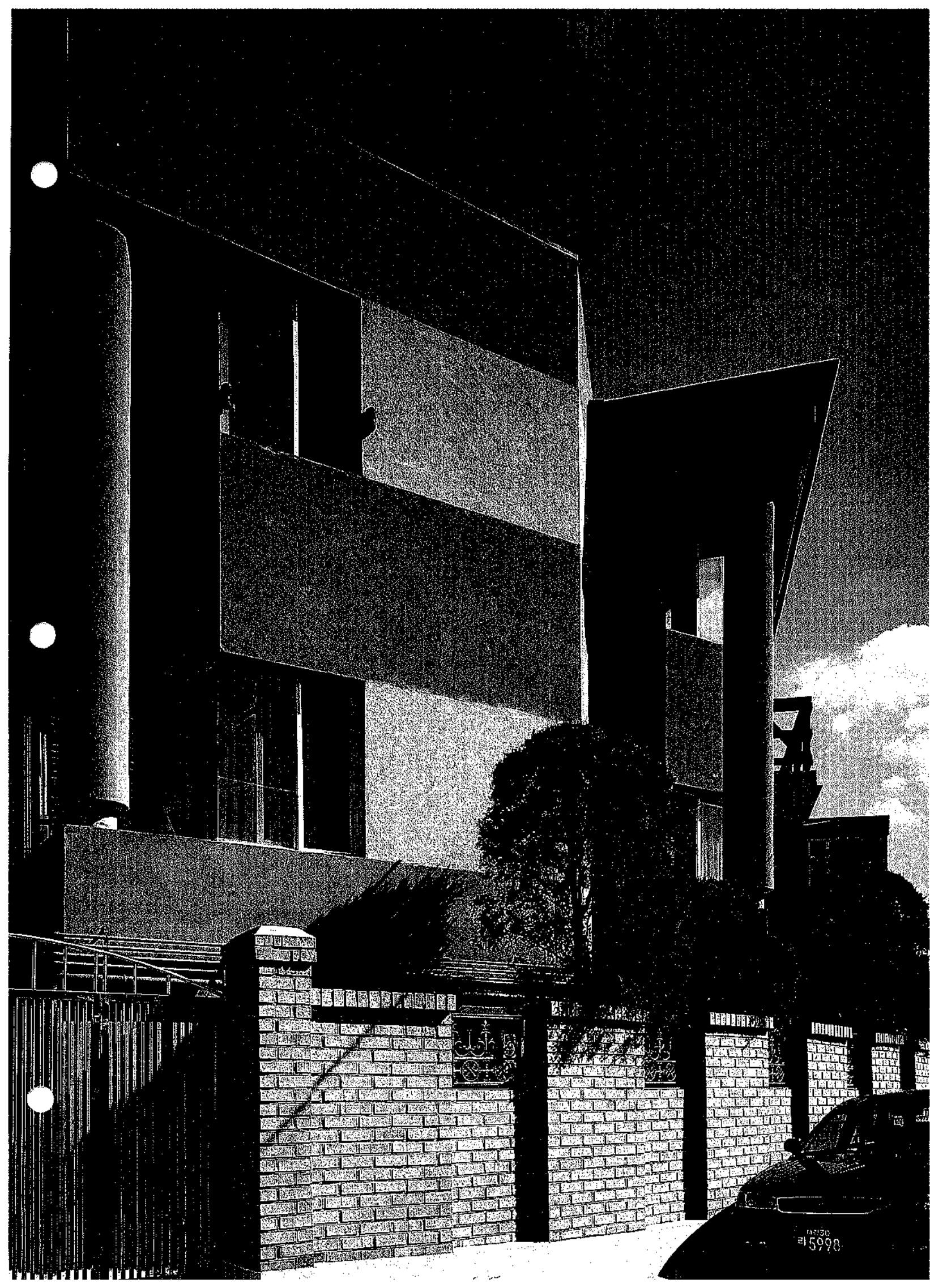
설계자의 안이 일반적인 규격을 벗어날 경우 건축주를 설득시키기 힘들고, 건축주 또한 처음 대하는 형태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되나, 다행히 건축주는 설계자의 그러한 디자인 의도를 이해하여 이 설계안을 받아들였고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 같지않은 다가구 주택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3-1
지 역	주거전용지역
대지면적	367.8㎡
건축면적	183.07㎡
연 면 적	477.17㎡
건 폐 율	49.77%
용 적 륜	83.99%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조적조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모노쿠쉬
세 대 수	6세대
	지하1층 3세대
	1층 2세대
	2층 1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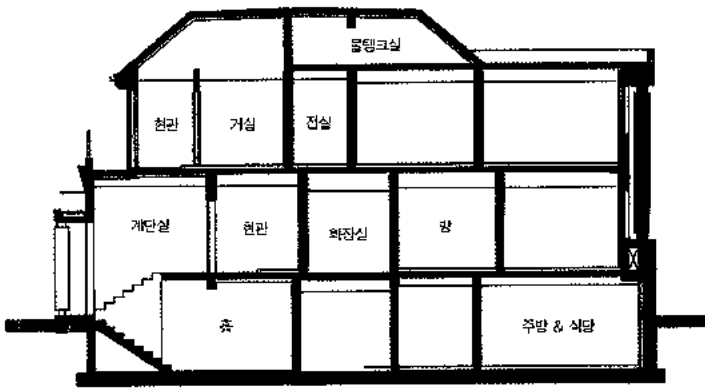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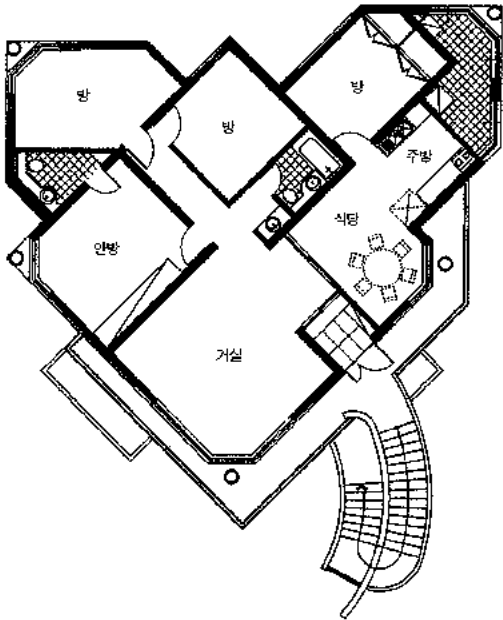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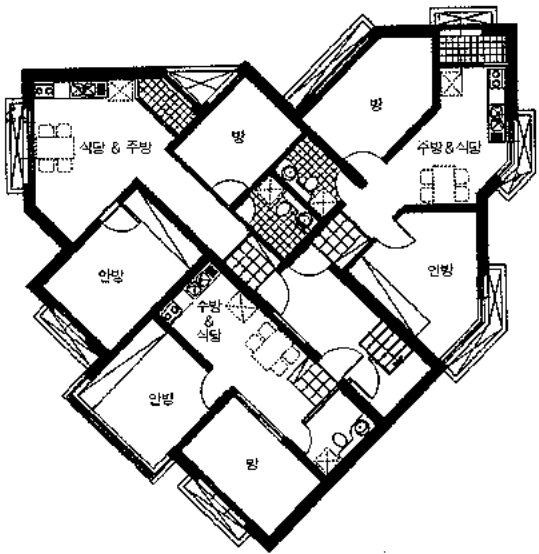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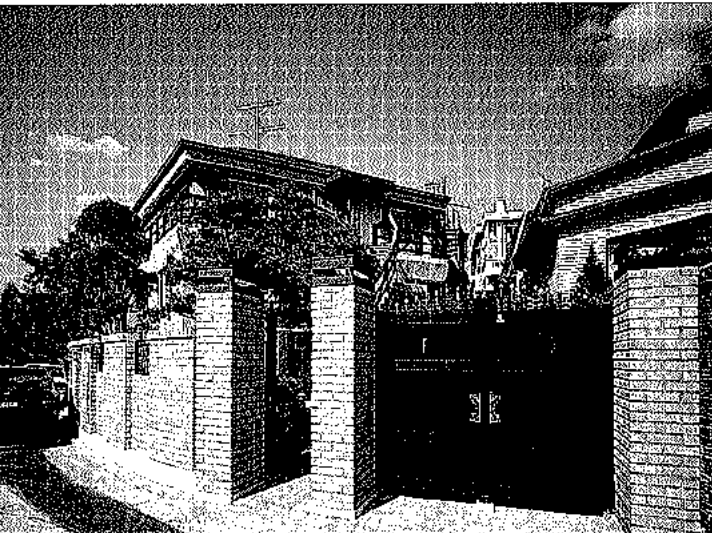
단면도



외부 2층 연결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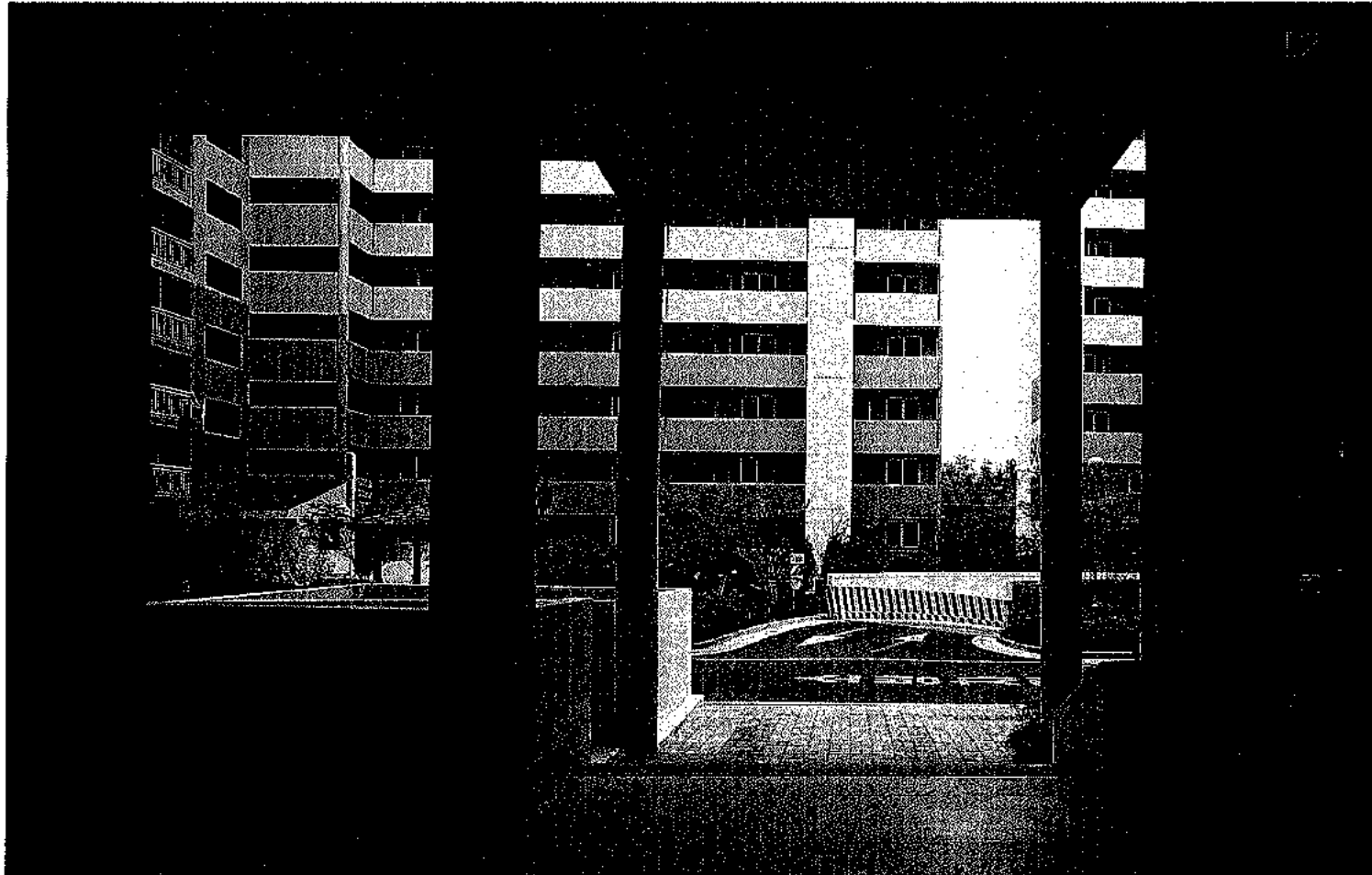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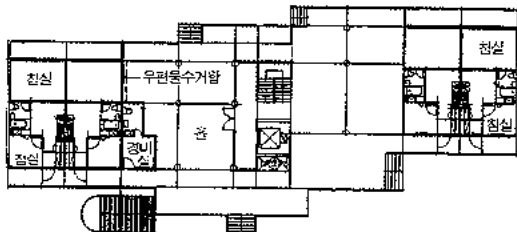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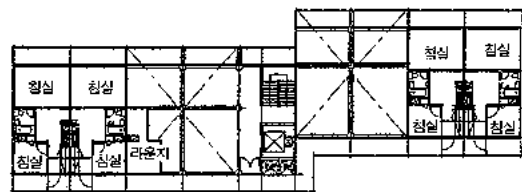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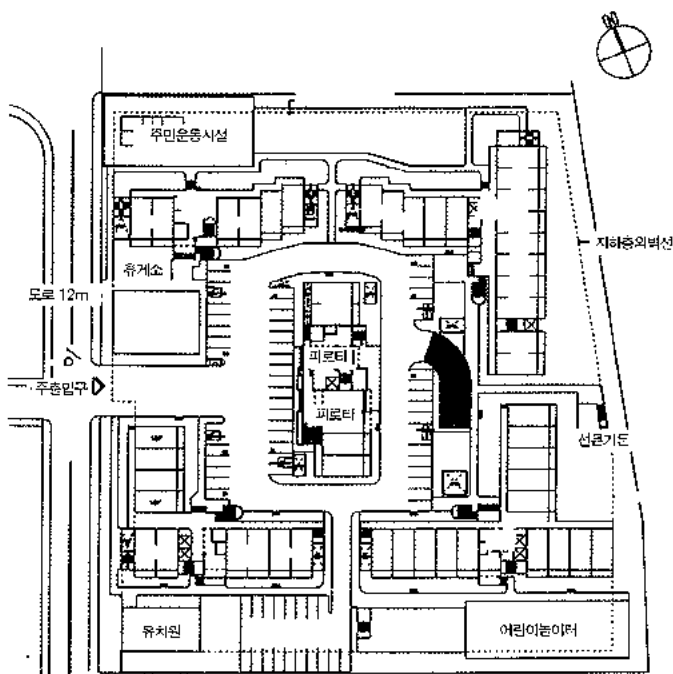
2개층 피로티에서 외부를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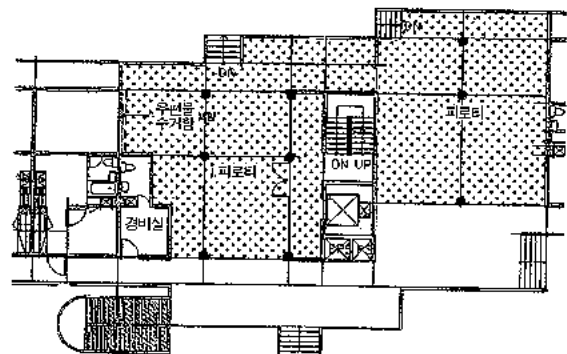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CORE 평면도



중앙동 2개층 피로티 전경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완)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

장순용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 연 재 순 서 ◇

〈1회〉

1. 출발집합!
2. 발리 이야기
3. 팍팍씨렁 사원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5. 발리의 전통가옥
6. 코끼리사원

〈2회〉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8. 보로부두루
9. 빠원
10. 문두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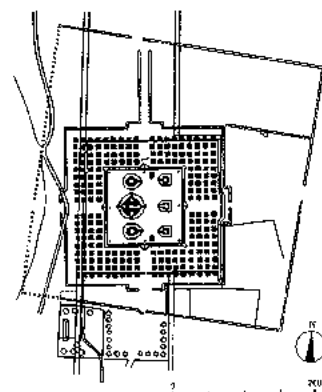
11. 프람바난
12. 세우
13. 플라오산
14. 칼라산
15. 공항의 해프닝
16. 발리로 향하다
17. 따만이운 힌두사원
18. 맺음말

11. 프람바난(Chandi Prambanan)

오전에는 불교사원을 보았고 점심후에는 힌두교 사원의 답사길에 나섰다. 시바(Siwa) 또는 전설에 기인한 로로종그랑(Roro Jonggrang)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프람바난 사원에 도착했다. 동네 명칭이 프람바난으로 되어 있다.

오전에 보던 곳과는 달리 복잡한 장식을 한 탑들이 여기 저기 솟아 있고 주변에는 미처 복원하지 못한 석재들이 산적되어 있는 거창한 유적이다.

중앙에는 높이 47m의 시바탑이 동향으로 배치되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브라흐마 탑과 비슈누 탑이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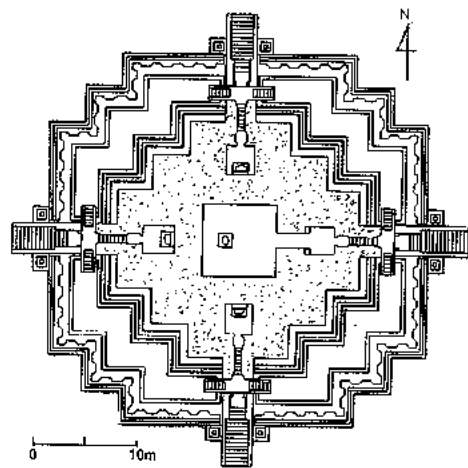


프람바난 사원 배치도

치되고 있어 중앙에 자리잡은 시바신이 중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바섬의 힌두교가 시바파라는 것도 알게 된다. 세탑의 정면에 마주보고 앉은 보다 작은 규모의 탑이 있고 그 안에는 신들이 타고다니는 동물상이 안치되었는데 시바탑에는 난디(Nandi)라는 등에 흑이 난 숫소가 있고, 비슈누 앞에는 가루다(Garuda), 브라흐마 앞에는 한사(Hansa)가 있어 신격으로 숭배된다고 한다.

6개의 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구역이 110m 사방으로 구획되고, 그 외곽으로 222×390m의 장방형 구역에 페르와라(Peruwara)라 부르는 작은 사당들이 234동이 배치되었고 사방의 중앙에 출입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로로종그랑 전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악한 왕이 매일 젊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버릇이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웃한 곳에는 착하고 지혜 많은 왕에게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밀림속에서 15년간 수련하여 신이 도와주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돌아온다. 악한 왕의 습격을 걱정하던 왕이 왕자에게 전쟁을 준비시키고, 왕자는 기술적으로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지고 서로간에 많은 사상자를 낸 후에 악한 왕과 왕자가 맞대결하여 악한 왕이 죽게 되자 악한 왕의 군대는 모두 도망간다. 왕자가 군대를 이끌고 점령한 왕궁에 입성하여 뒤지다 보니 미모의 여인이 발견되고, 그녀는 왕자가 죽인 왕의 공주이며 이름은 로로종그랑인 것이 밝혀진다. 왕자는 첫눈에 반해 결혼을 신청하지만, 공주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일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지닌 우람하고 건장한 왕자지만 얼굴이 흉악스럽게 생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잘못하면 죽게 될 것이 두려워 하루 만에 1000개의 사원을 만들어 준다면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세운다. 공주에게 반한 왕자는 불가능한 일을 실행키로 결심하여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튿날 새벽부터 신령들과 군대의 힘으로 건설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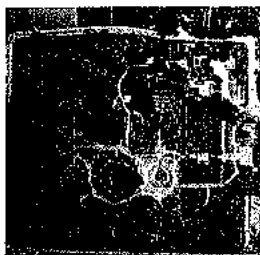


프람바난 시바사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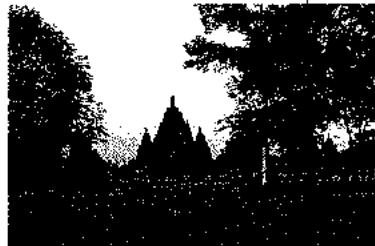
공주가 염려하던 바와 같이 약속된 사원이 다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내의 처녀들을 찾아가 동이 트기 전에 대나무 북을 모두 두들기도록 요청하여 시끄럽게 북소리가 나자 성내의 모든 닭이 목청을 돋구어 울기 시작하고 주민들은 짐짓 농기구를 들고 들일을 보러 나가자 사원건설에 앞장서던 신령들이 날이 밝은 줄 알고 사라져 버리고 작업은 중단된다. 다 되어 가던 중에 별안간 작업이 중지되자 왕자는 그 이유를 찾아 다니다가 로로종그랑이 처녀들과 함께 대나무 북을 두들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공주의 간계임을 알게 된다.

건립된 사원의 수를 세어 보니 1000개에서 하나가 부족한 상태이고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자는 마을 처녀들에게는 처녀로 늙어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고, 공주는 별안간 아름다운 돌조각상으로 변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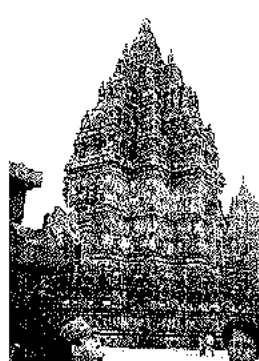
시바탑의 북편 감실에는 시바신의 부인인 두르가(Durga)상이 있어 죽음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고 죽음의 방향인 북편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을 로로종그랑이라고 하여 평생 죽음을 다스리도록 왕자가 저주한 결과라고 믿는



프람바난 사원 항공사진: 중앙에 크게 보이는 부분이 시바탑이고 그 아래가 브라흐마 탑. 위가 비슈누 탑이며 각 탑의 맞은 편에 신 전용의 승용 동물을 안치한 탑이다. 주변에 복원되지 못한 소탑들의 석재가 보인다



프람바난 사원 전경



시바탑 전경: 오른쪽 아래에 가이 드의 얼굴이 보인다



시바탑의 로로종그랑상: 시바의 부인인 두르가(Durga)상으로 북편감실에 안치되어 죽음을 관장한다고 하며 전설상의 공주인 로로종그랑상이라고도 한다. 관람객이 유난히 만진 부분이 검게 묻어있고 있다

다고 한다.

이 전설에서 생각되는 것은 힌두교의 선악이 공존되며 상호의존적인 종교관이다. 악한 왕에게 미모의 공주, 위력이 있고 능률한 왕자에게 추한 얼굴, 아버지를 죽이고 딸에게 침혼, 사랑과 저주 등의 장면이 연속되고 있다. 하루밤에 천개의 사원을 짓는 설화는 전남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 전설과 유사성이 느껴진다.

프람바난 사원의 건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이 있는 모양이며 힌두국인 북부 산자야 왕조의 피카탄 왕이 불교국인 남부 사이렌드라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여 힌두교와 불교의 합작으로 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사원은 1733년에 알려졌고 이후로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복원작업이 간간히 이루어져 답사 당시에도 한 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불교사원에서 보았던 보리수를 중심으로한 상징적 윤곽과 라마나 스토리도 비슷한 상황이고 보면 자바에서의 힌두교와 불교는 공존적이고 상호 교류적인 종교로 되었던 모양이다.

12. 세우(Chandi Sewu)

프람바난 사원의 북편에 세우사원이 있어 도보로 이동하기로 하고 차량은 세우에 대가하도록 예정되었는데 일행중 한 분이 보이지 않아 찾느라고 가벼운 촌극이 벌어졌다. 그동안에 피곤한 다리힘을 취하고 무사히 이동한다. 이 사원은 예전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발리의 권안이 건축설계를 하는 전문가팀이므로 가급적 건축유적을 많이 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추가시킨 것이라고 설명

한다.

이 사원은 10세기 말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프람바난과 보로부두루 등을 포함한 중부 자와시대의 말기에 세워진 것이다. 천재지변 때문인지 11세기 이후에는 동부 자와로 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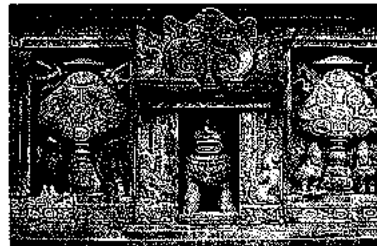
불교사원으로 주 사원과 250여개의 작은 사당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건립시기의 차이가 건물의 장식적인 면에서 간략화되어 가는 모습이 느껴진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수문장 격인 등자상이 있는데 한쪽 무릎을 꿇고 다른 무릎은 세우고 앉은 자세에 특 볼겨진 배와 투실투실한 살집, 그리고 한 손에는 팔모방망이를 들고 다른 손은 몸에 휘감긴 뱀의 머리부분을 잡고 있다. 힘과 정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서의 사원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고, 발리에서는 마치 제주도의 돌하루방과 같이 제작하여 상품으로 전시하고 있던 것이 생각난다.

이 곳에서 관심있게 본 것은 승려들이 계를 받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이다. 지붕부분이 붕괴되었으며, 두사람이 들어가 서면 될 정도의 좁은 감실의 삼면에 조각된 등잔대가 그것이다. 대좌 위로 등잔을 받치는 가지가 세 갈래로 뻗치고, 그 위로 연꽃 받침대와 등불이나 향을 파울 수 있는 작은 감실이 조각되었다. 등잔 감실의 위는 귀면(이곳에서는 Kala라고 호칭됨)이 있고 감실은 바로 귀면의 아가리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수염이 좌우로 길게 늘어져 있고 머리 위에는 작은 보탑을 이고 있는 형상이다. 전성기에 웅장한 사원에서 엄숙한 수계의식을 행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주변의 폐석재들은 복원되기를 줄지어 가다리듯이 무더기로 적치하고 있는데 석재 중에는 산스크리트어로 각자된 기록들이 간간히 보인다. 부재의 위치나 조각내용을



시바탈의 가네사상: 시바신의 아들로서 서편 감실에 배치되었고 얼굴이 코끼리상으로 원숭이의 경전을 코로 탐하는 모습에서 학문의 신으로 숭상된다고 한다



프람바난 사원의 주제적 조각: 문두사원에서 보이는 모티브에 사자상이 추가되었으며 장식적 외장이 완성된 모습이다



세우사원 전경: 입구좌우로 드와르팔라(Dwarपालa)라 부르는 수호적 등자상이 배치되었다



세우사원의 드와르 팔라상

표시하는 기록들일 것으로 짐작되나 까막눈이 되어 저것이 글
씨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돌무더기를 보
고 있자니 평생의 과업으로 이런 사원을 복원하는 작업에 참여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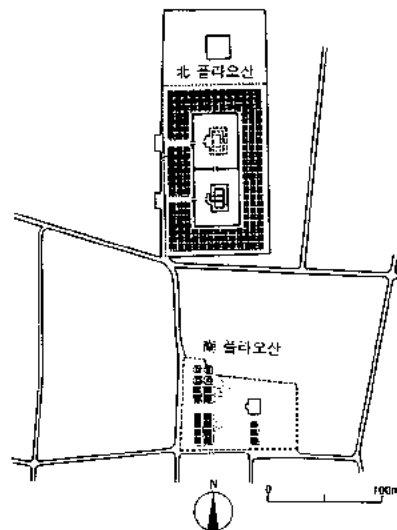
13. 플라오산(Chandi Plaosan)

세우사원에서 동쪽으로는 불교사원인 플라오
산 사원이 있다. 19세기 중엽에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직도 발
견되지 않은 사원도 있는 것인지 국토가 광대해서 그런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 사원은 힌두교도인 파낭카란왕(Pan-
ngkaran, 760~780)이 불교도인 왕비를 위하여 건립한 불교
수도원이라고 한다. 서향으로 배치된 이 건물군은 남북으로 두
개의 사원이 있는데 남쪽은 거의 폐허상태이고 답사한 곳은 북
편 사원이며 이 사원 내에서도 쌍둥이 건물인 듯 보이는 북쪽
건물은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2층 건물로 세칸으로 구획되어 각 실에 불상
이 봉안되었으나 중앙칸의 불상은 분실된 모양이다. 2층은 목
조 마루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는 마루가 없어 통층
으로 되어 있다.

외관상으로는 지붕에도 창문처럼 보이는 것
이 있어 3층처럼 보여진다. 창문에는 목재의 창살이 끼워졌던
흔이 보이고 있는데, 2층은 경서를 보관하거나 공부하는 용도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붕과 벽면에 치장된 장식들은 이
제는 관심이 가지 않는다. 건물의 외관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기억시키려는 직업적인 의식이 발동하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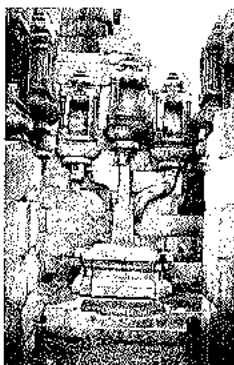
플라오산 사원 배치도

14. 칼라산(Chandi Kala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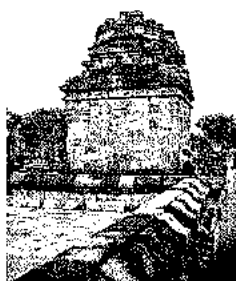
죽자카르타에서 마지막 답사장소인 칼라산
사원으로 향한다. 황혼이 갓들기 시작하여 조금씩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프람바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
에서 발견된 비문(Kalasan Inscription)에 의하면 마타람
(Mataram)왕조의 파낭카란(Panankaran)왕이 다라여신(多
羅女神)에게 봉헌하기 위해 778년에 건립된 불교사원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플라오산사원을 건립한 왕과 이름이 같으
나 왕조가 틀리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
서 논쟁중에 있다고 한다.

평면구성이 사방 대칭형으로 중앙과 사방에
감실이 있고 동편 감실에서만 중앙 감실로 들어가도록 된 것으
로 보아 동향 배치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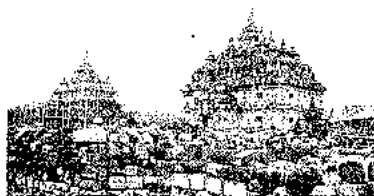
하층 기단부가 넓게 형성되고 벽면이 비교적



수계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추정
되는 유적의 등형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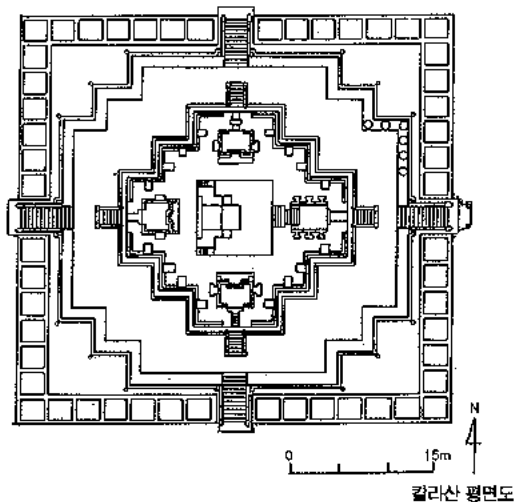
세우사원의 탑



북 플라오산 전경: 좌측 건물에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이다



플라오산의 소탑



높게 되어 감실 입구마다 귀면이 큼직하게 장식되어 있다. 주변 정리만 하고 복원작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멀리서 보면 돌무더기에 조각하다 중지한 듯한 인상을 준다.

비문이 발견되어 역사적인 중요성이 부여되기는 하였지만 건축적인 모습이 확실치 않아 아쉬운 느낌이고 주변에 모아놓은 석재에서 맞춤기법의 디테일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 나온다.

15. 공항의 해프닝

족자카르타의 답사 여정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서점에 들릴 수 있도록 방선생에게 부탁하니 한곳에서 정차시킨다.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자고 하여 급한 걸음으로 서점을 향해 들어간다. 백화점의 한 층에 서점이 있어 방선생에게 보로부드루와 족자카르타의 사원에 관한 서적을 찾아 달라고 하니 보로부드루 책 한 권 밖에 없다고 하여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말았다. 한 권이라도 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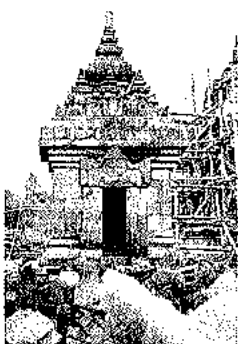
니 그나마 다행이었고 인도네시아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아작은 미흡한 모양이라고 속단하고 되돌아선다.

오늘 하루는 별안간의 강행군이었는지 모두들 약간 지친 표정이 역력하였으나 식당에 들어와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공항에 나가야 하는 시간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느긋하게 대화가 오간다.

식사후 공항에 도착하여 대합실에서 탑승수속을 기다리는데 예정시간이 다 되도록 수속하러 들어간 안내자가 나타나지 않고, 국내선이기 때문인지 연착에 대한 안내방송도 소홀한 것 같다. 드디어 권선생이 나타나는데 매우 불편한 듯한 안색에 상황을 설명한다. 비행기는 약간 지체되어 출발할 것이고, 문제는 예약된 좌석중에 4명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발리행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로 바꿀 수도 없으니 4명은 부득이 이곳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예약된 좌석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를 되물으니 항공사 직원들에게 충분한 팁까지 주었는데도 이모양이라고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회원의 2세가 3명 있으므로 나머지 잔류자 1명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현지 여행사가 처리를 잘못한 때문이므로 변명도 궁색하니 어쩔줄을 모른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탑승수속 시간도 임박했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마침 최영집 소장과 필자가 2세를 대동하였으므로 4명이 잔류하자고 제안하니 최소장도 금방 동의한다. 그래서 답사교육에 성적이 불량한 네사람이 과외공부를 위해 잔류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고 서둘러 탑승절차를 재촉하여 예정에도 없는 이별장면이 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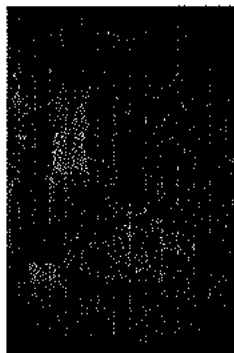
일행이 출발한 후 최소장의 변이 기억에 남는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차피 여행이란 것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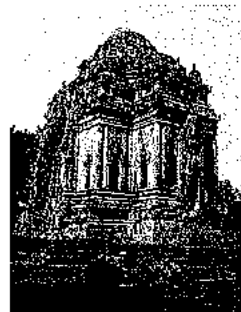
플라오산 수도원 정면



쌓아둔 석재: 적치된 석재에서 고대 인도어 글씨가 각자되어 있다



플라오산 좌측방에 안치된 불상



칼라산 사원 전경

치는 것에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논없이 이심전심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고 오늘 저녁을 유쾌하게 보내는 방안 마련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

가이드 방선생이 현지 여행사와 통화하여 숙소를 예약시키고, 타고온 버스를 전세낸 듯이 타고 도착한 곳이 족자카르타 시내 근교의 자아카르타 호텔이었다. 방을 배정 받고 방선생은 편히 쉬라고 인사하고 떠나려는 것을 이 지역의 지리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기에는 너무 이르고 방선생의 활동 상황도 궁금하니 피곤하시겠지만 한잔 마시면서 시가지 구경도 할겸 안내해 주시겠느냐고 청해 본다. 하루 종일 가이드 하고 공항에서 난리를 겪은 처지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책임감을 느꼈는지 쾌히 승락한다.

휴대한 것은 카메라 가방밖에 없으니 풀어 놓을 짐도 없고 방에서 간단히 세수하고 잔류자 전원이 집합하여 나서니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다. 방선생이 현지 여행사에게 나와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한 모양이고 젊은 여인이 운전하는데 사장이라고 한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점잖게 받아 들이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간다.

마침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단이 끝나고 전국적인 휴가와 여행이 시작된 때가 되어서 시장도 일찌감치 파장된다고 한다. 도로변에 있는 족자카르타식의 닭튀김 집에 들려 맥주를 들면서 궁금하던 내용을 알아보며 한담을 나누었다. 닭튀김은 특미와 향이 나는 것이 구미를 만족시킨다. 미국의 KFC도 들어와 있으나 외국의 귀빈도 이곳을 찾는 별미중의 하나라고 소개한다. 비결은 열대식물을 이용하여 향을 내고 육질도 부드럽게 만든 것이라 한다. 추가로 주문하려니 문을 닫을 시간이라 거절한다.

자전거형 인력거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여 권선생은 내일아침에 들리기로 시간약속하고 떠나간다. 호텔의

수영장에는 조명이 밝고 야자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파란 물색이 매력적이다. 수영복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으니 야밤에 수영을 감행하는 것으로 족자카르타의 하루를 마감하였다.

16. 발리로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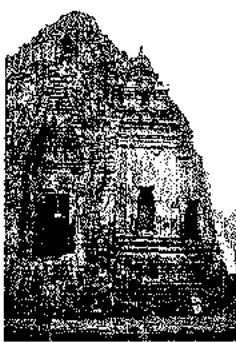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기상하여 숙소의 베란다로 나가보니 밤에 보던 경관과는 달리 야자수에 새소리와 시원한 공기가 또다른 모습으로 시야에 다가온다. 베란다 벽에 장식한 타일에 완자문양이 2중으로 겹친 형태로 만들어져 시선을 끈다.

간단히 그 형상을 스케치하면서 완자문양이 아시아권에서는 공통적인 문양이고 특히 불교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호텔에서 조식후 예정대로 공항에 나가 방선생과 작별하고 발리에 도착하니 권양이 마중 나왔다. 어제 벌 어졌던 해프닝으로 일행으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고 걱정도 많이 한 모양이다. 덕분에 특별한 하루를 즐겁게 보냈노라고 위안의 말을 건네고 대기한 차에 오른다. 발리의 해수욕장에서 일행과 합류하면서 하루밤의 안부를 서로 묻는다. 객지에서 하루밤을 따로 지내고 만나니 새삼스레 다정하고 푸근한 기분이 든다.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면에서 감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해수욕장은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와는 판판이다. 토폴리스로 일광욕을 하는 관광객도 간혹 보이는데 괴이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관광안내지에서 읽은 글이 생각난다. 식민지 시절에 군인들이 주문하면서 원주민의 토폴리스 차림에 군사들이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강제로 원주민에게 옷을



칼라산 사원 정면부분: 미완성된 부분이 많다



칼라산 사원 계단부 악어상



자아카르타 호텔 베란다의 야경 완자 장식



족자카르타 근교의 현대적 수도원의 조경

입고 다니도록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등으로 수십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토폴리스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어 주민들에게 그런 모습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는 시대변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17. 따만아윌 힌두사원

발리의 중국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희망하는 사람만 따만아윌사원을 탐방기로 하고 나머지는 호텔이나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다. 발리의 재래시장을 구경가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자 답사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절반이 남는다.

첫날에 발리의 사원을 답사한 바가 있으므로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판단과, 그래도 이왕 왔으니 보고 가자는 생각에 패가 갈라진다.

오늘은 촬영을 즐기고 사원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승차하여 중부지역에 있는 사원앞에서 하차한다. 사원 외곽으로 해자가 둘러지고 동편의 냇가를 끼고 민가가 있어 분위기가 한가한 전원풍경이다. 일반적인 관광코스에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지 관광객도 붐비지 않는다.

다리를 건너 입구를 들어서니 오른편에 공회당이 큼직하게 목조로 만들어져 있다. 한때는 닭싸움이 성행하여 정기적으로 투계시합을 이곳에서 열기도 하였다고 한다. 벽체는 없이 지붕을 중층 구조로 만들어 더운 공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한 초기집이다. 대나무로 서까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직접 이엉을 층지어 설치한 경량지붕구조인 때문에 용이하게 대형 공간을 만들고 있다.

서편 모퉁이에는 벽돌로 축조한 단위로 2층의 초기형 망루가 설치되었다. 건물의 벽에 만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시야가 활짝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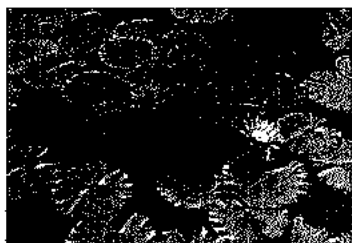
발리에서 보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중문을 들어서면 사당구역이 담장으로 둘러지고 담장 밖으로 다시 도랑이 구조된 속에 다층의 초기형 사당이 규칙적으로 배치된 모습이 보인다. 모시고 있는 신의 등급에 따라 1, 3, 5, 7, 9층으로 신당을 만든다고 하며 단층의 신당에는 기단위로 다시 단을 높여 치장하고 의자를 놓았다. 유교식으로 보면 위패상과 같은 형태이다. 발리식 힌두교의 속성을 모르니 그냥 보는 수밖에 없다. 일층의 지붕이 큼직하고 그 위로 급격히 체감되어 만든 다층 초기탑을 보니 경주의 정혜사지 13층 석탑이 연상된다.

발리 사람이 경주에 다녀와서 초기탑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실없는 망상에 빠져 보기도 하였고, 초기 지붕에 석재의 절병통을 올려 놓은 것을 보니 초기형 정자에 절병통을 사용하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귀로에 오른다.

18. 맺음말

따만아윌 사원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답사지가 되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은세공점, 목조각점, 바틱점 등을 둘러 간간히 기념품을 사고, 특히 바틱점에서는 관광진흥책으로 제작공정을 옥외에서 실연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행중의 청년에게 입은 채로 셔츠 등에 직접 그려주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능숙한 붓놀림으로 열대의 풍경이 그려진다. 물론 염색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귀국해서 세탁 두번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는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추억이 될 만하였다.

저녁식사는 해물음식점으로 예약되었고 종업원은 일본어 아니면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무대의 악사는 우리 일행이 한국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 한국가요를 멋지게 중



수도원의 연지에 청연화가 피어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품종이라고 한다. 한국의 단청문양에서 청색으로 표현한 연화가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따만아윌 사원의 망루



따만아윌 사원 공회당 내부

참으로 뽐는다. 앙콜 신전에 더욱 신비함이 나게 부르고 여정의 마지막 만찬은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덧 출발시간이 되었다.

발리와 자카르타의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어 밤늦도록 기다림에 지치고,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몽사몽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오전 10시경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탑에 장식된 귀면이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귀면과 유사성이 있게 보여지고, 신라시대의 석탑 갑석에서 귀에 모를 접고 약한 곡선을 만드는 기법을 족자카르타의 사원에서 보았을 때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같은 농경문화권이고 기우를 즐겨하는 공통적인 속성에도 관혼상제의 통과례에서도 닮은 점이 많다는 설명을 듣고 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관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싶다. 특히 한국의 석탑은 중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족자카르타의 사원의 건물에서 복잡한 지붕의 장식식을 생각하면 한국적인 석탑과 비슷한 모양을 유추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으며, 답사하지 못한 사원의 사진을 통하여 보면 그러한 생각이 짙게 느껴진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유엔가입국이 되어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차제에 국제적인 문화유적 복원작업에 우리도 참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세계적인 유적에 투자하여 조사한 바를 책으로 만들어 외국의 문화를 일본에서 독점적인 사업성을 구축하고 있는 현실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국제적인 교역의 시대에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고서는 실리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투자하여 벌어들이려면 외교적인 공세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대합실에 집결하여 무사히 여정을 마치게 된 것과 회장님 이하 집행진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또다시 본연의 자리를 찾아 뿔뿔이 갈 길을 찾는다.

그동안 국내의 동양문화사는 중국, 한국, 일본 위주로 설명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남방문화권으로 보고 간략하게 기술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전정보 확보가 미흡하여 답사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육상의 문화와 정보교류 통로인 실크로드는 상당한 연구가 되었으나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것은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의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경주의 제릉에는 서역인의 석인상이 있는 점과 장보고가 한반도의 해상권을 확립하여 무역이 폭넓게 진행되는 상황은 신안 앞바다의 무역선 발굴로도 입증되고, 특히 당나라의 장안은 국제무역도시로 자리 잡혀, 장안에서 신라의 이름이 이슬람 상인에게 금이 흔한 나라로 알려졌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당시에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간에 인도네시아와도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더우기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고 하므로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행후 얼마 안되어 여행기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있었고 짧은 여정에 수박 겉핥기 식이어서 주저하였으나 한번 다녀온 곳 언제 또 가겠는가, 다녀온 내용을 잊기 전에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에 쓰다보니 내용도 없이 장황하게 되어 겸연쩍다.

한길회의 윤석우 회장과 방철린, 최영집 총무의 노고를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고, 장석웅 선배를 비롯하여 여행을 함께 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파만아윌 사원 신당



파만아윌 사원의 소신당



파만아윌 대문 전경



가웬(Chandi Ngawen)사원의 기단부 사자상: 이 사원은 답사하지 못하였으나 문두 사원에서 동쪽으로 5km 거리에 있다고 하며 사자가 기단부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신라시대의 쌍사자 석릉과 4사자 석탑이 연상되어 책에서 전제하였다.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건축(완)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영국의 엘리수도원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개요

Ely수도원은 런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방문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Ely를 방문하였을 때 Ely시 안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에서처럼 많은 수의 고딕양식 성당을 마주치게 된다. 처음 Ely수도원을 방문하는 날 수도원 입구 초입에서 갑자기 우뚝 내 앞에 나타난 성당의 모습은 한참 동안이나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상당히 웅장한 것 같으면서도 외곽 압도하지 않았으며, 정교한 층층의 다양한 모양의 설계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참신한 맛을 내주었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전체적 건물의 모습은 일순간 또다른 자연에 대한 감각적 인간내면의 세계를 무한한 자유속에 있게 하였다.

방문한 Ely수도원 내의 대 성당은 요크 대성당과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이어 그 길이가 상당히 큰 성당이며 건립연대도 오래된 성당에 속한다. 1083년부터 시작하여 1106년에는 트랜설트와 아일부분이 완성되고 1189년에는 네이브가 완성되었으며 1198~1215년에 서측 정면부가 완성되므로서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노르만시대에 해당되고 영국 로마네스크로 분류되기도 한다. 1322년에는 교차부의 중앙탑이 붕괴되자 1322~1328년의 재건시 당초의 10×10m 4각 평면을 직경 약 20m의 팔각형 평면을 갖는 새로운 형식에 의한 랜턴(lantern)이 만들어져 유럽에서는 뛰어난 양식의 건축술로 불리어질만큼 공학기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 이당시 훌륭한 중세 장인기술에 대한 찬탄을 금할 수 없다.

2. 역사

2.1 초기역사

초기 유래에 의하면 Ely의 한 교회가 성 Augustine에 의해 봉헌되고 나중에 Mercia왕 Penda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Ely의 명확한 유래는 기원후 673년 Northumbria의 왕비이었던 성 Etheldreda가 Ely로 와서 신앙공동체를 세운 때 부터라고 해야할 것이다. 색슨 시대의 대 역사가였던 Bede는 Ely를 수녀원으로 구분하였지만 이 Ely는 수도승과 수녀를 위한 수도원이었기에 성 Etheldreda가 양쪽 수도원의 초대 대수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초대 대수도원장으로 임명받게 된 배경에는 Ely섬이 그녀의 소유였던 이유도 있었으나 673년에 그녀가 Northumbria 시절 그녀의 친구이자 자문이었던 York의 대주교인 성 Wilfred의 힘이 컸던 것이다. 이때부터 하느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매일매일 예배의식이 있었으

며 한편 교육사업은 King's School에서 시행되었고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중세의 순례여행을 연상케 할 정도로 계속되어 활기차게 Ely수도원은 Ely사와 주교 관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초대 수도원장인 Etheldreda는 East Anglia를 휩쓴 전염병으로 죽을 때까지 6년간 그 공동체의 책임자였으나 목에 생긴 암으로 인하여 679년에 세상을 떠나 그녀의 유언에 따라 수도원의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이후 그녀의 두 자매인, Sexburga와 Withburga도 또한 Sheppey의 Minster와 Norfolk의 Dereham에 신앙공동체를 창설하였으며 이중 Sexburga는 Sheppey섬으로부터 돌아와 Ely의 2번째 대수도원장에 임명되어 성 Etheldreda의 묘지를 교회 안으로 들여와 하얀색의 대리석판을 지금의 Cambridge인 Branta에 조성하였으며 695년 9월 17일 시신을 발굴해 철저히 방부처리하여 Saxon 교회에 시신을 다시 묻었다. 묘지는 곧 순례 여행의 한 대상이 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기적들이 일어나곤 했으나 결국 이 일을 주도하였던 Sexburga는 699년 7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한때 Kent왕 Erconbert의 부인이었으며, 과부가 되어 신앙생활에 입문하였으나 그 결혼으로 Ermenilda라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은 Mercia왕 Wulfer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그녀 역시 과부가 되고 이모인 성 Etheldreda 밑에서 수녀가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Ely로 대수도원장으로 갈 때 그녀 뒤를 잇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자 Ely의 대수도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Ely수도원의 첫 세 명의 수도원장들이 모두 Anglo-Saxon 왕비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2 후기 역사

Ely수도원의 신앙공동체는 9세기 후반까지 조용하게 그리고 묵실하게 계속되었다. Ely섬의 늪지는 섬을 잘 보호해 주었으며 접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869년 덴마크인들이 바다로부터 침략해 들어와 건물을 약탈했으며, 수도승과 수녀들을 죽이고 폐허로 만들어 놓아 이 후

의 Ely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리 쉽게 파괴되지는 않아 Edgar왕의 통치와 성 Dunstan 대주교 하에서 성 베네딕트 지배가 크게 부활하기 시작하여 970년 경에 Ely는 남자들을 위한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다시 설립되었으며 Britnoth가 초대 대수도원장이 되었다. Edgar왕은 그 재단에 사원의 소유권과 특권을 확인하는 칙허장을 내렸는데 이 칙허장 원본은 Ely가 매우 소중하게 Cambridge의 대학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덴마크인들은 계속 위협적인 존재였으나 또다른 Northumbria 공작 Britnoth는 Essex의 Maldon에서 덴마크인들의 공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회사로 수도원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를 기념하는 자그마한 라틴어 비명 하나가 Bishop West 교회당에 세워졌다. 늪지로 말미암아 거의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Ely섬은 최후의 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복왕인 William의 침략 이후, 유럽의 유명한 망명이었던 Hereward the Wake는 Edwin과 Morcar의 백작들과 연합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나 수도승들은 그들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군인들과 땅에 대한 강제 압류때문에 지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William왕에게 대표단을 보내어 섬에 대한 접근로를 알려주어 저항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수도원은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했고 많은 토지도 빼앗겼다. 이러한 결과로 Theodwin이 노르만 대수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Theodwin 노르만 대수도원장 이후 1081년 William왕에 의해 수도원장이 교체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대수도원장으로 Simeon이 임명되어 성 Etheldreda에 대한 회사와 Edgar왕이 후에 내린 현장에 의한 수도원 재산의 많은 부분을 되찾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093년 Simeon의 사후 William Rufus는 대수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그 수입을 자신이 착복하므로써 수도원 건물을 짓는데 있어 상당한 지연을 가져왔으나 1106년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원 건물이 완성되었으며 이 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1189년에는 일부나마 완성을 보게 되었다.



남쪽전경



북쪽전경



남쪽 종탑 전경

3. 수도원 건축

3. 1 Transept

수도원의 초기 기둥들의 대접받침의 조각이 색슨과 로마네스크 전통이 혼합돼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West Tower(서쪽탑)에서 만나는 가장 낮은 층의 트랜셉트에는 지금까지 볼 수 있는 투박한 글자와 남서 트랜셉트에서 완전히 발전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차이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남서쪽 트랜셉트에는 Durham, Hampshire의 Christ Church 소수도원의 트랜셉트와 비견될 만큼 훌륭한 로마네스크 양식이 있어 그 멋진 본당 회중석의 상당히 높은 Triforium(교회의 신자석 및 성가대석 측벽의 아치와 지붕과의 사이의 부분)에 대해 또다른 느낌과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건축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

3. 2 소수도원과 수도승들의 문

Ely의 건축가들은 다행스럽게도 건축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돌을 Stamford 근처의 Barnack의 채석장에서 구할 수 있었다. 이 Baranack 석은 영국에서 채석된 가장 단단한 석회석으로 수로를 통해 Ely로 가져왔다. 그 뛰어난 내구성은 본당 회중석의 남쪽에 있는 1150년경에 건설된 이른바 Prior's Door(소수도원 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문의 틈과 높에 조각된 영광스러운 후광에 둘러싸인 예수상은 Ely의 또 다른 위대하고 중요한 보물로 간주되고 있다. 문 가장자리 테는 포도덩굴과 매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야생동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수도원의 유적에 있는 또 다른 Monks' Doorway(수도승들의 문)은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돌조각으로서 또 하나의 뛰어난 조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3 Galilee Porch

Eustace주교는 건축물을 위해 초기 13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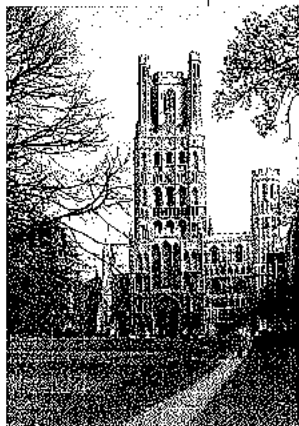
에 그의 재산을 최초로 사용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Galilee Porch를 덧붙였다. 이 연대가 정확하다면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체한 Early English라고 알려진 새로운 양식이 예외적으로 일찍 출현한 예가 된다.

3. 4 수도원 성당의 붕괴 및 복구

중세 기독교문화를 맺는 시기는 성모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Ely에서는 1321년에 세워진 Lady Chapel의 성전과 북쪽 트랜셉트 사이의 앵글이 특이한 위치에 나타나게 되었다. 건설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완성되어가는 도중에 노르만 교회의 중심부가 부실하게 세워져 이듬해 1322년 2월 12일 우뢰와 같은 소리와 함께 붕괴되어 노르만 성가대를 파괴하고 본당 회중석과 트랜셉트의 인접한 Bay(벽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우묵한 곳)는 심한 파손을 입었다. 신앙공동체가 그 무너진 건물더미를 보면서 느낀 그 절망은 처절하였다. 그러나 Hotham주교, Crauden 소수도원장, 교회의 건설과 유지를 맡고 있던 교회지기인 Walsingham의 Alan과 같은 뛰어난 사람들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먼저 런던 사람이었던 건축전문가인 William Hurley를 채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그는 1336년에 왕의 대목수라는 왕립 보증서를 받게 되었다. 역시 복구에 참여한 또 다른 건축 전문가인 Walsingham의 Alan은 급히 건물 잔해를 치웠으며 넓은 공간을 보고 일순간 그는 최상의 창조적 비전의 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노르만 양식을 복구하는 대신에 그는 직경 72피트의 공간을 사용하여 구석들에 8개의 커다란 기둥을 세우으로써 불규칙 8각형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려운 지붕 문제에 봉착하여 William Hurley를 불러들여 전통탑 디자인에 조언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목재로 된 삼각형을 8개의 기둥에 놓고 60피트 높이의 전등을 그 꼭대기에서 받치며 각각의 구석 기둥을 10톤이 되는 참나무로 만들고 그 사이에 전등의 전체 구조역할을 하는 창문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은 총 무게가



남쪽 트랜셉트와 팔각탑



서쪽 정면



서쪽 팔각탑의 재광창과 트랜셉트

약 400톤 가량이고 8개의 기둥에 놓여 수직으로 압력을 밑으로 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와 같은 공법은 그 시대에서는 독특하고 뛰어난 천재적인 공학기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세 장인승씨로서는 최고이며 유럽에서도 유일한 기술이다. 이러한 결과는 팔각탑과 꼭대기 탑이 여느 성당이나 수도원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양식이나 건축술이라고 빈번히 불린다는 점이다.

3. 5 팔각탑과 꼭대기 천장

북서쪽으로 Walsingham의 Alan과 William Hurley, 동북으로는 에드워드 3세와 Philippa 왕비,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Hotham주교와 Drauden소수도원장이 있는데 이 모든 훌륭한 인물들이 팔각탑을 둘러싼 그들 두상의 돌조각으로 기념되고 있다. 꼭대기탑의 천장은 Burwell의 John의 작품인 후광이 비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조각이 절정을 이룬다. 그것은 실물 크기이며, 바닥에서 약 150피트의 높이에 있다.

3. 6 Lady Chapel(성모 예배당)

이 모든 작업 중 Lady Chapel(성모 예배당)의 건축작업은 Wisbech의 John이라는 승려 밑에서 이루어졌다. Baranack 석이 사용되었으며 인테리로는 놀랄 정도로 정교한 조각을 하기에 적합한 경화점토인 그 지역의 백회(chalk)가 사용되었다. 영국에서 벽돌 구매에 관한 가장 앞선 기록은 1335년과 1337년 Ely교회지기 기록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벽돌 중 일부나 비슷한 벽돌은 Lady Chapel 웅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넓고 치솟는 듯한 창문을 가진 이 아름다운 성모 예배당 건물은 거의 돌로 이루어진 유리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테리엔 전체가 성모의 삶과 그녀와 관련된 전설적인 기적에 관한 기록과 경서내용의 조각으로 테두리가 채워져 있다. 또한 돌로 만든 좌석 덮개의 2차원 반곡 굴곡의 조각은 상상을 초월하며 지붕은 영국에서 가장 넓은 돌로 만든

중세의 둥근천장으로 지름이 46피트에 이르며 구조물이 너무 섬세해서 중간 부분이 가장자리 옆면보다 단지 18인치 두터울 뿐이다.

3. 7 부속 예배당(1)

이 모든 일이 마치 불충분해서 인지는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Crauden 또한 Crauden 수도원장 예배당으로 알려진 매력적인 조그마한 예배당을 건립하였는데, 이 건물은 현재 성당 남쪽에 있는 건물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중세시대의 쇠퇴와 끝남을 알려주는 흑사병이 영국을 강타한 1321년과 1349년 사이에 그와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에 참여하였던 많은 관련 성직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모험적이었음에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3. 8 부속 예배당(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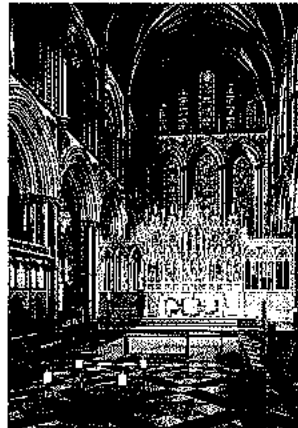
역시 마지막 시도로써 북동쪽과 남동쪽 구석에 Alcock주교와 West주교의 부속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전자는 거의 믿을 수 없는 기교로 만들어진 돌로 된 작품이며, 후자는 초기 16세기의 훌륭하고 섬세한 작품으로 유럽에서는 인문주의 현대성 시기의 전조라고 할 만한 것으로 격자로 깊이 장식된 이탈리아식의 천장을 가지고 있다.

3. 9 종탑

노르만 중심탑의 붕괴에 대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서쪽 탑 위에 4개의 지지용 작은 탑을 이용하여 커다란 팔각형의 종각을 짓기로 결정하므로써 원래의 노르만 교회에 대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를 시도하였다. 언젠가 트랜sept가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종각이 지어진 것이 북서쪽 트랜sept가 붕괴된 후인지 전인지 알려진 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과 종각건축이 결합하여 Ely의 서



수도승의 문



사제석과 지성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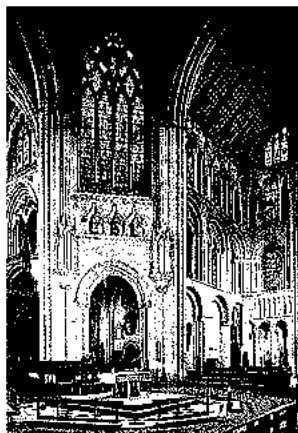


서쪽에서 본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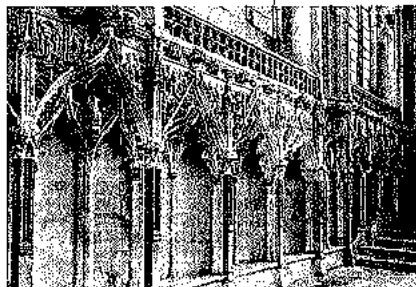
쪽 경계가 명확한 것이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비례가 맞지 않고 한 쪽으로 기운 모습을 하고 있어 흥미롭기는 하나 이상적이지 못함을 느낄 수가 있다. 종각은 높이가 60피트 이상이나 되고 4개의 지지하는 탑은 이보다 더욱 높아 이 모양은 실제로 기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섬세한 구조의 돌과 우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목재 철책을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은 건축은 시작부터 그 밑의 노르만 양식에 비추어 너무 무게가 과중하여 후세대에게 많은 경비를 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는데 이 작업은 1392년 아마도 이 당시의 석수인 거장 Robert de Wodehirst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1405년까지도 이 구조에 대한 결함이 문제가 되어 1476년에 Thomas Peynton으로 하여금 4개의 주기둥 둘레에 보이는 거대한 돌우리와 4개의 원래 노르만 양식 밑에 힘을 완화시켜 주는 단단한 아치를 이용하여 서쪽 탑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3. 10 Ovin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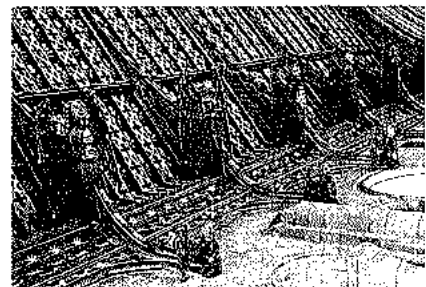
Ovin석은 Ovin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돌로서 Etheldreda왕비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Ely수도원에서 일한 바 있는 왕비의 시종이었다. Ovin석은 색슨 시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일한 십자가의 토대로서 본당 회중석의 남쪽 복도에 있다. 이 토대의 유래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18세기 Ely의 주요한 역사가였던 Canon Bentham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Haddenham의 어느 여관의 디딤돌로 사용되고 있었다. Bentham은 그것을 Ely로 다시 가져왔는데, 이들은 성당 안에 이 초기 Saxon 시기와 관련된 유일한 돌인 것이다. 여기에 로마자로 된 라틴어 비명이 붙어 있는 십자가의 토대로서 다음과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 '당신의 빛을 Ovin에 주옵소서, 오 주여, 그리고 편히 쉬소서. 아멘.'



남쪽 트랜sept



Lady Chapel 내부의 아케이드



북쪽 트랜sept 지붕의 천사들

4. 수도원의 해체와 복구 및 개보수

헨리 8세는 1593년 수도원을 해체하였으나 주교직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부 승려들은 남아서 신앙 생활을 계속하였다. 1541년 헨리 왕은 새 현장(현재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내려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다. 새현장에서는 학장과 8명의 성당 참사회 의원, 8명의 참사회 부의원과 신학부의 4명의 학생, 그리고 문법을 가르칠 13명의 학자와 왕의 전투와 시중에서 은퇴한 6명의 나이든 남자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예산을 배당하였고 역시 사유지를 관리할 관리인과 노래하는 남자들, 그리고 어린이들도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종교개혁의 열풍이 나라에 더욱 거세지면서 Ely는 Goodrich주교의 지시로 모든 성상과 성물함의 파괴를 요구하는 법에 복종하여 Lady Chapel 과 Bishop West's Chapel 그리고 성 Etheldreda 묘지를 완전히 해체한 파괴적인 결과를 아직도 볼 수 있다. 이 묘지의 유적은 거의 확인할 수 없지만 묘지 재단 위의 3부작으로 된 그림의 일부인 것 같은 4개의 15세기 회화의 놀라운 판넬화 정도가 현재 런던의 성물함협회의 재산이 되어 있다.

4. 1 Transept(북쪽)의 복구

1699년에는 북쪽 트랜sept의 북서쪽 구석이 1638~1667까지 Ely의 주교였던 Matthew Wren의 조카인 Christopher Wren경의 감독 하에 복구되었다. 캠브리지 석수 건축가이며 캠브리지의 성 Botolph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던 Robert Grumbold위원에 대해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곳 문통로의 양식과 남쪽 수도원으로 입구가 복구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복구에는 Ketton이라는 돌이 사용되었는데 Baranack돌과 잘 조화되었으나 복구시 세심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너무 나빠 1720년대에 Daniel Defoe는 "그 중 복구해야 할 건축구조의 일부가 너무나 오래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불안하게 흔들려리는 등 너무나 낡아 거의 무너질 것 같

아 100여년 전에 벌써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구를 위하여 1750년에는 캠브리지 건축가인 James Essex가 복구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는 “아이들은 비오는 날 그곳에 가서 놀이하라는 말을 듣고 거리보다는 그 본당 회중석 바닥이 놀기 좋다는 이유로 석탄 마차를 몰기도 하였고 세례당을 대장간으로 사용하거나, 성당 안에서 비둘기를 기르고 잡기도 하였다.”고 F.R.I.B.A.에 기고한 Donovan Purcell의 artical에 기고하였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당의 황폐하였던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다.

4. 2 꼭대기 벽(동쪽)의 복구 및 재배치

Essex는 복구작업에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성당, 특히 수직상태에서 11인치나 벗어난 꼭대기 탑 동쪽 벽을 아무 무리없이 완벽하게 수리하였다. 현재도 서쪽 탑에 있는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본당 회중석과 성가대석 사이는 칸막이로서 역할을 하며 팔각탑 밑에 있던 돌로 만든 중세 설교단(제단)을 이동시키면서 이 14세기 성가대석은 동쪽으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도록 이동시켰으며 제대는 동쪽 벽에 바로 위치시켰고 진기한 석고 칸막이는 현재 성가대석이 있는 곳에 오르간을 그 위에 대신 얹어놓은 상태이다. 이 시기의 물감으로 그린 회화 한 점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배열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흠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재배치하고 복구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건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부적합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William Cobbett는 복구작업의 책임자인 Essex에게 복구결과에 대하여 불만족하다는 글을 썼고 복구작업을 Essex에게 의뢰한 총회를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하였다.

4. 3 재복구 및 재배치

1839년 Peacock박사가 Ely에 학장으로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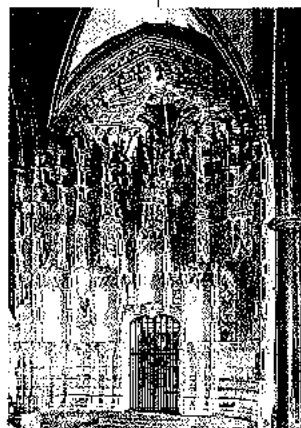
선되면서 성당복구의 절호의 시기를 맞이하여 부임하자마자 먼저 예배의식을 크게 개선시키는 등 매우 정력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면 Gilbert Scott 경의 감독 하에 있었을 때로 에섹스가 복구작업을 하면서 공정한 칸막이도 제거하였다. 성가대석은 다행히 이상적인 현재의 자리로 이동되었으며 덮개 위에는 일련의 아름다운 조각이 삽입되었다. 하나만 제외하고 Lovain이라는 벨기에 작가의 작품으로 남쪽 면에는 구약성서를, 북쪽면에는 예수님의 삶을 묘사했다. 본당 회중석은 새로 바닥을 깔았으며 지붕이 보강되었고 팔각탑의 외관부는 그 정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교하고 세밀한 복구가 서쪽 탑으로 계속되었고 본당회중석에는 지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1858년에 Hunstanton Hall의 L'Estrange씨는 자기 재산을 들여 천장을 판자널로 공사하였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의 죽음 후 Gloucestershire Highnam Court의 Gambier Parry씨도 역시 똑같이 L'Estrange씨처럼 그림을 그려 넣었다. 비록 그러한 그림이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빅토리아 시대의 교회미술에 있어 가장 훌륭한 그림 중의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독일 Hildesheim의 성 Michael교회의 초기 13세기 천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창문도 이 시기에서는 저질의 유리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서쪽 창문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유리는 16세기 프랑스제이나 1853년경부터는 훌륭한 기술이 채택되면서 더욱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동쪽의 큰 창문은 설득력있게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19세기 유리세공의 훌륭한 한 예가 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Ely에는 중세의 참유리가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그 조각들만 남아 있다.

4. 4 총체적 복구

시대가 변하면서 성당의 삶 자체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옛 Carlisle의 주교인 Harvey Goodwin학장 하에



Lady Chapel 내부



Alock's 제단



서쪽 제단 천장

서는 변화를 뜻하는 개혁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Ely성당의 개혁이 괄목할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글래스스톤사가 1870년대에 Ely를 '영국의 성당들의 모범'이라고 까지 거론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꼭대기 탑의 목재가 Deathwatch Beetle이라는 벌레에 의해 상당히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복구작업이 더욱 요구되었다. Hankey 학장은 각계에 호소하여 꼭대기 탑과 지붕을 복구할 모금을 벌인 결과 충분하게 기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팔각 탑과 지붕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거의 600년이라는 기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그의 재임중에 팔각탑이 설교단의 이상적인 장소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왕립건축가협회 특별회원(F.R.I.B.A.)인 George Pace씨에 의해 디자인된 가구는 Friends of Ely Cathedral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전체 배열이 오늘날의 성찬의 관례와 너무나도 일치하는 성찬석이 되도록 참고되는 완벽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서쪽 탑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교회의 건설과 유지에 대한 감정인(Surveyor to the Fabric)의 감독하에 1971~1972년까지 수행된 정밀한 조사에서 에섹스와 스코트의 만족할 만한 복구작업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아주 나쁘게 나타나 즉시 복구활동이 시작되어야 했으며 다시 한 번 각계에 기금마련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973년과 1974년에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기술로 철저한 복구가 수행되었다. 이 작업을 위하여 캠브리지 대학의 공학교수인 Jacques Heyman이라는 교수를 자문으로 하고 Purcell씨의 감독하에 시행되었으며 또한 캠브리지의 Rattee and Kett라는 회사가 이 정교한 복구를 약 280,0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Purcell씨는 이 어렵고 중요한 복구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73년 12월에 세상을 떠남에 따라 F.R.I.B.A.인 Peter Miller씨가 총회부로부터 교회 건설과 보수에 관한 감정인 감독관으로 임명받았다. 그 이후로 복구는 최저 325,000파운드 가량의 긴급 복구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성가대석의 동쪽 끝의 돌세공작업에는 250,000파운드의 추

가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Lady Chapel의 장문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거의 같은 규모의 복구비가 요청되었다. 이와 같이 성당의 총체적 복구비의 확보문제로 현재까지 수도원의 완전한 복구는 이루지 못한 채 일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4. 5 성가대 교체

1907년에는 매우 멋진 오르간이 북쪽 교회의 신자석 및 성가대석 측벽의 아치와 지붕과의 사이 부분에 설치되었는데 이 오르간은 Durham의 Harrison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1974년에는 이르러 오르간이 수명이 다했을 때 어떤 기부자가 복원할 수 있게 하여 당초에 제작 회사인 Harrison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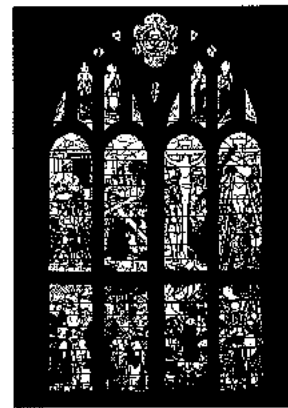
Ely수도원과 성당의 역사 속에서 이곳에 많은 이득을 주었던 많지 않은 소수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었기에 Ely에는 그들의 이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Ely수도원과 성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수도자로서, 건축가로서, 장인으로서, 음악가로서, 운배자로서, 후원자로서 이곳에서 봉사했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들 모두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며 그들이 없었더라면 이곳에는 방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남쪽 복도 측면의 스테인드글라스
(에집트로 도피)



남쪽 복도의 스테인드글라스
(예수의 탄생)



서쪽 향문의 스테인드글라스

협회소식 / 96
건축계소식 / 101
전시리뷰 / 104
인터넷 건축여행 / 108
해외잡지동향 / 110
현상설계경기 / 116
계획작품 / 12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0
신입회원 / 132
게시판 / 133

협회소식 KIRA news

공정위 문제 적극 대처

자가업무용 건축물만 허용

그동안 우리협회가 총력을 다해 대처해 온 「건설업체에 대한 건축설계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자가업무용건축물에 한해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 건 총리와 김상하 규제개혁추진회의 공동의장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 방안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안 등 민생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회의 때 결정을 유보했던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과 관련해 98년부터 건설업체도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해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00년에 이의 확대 여부를 재검토기로 했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5차회의 때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의 검토의견인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하는 안(제1안)과 '탄키대상 공사에 대하여 허용' 하는 안(제2안)이 동시에 상정됐으나 공방의 논의 끝에 우리나라 건축행정은 설계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보다는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시급함과 설계는 시공과 분리를 통해 상호 보완하는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

국 "자가 업무용에 한해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M제도의 정착과정을 지켜본 후 2,000년에 확대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제1안이 최종 채택됐다.

규제개혁추진회의의 이번 결정은 당초 지난 7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됐던 '100억원 이상 발주 탄키공사와 자거시공공사중 연면적 2만㎡ 이상에 대하여 허용' 하는 방안이나 '1단계로 탄키공사에 한하여 우선 허용후 중·장기적으로 자거시공공사에 대하여도 허용하거나 설계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비건축사로 완화' 하는 방안 등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진출 허용 범위를 놓고 그동안 우리 협회와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대립한 결과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 협회의 의견이 대폭 관철된 것이다(「건설업체 '설계허용' 안건의 변천과정」참조).

한편 협회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진출을 결사반대해온 만큼 추진회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회의의 이번 결정이 건설업체의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당장에 건축설계시장에 큰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건설업체의 설계경업 요구 주장이 또다시 표면화되지 못하도록 후속 대책을 강구중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해 지난 8월 29일에 열린 원팀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에서는 '자가업무용'이라는 어구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건설업체 '설계허용' 안건의 변천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초 제안('96. 6.)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공업체소속 건축사에게 설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의 삭제안을 상정 검토

·공정위 제안 주요 내용:

건축사법 제23조는 「경쟁제한 법령」으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시 대표자

를 건축사로 국한시키는 현행제도 삭제 ▶건설회사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규정 임의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96. 12.)

- 시공업체가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설계시장 참여를 허용. 다만, 진입시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

· 주요 검토내용 :

▶설계·시공 일괄입찰대상 대형공공공사(100억원 이상) 우선허용('98년 시행) ▶'99년부터 제한없이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검토('97. 5.)

-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시공공사(턴키시공·분양공사)에 한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97년중 건축사법 개정).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상정('97. 6. 27.)

- 안건내용

· <제1안>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턴키공사(최저발주기준 ; 100억원)와 자기시공공사중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2만㎡ 이상)에 대하여 허용('97년중 건축사법 개정)

· <제2안>

1단계로 턴키공사에 한하여 우선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시공공사에 대하여도 허용하거나 설계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비건축사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결의 : <제1안>, <제2안> 모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 함

●규제개혁추진회의(의장:국무총리) 상정('97. 7. 2.)

-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 검토

- 결정사항 :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 재검토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유보 (소위원회 : 박동서, 박상희, 이한구 위원)

●규제개혁추진회의 소위원회(제1차 회의) 검토('97. 7. 5.)

- 행쇄위,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건연, 건교부, 규제개혁추진회의, 경제규제개혁위 등 관련기관 및 단

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 규제개혁추진회의 소위원회(제2차 회의) 검토('97. 8. 22.)

- 관련기관 및 단체 대표자 참석(1차 회의와 동일)

- 검토내용 : 자가업무용 및 턴키대상공사 허용

●규제개혁추진회의('97. 8. 27.)

- "자가업무용(그룹소유 포함)건축물"에 한하여 '98년부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를 허용하고, 2000년도에 확대여부를 재검토하는 안(제1안)과 "턴키대상공사"에 한하여 '98년부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업무를 허용하는 안(제2안)을 심의한 결과, <제1안> 의결

「'97한국건축문화대賞」 수상작 발표

大賞에 「LG화학대덕연구소」, 설계자 김태수氏 대통령표창



大賞수상작 「LG화학대덕연구소」

을 한해 준공된 국내 건축물 가운데 우리 건축을 대표하는 우수 건축물을 찾아 시상하는 「'97한국건축문화대賞」의 영예의 大賞은 「LG화학대덕연구소」가 차지했다.

(주)T.S.K건축사사무소와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설계하고 (주)LG화학이 시공한 「LG화학대덕연구소」는 앞으로 총5단계 사업이 모두 끝날 경우 단일 연구소 규모로는 세계 최대가 될 전망

인데 현재는 3단계 사업인 연구동 및 행정 식당동(연면적 71,569.18㎡)이 완공된 상태다. 특히 이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구조구사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연구분위기 조성 등 연구소로서의 삶의 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수작이라는 평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大賞작품의 출품자중 1인에게 주어지는 대통령표창은 설계자인 김태수氏가 수여받게 되었으며 本賞은 ▶삼청동주택 ▶분당집합주거 ▶웨스턴조선호텔 H빌라 (이상 주거부문 3점) ▶코오롱 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연수원(이상 비주거부문 3점) 등 6개 작품에 돌아갔다. 또한 입선작에는 ▶독도박물관 ▶일산주택 등 16개 작품이 선정됐다.

「한국건축문화대賞」은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가 후원해 6회째를 맞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공모전으로 올해 준공 건축물부문에는 63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돼 최종 수상작 선정과정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올해 준공건축물부문 심사는 한창진(심사위원장/한정건축 대표), 김무언(본협회 부회장/하나그룹 대표), 권용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이동배(인하대 교수), 황상모(LG건설기술자문/한양대 겸임교수), 정훈(서울경제신문사 논설위원), 박현령(시인), 윤승중(원도시건축 대표/96년도 대상 수상자) 등 7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한편 이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內 서울 600년기념관에서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과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장 등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오는 9월 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반에게 전시된다.

본지는 일선 건축관련업무 종사자 및 학생, 일반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해 9월초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을 포함, 다음호에서 부문별 전체 입상작

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심사과정
과 각 부문 심사평 등을 종합한 「'97한국
건축문화대상」특집을 게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97한국건축문화
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 명단이다.
(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대상

LG화학대덕연구소 / (주)T.S.K건축사
사무소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주)LG건설 / (주)LG화학기술연구원
(대통령표창 : (주)T.S.K 건축사사무소
김태수)

●본상

삼청동주택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
화 김영섭 / (주)에림건축의장 최희중
분당집합주거 / (주)전안건축 / 안명제 /
(주)동서개발 / (주)동서개발
웨스턴조선호텔 H빌라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유원재 / (주)디자인 신세계 /
(주)조선호텔

코오롱타워 / (주)간·삼 종합건축사사
무소 지 순, 김자호, 이광만 / 코오롱건
설(주) / (주)코오롱

블루힐 백화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변 용, 김석주 / (주)청구 /
(주)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연수원 / (주)T.S.K 건축사사
무소 김태수 / (주)장학건설 / 국민생명
보험(주)

●입선

일산주택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이
상연 이상연 / 이정구

신사동 K씨 주택 / (주)인우 건축사사무
소 함인선 / (주)인우건축

반포한신타워아파트 / (주)종합건축사사
무소 건원 박홍길, 김중국 / 한신공영
(주)

자하당 / 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건축 신
언화 / (주)코아인테리어

대우분당빌라 / (주)거림 종합건축사사
무소 김길수 / (주)대우

진전배타성당 /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
소 조구현 / (주)광국건설

명희원 장애인 재활체육센터 / (주)건축

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 / 한울종합건
설(주)

독도박물관 / (주)시·상건축 유 건, 김
혜정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 이로제 종합건축
사사무소 송효상 / 쌍용건설(주)

니콘 프레시전 코리아(주) 사옥 / (주)회
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정영균 / 홍
화공업(주) + 한미인테리어

금정시민도서관 / (주)세진설계 종합건
축사사무소 박재평 / 대륙종합건설(주)

한승실 산부인과 / (주)일건씨앤씨 건축
사사무소 최관영, 정동명 / (주)삼협특건

삼성자동차 기술연구소 / (주)삼우 종합
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 (주)정림건축 /
삼성물산 건설부문

한국가스공사 사옥 / (주)정림건축 / 극
동건설(주)

설악위터피아 / (주)아키텐 종합건축
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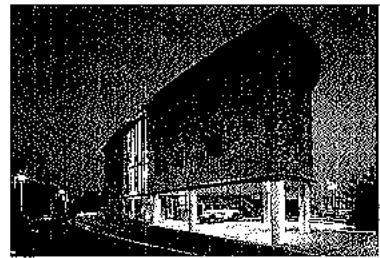
LG화학대덕연구소 (大賞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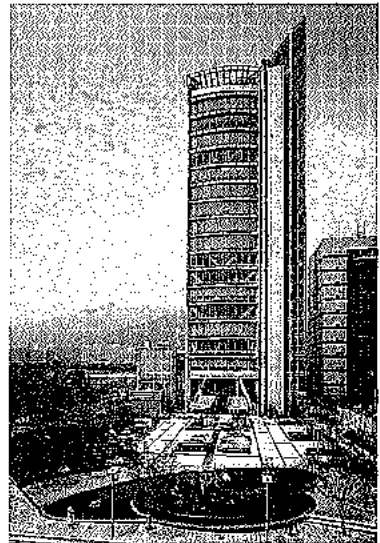
삼청동주택 (本賞수상작)



분당집합주거 (本賞수상작)



웨스턴조선호텔 H빌라 (本賞수상작)



코오롱타워 (本賞수상작)



블루힐백화점 (本賞수상작)



국민생명연수원 (本賞수상작)

이사회 개최

제32회 정기총회, 오는 10월 14일
올림픽 유스호스텔에서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8월 29일 오후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인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제32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일시 : '97. 10. 14(화) 09:00 / 장소 : 올림픽 유스호스텔)
- 제2호의안 : '97전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대회기간 : '97. 10. 14 ~ 15(2일간)
 - 장 소 : 올림픽 제1경기장 및 올림픽 유스호스텔
 - 주 제 : ARCHI-VISION(건축의 미래)
 - 행사내용 : 전국대의원 총회, '97전국건축사대회(결의문 채택, 특별강연회, 건축사의 밤), 특별강좌(연수), '97우수건축기자재 및 CAD전시회
 - 참석범위 : 정회원, 초청인사, 배우자 및 가족, 기타(총 7천명)
- 제3호의안 :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본 협회 고문 중 폐업자 5인)

- 제4호의안 :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총회비→위원회비)
- 제5호의안 : 건축연구소장 수당지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1,000,000원/월)
- 제6호의안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승인의 건 - 제8조(회의)에 위임 가능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사무기구 개편(안) 승인의 건
 - 차기 회의시 재협의하기로 함.

충북건축사회 가람산우회, 불우이웃 봉사활동

음성 꽃동네 찾아 노후된 요양시설 보수



봉사활동에 나선 가람산우회원들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의 동산동호인들이 7월 산행 대신 불우이웃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동호회원간 믿음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다. 현재 장현석 회원이 동호회장직을 맡고 있는 충북건축사회 가람산우회는 지난 7월 20일 오갈데 없는 노인들과 심신장애자 요양시설인 음성 꽃동네를 찾아 식사수발과 노후시설 보수 등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무더위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참가자들은 충북건축사회에서 지원한 VTR 2대를 비롯해 자신들의 회비로 마련한 가스렌지 3대를 꽃동네측에 전달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지역 우수 학생 장학금 전달

전남대 등 7개대 건축학도에
총 5백8십만원 지급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윤익상)는 지난 8월 11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무국에서 광주지역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건축학도의 학구열 고취 및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광주지역 우수 건축관련 학과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 8기 장학생으로는 박주훈(전남대), 서상록(조선대), 박영철(광주대), 김양택(호남대), 오영환(조선대병설공업전문대), 최숙경(송원전문대), 김성수(동신대) 등 7명의 학생이 선발돼 총 5백8십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출범

8월 1일 개소

울산지역건축사회(회장 노진달)가 지난 8월 1일 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울산광역시건축사회」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남건축사회로부터 분리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이로써 소속회원 114명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업
무를 꾸려나가게 됐다. 한편 이날 현판식
및 개소식에는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시
도건축사회 회장과 임원, 울산광역시의
회 오해룡 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인사와 아울러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울산 시민건축대학 1기 수강생 모집

일반시민 주부 학생 대상,
9월 5일 개강

울산광역시건축사회에서는 제1기 시민
건축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울산광역
시건축사회가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기념해 개설한 울산시민건축대학은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특히 건축을 하
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와 사전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건축문
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강좌는 오는 9월 5일 개강하며
10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
터 2시간씩 진행된다.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이며 전과정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교부된다.

문의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사무국
(0522-66-565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240-11

• 제1기 시민건축대학의 강의 일정(강 좌/일시/강의내용/강사 순)

- 1강좌 / 9월 5일 / 개강식, 건축을 위
한 풍수지리 / 임춘진(울산대 교수)
- 2강좌 / 9월 12일 / 건축물의 설계, 시
공(도면보기) / 박문창(우성건축 대표,
건축사)
- 3강좌 / 9월 19일 / 좋은 집을 지으려
면 / 김영호(부광건축 대표, 건축사)
- 4강좌 / 9월 26일 / 생활 속의 실내장
식 / 박영탁(울산대 교수)

- 5강좌 / 10월 2일 / 전통건축 답사 /
강영환(울산대 교수)
- 6강좌 / 10월 10일 / 건축행정 및 법규
해설, 수료식 / 신장열(울산광역시 건
축행정과장)

서울건축사회 제6기 시민건축대학 수강생 모집

일반시민, 학생 대상
10월 6일 개강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에서
는 제6기 시민건축대학 수강생을 모집한
다. 6기 강좌는 오는 10월 6일 개강, 11
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 서초
동 건축사회관 강당에서 열리며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강
좌는 12회에 걸쳐 풍수지리(양택론), 목
조건축, 건축행정, 건축물 안전관리, 전
통건축 답사, 인테리어 등을 내용으로 강
의가 진행된다.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서울 시민건축대학은 그동안 다양한 커
리큘럼과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관련 상
식으로 일반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어 왔다.(강좌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지 134페이지 참조)
문의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02-581-5715~8)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성보중·고 등 4곳에서 실시

응시번호별로 반드시 해당
시험장소에서 수험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시험
포함)이 오는 9월 7일(일) 성보중·고등
학교와 선린중·고등학교, 광남고등학
교, 광진중학교 등 네장소에서 동시에 실
시된다. 따라서 수험응시자는 이미 개인
별로 교부된 응시번호별로 반드시 해당
학교 및 지정된 좌석에서 시험을 치뤄야
하며 당일 시험시작 30분전(09:30)까
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협회는
시험장소가 중·고등학교인 관계로 시험당
일 주변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가급적 수험생들이 대중교통
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28일 공고된 응시번호별 시험
장소와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

●시험시간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시험
○ 건축법규 - 10:00~10:50 (50분) ○ 건축설계 - 12:00~18:00 (360분)	건축계획, 건축구조 - 10:00~12:00 (120분)

●시험장소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안내
00001~01876	성보중학교 성보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하차, 도보 15분
01877~03707	선린중학교 선린정보산업고	용산구 청파동	지하철 1호선 남영역 하차, 도보 7분
03708~05019	광남고등학교	광진구 광장동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하차, 도보 7분
05020~06000 특별전형	광진중학교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하차, 도보 7분

「21세기 서울과 초고층 건축」 국제심포지엄

초고층 건축에 앞서
기반시설 뒷받침해야

지난 8월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21세기 수도 서울의 위상과 초고층 건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돼 최근들어 더욱 건립 열기를 더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층건축이 도시경제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도시의 상징적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하나의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임창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초고층 건축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의 추진을 위해선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SOM사의 대표인 아드리안 스미스씨는 "애플탑이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처럼 한국에도 초고층 상징건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초고층건물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서울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축은 일부 아시아국가든 물론 세계 각국들이 최근들어 경쟁적으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얼마전 우리나라도 삼성과 롯데, 대우, 현대 등 대기업들이 1백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의 건립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사 등 전문업종 자격취득 정원 확대

전문자격사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해
경쟁유도

정부는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시험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일정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 업종의 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해당업종 자격증 소지자만이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소 등을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격소지자를 고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등 해당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보수기준도 관련법률을 개정,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4회 이상건축 포럼 - "일본의 현대건축"

日 중견건축가 도요 이토와의 대담 등
마련

월간 이상건축이 창간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4회 이상건축 포럼」이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의 중견건축가인 도요 이토氏

가 초빙돼 '일본의 현대건축'을 주제로 작가 프리젠테이션과 대담 등을 진행한다. 대담자로는 이상해(성균관대), 우동주(동원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작가와 청중이 일문일답을 나누는 자리도 계획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청중들에게는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시회 할인관람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요 이토는 동경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도요 이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중견건축가로 주요작품으로는 아쓰시로 시립박물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하우스 조형설계, 시모수와 박물관, 나가오카 시립 문화 및 예술홀, 타이사초 시립 문화홀 등이 있다.

태양에너지학회

「국제대학생건축설계공모전」

수상자 발표

8월 27일부터
서울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수상작 전시

한국태양에너지학회(회장 이경희)가 주최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경주고속철도역사' 국제대학생건축설계공모전 심사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존스 그렌외 2인(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공동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1등상은 서울대 건축학과 김종호, 조성익 씨의 공동작품이 수상했으며, 2등상 두 작품은 홍콩대학생들이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많은 건축학도들이 참가해 이들 응모작품중 특히 건축설계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자연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을 고속철도역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된 21개 작품이 상을 받게 됐다. 공모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길원) 측은 이번 건축설계 공모전이 기존의 공모전들과는 달리 건축 교육을 가장 큰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건축전공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축과 환경과의 공존의식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3천달러와 2천달러가 각각 수여되며 별도로 해외여행의 특전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디자인포장센터 전시실에서 일반에 전시되었으며 전시개막일 27일 오후 4시부터는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韓·加 국제공동 스튜디오 심포지엄

경기대, 2학기 특강 및 세미나
일정발표

경기대 건축대학원과 캐나다 마니토바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 스튜디오 심포지엄이 오는 9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대 서울캠퍼스 지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Old & New'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Kaiserslautern 대학 Wolfgang Bohn 교수와 스위스 연방공대 Paolo Fusi 박사가 발표를 하며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김 원, 김준성, 민선주, 장림종 씨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한편 경기대는 올해 2학기 특강 및 세미나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SAK · GSAK 특강 일정(주제/강사/일시 및 장소 순)
- 데리다 : 형이상학의 여백과 차이의 높이 / 양운덕 / 9월 4일 17:00 수원캠퍼스, 9월 5일 17:15 서울캠퍼스
- 모더니즘과 Common Sense : 동시대 감성론 / 강성원(미술평론가) / 10월 9일 17:00 수원캠퍼스
- 근작 / 최정화(가슴시각개발연구소) / 10월 10일 17:15 서울캠퍼스, 10월 16일 17:00 수원캠퍼스
- 동서양의 도시와 조경 / 박계주(슈투트가르트 대학) / 10월 23일 17:00 수원캠퍼스, 10월 31일 17:15 서울캠퍼스
- 대중문화의 양면적 특성 / 이영미(문화평론가) / 11월 6일 17:00 수원캠퍼스
- SAK · GSAK 세미나 일정(주제/강사/일시 및 장소 순)
- TV프로덕션의 신기루 / 윤두병(방송PD) / 9월 10일 09:30 서울캠퍼스
- 광고기획과 아이디어 / 김남형(푸른나무 기획 대표) / 9월 24일 09:30 서울캠퍼스
- 태평무의 미학 / 김미란(무형문화재 92호) / 10월 1일 09:30 서울캠퍼스

민건협 여름건축캠프

- '97 우리건축 만들기

건축인, 학생 등 120여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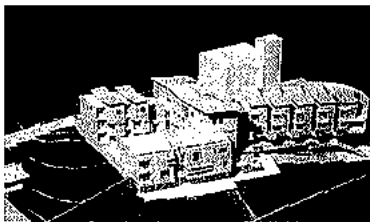
민족건축인협의회가 주최한 '97여름건축캠프가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전북 무주군 공정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며 「'97 우리건축 만들기」

란 화두아래 이 시대 우리건축을 돌아본 이번 캠프에는 건축인 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학생 등 12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전의 여러 행사들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던데 비해 이번 행사는 지방의 한적한 장소에서 열려 젊은 건축인들이 주축이 된 참가자들이 건강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여름캠프는 건축설계, 건축이론, 한국건축, 한국의 풍수 등 각 장르별로 7개의 팀을 구성, 각 팀별로 각각의 주제하에 공개강의와 토론, 설계 및 워크숍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간접적이거나 많은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팀별 성과를 교류를 통한 활발한 입체적 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해주었다.

엑토건축 한상범씨,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생」에 선정

각종 건축공모전 입상 경력의 신인



한상범씨의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96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작)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국내 주요 건축공모전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은 한상범씨가 「제6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의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일 최종 인터뷰 심사 결과 여행장학금 1만달러의 수혜자로 선발된 한상범씨는 현재 엑토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이며 그동안

안 실무를 통해 쌓아온 실력으로 95년과 96년 2년연속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 건축물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있는 신예건축인이다.

올해 장학제의 심사위원을 역시 스타일에 얽매임 없이 리듬감을 살리며 자유로움을 표현해 내고자 노력하는 그의 잠재된 재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 '주거문화전시관' 개관

과거 · 현재 · 미래의 가옥과 생활상을 모형과 영상으로 구성

주택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주거문화전시관'이 성남 분당 신도시 대한주택공사별관내에 문을 열었다.

9월 1일 개관한 이 전시관은 연면적 2백 30여평 규모로 과거와 현재 · 미래 등 각각의 테마별로 당시의 생활상과 가옥의 변천과정 등을 모형과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문의 : 0342-738-4911~4

건축 · CAD · 인터넷 전문지 「건축 CADNET」 창간

건축설계 · 건설 · 인테리어 · CAD · 인터넷 관련 정보 수록

건축과 CAD, 인터넷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 CADNET」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월간 「건축 CADNET」은 산업과 학계,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판매자 등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가교가 되겠다는 전제하에 이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교류,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 결과물에 대한 사진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기존 건축전문지와는 다르게 건축 디자인의 창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타입의 정보 · 기술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CAD 잡지들이 범용 전문지로서 건축 CAD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해 건축인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던데 비해 「건축 CADNET」은 실무분야의 CAD 사용자 및 CAD에 관심있는 많은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간 CADNET은 건축설계, 건설, 인테리어, CAD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웹진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권 7천원/1년 정기구독 7만원/2년 정기구독 13만원

문의 : 월간 건축 CADNET
(02-599-3362)

건축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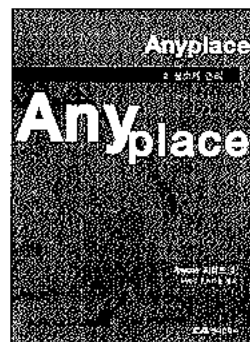
Anyplace-장소의 논리

◇ Anyplace-장소의 논리

이 책은 「AnyPlace-장소의 논리」란 주제로 지난 94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94 Any Conference를 번역 · 편집한 것이다. Any Conference는 매년 "Any~"를 화두로 세계 각 분야의 지성들이 모여 도시와 건축의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 199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 95년엔 「Anywise-건축의 도전」을 주제로 서울에서도 회의를 개최했던 국제적 모임이다. 이 책에 소개된 몬트리올 회의는 계획된 열한번의 회의 중 네 번째에 해당된다.

이번에 책으로 소개된 '94 Any Conference에는 뎀 쿨하스, 김석철, 아라타 이소자키, 피터 젤리슨 등 유명 건축가는 물론 문학비평가와 문화인류학자 등 유명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구체적인 '장소'에서부터 추상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또, 개념적인 '장소'에서 가상의 '장소'에 이르는 갖가지 '장소'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특히 이책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장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건축적인 장소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김석철, 피터 아이젠만, 다니엘 리벤스킨드 외 25인 공동著 / 현대건축사, 건축도서출판공사(02-547-6156~7) 펴냄 / 2만2천원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

- '항성(恒性)'

현실비평연구소 선정 30대 작가의
「대상전」과 우리시대 대표 작가
「초대전」으로 구성

- '恒性'을 매개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본 실험성 강한 전시회 -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경인 미술관 제2전시관에서는 실험성 강한 주제와 '강연과 전시'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형태의 전시회에 익숙해 있던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건축실험전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현실비평연구소가 주최한 이 전시회는 시대양식과 지역양식 등 집합적 개념을 보유한 작가의 자기표상으로서의 양식개념이라 할 수 있는 '恒性'을 주제로 대상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한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으로 보다 많은 대중과 문화영역에 건축정신을 확산시킨 자리였다. 특히 이번 실험전은 주최측이 자체 선정한 30대 작가의 '대상전'과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초대전'으로 구성,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항성'이란 주제를 매개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작가의 건축언어를 '전시'라는 무대를 통해 대중과 교류케 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실험전에 참여한 작가의 작품소개와 전시평을 함께 게재한다.

■ 초대작가

- 김태수(TSK 건축사사무소)
- 조건영(기산건축사사무소)
- 강남구(강남건축사사무소)

■ 대상작가

- 강일원(리인건축연구소)
- 김태우(KCAF건축연구소)
- 박종원(Studio A·A·X·I·X)
- 정창석(예림건축사사무소)
-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 조용범(범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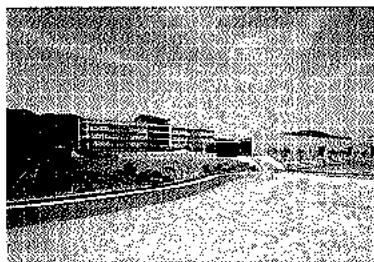
■ 전시평

- 정진국(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초/대/작/가/전/

국민은행 연수원

김태수 /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후 미국 예일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했다. 현재 김태수건축을 이끌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마틴루터 킹 반 불 폭 집합주거를 비롯 록키힐 소방서, 교보 연수원, 서울시 마스터 플랜 등이 있다.



Tradition

"...땅의 외곽을 돌면서 주위 산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였고 서쪽, 북쪽에 있는 산이 대지를 병풍과 같이 품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남쪽에 있는 호수의 독에 와서 대지를 올려다 보니 호수, 경사진 대지, 그 위의 산들로부터 건물의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11-1

대지면적 : 27,972.00㎡

건축면적 : 2,592.00㎡

연면적 : 2,999.00㎡

건폐율 : 9.27%

용적률 :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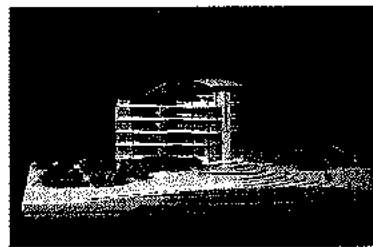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조경면적 : 13,400.07㎡

민간환경센터

조건영 / 전남 화순 태생으로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0년 J & S로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고, 1993년 '분당주택전'에 참가했다.

작품으로는 창원우림빌딩, 최약수 정형외과, 송추 주택, Proposal of Seoul Gallery, 금남리 전시시설 등이 있다. 민예총이사로 있으며 건축연구소 '기인'의 대표를 거쳐 현재는 '가산'의 대표로 있다.



스토이시즘

"내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회에 넘쳐 있는 무질없는 형이상학적 변태성에 대한 극단적인 콘트라스트였다. 이 콘트라스트를 상품화하고 싶었다."

그것을 건강한 허무주의라 불러도 좋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불러도 좋다. 요컨대 건축을 조금도 신비한 것이라든가, 형이상학적 변화성이 없는 '하나의 자명하고 평범한 상품'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아직 불량 상품이 판치는 중이지만, 건전한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한 법이다. 건전한 수요는 건전한 상품이 출하됨으로써 촉발될 수 있다.

내 자신의 생활태도에서 비롯한 것이긴 하지만 바로 이 '스토이시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89-1

대지면적 : 967.4㎡

건축면적 : 501.37㎡

건폐율 : 51.83%

용적률 : 207.06%

연면적 : 2,368.61㎡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 철골조

용도 : 전시, 집회, 관람시설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집한채(X화백의 집)

강남구 / 조선대 건축학과에서 공부했으며, 80년대 건축사사무소를 개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강남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작품으로 실험연합회관, 방림성당, 화순주택, 성원건설사옥 등이 있고, 이 지역 젊은 작가로서는 드물게 「광주실험연합회관」으로 제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했다.



氣, Authenticity의 수용과 변형

"체험적 강화를 Authenticity 측면에서 모던어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내 자신의 '恒性'이 된다. 시간과 삶을 재해석하여 '전통공간'에서 받은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작업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그 편안한 느낌, 이것이 본 프로젝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대지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84-2

대지면적 : 765.2㎡

건축면적 : 331.84㎡

건폐율 : 4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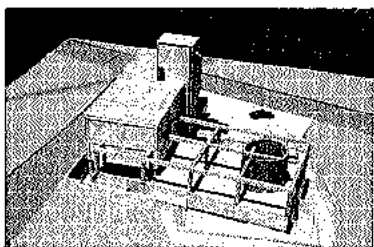
용적률 : 73.8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상/작/가/전/

목감동 성당

김태우 / 상공관대를 졸업하고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1989년 아뜨리에 KCAF를 개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계획' 현상설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후 줄곧 건축에서의 '퍼블릭 스페이스'와 연관하여 지속된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참 뜻 Significance' 과 '숨은 뜻 Implication'

"언뜻 보기에는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정신'과 '육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현실이라는 인간 속에서 심리와의 코드를 통해 '의미생성'의 공간으로 확보된다. 그래서 '의미 meaning'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정 용도에서 사용할 두 개의 용어, 즉 '참뜻 significance'과 '숨은 뜻 implication'이라는 그 두가지의 존재를 하나로 똬똬 뭉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공간 속에서 '의식'과 '습관'이라는 또 하나의 이중의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대지위치 : 경기도 사흥시 조남동 179-2외 2필지

대지면적 : 1,082㎡

건축면적 : 454.73㎡

건폐율 : 42.03%

연면적 : 1,099.08㎡

용적률 : 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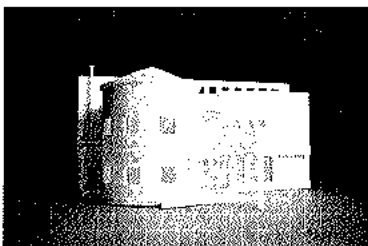
용도 : 종교시설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혜화원

정창식 / 전북에서 출생했으며,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85년 대한민국건축대전에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예림대표로 전북대, 벽성전문대학에 출강중이다. 작품으로는 이리농공전문대학, 전북도립교육청, 김제 K씨 주택, 전북 건축사회관 등이 있다.



Natural Design, FRAME

"어린이를 수용하는 공간으로써 어린이 집은 평면적으로 옥외공간으로서 진입공간과 교실군을 연계하는 중성적 공간을

형태적으로 조금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관념속에서 플라톤적 원뿔체를 평면과 입면에 삽입하였다. 진입동선을 유도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으로써의 강한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서산면 등화리 106-6, 100-4

대지면적 : 500.00㎡

건축면적 : 210.27㎡

연면적 : 408.83㎡

건폐율 : 4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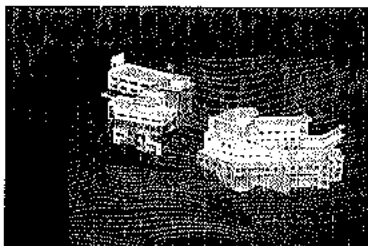
용적률 : 81.77%

지역지구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 : 노유자시설

옥천 노인병원 · 요양원

조용범 / 1987년 경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건축사사무소 등을 거쳐 현재 창원에서 건축사사무소 별건축의 대표로 있다. 작품으로는 부곡병원, 광복회관 경상남도지부, 진영한서병원, 의령병원, 교방동 K씨 근린생활시설, 대방동 K씨 주택, 석전동 근린생활시설, 누기병원, 창원시 상남동사무소, 아카데미 외국어학원, 김해 청림병원, 수정병원 등이 있다.



Cross Over

"공간구성과 조형적 개념은 자연이다. 지형과 지세에 의한 분리와 대응의 관계에서 2개의 동으로 분리하고 각 동별로 자연스럽게 중정을 형성하여 전체공간의 구심점으로 구성하며 자연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동일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중정 내부에서는 위요된 공간감을 형성하고 그 한면을 개방시켜 시야를 확보해 주므로써 자폐적인 공간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어 자연과 호흡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노인병원

대지위치 : 창녕군 개성면 사리 380

대지면적 : 4,641.00㎡

건축면적 : 1,298.04㎡

연면적 : 5,164.88㎡

건폐율 : 27.97%

용적률 : 90.55%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의료시설

지역지구 : 준농림지역

노인요양시설

대지위치 : 창녕군 계성면 사리 380

대지면적 : 4,604.00㎡

연면적 : 4,530.20㎡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노인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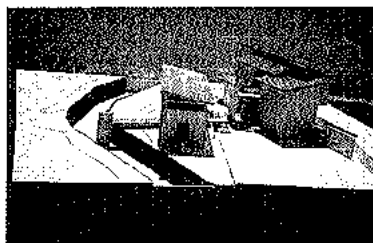
지역지구 : 준농림지역

PHASE

박종원 / 85년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83년 제7회 공간대상 건축상 수상, 85년

제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선을 비롯하여 85년 제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특선을 수상했다.

간담건축, 정원건축, 상지건축, 선진엔지니어링을 거쳐 현재, 건축사무소 Studio A·A·X·I·S의 소장으로 있으며 작품으로는 여도파백화점(상계점), 엠버서드호텔 개보수, 대연각호텔 개보수, 천안 망향휴게소, 한국은행 본점 별관, 포항 공과대학교, 계룡 신도시계획 등이 있고,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다.



Unfolding of Phase

“물은 물대로, 옛날부터 흘러왔던대로 스며들었던대로 붙잡지 않고 놓아서 그대로 흐르게 했다. 계곡쪽의 농로 둑 자체도 흙과 돌맹이 풀이 대충 얼기설기 축성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누수가 되더라도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축적으로 다른 방법을 첨가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흐르는 물, 누수되는 물을 잘 모아

서 진입부의 정점인 루가 있는 아래에 머물다 가게 했다. 주택은 브릿지형식의 복도를 통해 접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은 거실, 왼쪽은 안방을 배치하였고 정면쪽에는 2층의 아이들 방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어서 자녀들의 자기 영역에로의 접근을 쉽게 하였고 거실 쪽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인지가 되게 했다.”

대지위치 : 충도 공주군 반포면 상신리

대지면적 : 1651.07㎡

건축면적 : 154.99㎡

연면적 : 229.75㎡

용도 : 주택 및 도예공방

정신요양병원 「예증원」

강일원 /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재학시절 ‘물암’이라는 한국고건축 연구모임에서 활동하였다. 우리 건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졸업 후 상경하여 시흥동K씨 주택, 목포 순치파, 마산 정영발당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현재 리인건축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전시평 제2회청년작가실험전 “恒性”

눈높이에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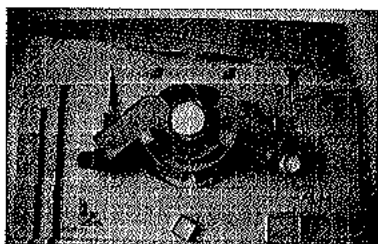
정진국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8·15에 맞춰서 건축분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회가 열렸다. 현실비평연구소 주최로 아홉 사람의 건축가들과 일곱 사람의 평론가들이 “형성”이란 주제 아래 모여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건축가가 참여하는 건축전시회는 특정한 건물 유형이든 시대적 쟁점이든 한시적인 주제에 따라 작품들을 선정하여 공개된다. 그러나 이 전시회의 주된 목적은 건축적 창작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건축가를 주목하여 건축의 한국적 풍토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과도한 형식 실험이나 난해한 이념 표출을 지양한 듯이 보이는 작품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항변한다. “모든 것이 변해야 산다.”는 최근의 기업형 유행어에 대립되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담론화시키고자 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일상 생활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처로서의 건축이 문

화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화를 있게 하는 터전으로서의 땅과 이 터전을 가꾸고 일구는 사람은 오늘날 심한 갈등과 모순 속에 처해 있다. 건축은 일종의 상품이 되어 서비스 산업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잉여가치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영웅적 모험주의는 사회에 만연하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이해의 부족은 설사리의 문화의 식민성을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축주, 관료, 사용자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건축가는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간다. 건축의 존재 또 건축가의 존재는 위협받고 있다. 아니 책임을 회피한 건축가의 자초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실과의 긴장 아래에서 모색되는 건축의 생산이기에 앞서 건축가들은 각자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은 더욱 더 높아만 간다.

건축과 건축가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말하자면 건축 발생의 근원과 건축가의 역할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것도 강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흰 가지를 바로 펴려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된 작품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읽게 된다. 형태보다는



Ritournelle로의 약도

"왜 '신체'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윤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왜 뻔히 부당하다고 보는 것일까? 스크린 공간 연출이라는 양적팽창이 카오스를 만들고 있는 현상에서 오래된 주제인 '신체'로 리토르넬로라는 배를 타고 귀환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성'이라는 중심이란 실체 그 점을 중심으로 가진 원을 그리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지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661-1와 2필지

대지면적 : 11,152㎡

건축면적 : 2,59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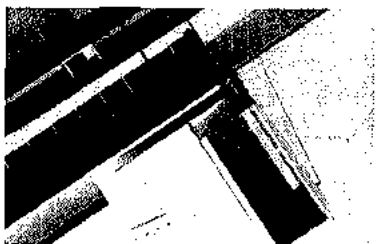
건폐율 : 23.26% 연면적 : 10,023.42㎡

용적률 : 89.88% 용도 : 의료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루가노 리포마 광장도시 발전사 박물관

조병수 / 서울출생인 작가는 작업을 하다 도미, 몬테나주립대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와 스위스 국립공대에서 건축학과 도시설계를 공부하기도 했다. 1994년 「조병수 건축연구소」를 개설, '어떻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즉 어떻게 경험하고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변해가고 '인식'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그가 만들어가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으로 '경험과 인식'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의미는 그에게 의미심장하다.



Experience & Perception

「루가노시 발전사」 기념관에서는 그 건축물이 위치할 대지와 호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기념관과 더불어 루가노시와 시민

이 어떻게 친숙감을 얻어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작업에 있어 관심사였다. 뒤에 설명된 것처럼 여기서는 대지 자체를 기념관으로서 체험할 대상으로 보았고, 호수와 광장간의 관계는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몇 개의 의도된 돌발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온 광장의 역사성과 앞으로 오를 동안 발전해 갈 루가노의 밝은 장래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둘 벽과 바닥에 조각으로 과거의 일부가 파헤쳐지거나 새겨졌고 미래에 새겨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빈공간이 할애되었다"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11-1

대지면적 : 27,972.00㎡

건축면적 : 2,592.00㎡

건폐율 : 9.27%

연면적 : 2,999.00㎡

용적률 : 9.27%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조경면적 : 13,400.07㎡

대지, 나보다는 우리, 오락보다는 문화, 말보다는 일, 첨단보다는 전통을 향한 가득한 열정은 건축을 제자리로 갖다 놓기 위한 작업일 것이다. 한창 주가를 오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기 보다, 손과 화면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영상의 재현으로 관람자는 부담없이 작품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다. 이러한 가까이 서기를 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결코 외형의 눈요기 거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전시 방법에서 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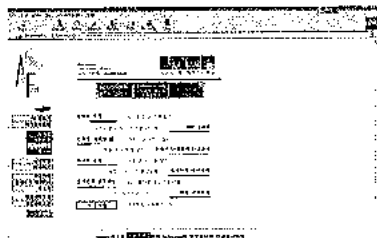
건물을 둘러싸는 외벽을 완전히 제거하여 골격과 공간을 노출시킨다든지, 각층을 분리해서 관람자가 구석구석 관찰하게 한 다든지 또는 눈의 접근을 위하여 아예 모형의 가운데를 잘라서 틈을 만든다든지, 건물 모형에 밀착하도록 하는 "눈높이"의 시점을 마련하고 있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즉, 지각의 대상이 벽, 천정, 바닥 등이 들어서고 남은 "빈 사이" 즉 공간임이 사실적으로 스스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은 유행이나 관념적 범주에서보다도 인간의 현실적 시선이 겨냥하는 과격이며 건축으로 형상화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이 드러난다. 외부에 길들여진 관람자를 내부로 끌어드리는 이러한 작업에서, 눈높

이는 관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건축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고 동시에 현실 똑바로 보기 그리고 알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눈높이=내부=존재'의 등식은 결국 무분별한 세태로 향한 자성의 소리이고 저항의 몸짓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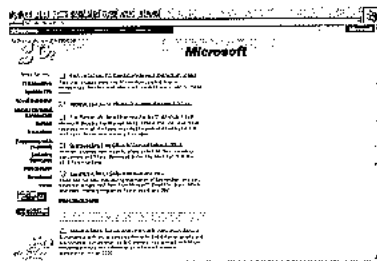
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는 근대 건축의 탄생을 가져온 기계 시대만큼 결정적이다. "더 빨리", "더 많이"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생각하기보다 그저 보고 즐기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달콤한 속삭임에는 언제나 치명적인 독소가 공존함을 알리고 하지 않는다. 국제화가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에 건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화로서의 건축은 개인 및 집단의 고유한 자질을 갖추지 않고서는 얻어지는데 아니다. 외국어로된 관념적 수식어와 축약된 전시 조건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전시회 "항성"이 전하려는 내용은 분명하다.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항성을 발견하고, 항성을 발명하자"는 것인데, 이는 항성이라는 문자 뜻 그대로 한시적인 전시회로 끝낼 일이 아니다. 건축가는 일상적 작업으로 건축을 생각하며, "날마다 수레를 끄는 말"이 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건축 여행 internet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무수한 정보를 사이를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건축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이들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열심히 떠돌며 헤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부상하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비취진 건축계의 모습과 우리가 업무상 알아두면 유익한 인터넷 Site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Net Scape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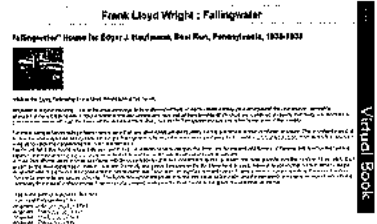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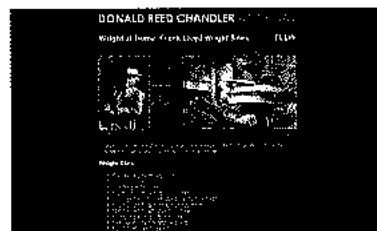
Internet Explorer 화면

인터넷에는 우리가 시장을 연상케 할만큼 매우 다양한 종류와 많은 양의 정보가 있다. 이들 정보는 각각의 홈페이지라는 자자들 나름의 틀에 의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즉 우리는 수많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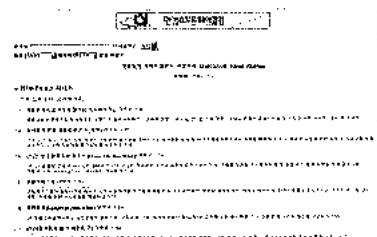
지 속을 헤엄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와 모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망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외형적인 준비는 끝이 난다. 그리고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할 배의 역할을 하는 S/W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S/W는 Internet Explorer와 Netscape Navigator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최근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으로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의하여 복제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의 불법적인 사례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PC 통신에서 소위 평가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비용 부담없이 인터넷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 건축 분야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건축관련 Site를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원하는 분야에 따라 찾는 내용이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시공 쪽에 관심이 있다면 건설 시공회사 및 건축 시공 관련 자재 또는 시공기술 정보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고, 건축설계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주요 건축가 및 주요 설계 전문회사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는 이런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고루 갖추어 놓고 있다.

그럼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가 건축설계이니 만큼 건축설계사무소 관련 Site를 알아 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자. 먼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관한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yahoo'라는 검색도구(www.yahoo.com)에서 'architecture'라는 단어를 'search word'에 입력하여 'architects' 중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찾아 보았다. 사실 인터넷을 활용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검색엔진이다.



<한글 검색도구 : 심마니>



<영문 검색도구 : yahoo>

이들 검색엔진에는 방금전에 사용한 'yahoo' 외에도 'alta vister', 'inforseek' 등 많은 종류가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검색 엔진 중에는 심마니, 미스다찾니 등이 있다. 이들의 사용법만 제대로 익히면 인터넷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국내의 검색엔진을 활용한 검색에 대하여도 알아보자(한글이 뜨니까 사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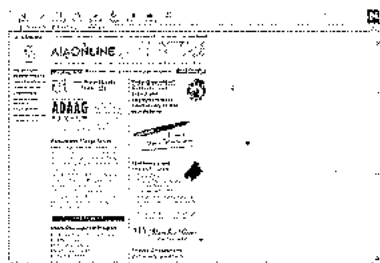
먼저 필자는 심마니를 활용하여 "건축"이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건축과 관련된 Site를 찾은 후 건축가의 홈페이지를

찾아 보았다. 그 결과 아키웹진(<http://forum.unitel.co.kr/archi>)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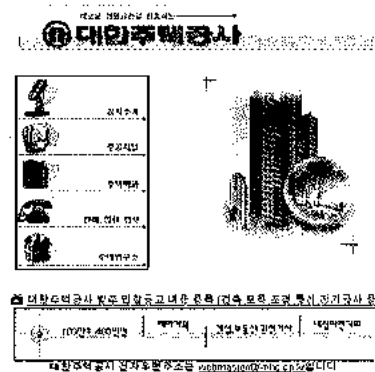


이 Site의 경우 일반 인터넷 사용자 및 전문사용자들을 위하여 건축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PC통신 업체인 유니텔에서 만든 Site이다. 이 Site는 건축잡지의 편집형태를 본뜬 것

이 특이한데 이런 홈페이지를 웹진(Webzine)이라고 하며 이런 부류의 잡지들이 최근 많이 탄생되고 있다. 건축 길눈이를 선택하면 건축가 및 건축 관련 홈페이지가 정리되어 있다. 이중 원하는 단어로 이동하여 선택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된다.



미국 건축가 협회(www.A:AonLine.Com) 이렇게 인터넷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정보를 얻는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는 각각 고유의 이름(IP Address)을 갖고 있다.



(www.Knhc.Co.KR)

우리 협회의 경우도 홈페이지가 만들어 진다면 고유의 IP Address가 www.kira.or.kr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Site를 알고 있느냐, 즉 얼마나 IP Address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듯 싶다.

인 터 네 트 의 설 립

Address 인터넷에서 특정사용자를 구분하는 코드 형식은 Username @hostname 인데, "username"에는 사용자의 이름, 로고인 이름이나 계정번호가 들어가고 "hostname"에는 컴퓨터의 이름이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제공자의 이름이 들어간다. 호스트 이름은 점으로 구분되는 몇 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Anonymous ftp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에 개정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하기 위해서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ftp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이름에는 anonymous를 넣고 패스워드로는 여러분의 주소를 입력한다.

DNS name servers 도메인 Name-System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들, 그 서버들은 컴퓨터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이름해법을 위한 질의에서 유용하게 한다.

Domain ①원도 NT에서, 보안 정책과 사용자 계정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컴

퓨터들의 그룹 ② 인터넷에서, TCP/IP 네트워크 도메인(domain name 참고)

Domain name 인터넷 사이트를 구분하는 단일한 이름. 어떤 컴퓨터는 한 개보다 더 많은 도메인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한 개의 도메인 이름은 오직 한 개의 컴퓨터를 가르쳐야 한다. 가상 머신에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은 자신이 직접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갖지 않고 인터넷 E-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는 목록에 있는 도메인 이름을 대신하여 메일을 처리한다.

Domain Name System(DNS) 인터넷에서 호스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이름을 개층적으로 제공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DNS는 정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WINS는 동적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르다(Windows Internet Name Service 참고).

File Transfer Protocol(ftp) 네트워크나 전화선을 통해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의 파일들은 참조하기 위한 들.

Graphic Interchange Format(GIF) 그래픽 이미

지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파일 형식

Hypertext 비순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텍스트, Hypertext 문서는 책갈피처럼, 문서들과 연관된 링크를 갖고 있다. Hypermedia는 그림, 소리, 영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시스템. HTML은 폰트, 레이아웃, 그래픽,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 링크를 정의하는 코드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만들게 한다.

Internet Explorer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여 월드 와이드 웹을 브라우저하는 프로그램.

Local Area Network(LAN) 같은 건물이나 혹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서 컴퓨터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 그룹으로써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Logon(login) 컴퓨터 시스템을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계정 이름, 비밀번호와 달리 비밀번호는 아니다.

ARCA

Domus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u

ARCA

97년 5월호

5월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최신 건축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 경향과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근작으로 Bernard Tschumi의 미국 콜롬비아대 학생회관, Perkins & Will의 미국 일리노이대 템플 호인 부엌 홀 등이 소개되었다.

■ 건축과 일반 디자인 분야의 차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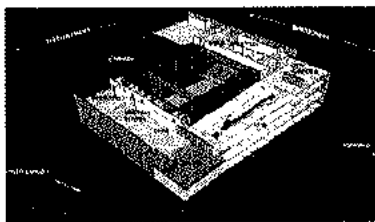
건축공간 디자인과 그 실내장식, 산업디자인 사이의 문화적, 기술적 차이가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

근대의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Gio Ponti 등의 건축가들은 산

업디자인을 겸함으로써 그것을 동시대적 특성과 절목시켜 문화적 적응성을 고양시켰다. 건축에서 출발하여 다양화된 디자인 분야와 그 사상들은 이제 건축의 발전을 통해 다시 융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지와 지식 사이의 교류가 가속화되어 가는 오늘날, 인간의 삶을 담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부재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 근작

▶Bernard Tschumi의 미국 콜롬비아 대학 Lerner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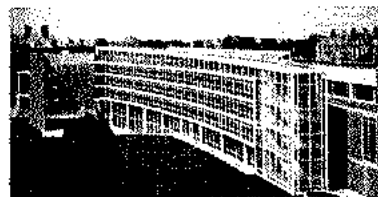
구조, 공간배치, 재료사용 등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추구하면서도 최신의 학생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이 계획에서 Tschumi는 내부 공간의 역동적 기능을 단순 명쾌하게 배치하면서 이를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두 동의 직사각형 블록이 특수기능을 담고 있으며 그 사이의 가상 공간에 메인 로비와 강당과 같은 대형 공간이 위치해 있다. 전체 높이까지 틈여 있는 메인 로비는 각층마다 발코니를 두는 대신, 반층 차이나는 두 동을 연결하는 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학생들의 사물함을 배치함으로써 통로인 동시에 다양한 행위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형태적으로 지나친 표현성을 추구하여 사용의 측면을 간과해온 해체주의로부터 벗어남으로써 Tschumi는 사용자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의 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Perkins & Will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템플 호인 부엌 홀

넓은 녹지를 분할하여 각 건물에 정형적으로 들어섬으로써 전체적으로 바둑판과 같은 배치를 갖게 되는 미국, 영국의 일반 캠퍼스 계획은, 도시가 갖는 상호 연결적 문맥이 결여됨으로써 다양성을 활



Perkins & Will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템플 호인 부엌 홀

성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 Perkins & Will의 계획안은 남쪽을 향해 개방된 L형의 배치를 채택하고 건물에 갖는 깊이감을 상쇄시킴으로써 한 단위가 갖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건물에 의해 감싸진 공간을 입구를 향해 경사지게 함으로써 외부 로비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도로로부터 정원에 의해 중계되며 기반에 의해 상승되는 일반적인 해결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 외에 ▶Zeidler Roberts의 캐나다 온타리오 미시소가 생활예술센터, ▶Denis Laming의 미국 시애틀을 보잉 아이맥스 영화관, ▶Michael McInturf Architects의 미국 뉴욕 한국장로교회 건물, ▶Butler Rogers Baskett의 미국 뉴욕 첼시부두 스포츠 오락센터, ▶Anshen+Allen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공과대학, ▶Steven Ehrlich의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Paul Commins도서관, ▶HKS의 미국 플로리다 오렌지 건강센터, ▶Josef Paul Kleihues의 미국 시카고 현대미술관, ▶Hoover Architects/A 3D International Group의 미국 텍사스 휴스턴 자연과학박물관 증축 등이 소개되어 있다.

■ 디즈니 Celebration

디즈니월드 탄생 25주년을 기념하여 이상적인 도시상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에 세워진 Celebration에 임주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전통적인 소도시 상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적인 가치가 복원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계획에는 Robert Stern, Philip Johnson, Michael Graves, Charles Moore, Robert Venturi, Aldo Rossi 등이 참여하였으며 빅토리

아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의 주택들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마치 패션 산업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소비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진정한 애정없이 지어진 신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타

▶기능적 특성을 만족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맥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하는 Fitch사의 하이테크 제품들, ▶기계적인 생산과정을 거치나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패턴을 갖게 됨으로써 고급 패넌이나 코팅에 유용한 재료인 Never the Same, ▶연속적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설계된 Taeg Y. Nishimoto+Allied Architects의 주택 설계, ▶미래의 예술계에서 미국이 점유할 위치 등을 다루고 있다.

ARCA

97년 6월호

건축의 리노베이션 문제를 다루는 본 호에서는 역사성의 절대적인 보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대의 실질



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재건축의 의미와 그 예들을 살펴보았다.

■ 재건축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을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존되는 성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또한 재개발 되는 경우에도 문화적 소양이나 용기가 부족

한 사람들에게 의해 종종 고전 스타일로 다시 지어지거나 그 언어들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에 있어 현대적인 디자인 방법과 구조의 도입을 통해 변화된 도시적 맥락에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Christian de Portzamparc의 프랑스 파리 Place Nationale 아파트



Andrea Bruno의 Alsace 리히텐버그 성 박물관

▶Christian de Portzamparc의 프랑스 파리 Place Nationale 아파트는 극도로 열악한 도시적 맥락을 탐구하여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균형있는 결합으로 재배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Dominique Perrault의 프랑스 Bar le Duc Conseil Général de la Meuse 본부는 기존 의회건물과 완전히 분리된 증축을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을 지양하는 과감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의 모범적인 증개축 작품으로 ▶Andrea Bruno의 Alsace 리히텐버그 성 박물관 ▶Reichen et Robert의 프랑스 Noisiel 네슬레 공장, ▶Philippe Samyn et Associés의 벨기에 Gembloux 농과학부 강당, ▶Gianfranco Cautilli, Mario Morganti, Renato Morganti의 Trevi nel Lazio 성 복원, ▶Ans-

hen+Allen의 미국 캘리포니아 Salk Institute 동측 증축, ▶Steven Ehrlich Architects의 Bus Wellness 회관, ▶Gwathmey Siegel & Associates의 미국 시애틀 핸리 미술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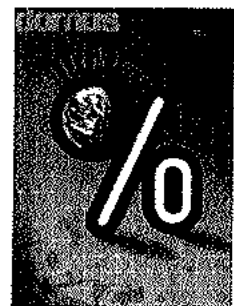
■ 기타

▶Jean-Pierre Dürig와 Philippe Rimi, Alberto Martinez Castillo와 Beatriz Matos Costaño의 작품이 공동 당선된 스페인 마드리드 Prado 박물관 증축 국제현상설계의 결과, ▶Ottavio Di Blasi의 Aquileia Basilica 모자이크 보존 프로젝트, ▶Enrico D. Bona, 5+1 Associati, Francesca Majoli의 제노바 Paupers 예배당 개축 프로젝트, ▶IBM의 새로운 Aptiva 라인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97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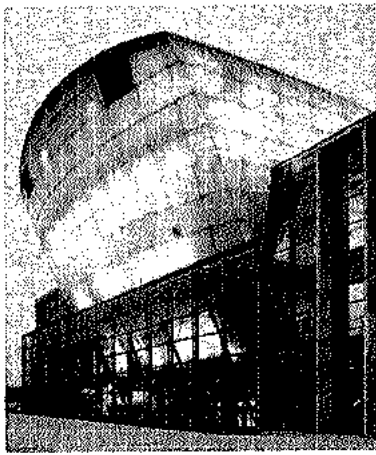
일상 주위에 나타나는 권력의 이미지와 그 건축적 표현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본 호에서는 근래 유럽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들을 이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건축 및 예술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그 이상적인 반영상을 모색하고 있다.

■ 권력의 이미지

권력의 이미지는 그것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어야 하기에 쉽게 드러나



Klaus Kada의 St. Pölten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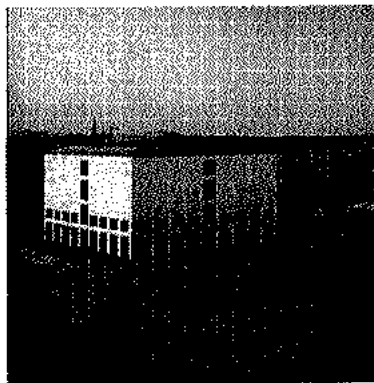
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정부의 공공건축은 옛부터 권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 권력의 이미지에 대한 고찰은 고전주의가 정부의 힘을 대변한다는 식의 단순화된 시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여기에 베를린과 St. Pölten의 상황은 좋은 예를 제공해준다. 독일의 통일과 함께 베를린에서는 이전의 정부가 가졌던 힘을 복원하기 위해 Norman Foster의 Reichstag 재개발 등 대규모의 공공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상징하는 대기업의 건축사업도 아울러 행해지고 있다.

반면 남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St. Pölten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알뜰한 건축을 실천해가고 있다. 공공건축에 갖든 권력의 이미지를 봉사의 이미지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집단 공동체의 건축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이미지에 대한 반영의 측면에서 본 베를린 건축의 현황과 함께, 권력의 이미지와 아울러 문화적인 메시지를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예로 ▶수도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의 첫번째 문화사업으로 지어진 것으로, 명확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들이 돋보이는 볼륨 구성을 보여주는 Klaus Kada의 St. Pölten 콘서트홀, ▶미테랑 대통령이 기획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대한 하부구조에 4개의 탑으

로 이루어진 구성을 통해 건축 언어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적으로도 새로움을 제공해주는 Dominique Perrault의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 ▶지역 재료의 사용과 지중해 건축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Juan Navarro Baldeweg의 Menorca 섬 Mahon 재판소, ▶시대의 문화적 요구를 더욱 논리적이고 기하학적이면서 급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O.M. Ungers의 독일 함부르크 신미술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O.M. Ungers의 독일 함부르크 신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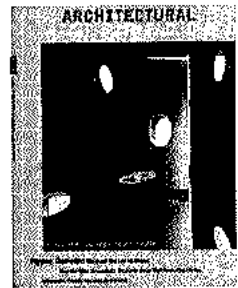
■ 기타

▶1856-1999 Contemporary Barcelona 전시회에 대한 평가 ▶유럽 통합에 따라 공동 통화를 위해 새로이 제작된 지폐 디자인 ▶세계 유명 기업들의 로고 디자인 ▶전위적인 가구 디자인들이 선보인 독일 Ginbande 1985-1995 전시회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도시의 거대함을 통해 나타나는 권력의 이미지, ▶예술과 권력의 역사 ▶파리를 무대로 이루어졌던 근대 아방가르드 Ledoux의 작품 세계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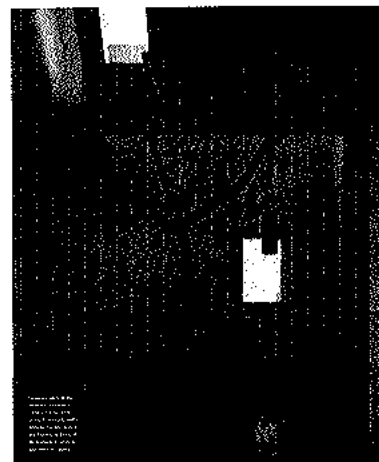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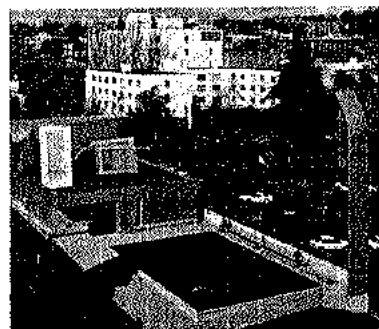
Steven Holl의 신작을 소개하고 있는 본 호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건축의 활성화와



아울러 한태평양 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건축의 기능별 분석이 이루어지는 연속 기획에서는 저소독출을 위한 주거가 다루어졌다.

■ 근작

▶Steven Holl의 미국 시애틀대학 St. Ignatius 교회



Holl 자신이 "7개의 빛 병을 담고 있는 돌 상자"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여러 방향을 향해 천창을 뚫어놓아 시간에 따라

다양한 빛의 연출을 보여주며, 밤에는 역으로 내부의 서로 다른 조명을 외부에 전시한다. 빛과 건축 형태에 대한 실험을 해오고 있는 Holl은 이 작품에서 빛, 재료의 질감, 그리고 전경의 연못을 통해 성스러운 사색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 외에 ▶Igloo Architects의 벨기에 브러셀 Witttockiana 도서관, ▶Mellet Architects의 미국 필라델피아 약학대학 건물 등의 신작이 소개되어 있다.

■ 한태평양 지역의 건축

몇 년전 크게 일어났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의 건설붐은 오늘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패, 엄격한 계획의 부재, 자연 환경 훼손 속에 교통체증은 점점 심해지고, 사무소 건축에 비해 주택이 모자라며, 건설에 투자된 해외빚 등이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지역 건축가들 사이에서 주택, 교통 계획, 그리고 경제적인 개발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소개된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각 나라의 예들은 서로의 개발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속기획 - 저소득 주택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 계획에 많은 건축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Herman Stoller Coliver Architects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Market Heights, ▶Goody, Clancy & Associates의 미국 메서쉴 세츠 캠프리지 Auburn Court, ▶James McCullar & Associates의 미국 뉴욕 브루클린 Northside Terrace 콘도, ▶Cav Dium의 미국 로스엔젤레스 아파트, ▶David Baker Associates Architects의 미국 산 호세 Plaza Maria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공제주택 계획의 모범적인 예들을 살펴보았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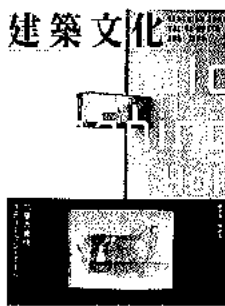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놀라운 도시 경관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홍콩 등 남

부 중국의 상황,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Ludwig Mies van der Rohe의 미국 시카고 Farnsworth 주택, ▶시공 계약, 건축주-건축가 계약 등의 조건에 대한 AIA 조서의 변동과 그 의미, ▶건축에서의 CAD 사용에 대한 현황 점검, ▶형태를 간결화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새로운 가구 디자인 등의 신상품 소개, ▶Luis Barragn, Moshe Safdie 등에 대한 저서 소개 등을 다루고 있다.

건축문화

97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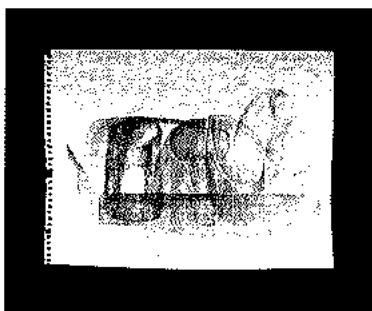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스티븐 홀(Steven Hall)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Two-fold Meaning(그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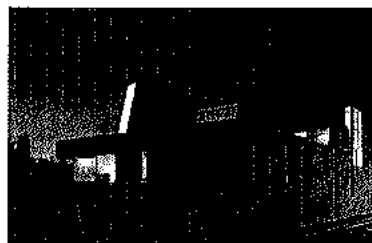
97년 발표된 에세이이기도 하다)이란 주제로 소개되고 있는 이 특집에선 그의 최근작인 성 이그나티우스 예배당을 비롯해 5개의 최근 프로젝트들과 4편의 그의 글들이 소개되고 있다.

■ 스티븐 홀 - 2중의 의미

▶최근작 - 시에틀 대학 성 이그나티우스 예배당(워싱턴주, 시에틀, 1994-97)



스케치



시에틀 대학 성 이그나티우스 예배당(워싱턴주, 시에틀, 1994-97)

컨셉은 다양한 빛의 모임이다. 빛의 메타포는 지붕으로부터 돌아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볼륨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 지붕에서의 불규칙한 형태들은 다양한 질의 빛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동향, 남향, 서향, 북향의 모든 지붕이 하나의 의식의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예수회 파의 수사가 말하는 '심령수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하나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사람들을 돕는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가 있는 것이다. 각각의 빛의 볼륨은 예수회의 캐톨릭 경배 의식의 프로그램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밤에는 이들 다양한 볼륨들은 캠퍼스에 그들만의 빛을 투사한다. 다양한 빛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ocession - 자연광 / Nartex - 자연광 / Nave - 황색에 청색 렌즈(동측), 청색에 황색 렌즈(서측) / Blessed Sacrament - 오렌지색에 자주색렌즈 / 성가대석 - 녹색에 적색렌즈 / 고해음예배실 - 자주색에 오렌지색 렌즈 / 종탑과 연못 - 반사광 혹은 야간의 반사광

▶5개의 최근 프로젝트

1. Cassino市 미술관(이테리, 캣시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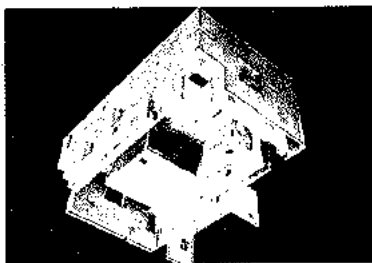
2차대전이후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는 캣시노시에서는 공공스페이스의 재건을 위해 15개소의 건축 '실험실'이 있다. 여기에 스티븐 홀은 市미술관을 빛의 실험실로 간주하고 있다.

2. 텍사스대학 간호학부 · 생물 의학과 교
사(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1996)

컨셉은 수직의 '유기적' 캠퍼스이다.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뉘는 L자형의 건물은 최초의 계획이었던 간호학부와 학생센터라는 기본프로그램의 2분할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L자형의 건물에서는 기능 집합체, 혹은 기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8개의 생체적 공공물류를 축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는 8개의 생체적 기능(성찰, 계획산정, 양성, 계산 등)과 그에 상응하는 기능집합체를 설정, 이들을 대응시키는 구성을 하고 있다.

3. 사르파티스트라트의 오피스(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96-98)

'색채의 장'에 있어서 패턴이라는 컨셉트는 '현상적 스크린'에 의하여 변화되는 일련의 투시도법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스크린은 공간 뿐만 아니라 체형의 틀을 만들어내어 여기에 조명, 환기그릴, 전기, 스피커 등 통상의 서비스 기능이 삽입되게 된다. 3차원으로 전개되는 이 개구부가 설치된 스크린은 제로 볼륨에 가까운 평면에 연속적인 구멍을 낸 'Menger 스펀지'의 원리와 유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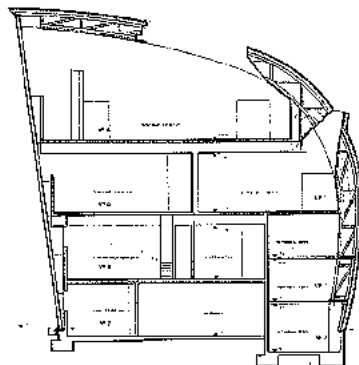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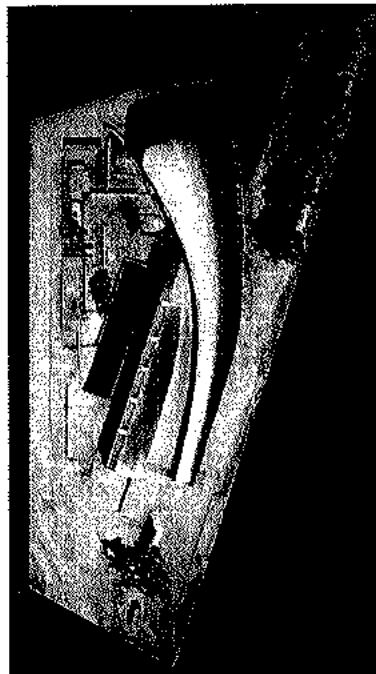
사르포데스트라토의 오페스

4. 크넛 햄슨 미술관(노르웨이, 하마레
아, 1996)

크넷 햄슨(Knut Hamsun)은 20세기 노르웨이의 가장 독창적인 소설가이다. 미술관의 컨셉인 신체로서의 건물 - 보이지 않는 힘들이 부딪혀 만나는 저쟁의 장

소 - 라는 생각속에는 햄슨의 특징이 스며들어 있다. 타르를 묻힌 검은 목조외벽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위대한 목조 교회를 방불케 한다.

5. 헬싱키 현대 미술관(핀란드, 헬싱키, 1992-98)



웹싱키 현대미술관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는 다양한 공간체
 험을 제공하는 것이 의도되었다. 작가는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술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비토·아콘치와 같은 표현
 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작품을 가진 예
 술가로부터 아그네스·마틴이나 리처드
 터틀과 같은 예술가의 작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시 스페이스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각 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실들의 모

양이 정방향으로서 한 방향의 측면을 제공하여 현대미술의 전시에 있어서 정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건물의 형상이 약간의 커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 실에 미세한 변화를 주기 위함이며, 고위도지방의 수평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기 쉬운 단면형상과 내부공간의 연속과의 결합으로부터 공간의 흐름이 생긴다. 이러한 공간의 흐름은 통상적인 직교적 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무한의 퍼스펙티브를 제공한다.

건물공간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컨셉은 건물에서 중간크기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예술작품들은 건물에서 그 중간스케일들을 점유할 수 있고, 기둥이나 창문의 개구부가 아닌 문 손잡이나 계단의 모서리, 유리 슬래브의 노출된 두터운 단면 등의 디테일에 의해서 건축은 표현되는 것이다.

▶ **논고**

이중의 의미(Twofold Meaning)

건축작품으로 체험하는데 있어서의 본질, 즉 건축작품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감각현상은 컨셉과 현상의 사이에서의 결합이 다소 느슨해 보일 때에도 그 작품의 컨셉트상의 의도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있는 것도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미는 체험적 현상과 컨셉트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중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언어에 의한 변증법이 아닌 사고와 공간 혹은 물질들과의 이중의 융합이 지각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현상적 본질의 상대로 역의 이념=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두 요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이중의 풍부함을 의미하고 건축에 내적긴장(Intensity)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Asymptote,
Kohl & Kohl, Paul Robbrecht and Hilde Deam 등 10
작가의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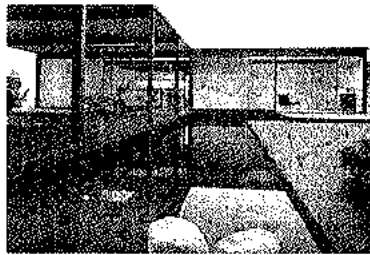


작 및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또한 연재
물인 戰後의 현대주택 - 심플한 스틸구조
가 연재되었으며, 특집으로는 '예술을 위
한 공간 - 미술관과 갤러리'가 소개되었다.

■ 연재 - 戰後의 현대주택

Case Study House No. 21 by Pierre Koenig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리스 1959) 나의 신념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명쾌할 것, 진실할 것, 그리고 자연과의 연관을 가지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도 일종의 계속 탈트지향이 있다. 적을수록, 그리고 커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법칙이나 질서 혹은 반복의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변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반복속에서 변칙을 생성해낸다. 반복은 생활의 비밀인 것이다.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 1993년 피에르 코닝(1925-)의 말이다. 그는 스틸주택을 만드는 가운데 위의 신념을 가졌었다. 그는 전쟁에 의한 산업에 의해 발전된 기술이 당시의 건설 시장에 방출되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을 확신했었다. 이러한 신념은 잡지 'ART & ARCHITECTURE'에 의해 기획된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CSH) 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잡지는 전후의 일반적인 가정에게 부담없는 가격 이면서 충실히 디자인된 독립주택을 소개하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CSH No. 21로서 건축된 코닝의 7번째 스틸주택은 '가장 명쾌한 스틸의 사용'과 '심플한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완성한 것'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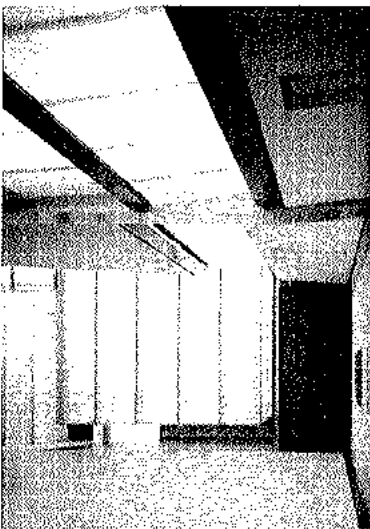
의 공업생산으로 스틸주택의 효과적 양산을 꾀했던 그의 계획은 업자들의 부정적



코닝의 7번째 스틸주택

인 반응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 특집: 예술을 위한 공간 - 미술관과 갤러리



Ben Van Berkel의 Twenthe 국립미술관 공개축 (네덜란드 엔스피데/1992~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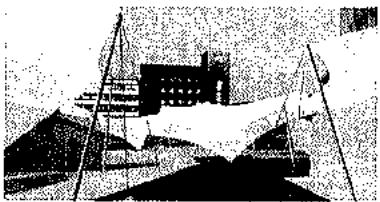
다음 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는 지금, 미술관은 건축가에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캔버스로 최고의 전달매체가 되었다. 건축가는 미술관 건축에 관한 문제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인 것이다. 미술관 건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곧 건축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되었다. 본 특집에서는 ▶안도타다오의 포트워스 근대미술관 현상설계 당선안(미국 포트워스) ▶Paul Robbrecht and Hilde Deam의 4개의 작품(벨기에) ▶Ben Van Berkel의 Twenthe 국립미술관의 공개축(네덜란드 엔스피데 1992-96) ▶Henning Larsen의 Ny Carlsberg 조형미술관 신전시실

동(덴마크 코펜하겐 단테광장 1992-96)

▶Jean-Marc Ibos and Myrto Vitart의 릴 미술관 공개축(프랑스 릴 1997) ▶John Pawson의 의복을 위한 전시관-캘빈 클라인 본점(미국 뉴욕 매디슨 에버뉴)이 소개되었으며 ▶Marc Dubois의 에세이 "건축과 예술"이 게재되었다.

■ 작품

▶Asymptote: Rasid + Couture의 Universe Theater(덴마크 Aarhus 1996)



덴마크의 Aarhus에 세워진 이 일시적 구조물은 건축, 극장,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모아 역사적 도시의 중앙에 교차점으로 하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공간 미디어로서의 건축'을 잘 말해주고 있다.

▶Kohl & Kohl의 미술품수집가를 위한 집(독일 에센 1994-96)



갤러리가 주택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수직의 오픈된 공간을 점유한다. 이는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적 교차점이기도 하다.

(번역: 최원준, 강상훈)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인천계양구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한남대 종합정보센터

동작소방서

김해문화예술회관

단대시립도서관

인천계양구청사

Inchon Gaeyang-gu
Public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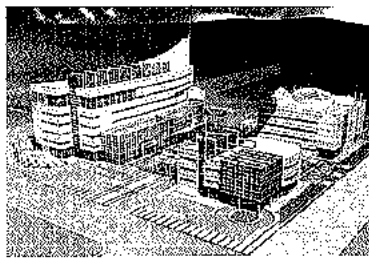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첨단 정보망을 통한 신속하며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위해 인천계양구청은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했다. 총 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7월 16일에 당선작에는 무영건축(안길원)안, 우수작에는 태건축(김태영)안, 가작에는 두이건축(조원민)안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홍성걸(서울대), 김성우(연세대), 김강수(고려대), 이강업(한양대), 이명호(중앙대), 이문섭(인하대), 황영삼(인천대), 계양구의원2명, 공무원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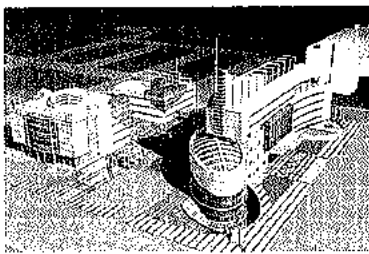
▶ 당선작 / 무영건축(안길원)



투시도



CAD 시뮬레이션1



CAD 시뮬레이션2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지구내 35블럭
대지면적	23,570.0㎡(7,130.0평)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정비지구, 2종 미관지구
건축면적	7,125.14㎡(2,155.35평)
연 면 적	45,041.62㎡ (지하 - 17,415.39㎡, 지상 - 27,626.23㎡)
건 폐 율	30.23%
용 적 륜	117.20%
구 모	구청사 - 지하2층, 지상7층 의회청사 - 지하1층, 지상4층 보건소 -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805대(지하 694대, 지상 111대)
주요외장재	화강석 건식 마감, Metal, 컬러 복층유리
주차장면적	지하 - 10,475.56㎡ 지상 - 3,986.36㎡
녹지면적	4,478㎡

새로 건축되는 계양구청사의 기본개념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동선체계, 증축에 대한 고려,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35m도로 양측 4거리에 시민광장을 두어 계산택지개발지구 전체 미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주변 공원의 녹지축 상 연지역과 연계되는 도심축, 35m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축에 따라 건물배치를 배치하여 도시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둘째, 동선체계로 대지 4면에서 중앙광장으로의 진입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고, 동측 30m와 서측 20m 도로에서 진입되는 차량들은 보행동선과 분리하면서 각 시설별 옥외 주차의 구분 배치로 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향후 증축에 대한 고려에서는 성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장래 증축시 구청사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능 분화, 구조·공법, 외장적 요소 등을 감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앙광장으로의 수평증축이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배치와 형태 공간 계획시에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환경 및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건물의 중앙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개념하에 본계획에서 강조되었던 평면계획, 입면계획, 조경계획의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평면계획

구청사 건물의 저층부에 대민종합민원실, 도서실, 회의실, 전신실, 행정자료실 등의 업무지원시설, 중층부에 주업무시설, 최상층에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두어 유기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층부, 중층부, 최상층에 각각 개방된 아트리움, 그린룸, 옥외휴게공간을 두어 내부공간의 특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구청사의 1층 부분을 넓게 개방시켜 민원부분과 업무부분의 동선을 분리하고 중앙광장으로 직접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는 보행자를 피로티로 구성된 옥외의 로비공간으로 끌어들여 내부의 각실로 연결시키면서 시각적인 연속성을 주고 중앙광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선관광장은 외부 자연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지하1층 대회의실 이용자들을 위한 옥외로비공간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여 구민을 위한 예식장으로도 활용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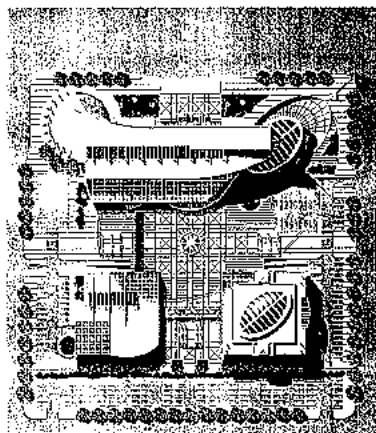
능토록 별개의 동선을 구축하였다. 아트 리움으로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연채광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평면을 계획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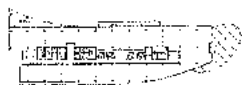
입면계획에서는 균형감, 상승감, 미래지향성을 반영하였다. 우선 Solid와 Void의 균형적인 대비로 볼륨감 및 리듬감을 부여하였으며 주변의 스카이라인에 융합하는 매스의 상승감을 유도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구형사로서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재료를 회강석과 Metal 및 유리로 마감하였다.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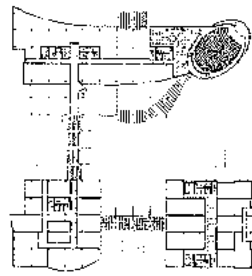
우선 주진입 공간은 중앙광장과의 기능적, 시각적 연계성을 강화시키며, 동서축 진입공간은 전면 개방하여 보행물을 조성하였다. 공간 구성상 시각과 보행동선의 중심인 중앙광장은 문주(Gate), 열주, 쉼터, 격자형 포장패턴, 야간방문객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로 중심광장으로서의 특색있는 경관을 창출하였다. 도로변 전면공지를 개방하여 조성한 시민광장은 주민 커뮤니케이션 광장으로 행사, 휴게,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이곳에 열주, 잔디밭, 원형포장과 같은 환경장치들의 설치로 시각적 흥미감을 부여하였다. (글 / 이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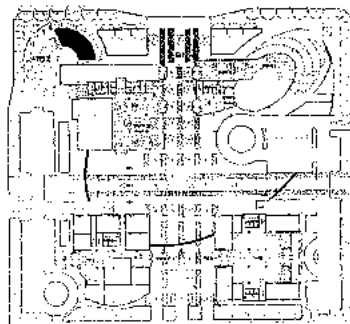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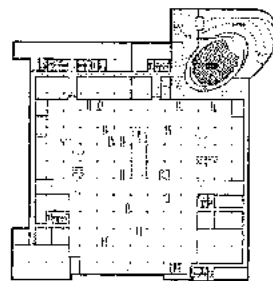
6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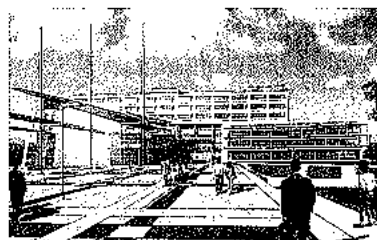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우수작 / 태건축(김태영)



투시도1



투시도2



투시도3(민원실)

대지면적	23,570㎡(7,130평)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7층
건축면적	4,950.7㎡(1,497.6평)
연면적	42,960.8㎡(12,995.6평)
건폐율	21.0%
용적률	92.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장재료	메탈패널, 착색접합유리

배치계획

구청사는 관청의 청사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의 장소이어야 하고 권위보다는 친근한 이미지를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 주도로에 접하는 대지주변과 정면쪽은 시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선로과 공원, 언덕 등의 휴식공간을 둔다.
- 진입동선은 강한 흡입을 위한 직선동선과 선로를 길이 들어오는 곡선 동선으로 처리하고, 도시계획의 큰 축을 따르는 구청사의 본동은 일정정도의 권위를 상징케 한다.
- 본동 앞에 위치하는 의회동은 비정형의 자유곡선과 그 형태를 투영하는 언덕을 둔다.

평면계획

- 구청사 평면은 종합민원실과 아트리움을 연계하여 개방성과 친근감을 준다.
- 계획건물 형태와 규모의 공간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주차계획이 가능한 Span을 계획한다.
- 1.2m를 기본 Module로 사무공간 및 복도 실배치를 계획한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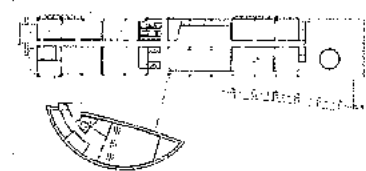
- 신도시 계획지역의 Landmark로서 청

사의 Identity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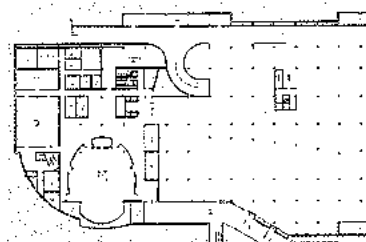
-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감과 친근감을 갖도록 저층의 부드러운 매스들과 고층의 정제된 형태와의 통일감
- 불투명 메탈재료와 투명글라스의 대비 효과 부여
- 남측면의 Shadow Device 설치로 다양한 입면효과 창출



7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가작 / 무이건축(조원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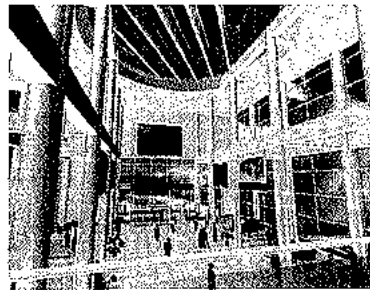


조감도1



조감도2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택지 개발지구내 35블럭
- 지역지구 상업지구, 주차장정비지구·2종미관지구, 상세계획구역



내부투시도1(민원홀)



내부투시도2(구민홀)

대지면적	23,570.0㎡(7,130평)
건축면적	6,176.14㎡(1,868.28평)
연면적	44,941.72㎡(13,594.87평)
건폐율	26.2%
용적률	110.6%
규모	본청 - 지하2층, 지상9층(일부 7층) 의회청사 - 지하1층, 지상4층 보건소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650대(육내 - 532대, 육외 - 118대, 장애자전용주차 - 8구획 포함)
조경면적	4,200㎡
인접도로	전면 35m, 우측면 30m, 좌측면 20m
최고높이	42m
계획총괄	이호정(설계사업본부장)
설계담당	최인석, 양인성, 김상동, 허유형, 조선희, 김추호, 박경석, 주재운, 류웅식, 류승교, 김연주

건물의 배치는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풍수지리에서 건물의 좌향은 그 땅의 기(氣)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건물을 잘못 앉히면 땅은 생기를 잃는다. 즉 건축의 장소성은 땅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소화된 공간은 생동감이 충만하게 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애착감을 갖게 하는 건축의 공간이 되는 장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 대지를 장소화하기 위해 한국 전통건축의 풍수지리학적 국면을 도입하기로 했다. 즉 풍수의 국면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에 의거한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알맞는 배치형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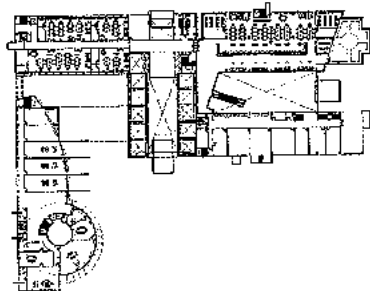
대지내에 도식축에 따른 가로와 세로축을 설정하여 중심적 공간인 구민광장을 중심으로 북쪽에 분청사당을, 서쪽에 의회청사를, 동쪽에 수위실 등 옥외시설군을 배치하고 남쪽에는 주차장을 통해 뻗어가는 공간을 한정하는 가벽을 세워 공간을 계획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지리적 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두축에 의해 분할된 공간에 의회청사를 배치하여 의회청사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구청사 업무동의 동서 장방형 배치로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적극 꾀하고 행정업무와 민원관련 업무공간으로의 진입을 과정적 공간인 구민홀 및 민원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분리되게 계획하였다.

배치계획의 이러한 과거부터 사용해온 공간의 분할 및 통합의 계획방법으로 우리정서와 지역특성에 잘 어울리는 친숙한 장소로서의 구청사가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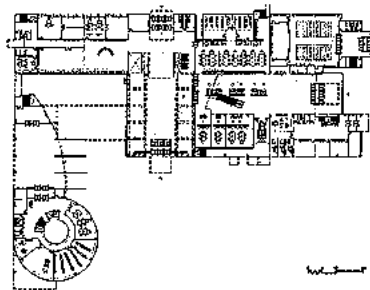
외부공간 계획에도 전통적인 외부공간구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상징적 중심인 구민광장과 연계하여 동적 외부공간인 행사마당 및 의회마당, 정적 외부공간인 직원 옥외휴게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서비스코아와 연계된 옥외서비스 공간, 지하 주차장과 연계된 선콘 공간 등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또하나의 대회의실을 예식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격을 규명하고, 시간대가 다른 점을 감안해서 분강당을 도로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도로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1층에 배치하였다.

특히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구정을 살피는 의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치구의 청사 이미지는 바뀌고 있다. 과거의 권위적인 집행기관에서 민주적이고 봉사하는 그런 이미지, 의원들의 그런 역할은 구민들의 바램과 희망으로 승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구민의 대리자로서의 의회의 얼굴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구민의 대리자로서의 의회의 얼굴은 상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청사의 위상은 실질적인 주민집회에 정면으로 위치시켜 현실적인 업무수행의 위상을 부여했으며 반면에 본 청사는 상징적인 정면성을 주면서 공공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1층에 위치시킨 직원용 탁아실은 맞벌이부부 혹은 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데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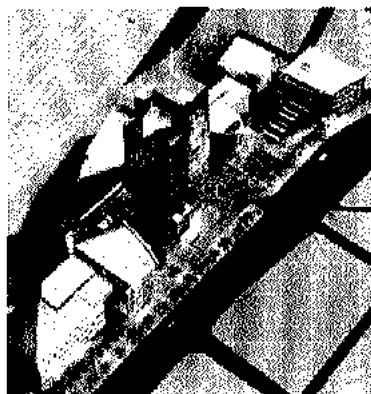
단면도2

성동종합행정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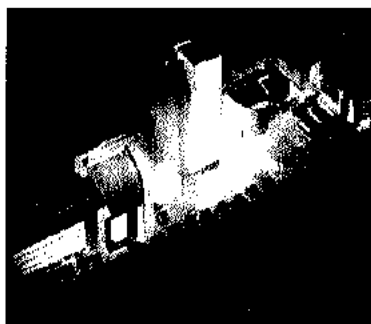
Sungdong Administration Town

성동구는 지난 7월 26일 성동 종합행정마을 설계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총 1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무영건축(안길원)안을 당선작, 건원국제건축(한현호)안을 우수작, 지오디자인건축(박유종)안과 POS-A.C(심인보)안을 가작, 태경마루건축(김명준)안을 장려로 각각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봉교(경원대), 이은석(경희대), 정수웅(단국대), 조정식(동국대), 정만영(산업대), 이진원(이화여대), 최윤경(중앙대), 이채성(국민대), 문정희(한양대), 조철호(건국대), 김강수(고려대), 김종성(서울건축), 김진애(서울포럼)

▶ 당선작 / 무영건축(안길원)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성동구 행당동 168-161의 27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2종지구

(공용의 청사)

대지면적	19,331.3㎡(5,847.70평)
도로현황	서측 - 35m 도로에 접함(정면) 남측 - 8m 도시계획도로, 동측 6m도로
연 면 적	52,275.19㎡(15,813.24평)
건축면적	6,206.88㎡(1,877.58평)
건 폐 율	32.11%
용 적 륜	175.7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 수	지하2층, 지상16층
최고높이	69.6m
외부마감	THK24 컬러 북층유리, 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
설비개요	냉난방 방식 - VAV방식 + CAV방식 오수처리방식 - 오수정화조, 중수설비 수전방식 - 22.9kw 상용1회선, 예비1회선 수전 IBS 적용
주차대수	693대(지하 664대, 지상 29대)
조경면적	2,900m

계획의 개념

역동성 / 다양성

- 역동적 형태의 대지 해석, 대지에 부합하는 건물 형태 구성
- 다양한 기능과 통합된 분위기의 형태 구성
- 복합 집단의 자연스런 위계에 의해 성립됨.

민주성

-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중심 공간 구성 기법
- 권위적인 공공건물은 방문자의 잔입을 거부하거나 통과시켜 버리며
- 시선은 마지막 종착점을 인식하되 자연스러움이 민주성이다.

미래성 / 효율성

- 좌우 대칭의 정제된 역사적 권위 형식을 거부하고
- 미래 지향적인 조화로운 배치형식을 채택

공간의 구성

구민의 광장

- 구민의 광장은 행정마을 단지의 상호관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공공의 청사로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활력 있는 구민의 문화적 공간을 구성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행정의 광장+물의 광장+문화의 광장).
- 구청사와 구의회 두 건물 앞의 공간(행정의 광장)은 원형의 승·하차장과 연못(물의 광장)으로 수성되어 수면위로 민주주의의 표상인 의회동을 잔잔히 반사하여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평시의 차량공간은 필요시 의장대 및 직원이 환영하는 의전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청소년 수련원의 북쪽 공간(문화의 광장)의 완만한 경사는 옥외 공연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연단을 설치하여 의정연설, 유세와 같은 정치 집회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와같이 행정의 광장, 물의 광장, 문화의 광장의 이원적 기능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동시에 문화적 행위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구민의 광장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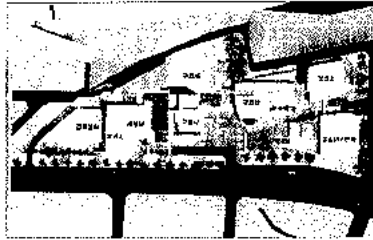
축의 설정

만남의 축 :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찾아온 내방객의 축으로서 행정의 광장을 통과하여 업무 목적지로 향하는 높은 속도를 갖는 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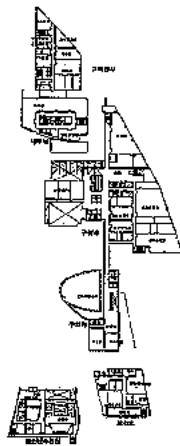
여유의 축 : 기존의 지하철과 향후 건설될 왕십리 민자역사로부터 구민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축으로서 내방객의 지루함을 없애주는 소공원을 통과하는 여유로운 축이다.

행정의 축 : 행정마을 내의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무동선의 축으로서 소공원을 두어 행정인의 휴식을 겸하는 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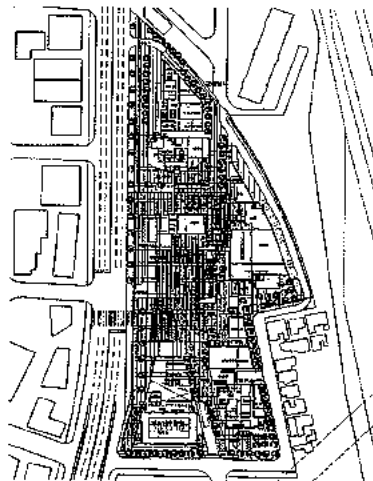
친화(親化)의 축 : 행정마을의 영역을 표시하는 축인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내방하는 사람이 잠시 벤치에 쉬어가는 친화의 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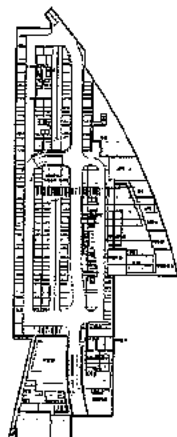
배지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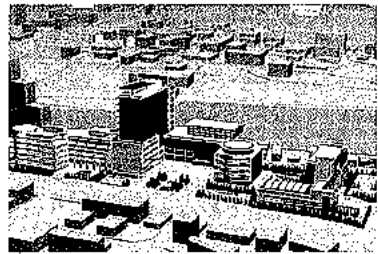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우수작 / 김원국제건축(한현호)



투시도

대지위치	성동구 행당동 168-161외 27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2종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9,331.3㎡(5,847.72평)
도로현황	정면(서측) 35m 도로, 남측 8m 도시계획도로, 동측 6m 도로
용도	공공업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연면적	51,736.14㎡(15,650.18평)
건축면적	6,536.22㎡(1,977.21평)
건폐율	33.81%
용적률	163.39%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
층수	지하2층, 지상12층
최고높이	53.65m
외부 마감	T30mm 화강석 버너구이, T24mm 컬러 복층유리
설비개요	정풍량 - 변풍량 단일덕트+컨벡터, IBS 도입
주차대수	463대(지하 424대, 지상 39대, 장애인 10대)
조경면적	3,020.5㎡
공개공지	2,030㎡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청사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며 지역의 통합적인 커뮤니티센터를 형성하여 기존의 구청 중심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구민을 위한 공간 연출을 꾀하였다. 대지는 국철,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경유하므로 지하로부터의 동선이 중요시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로는 지하보도에서 대지내의 선큰으로 자유로운 유입을 통해 주보행 동선과 연결시켜 각 시설로 연계시켰으며, 배치에 대한 해결로 향, 지형지세, 기존 도로망을 고려한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강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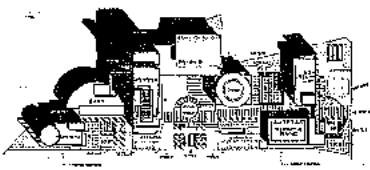
시축과 전면 도로에서 장방형 대지의 중심을 잇는 축을 설정하여 대지의 중심축에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구청사, 민원동, 의회를 배치하여 각 청사간의 조화와 민원인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였고, 청소년 수련원, 보건소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지 남측에 배치하여 구민의 친밀성과 이용도를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대지의 북측에는 세무서, 등기소, 교육청사 건물을 배치하여 독립적이면서 구청과의 조화를 가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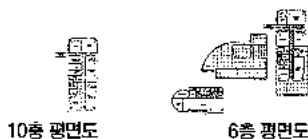
또한 각 시설의 연계는 대지 남측으로부터 북으로 이어지는 주보행동선과 선로, 광장으로 원활한 연결을 가지도록 하였다.

평면은 7.8×7.8m의 합리적인 Module을 채택하여 기능적이면서 원활한 동선을 가지도록 하였고, 전체적인 Mass는 기능에 따른 분절과 결합, 직선과 곡선의 변화 속에서 긴장, 이완 등의 개념으로 균형잡힌 구성과 조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각기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갖고 개별성과 전체적인 조화의 합리화를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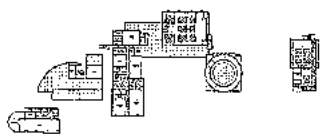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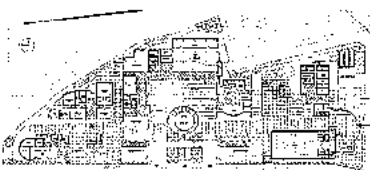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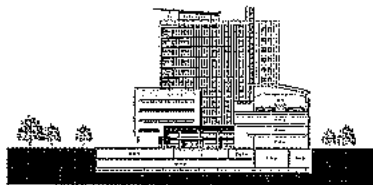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측면도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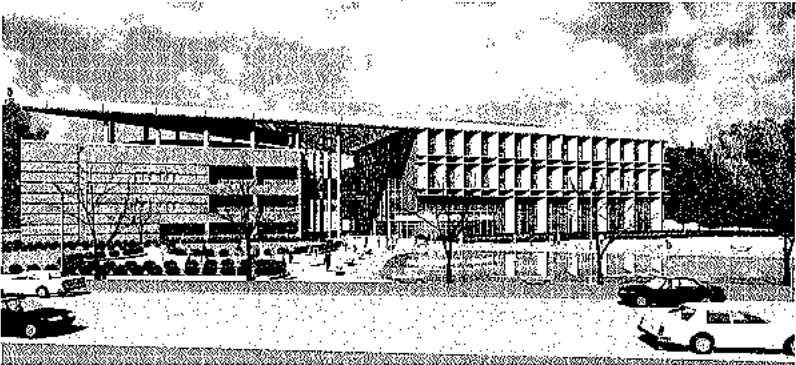
한남대학교 종합정보센터

Hanam Univ. Information Center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 종합정보센터 건물을 위해 한남대학교가 현상설계를 했다.

한남대는 총 21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시몽건축(변희협+홍순재)안, 우수작에 스튜디오 I (이태영)안, 가작에 정원건축(박운웅)안과 인토건축(백문기)+구암건축(최윤식)+전인호 안을 각각 선정했다. 심사에는 조성룡(도시건축), 민현식(한국종합예술원), 이범재(단국대), 송인호(서울시립대), 박만식(충남대), 송태복(한남대 사무처장), 김억중(한남대 건축과), 최영근(한남대 응용미술학과), 신동민(한남대 문헌정보학과)씨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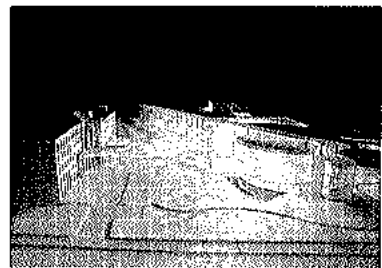
▶ 당선작 / 시몽건축 (변희협+홍순재)



투시도



모형도1



모형도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한남대학교 캠퍼스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 용지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4,696.41㎡(1,420.6평)
연면적	18,573.61㎡(5,618.5평)
구조	철조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요의장재	적벽돌처장쌓기+24mm 컬러복층유리
설계	시몽건축(변희협+홍순재)
설계담당	김숙향, 박희욱, 장병권, 이정우, 이남권, 이태영

한남대 캠퍼스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다. 그러나 자연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갖는 제1의 의미가 자연과 같이 꾸밈이 없다는 것이라면 한남대 캠퍼스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자연발생적이다, 자연과 같이 거칠다는 제2의 특성에 더 부합된다. 이 말은 곧 한남대 캠퍼스가 건축가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의도되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견으로 질서가 없어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자연은 질서가 없지 않다. 다만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것 뿐일텐데, 한남대 캠퍼스의 Master Plan은 그래서 질서가 없어보인다(질서가 없어보이는 것은 어쩌됐든 괴로운 일이다).

주어진 현상설계 지침서를 숙독하면서 우리는 전체 한남대 캠퍼스를 아우르는 질서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또 한번의 자연스러운 증식(?)에 의존해야 하는 건지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주어진 Site는 기존 중앙도서관 전면의 광장에서 연못으로 이어지는 제3권역으로 북·동쪽으로 단과대 건물들이 감싸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널찍한 교정이 펼쳐있어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대학의 종합정보센터 부지로서는 최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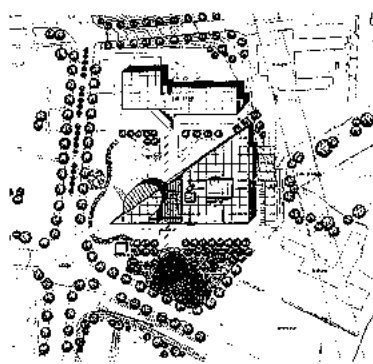
다만 제멋대로인 방사형도로나, 플라타나스, 아카시아, 소나무 등의 수종이 널버려진 언덕 산림은 보존해야 할 공간과 극복해야 할 공간으로의 변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곳은 목사관, 생활관 등의 단층짜리 적벽돌 건물들과 나름대로의 산책로 등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녹녹히 이어져 내려온 곳으로 초기 선교사들과 교육가들의 추억이 파헤쳐질 아쉬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재래식 보존서가가 중심인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강의실, 시스템 관리를 위한 중앙전산소가 주 내용이며 이의 기능과 조직을 통한 운영하는 종합정보센터로서 대학내외 및 센터내외에 화상정보를 처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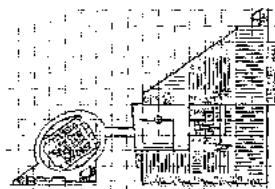
21C가 더욱 치열한 문화 전쟁의 시대가 되려란 것은 분명하다.

그 생존전략으로 문화를 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미래 정보화사회에서 재래식서가는 자료의 축적외에 다른 공간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 대응하는 도서관이란 정보의 단순한 축적보다는 정보의 교육과 재발생, 통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멀티플 정보전산센터가 바람직하다. 정보와 지식으로의 권력이동을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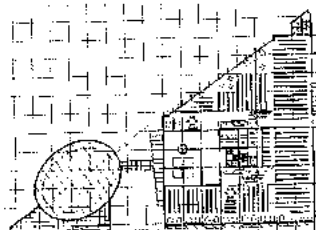
상화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캠퍼스의 중심에 놓고, 쌓여가는 정보의 확장성을 고려해 서가의 배치를 결정하였으며 기존도로와, 대지의 변형을 최소화한 형태를 계획하였다. 기존의 중앙도서관과 산설도서관, 그 사이의 광장, 전면 연못을 포괄하는 도서관단지를 엄두해 두었고, 자연발생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를 갖추어가는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구상하였다. (글 / 시몽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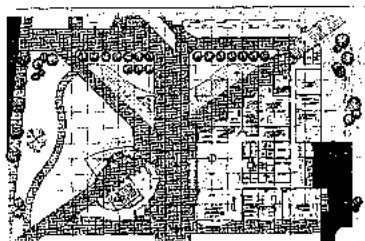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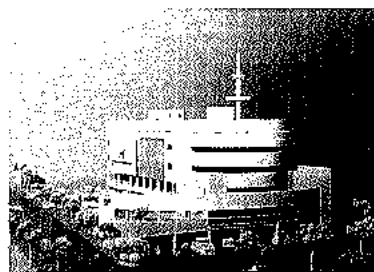
동작소방서

Dongjak Fire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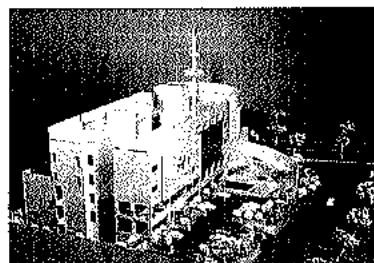
기존 소방서와 달리 국내 최초로 도입이 시도되는 방재 체험관이란 교육시설과 화재 및 긴급 재난의 방지 및 대처를 위해 동작소방서가 현상설계경기됐다.

총 4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7월 21일 (주)에·지·원 건축(원명호+안종성+백창흠)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 당선작 / (주)에·지·원건축(원명호+안종성+백창흠)



모형도1



모형도2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4,902.50㎡
건축면적	1,940.50㎡
연 면 적	8,694.25㎡

건 폐 율	39.58%
용 적 륜	143.09%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추후 7층 증축 예정)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물갈기 알루미늄 복합페널, 커튼월
주차대수	76대
설계담당	이종현, 호대혁, 윤창길, 김영주, 김양은, 박규원, 오경화, 박희영

동작소방서 현상설계는 기존 소방서와 달리 국내최초로 도입이 시도되는 방재 체험관이란 교육시설과 화재 및 긴급 재난의 방지 및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 설계경계였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방재 체험관을 언제 있을지 모를 재해 및 인재를 가상체험을 통해 대처방법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국의 유사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주어진 짧은 기간에 모든 기능과 역할을 분석, 계획에 도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던 시설물로 앞으로도 더욱 연구될 아쉬움이 남는 계획안이었다.

배치 및 평면계획

- 주어진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기능과 긴급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기능을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 출구를 분리함으로써 확실한 기능을 분리 하였으며,

- 방재 체험관 출입구 정면에 Open Space를 두어 내·외 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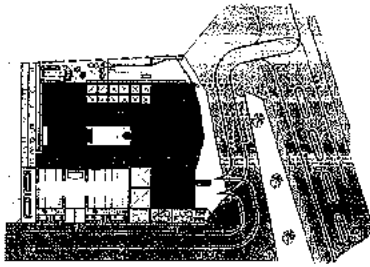
- 또한 유사 기능 및 시설물을 인접 배치 함으로 평면의 효율성 및 기능을 강화 하고 특히 교육시설인 방재 체험관은 복도접속 형식으로 각 파트별 관람 및 교육이 종료 및 시작되는 공간에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함으로 교육 및 관람에 극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입면 및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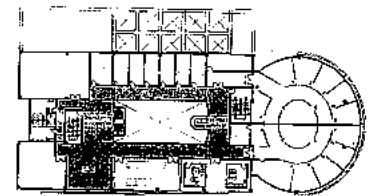
- 주변 경관 및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며, 종전의 소방서의 형태 및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커튼월 및 알루미늄페널 등의

현대적 재료와 매스를 선택, 신선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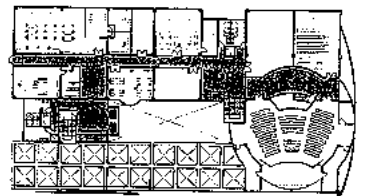
- 적극적 자연채광 및 환기시설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과 기능을 갖는 단면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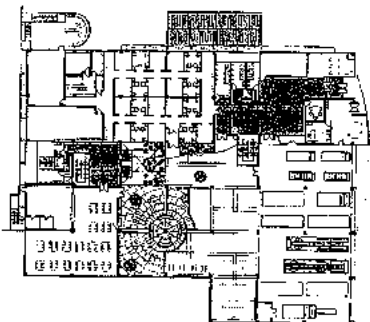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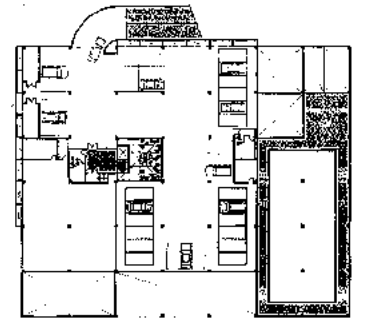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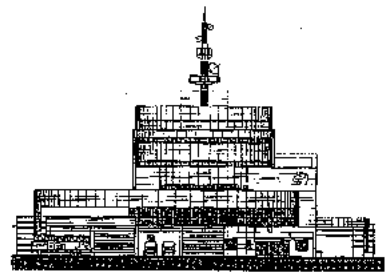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김해문화예술회관

Kimhae Culture & Arts Center

김해시는 총 11개 작품이 접수된 김해문화예술회관 설계경기 심사결과를 7월 25일 발표했다.

최우수작에는 다을건축(신동재+강남홍)안, 우수작에 성림건축(임장렬)안, 가작에 삼민건축(민병호)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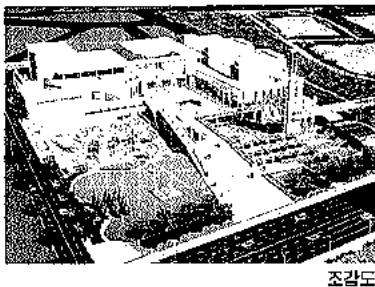
이 심사에는 공창석(김해부시장), 김성옥(김해건설도시국장), 박민정(김해시의원), 이경희(연세대), 김진균(서울대), 최무혁(경북대), 이상정(경상대), 함정도(서울산업대), 송호산(동의대), 김민수(경성대), 홍광표(동국대), 김창덕(광운대)씨가 참여했다.

최우수작 다을건축안은 김해시의 발전축과 김해박물관의 연결 등이 이 문화회관을 추후 김해시의 문화 중심 및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작품으로 내부보다 외부공간이 시민에게 활용도가 높도록 깊이 연구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우수작 성림건축안은 중심성이 강한 외부공간 구성과 동선 기능 계획이 우수하여 단일 건물로서의 기능, 동선, 형태 등이 잘 처리된 작품성이 뛰어나고 김해시의 상징성이 뚜렷한 작품이나 외관(작품성) 위주의 계획으로 내부 평면 형태와 외부공간 형태가 다소 부조화를 이루며 인접 환경에 대해 다소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다.

가작 삼민건축안은 하이테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단순하며 시원스러운 공간구성이 돋보인다. 또 전체적으로 펼쳐진 기능의 배치는 동선, 형태와 함께 나름대로 외부공간 및 주변공원, 기타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성, 문화·역사성의 표현 미흡으로 김해의 상징성이 부족하여 김해지역에 어울리지 않고 터미널 같은 느낌을 준다. 또 현대적 형태를 지니면서도 상업지구와 연계된 지구 도시축의 설정이 너무 강해 전면 광장의 공간성, 효율성은 물론 경관적 안전성이 떨어져 전체적인 짜임새가 결여된 계획이라는 평을 받았다.

▶ 최우수작 / 다올건축(신동재+강남홍)



조감도

대지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11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33,058㎡(10,000평)
건축면적	13,754.0㎡(4,160.6평)
연면적	37,615.8㎡(11,378.8평)
건폐율	41.6%
용적률	78.1%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부분 철골트러스)
주차대수	304대(지하261대, 지상43대)
조경면적	8,270.6㎡(2,501.9평)
외장재	투명복층유리, 저반사복층유리, AL복합페널, 화강석(A, B)

배치개념

축(Axis)

- 4개의 축을 도입하여 형태 및 개념 형성
- 자연축(Natural Axis): Main Lobby를 중심으로 한 방위에 의한 축
- 문화축(Cultural Axis): 연지공원, 문화예술평화, 주상복합지구를 연결하는 가야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는 축

- 도시축(Urban Axis): 35m 도로에 직각으로 다목적홀 로비의 형태를 결정하는 축
- 진입축(Approach Axis): 자연축에 대한 도시축의 선대칭으로서 주진입을 유도하는 축

성(聖, Sacred)과 속(俗, Profane)

- Main Level의 분리에 의해 외부배치 개념 형성

- 성(聖, Sacred)의 공간: +3의 Level에 형성되며 로비, 중앙광장, 상징조형물, 진입 Deck, 진입광장의 축에 의한 공간

:엄숙하고 고요하며 조망용 공간 형성

:공연시 개방되는 공간으로 이어짐

- 속(俗, Profane)의 공간: -1.5의 Level에 형성되며 문화예술센터, 문화매장, 레스토랑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전통놀이마당, 수공간, 방향성이 있는 식재 등 가야문화의 거리축에 의한 공간

:활발한 행위의 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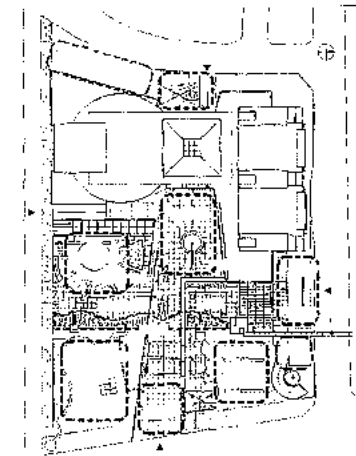
:상시개방되는 공간으로 이어짐

반복과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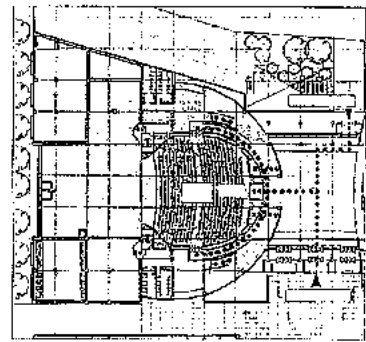
- 사각형 폴리, 소공연장과 다목적홀의 Mass. 계단코야 등의 반복에 의해 리듬감을 부여하며 진입유도축을 형성

전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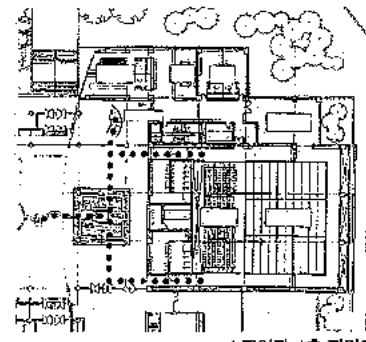
- 전통사찰의 배치개념 도입
- 입구공-수공간-진입공간-목적공간-대웅전-후면공간으로 이어지는 전통요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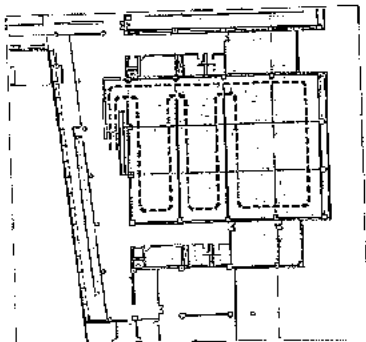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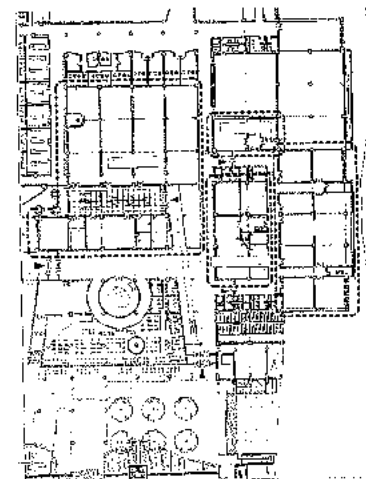
대공연장 1층 평면도



소공연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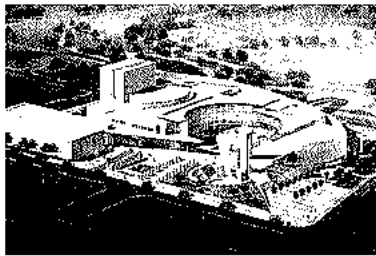


다목적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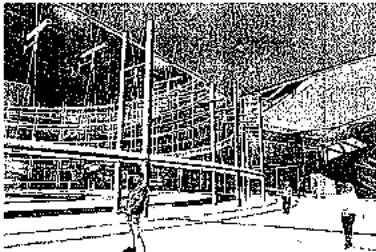


문화예술정보센터 1층 평면도

▶ 우수작 / 성림건축(임장렬)



조감도



투시도

대지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11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33,057.85㎡
건축면적	10,801.75㎡
연 면 적	36,311.08㎡
건 폐 율	32.68%
용 적 른	58.85%
규 모	가야문화센터동 지하2층, 지상 3층
	대강당 : 1320석
	소강당 : 453~553석
	생활문화센터동 지하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364대(지상 113대, 지하1층 188대, 지하2층 63대)
외 장 재	화강석 배너구이, 24THK 투명 복층유리
부대시설	전통놀이마당, 잔디광장, 분수대, 휴게시설, 조각공원, 가로공원

배치개념

도시화 : 건물을 단일화, 한정화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도시의 Open Space로 할애한다.

통합 : 외부 공간을 복합된 단일 공간으로 연결가능토록 계획한다.

조닝 : 도시로 환원된 Open Space를 주변 상황에 따라 특성화시킨다.

· 중축 : 타원의 접선에서 파생되어 중앙 광장과 연결된 중축부지를 확보한다.

교통계획 개념

보행자 동선

- 일시적 접근 : 공간과 시설간 연계 동선으로 커다란 흐름을 유도한다.
- 간헐적 접근 : 다양한 접근 형태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량 동선

- 주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간선 도로부터의 접근을 유도한다.
- 이용객과 서비스 관리 차량을 분리, 내부 순환 체계를 계획한다.

외부공간 계획 개념

옥외 전시 시설

- 해반천 건너 박물관과의 연계선상에 위치
- 과거-현재, 실내-실외의 구분을 탈피하고 통합적 목적성을 확보

전통놀이 마당

- 전통극등 옥외행사를 수용
- 지면에서 지하로 경사지게 계획
- 도로로부터 소음을 차단시키고 공원을 위한 집중력을 충족

중앙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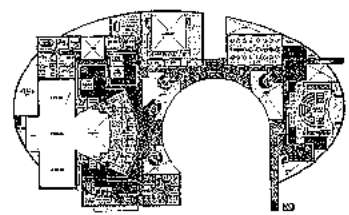
- 각 전용시설을 포괄하는 상징적 공간
- 김해시의 역사, 문화의 정서를 표현
- 연지공원과의 연결브리지, 휴게공간
- 북측공원의 휴식 여가 기능이 Over Bridge의 직접적 연결을 통하여 부지 내로 유입, 시설간 연계성을 확보

옥외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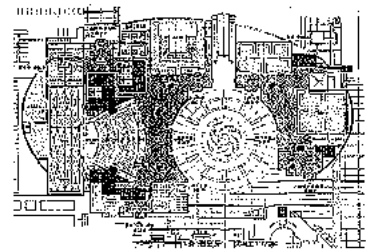
- 출연자, 관리인의 주차공간과 무대도구, 물품반입에 따른 주차, 서비스 공간
- 20m도로의 소음차단을 위한 Buffer Zone

중축부지, 선큰

- 2, 3단계 생활체육시설 중축부지를 확보하고 중앙광장과 연결될 수 있게 한다.
- 전면의 상업문화물 성격이 유입되도록 선큰광장을 설치 Open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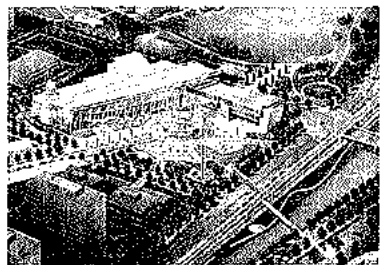


생활체육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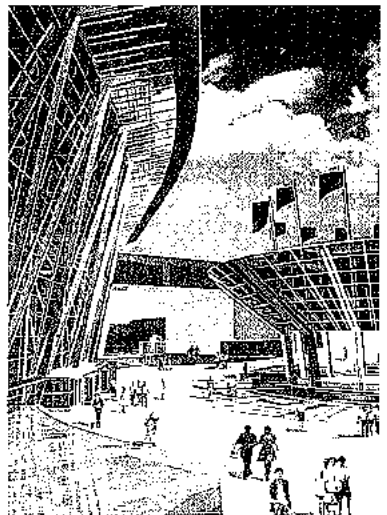


생활체육센터 1층 평면도

▶ 가작 / 삼민건축(민병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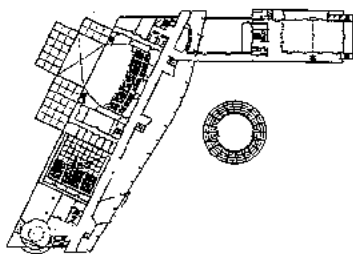
투시도

대지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11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내외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33,058.0㎡(10,000평)
건축면적	10,178.97㎡(3,079평)
건 폐 율	30.79%
용 적 른	4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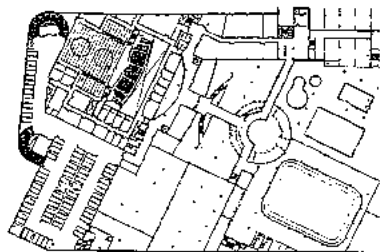
연 면 적 38,254.99㎡(11,571평)
층 수 지하2층, 지상3층
구 조 철골트러스+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274대(옥내:216대, 옥외:58대)

배치계획

- 다목적 시설과 전문적 전용시설을 복합화한다.
- 영역성 확보와 복잡한 동선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용공간을 매개 공간화(로비)
- 역사성, 상징성을 위한 랜드마크(Land Mark)적인 형태와 재료
- 물고기모양, 김해의 상징꽃을 연상하는 잔디광장의 수로, 전통건축을 현대화된 로비의 Blade
- 각시설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 및 영역성 확보를 위한 연결다리
- 김해박물관 및 문화의 거리로의 연결 보릿지
- 문화행위의 창조자와 관람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무대와 객석을 융통성 있게 계획
- 다목적홀의 가변성
- 옥외 공연시설 및 휴식공간을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 개방화, 건물외벽 및 옥외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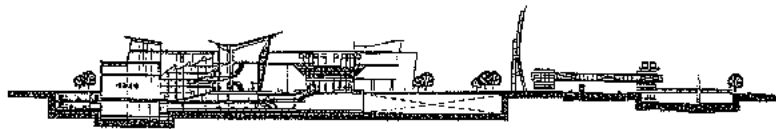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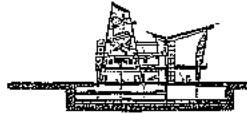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남측면도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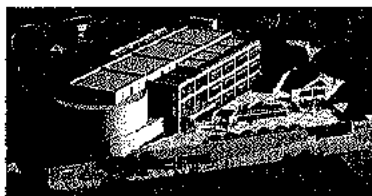
단면도2

단대시립도서관

Dandae Municipal Library

성남시는 단대시립도서관 설계경기를 턴키발주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현상설명회에서는 총 23개 팀이 입찰을 의뢰하였으나 최종입찰에는 2개 팀만이 참가하였다. 성남시는 7월 11일 경기도 내 22명의 기술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쳐 (주)토문건축(최두호, 한남수, 최기철)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 당선작 / 토문건축(최두호, 한남수, 최기철)



조감도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24
대지면적	13,642㎡
건축면적	3,295.21㎡
연 면 적	8,148.82㎡
건 폐 율	1.76%
용 적 륜	4.1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설계담당	신동훈, 임철, 김운관, 문웅현, 박해욱, 서운철

붙음

다시 만든 언덕 : 기존 공원, 산, 자연... 산에 오르는 것은 인위적, 양식적, 제도적인 도시질서에서 다른 질서로의 전이... 자신을 재발견... 그래서 언덕은 벗어던지는 절차...

틀어 앉음 : 자연, 도시질서도 아난... 그 사이에 새로운 질서... 하나의 신성소로써 구분되어 지고 싶어하는, 고상해지고 싶어하는, 도서관이 원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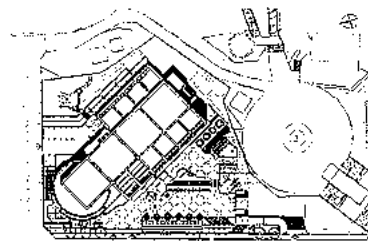
열린, 반복된 격자의 레이어 : 투명성... 막고 서는, 강요하는 것이 아난... 자유의 지, 자유선택, 자유해석의 기회, 가능성을 품고 있는... 다가치성.

두 종류의 격자+서고 : 중심격자는 원형으로서의 책, 지식, 변하지 않은 진리 담기... 외곽격자는 어느 개인에게 주어짐... 밝은, 개인 자리로 내보내짐... 서고는 지친 책이 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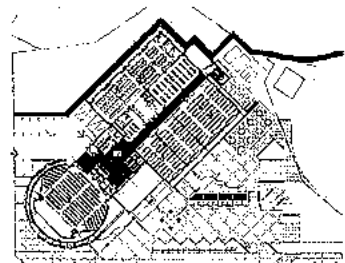
문제해결

지질 : 지표로부터 3m에 연암층 6m에 경암층, 분절 형태의 단면은 지하암 변형 최소화.

높이제한 : 군항공기지법에 의거 최고건물 높이 12m로 유지.



배치도



3층 평면도

계획작품 blueprint

춘천 S교회

일산 장항 822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실촌면 유사리 전원주택

춘천 S교회

ChunCheon S Church

최영집 / 탑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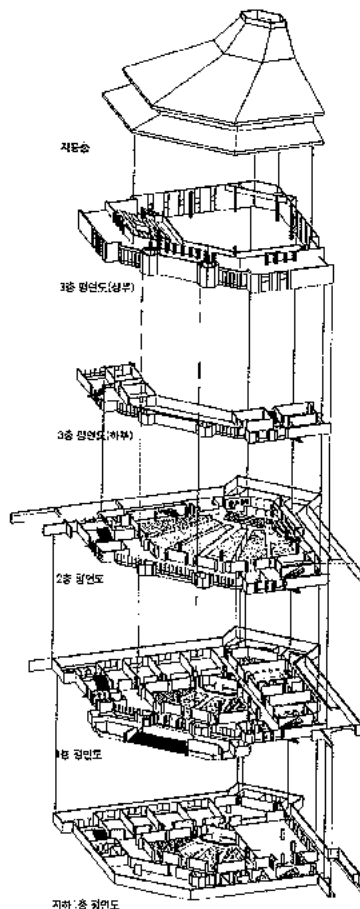


모형도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산63-2
대지면적	17,004㎡
건축면적	1,383㎡
연 면 적	4,194㎡
건 폐 율	8.13%
용 적 륜	16.53%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Glue Laminated구조

주차대수	약 300대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적벽돌치장 쌓기+동판기와가락잇기
설계담당	박재남, 이승호
모형제작	이승호, 정재운

깨끗한 호반도시 춘천의 아산을 형질변경하여 아늑한 전원교회를 계획한다. 도심에서 좀지만 오랫동안 춘천의 신앙을 지켜온 S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앞장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전하기로 하고 춘천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새 부지를 마련한 것이다. 상당한 토목공사를 수반해야 할 지형에 최대한 건축 요구조건을 수용하려다 보니 평면형태가 동북향의 정면을 갖는 부채꼴이 되었다. 정면의 상징적 출입구와 함께 대청성을 강조하였고 대지레벨을 이용, 각 층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동선을 계획하였다. 약 1,200석 정도의 예배석을 갖는 본당은 부채꼴 형상에 맞추어 설교단으로 집중되며 다목적 예배공간으로 계획된다. 지붕구조는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도입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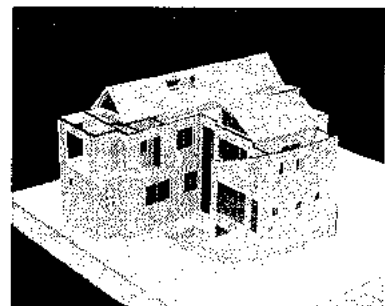


적용하고 있는 Glue Laminated 목구조로서 구조미를 한껏 자랑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겹쳐마로 분리된 지붕은 채광과 환기 등의 기능적 해결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1층과 지하1층은 2, 3층의 본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주차 마스터플랜에 의거 교육관, 사회관 등의 건물이 증축될 때 본당은 중심의 위치에서 종탑과 함께 상징성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글 / 최영집)

일산 장항 822

Ilisan Changhang 822

송광섭 / 한건축



모형도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822
지역지구	도시계획, 주거전용지구
대지면적	233.5㎡
건축면적	110.38㎡
연 면 적	244.96㎡
건 폐 율	47.27%
용 적 륜	79.73%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장재료	벽 - 신도석 처장쌓기 지붕 - 동판글 없기
건축설계	박정란, 박준영
전기설계	서창엔지니어링
설비설계	보우설비
설계기간	1997. 2~1997. 6

신도시 세 갈래 길모퉁이

항시 그렇듯이 빈 대지에 원가 채워넣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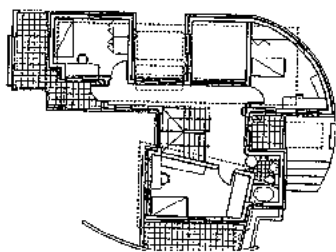
야 하는 작업이 늘 버겁기 그지없다. 노출된 그 곳은 원가 반쯤 가려진 모습으로 슬며시 보여지는 내면의 모습과 풍광들, 시선의 멈춤, 몸체의 일부분은 분명 방어적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 같다.

도로면을 휘감은 둥근 벽과 가벽, 차면 벽, 캐노피는 이 집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로 알리는 건축적 장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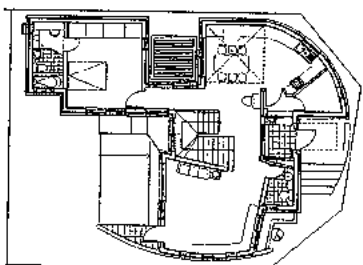
마당을 싸안는 두 개의 상반된 매스는 중간영역인 계단실로 인해 분절되어 있다. 이 중간영역은 출발점과 연속되어야 할 내부길의 방향과 느낌을 갖게 하고 제한된 풍경을 담게 하는 중요한 매개공간이 될 것이다.

길거리에 나왔은 것 같은 이 집은 중간과 정에서 그 격렬한 몸짓(?)을 걸러낼 것이다. 동적에서 정적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순환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시각적 변화, 수단과 요소로서 경사진 잔디마당, 널마루와 난간이 있는 조그만 다리, 발코니, 가벽에 뚫린 구멍이 있는 테라스, 반투명 가림막에 가려진 썸머마당 등. 이러한 요소의 도입은 늘 시작과 끝이 반전되고 시선의 이동과 멈춤에 따라서 풍경을 찾을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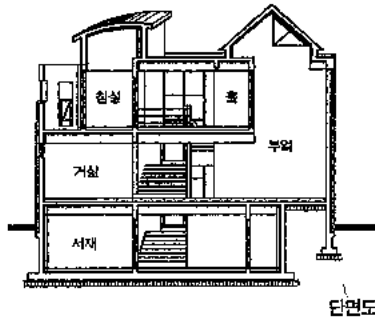
중간 매개체인 산책로 같은 이 길의 모습은 변화하는 순환체계와 더불어 잔잔한 감동과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집의 특징이 될 것이다. (글 / 송광식)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Youngdong Highway Service Area

아관직 / 이공건축



상행선 조감도



하행선 조감도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고림리
지역지구	도시계획지역외
대지면적	상행선 - 32,942㎡ 하행선 - 33,417㎡
건축면적	상행선 - 1,827.22㎡ 하행선 - 1,791.92㎡
연 면 적	상행선 - 2,576.29㎡ 하행선 - 2,409.31㎡
건 폐 율	상행선 - 5.55% 하행선 - 5.36%
용 적 륜	상행선 - 7.82% 하행선 -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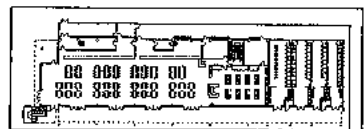
규 모 상행선 - 지하1층, 지상2층
하행선 -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담당 조중연, 박영재

기존건물이 있는 휴게소를 증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건축주는 매우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이다. 건축주로부터 증축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매우 난감했다. 내가 설계하지 않는 건물의 증축설계를 한다는 것은 먼저 설계자에 대해 불편을 주는 일이고 또한 기존의 건물을 살려서 좋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번 설계를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동안 증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경쟁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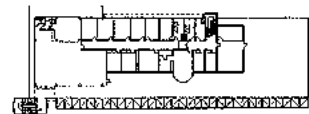
기존 건물의 조형상 특성을 살리고 그 특성을 증축에 있어서 건물의 기본 패턴과 이미지로 살린다면 오히려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다. 우연인지 배려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안이 결정되었다. 그후 몇 번을 검토 변경하였다. 증축이라는 기본적인 제약과 예산문제 등으로 산재된 많은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글 / 이관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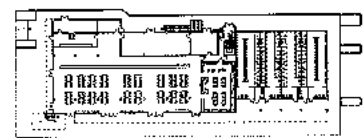
상행선 2층 평면도



상행선 1층 평면도



하행선 2층 평면도



하행선 1층 평면도

부산전자월드 X-ZONE

X-ZONE

(주)남산건축+Anthony J. Lumsden& Associates(L.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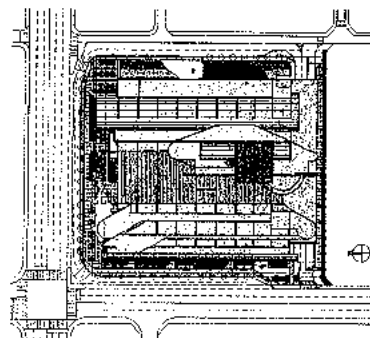
투시도

위 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
대지면적	16,546.60㎡
건축면적	9,983.40㎡
연 면 적	192,233.19㎡
주 용 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창고시설
구 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8층, 지상30층
주차대수	2,077대
외장재료	알루미늄 복합패널, T24mm 파스텔 목층유리
설계담당	남산건축 - 이웅철, 김한희, 정승진(건축), 이보형(구조), 한상대(기계), 하영호(전기), AJLA - 김한준, 이재행(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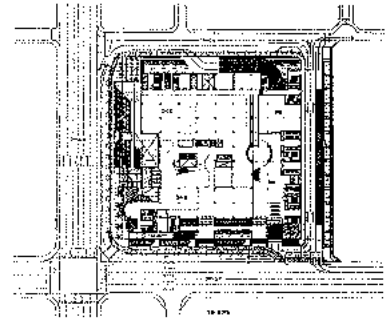
21C 국제도시 부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첨단 하이테크 전자유통시설로서, 전문적이고 독특한 도시의 테마 파크 및 종합전자레저의 Super Complex로 계획되어, 첨단전자제품의 유통혁신은 물론 다양한 테마시설계획을 통한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선도할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 건축물은 첨단전자제품이 주는 이미지, 창조성 및 기계미학을 표출하는 건축물의 형태 그 자체로도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는 물론 지역전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3차원의 시각적 투명성을 부각하여 살아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건물의 이미지를 주체화하였다. 즉 고층부의 커튼월에 의한 도시적 투명성, 대규모 아트리움에 의한 수평·수직공간의 3차원 시각적 투명성, 투명성에 의한 주·야간의 이미지 변화 등을 통하여 어두운 도시의 새로운 상징물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독특한 배치 및 형태로 특성화된 건축물에 의한 타경쟁시설과의 상업적 차별화를 통하여 광고·간판이 필요없는 건축을 자체에 의한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공간구성을 보면, 이 지역 최대의 전자전문점인 종합전자 유통센터(2층~6층), 총2,000석 규모의 대규모 극장과 각종 테마 식당가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 센터(7층~10층), 젊은이를 위한 체험적 교육공간 개념을 도입한 영 스트리트(B1층), 각종 전자제품의 전시기능을 수행할 전시로비(1층), 기능연결공간이면서 이벤트적인 공간감을 창출하여 화제의 장소가 될 대규모 아트리움(1층~8층) 및 2,000대 이상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간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집객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규모 아트리움과 쇼핑물 형태의 점포구성을 통하여 쇼핑의 쾌적함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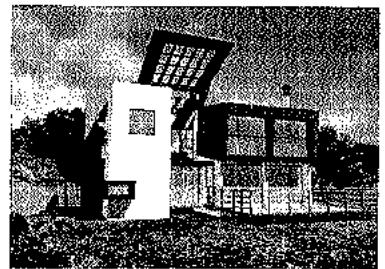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실촌면 유사리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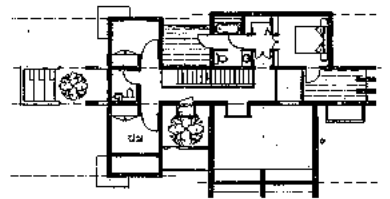
Yusari Residence, Kwangju-gun

이항섭+이호윤 / 남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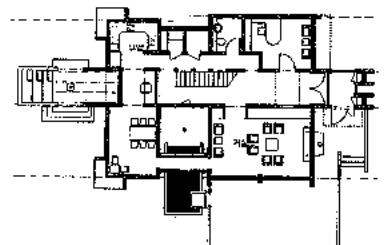


투시도

위 치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유사리 195
대지면적	4,855.0㎡
건축면적	108.72㎡
연 면 적	159.17㎡
규 모	지상2층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7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1천7십6만4천4백27㎡ 보다 23.6%(2백5십4만4천9백84㎡) 감소한 8백2십1만9천4백4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 누계 6천8백2십3만1천7백90㎡ 보다 5.4%(3백6십7만8천42㎡) 증가한 7천1백9십만8백32㎡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6월분 1천2십9만1천68㎡보다 20.1%(2백7만1천6백25㎡) 감소한 8백2십1만9천4백43㎡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강 원	264,265	333,744	69,479	26.3
충 북	223,661	417,891	194,230	86.8
전 북	195,136	264,453	69,317	35.5
전 남	100,221	168,969	68,748	68.6
제 주	45,720	67,709	21,989	48.1
감소지역				
서 울	4,870,224	3,742,720	(1,127,504)	-23.2
부 산	758,275	610,210	(148,065)	-19.5
대 구	945,658	313,188	(632,470)	-66.9
인 천	381,113	208,186	(172,927)	-45.4
광 주	423,111	191,125	(231,986)	-54.8
대 전	100,081	97,152	(2,929)	-2.9
경 기	1,464,563	1,068,101	(396,462)	-27.1
충 남	201,667	149,936	(51,731)	-25.7
경 북	213,625	167,337	(46,288)	-21.7
경 남	577,107	418,722	(158,385)	-27.4
합 계	10,764,427	8,219,443	(2,544,984)	-23.6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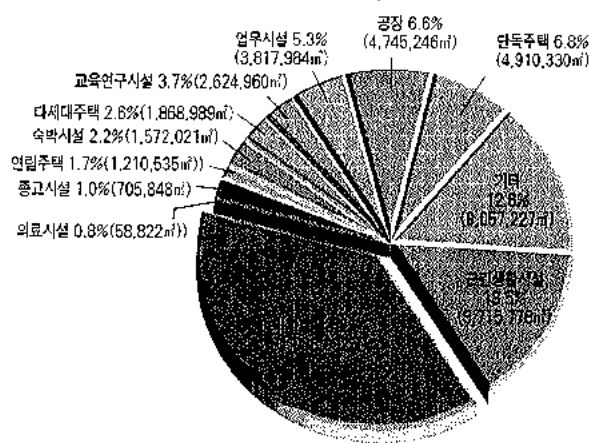
단 목 주 택	754,403	595,907	(-21.0%)
다 세 대 주 택	297,550	268,019	(-9.9%)
연 립 주 택	297,550	268,019	(-33.7%)
아 파 트	1,471,304	1,254,233	(-14.8%)
근린생활시설	96,101	90,907	(-5.6%)
종 교 시 설	51,808	93,692	(80.8%)
의 료 시 설	419,061	321,523	(-23.3%)
교육연구시설	605,791	537,029	(-11.4%)
업 무 시 설	267,519	183,863	(-31.3%)
숙 박 시 설	696,531	508,413	(-27.0%)
공 장	1,246,011	1,243,198	(-0.2%)
기 타			

0 1,000 2,000 3,000 (연면적/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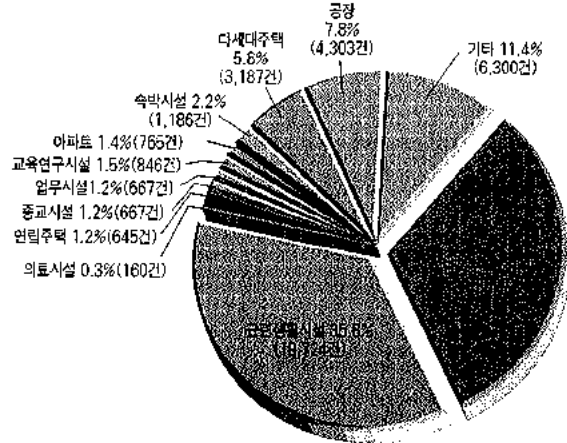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 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 도											
단 목 주 택	5,224	5,289	1,766,103	1,984	2,083	595,907	(3,240)	(3,206)	(1,170,196)	-66.3	
다 세 대 주 택	877	926	481,463	416	445	268,019	(461)	(481)	(213,444)	-44.3	
연 립 주 택	172	178	241,377	92	92	139,920	(80)	(86)	(101,457)	-42.0	
아 파 트	115	247	3,582,278	101	241	2,982,739	(14)	(6)	(599,539)	-16.7	
근린생활시설	3,733	3,856	1,727,772	2,630	2,714	1,254,233	(1,103)	(1,142)	(473,539)	-27.4	
종 교 시 설	109	115	94,171	95	103	90,907	(14)	(12)	(3,264)	-3.5	
의 료 시 설	17	18	47,392	19	20	93,692	2	2	46,300	97.7	
교육연구시설	137	143	324,883	143	172	321,523	6	29	(3,360)	-1.0	
업 무 시 설	87	92	301,736	113	115	537,029	26	23	235,293	78.0	
숙 박 시 설	172	171	211,569	196	209	183,863	24	38	(27,706)	-13.1	
공 장	695	910	894,880	605	761	508,413	(90)	(149)	(386,467)	-43.2	
기 타	1,072	1,228	1,090,803	1,013	1,162	1,243,198	(59)	(66)	152,395	14.0	
합 계	12,410	13,173	10,764,427	7,407	8,117	8,219,443	(5,003)	(5,056)	(2,544,984)	-23.6	()=미아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7월 누계)



연면적 (총 71,909,832㎡)



건수 (총 55,087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228	4,232	4,870,224	1,104	1,104	3,742,720	(3,124)	(3,128)	(1,127,504)	-23.2	
부산	668	905	758,275	326	507	610,210	(342)	(398)	(148,065)	-19.5	
대구	646	646	945,658	472	472	313,188	(174)	(174)	(632,470)	-66.9	
인천	448	455	381,113	227	228	208,186	(221)	(227)	(172,927)	-45.4	
광주	349	419	423,111	329	360	191,125	(20)	(59)	(231,986)	-54.8	
대전	232	234	100,081	166	170	97,152	(66)	(64)	(2,929)	-2.9	
경기	2,635	2,789	1,464,563	1,390	1,590	1,068,101	(1,245)	(1,199)	(396,462)	-27.1	
강원	514	559	264,265	776	847	333,744	262	288	69,479	26.3	
충북	442	492	223,661	427	494	417,891	(15)	2	194,230	86.8	
충남	363	311	201,667	321	273	149,936	(42)	(38)	(51,731)	-25.7	
전북	246	246	195,136	254	254	264,453	8	8	69,317	35.5	
전남	230	255	100,221	304	320	168,969	74	65	68,748	68.6	
경북	492	585	213,625	398	428	167,337	(94)	(157)	(46,288)	-21.7	
경남	795	911	577,107	719	865	418,722	(76)	(46)	(158,385)	-27.4	
제주	122	134	45,720	194	205	67,709	72	71	21,989	48.1	
합계	12,410	13,173	10,764,427	7,407	8,117	8,219,443	(5,003)	(5,056)	(2,544,984)	-23.6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7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7,536	17,568	31,502,345	9,424	9,470	30,865,090	(8,112)	(8,098)	(637,255)	-2.0	
부산	4,992	6,609	6,121,009	3,265	5,084	8,952,572	(1,727)	(1,525)	2,831,563	46.3	
대구	5,968	6,012	4,453,459	3,300	3,303	4,120,529	(2,668)	(2,709)	(332,930)	-7.5	
인천	2,540	2,569	2,634,153	1,962	1,999	3,588,409	(578)	(570)	954,256	36.2	
광주	2,160	2,574	1,751,233	2,746	3,112	1,779,589	586	538	28,356	1.6	
대전	2,235	2,272	1,251,716	1,962	1,992	1,095,898	(273)	(280)	(155,818)	-12.4	
경기	12,801	13,959	7,770,874	10,469	11,784	7,210,622	(2,332)	(2,175)	(560,252)	-7.2	
강원	3,078	3,345	1,316,858	3,375	3,680	1,429,664	297	335	112,806	8.6	
충북	2,730	3,041	1,450,784	2,979	3,554	2,348,413	249	513	897,629	61.9	
충남	2,124	1,905	1,345,353	2,311	1,835	1,393,510	187	(70)	48,157	3.6	
전북	1,593	1,595	1,219,775	1,463	1,463	1,251,694	(130)	(132)	31,919	2.6	
전남	2,153	2,380	1,053,455	2,360	2,539	1,322,794	207	159	269,339	25.6	
경북	3,144	3,836	1,669,891	2,841	3,125	1,368,618	(303)	(711)	(301,273)	-18.0	
경남	6,605	7,565	4,180,474	5,548	6,413	4,728,906	(1,057)	(1,152)	548,432	13.1	
제주	1,075	1,166	510,411	1,082	1,206	453,524	7	40	(56,887)	-11.1	
합계	70,734	76,396	68,231,790	55,087	60,559	71,909,832	(15,647)	(15,837)	3,678,042	5.4	()=마이너스